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and needs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in Goyang City

#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전성훈  
오은지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and needs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in Goyang City

##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 연구책임자

전성훈(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오은지(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발 행 일 2019년 10월 31일

저 자 전성훈, 오은지

발 행 인 이재은

발 행 처 고양시정연구원

주 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 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http://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89636-30-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고양시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요약 .....	i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	---

제3절 연구의 체계 .....	8
------------------	---

제2장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 .....	9
----------------------------	---

제1절 다문화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 .....	11
------------------------------	----

제2절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 .....	14
--------------------------------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21
-------------------	----

제3장 다문화가족 현황 분석 .....	27
-----------------------	----

제1절 전국의 다문화가족 현황 .....	29
------------------------	----

제2절 지방자치단체(광역시)의 다문화가족 현황 .....	58
---------------------------------	----

제3절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현황 .....	75
-------------------------	----

제4절 소결 .....	102
--------------	-----

제4장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분석 .....	107
--------------------------	-----

제1절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	109
-----------------------------	-----

제2절 광역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	135
-------------------------------	-----

제3절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	143
----------------------------	-----

제4절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	151
제5절 소결 .....	174
<b>제5장 다문화가족 실태 및 욕구 분석 .....</b>	<b>177</b>
제1절 조사 설계 .....	179
제2절 조사 내용의 구성 .....	182
제3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	184
제4절 고양시와 전국기준과의 비교분석 .....	230
제5절 심층면접(FGI) 분석 결과 .....	256
<b>제6장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 제언 .....</b>	<b>267</b>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269
제2절 정책 제언 .....	274
<b>참고문헌 .....</b>	<b>277</b>
<b>부록 .....</b>	<b>283</b>
<b>Abstract .....</b>	<b>313</b>

## 표 목차

[표 1-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표 2-1]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특성 비교 .....	15
[표 2-2] 다문화정책의 유형 .....	18
[표 2-3] 이주자의 적응모형 .....	20
[표 2-4] 지역(마을)공동체 선행연구(학술연구) .....	23
[표 2-5] 다문화정책 관련 선행연구(정책연구) .....	25
[표 3-1] 전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	29
[표 3-2]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	31
[표 3-3]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	33
[표 3-4] 전국의 다문화가족 연령별 현황(2017) .....	35
[표 3-5] 외국인 주민의 국적별 전국분포 현황(2017) .....	37
[표 3-6]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	38
[표 3-7]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	40
[표 3-8]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	41
[표 3-9]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	42
[표 3-10]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	43
[표 3-11]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 .....	45
[표 3-12] 부모의 국적별 외국인주민 자녀 구성 .....	46
[표 3-13]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	47
[표 3-14] 학교급(초·중·고)별 다문화학생 수 추이 .....	48
[표 3-15]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현황 .....	50
[표 3-16] 외국인 특성별 경제활동 현황 .....	51
[표 3-17] 국적별 외국인 취업자 현황 .....	52

[표 3-18]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연도별 추이 .....	54
[표 3-19]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체류현황 .....	55
[표 3-20] 결혼이민자 지역별 체류현황 .....	55
[표 3-21] 혼인귀화자 연도별 추이 .....	56
[표 3-22] 전국의 다문화가구 현황(2015-2017) .....	57
[표 3-23] 시·도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	58
[표 3-24] 시·도별 다문화가족 연령별 현황(2017) .....	61
[표 3-25]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추이 .....	66
[표 3-26] 부모의 국적별 외국인주민 자녀 .....	69
[표 3-27]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 .....	71
[표 3-28] 시·도별 다문화가구 분포 현황 .....	73
[표 3-29]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	76
[표 3-30] 경기도 다문화가족 연령별 현황(2017) .....	78
[표 3-31]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연령별 분포(2017) .....	79
[표 3-32] 경기도의 다문화가구 분포 현황 .....	87
[표 3-33] 고양시의 일반구별 외국인 주민 현황(2016-2017) .....	89
[표 3-34] 고양시의 일반구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	91
[표 3-35] 덕양구의 동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	92
[표 3-36] 일산동구의 동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	95
[표 3-37] 일산서구의 동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	98
[표 3-38] 고양시의 일반구별 다문화가구 분포 현황 .....	100
[표 4-1]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	110
[표 4-2]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	111
[표 4-3]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경과 .....	114

[표 4-4]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의 비전 및 목표 .....	115
[표 4-5]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	116
[표 4-6]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비전 및 목표 .....	117
[표 4-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	119
[표 4-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및 목표 .....	121
[표 4-9] 정책목표별 세부 추진과제 현황 .....	122
[표 4-10] 중앙부처별 세부 추진과제 현황(협력사업 포함) .....	123
[표 4-11] 연도별 투입 예산 규모 추계 .....	124
[표 4-12] 정책목표별 연도별 투입 예산 규모 추계 .....	124
[표 4-1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경과 .....	125
[표 4-14]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의 비전 및 목표 .....	126
[표 4-15]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	128
[표 4-16]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비전 및 목표 .....	129
[표 4-17]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	131
[표 4-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및 목표 .....	132
[표 4-19]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현황 .....	133
[표 4-20] 정책과제별 투입 예산 규모 .....	134
[표 4-21] 광역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근거 .....	135
[표 4-22] 광역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추진경과 .....	137
[표 4-23]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예산 규모(제1차 기본계획) .....	138
[표 4-24]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예산 규모(제2차 기본계획) .....	139
[표 4-25]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예산 규모(제3차 기본계획) .....	140
[표 4-26]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사업 규모(제1차 기본계획) .....	140
[표 4-27]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사업 규모(제2차 기본계획) .....	141

[표 4-28]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사업 규모(제3차 기본계획) .....	142
[표 4-29]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	143
[표 4-30] 경기도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규모 .....	144
[표 4-31] 경기도의 연도별 사업성과 .....	146
[표 4-32] 3차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	150
[표 4-33]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	151
[표 4-34] 고양시의 연도별 사업 규모 .....	153
[표 4-35]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 주체 .....	155
[표 4-36] 세부사업 및 연도별 예산규모 .....	158
[표 4-37] 주요 사업분야의 연도별 예산 및 증감률 추이 .....	161
[표 4-38] 세부사업의 연도별·자원종류별 규모 .....	164
[표 4-39] 고양시의 세부사업별 성과(2013~2015) .....	168
[표 4-40] 고양시의 세부사업별 성과(2016~2018) .....	170
[표 5-1] 실증조사 체계 .....	180
[표 5-2] 설문조사 조사체계 .....	182
[표 5-3] 심층면접(FGI) 조사체계 .....	183
[표 5-4]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	185
[표 5-5] 지원서비스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	187
[표 5-6]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인식 유무 .....	187
[표 5-7]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수혜 유무 .....	188
[표 5-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별 경험 유무 및 만족수준(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188
[표 5-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별 경험 유무 및 만족수준(배우자) .....	191
[표 5-10] 현행 서비스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 .....	192
[표 5-11]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미수혜 사유(순위응답) .....	193



[표 5-12] 고양시 관내 공공기관 및 시설 이용 경험 및 만족수준(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194
[표 5-13] 다문화가족 예비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의 필요성 인식수준(배우자)	195
[표 5-14]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196
[표 5-15] 현재 혼인 및 동거 상태	197
[표 5-16] 배우자 없음(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197
[표 5-17]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하루 기준)	198
[표 5-18] 동거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수준	199
[표 5-19] 배우자의 한국생활에 대한 지원 수준(배우자)	200
[표 5-20] 가정에서의 결정권	201
[표 5-21] 가사노동의 분담 정도	202
[표 5-22] 배우자와 동거 기간	203
[표 5-23] 배우자와 만남 방법	204
[표 5-24]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 수준	205
[표 5-25] 최근 배우자와 다툼 경험	205
[표 5-26] 배우자와 다투는 주된 사유	206
[표 5-27] 배우자와 문제 발생시 행동 패턴(중복응답)	208
[표 5-28] 자녀양육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208
[표 5-29] 현재 자녀 수(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209
[표 5-30]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수준	210
[표 5-31]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5세 미만: 1순위)	210
[표 5-32] 자녀돌봄 분담 수준(5세 미만)	211
[표 5-33]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중복응답)	212
[표 5-34] 사회생활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212
[표 5-35] 한국어 실력 수준	213

[표 5-36] 한국어 능력시험 경험 유무 .....	214
[표 5-37] 한국어 능력시험 등급 .....	214
[표 5-38] 한국어 능력시험 지속적 응시 여부(응시자) .....	215
[표 5-39]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여부(미 응시자) .....	215
[표 5-40]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216
[표 5-41]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 수준 .....	218
[표 5-42] 사회생활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	219
[표 5-43] 현재 직장생활 유무 .....	219
[표 5-44] 현재 직장의 입사 방법 .....	220
[표 5-45]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221
[표 5-46] 직장에서 받는 보수의 수준 .....	222
[표 5-47] 취업활동 유무 .....	223
[표 5-48] 기타 일반사항의 세부질문체계 .....	224
[표 5-49] 현재 한국 체류 자격 .....	225
[표 5-50] 가족들과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배우자) .....	226
[표 5-51] 현재 건강상태 .....	226
[표 5-52] 병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유무(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227
[표 5-53] 고양시에서의 생활만족 및 거주 사유 .....	228
[표 5-54] 향후 고양시에서 계속 거주 의사 .....	229
[표 5-55] 세부질문 비교체계 .....	231
[표 5-56]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수혜 유무 .....	232
[표 5-57]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별 유경험 비중(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233
[표 5-5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별 유경험 비중(배우자) .....	234
[표 5-59] 현재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	234

[표 5-60] 배우자와 만남 방법 .....	235
[표 5-61] 이혼 또는 별거 사유 및 자녀 양육(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236
[표 5-62]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하루 기준) .....	237
[표 5-63]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수준 .....	238
[표 5-64] 최근 배우자와 다툼 경험 및 사유 .....	240
[표 5-65] 배우자와 문제 발생시 대처방법(중복응답) .....	241
[표 5-66] 가정에서의 결정권 .....	242
[표 5-67] 가사노동의 분담 정도 .....	244
[표 5-68] 배우자(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한국생활에 대한 자원 수준 .....	245
[표 5-69]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수준 .....	246
[표 5-70]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중복응답) .....	247
[표 5-71] 한국어 실력 수준(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248
[표 5-72] 한국어 능력시험 경험 유무 및 등급(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250
[표 5-73]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251
[표 5-74] 취업활동 유무 및 어려운 점(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252
[표 5-75] 가족들과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배우자) .....	253
[표 5-76] 현재 건강상태 .....	253
[표 5-77] 병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유무(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254
[표 5-78] 생활만족 수준 .....	255
[표 5-79] 심층면접(FGI) 응답자 특성 .....	256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목적 .....	5
[그림 1-2] 실태 및 욕구분석 체계도 .....	8
[그림 3-1] 전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	30
[그림 3-2]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추이 .....	32
[그림 3-3]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추이 .....	34
[그림 3-4] 전국의 다문화가족 연령별 현황(2017) .....	36
[그림 3-5]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	39
[그림 3-6]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	41
[그림 3-7]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추이 .....	44
[그림 3-8] 부모의 국적별 외국인주민 자녀 구성 .....	46
[그림 3-9]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	47
[그림 3-10] 학교급(초·중·고)별 다문화학생 수 .....	49
[그림 3-11]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현황 .....	50
[그림 3-12]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고용률 .....	53
[그림 3-13] 혼인귀화자 연도별 추이 .....	56
[그림 3-14] 전국의 다문화가구 현황(2015-2017) .....	57
[그림 3-15] 시·도별 다문화가족 현황(2016-2017) .....	60
[그림 3-16]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추이 .....	67
[그림 3-17]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5개 시·도) 추이 .....	72
[그림 3-18] 시·도별 다문화가구 분포 현황 .....	74
[그림 3-19] 경기도 10개 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	77
[그림 3-20] 경기도 다문화가족 연령별 현황(2017) .....	78
[그림 3-21] 경기도내 10개 시 외국인주민 연령별 분포(2017) .....	82

[그림 3-22] 경기도 다문화가구 지역별 현황(2016-2017) .....	88
[그림 3-23] 고양시의 일반구별 외국인 주민 현황(2016-2017) .....	90
[그림 3-24] 고양시의 일반구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	91
[그림 3-25] 덕양구 동별 2016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 .....	94
[그림 3-26] 덕양구 동별 2017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 .....	94
[그림 3-27] 일산동구 동별 2016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 .....	96
[그림 3-28] 일산동구 동별 2017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 .....	97
[그림 3-29] 일산서구 동별 2016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 .....	99
[그림 3-30] 일산서구 동별 2017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 .....	99
[그림 3-31] 고양시 다문화가구 일반구별 현황(2016-2017) .....	101
[그림 4-1] 현행 다문화가족의 적용 범위 .....	113
[그림 4-2] 경기도의 연도별 사업 규모 추이 .....	145
[그림 4-3]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추진구조 .....	152
[그림 4-4] 고양시의 연도별 사업규모 추이 .....	154
[그림 4-5] 주요 사업분야의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 .....	159
[그림 4-6] 주요 사업분야의 연도별 증감률 추이 .....	162
[그림 4-6] 주요 사업분야의 연도별 증감률 추이 .....	162
[그림 4-8] 예산투입 방법의 연도별 비중추이 .....	167
[그림 5-1] 실태 및 욕구분석 체계 .....	181
[그림 5-2] 설문결과 비교분석 체계 .....	230



## 요 약

### 1. 서론

#### □ 연구의 배경

#####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채택

- 현 정부는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에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여 사회적 차별이 없는 공정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모토로 2019년 현재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과제를 포함한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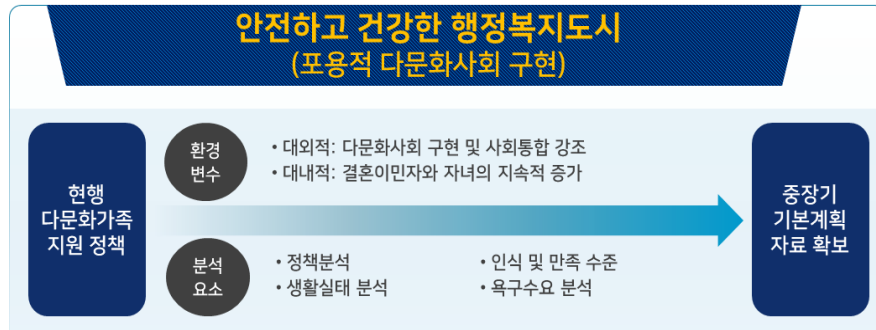
##### ○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대응 필요

- 2008년부터 2017년 현재 까지 고양시 관내 외국인 주민 수는 201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총 18,853명임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총 합계는 2017년 현재, 14,207명으로 2016년 대비 0.6%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

- 고양시는 2008년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및 2012년 전문개정을 통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안정화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지원계획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추진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욕구조사가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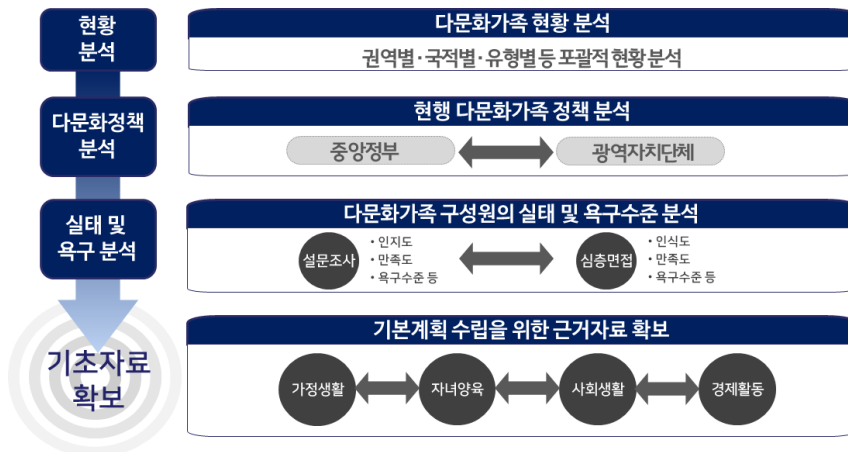
## □ 연구의 목적



##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구분	주요 내용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 고양시 관내
	시간적 범위 □ 2019년 현재
	대상적 범위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혜대상 중 다문화가족
	내용적 범위 □ 현황분석 / 정책분석 / 실태 및 만족수준 분석 / 욕구분석
연구 방법	문헌연구 □ 다문화정책 관련 학술 및 정책보고서 검토
	설문분석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
	심층면접분석 □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집중심층면접조사
	전문가자문 □ 다문화정책 관련 전문가(학계, 정책 및 현장 실무자 등) 자문

## □ 연구의 체계





## 2.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정책

### ○ 다문화와 다문화사회

- 다문화는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문화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또는 사회 안에 함께 존재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다문화사회라 할 수 있음
- 다시 말해서, 다문화사회는 구성원 상호 간에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해있는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구조를 칭함

### ○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

-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 주로 국민통합이나 사회통합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온 개념인 다문화주의는 이전 인종정책으로 사용되었던 동화주의(同化主義) 또는 문화상대주의(文化相對主義)에 대한 대안으로 소개되었음
-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광의적으로 국가 구성원들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민적 권리에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정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제도적 장치의 보장을 의미함
- 다문화주의를 사회통합적 관점에 의한 소수자의 정체성 인정과 구성원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합의된 실천이념이라 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다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음

## 3. 다문화가족 실태 및 욕구분석

### □ 설문분석 결과 요약

#### ○ 지원서비스 부문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 수혜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서비스별 수혜 빈도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정보의 수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되고, 취업교육 및 알선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수혜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정보의 빈약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며, 개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높다고 인식하나, 만족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내용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부문

- 다문화가족 부부는 서로 문화적 차이점을 느끼지는 않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편이며, 성격차이 등을 주된 이유로 다투는 편임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기타 동거 중인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 결정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나,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내국인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생활을 원만히 영위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 자녀양육 및 사회생활 부문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자녀와의 관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자녀 돌봄에 있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대응하나, 5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체력적·경제적 어려움이 많고 6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는 학업, 진로 등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됨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한국어 실력이 그리 높지 않아 한국생활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과 언어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나 한국어 능력시험을 응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 경제활동 및 일반사항 부문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취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너무 긴 노동시간, 낮은 보수수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들은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하는데 일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소 우울증세로 인한 고통이 있으나, 현재 고양 시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아 지속적인 거주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 심층면접 결과 요약

#### ○ 부부 간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식

- 한국어 구사의 부족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초기 적응에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 ○ 이민국의 주류 문화에 순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 발생

- 본국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회활동 및 커뮤니티 참여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음

#### ○ 만족스러운 한국생활을 위해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

- 고용환경의 불안정성과 내국인과의 차별, 본국에서의 경력 및 지식수준 등을 고려치 않는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단순 노무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 자녀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매우 제한적임

- 이로 인해 향후 다문화 자녀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데 한계로 작용된다는 인식이 존재함

#### ○ 자국의 문화를 잊지 않고 향유하면서 한국의 주류 문화에 통합되길 기대

- 그러나 이를 위한 다양한 통로와 기회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함

## □ 전국기준과 고양시의 비교분석 요약

### ○ 전국기준과 비교하여 지원서비스 수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개별 서비스에서는 ‘임신·출산 지원’과 ‘각종 상담’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의 수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출산 및 가족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의 질적·양적 수혜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 ○ 전국기준과 비교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다문화가족 생성이 이루어짐

- 고양시 다문화가족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 이루어진 사례가 가장 많으며 전국기준에서도 친구 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함
- 과거에 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다문화가족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의 수정이 요구됨

### ○ 전국기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부 간의 대화시간 낮음

- 이에 따라 잠재적 가정불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지원이 요구됨
- 가정 내에서의 결정권의 경우, 전국기준과 유사하게 부부공동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정작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전국기준에 비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전담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생활에 대한 배우자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함

### ○ 전국기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관심이 높음

- 고양시 내에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여타 다른 지역의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한 수요 인식이 긍정적이고, 특히 지역사회에 온전히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4. 정책 제언

### □ 국가 및 정부 간 관계 차원

#### ○ 중앙정부 부처 간 명확한 기능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 정책수혜자 대상별 및 적응수준별, 동화수준별로 체계화하여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의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

#### ○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분야의 정부 간 관계 재정립 필요

-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의 우수 인재 유치, 다양한 가족공동체 회복 및 내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전국의 지원 서비스 질적 형평성 제고 등 수행
- 지방단위에서는 수준별 언어 및 문화체험 교육, 지역공동체의 참여 경로 다양화, 지역단위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지역경제 참여 주체로의 유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사회적 통합 기회 제공 등 시행

### □ 고양시 차원

####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의 균형이 주요

- 지원 정책의 응집성, 시너지효과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설 및 공간이 물리적 통합 필요
- 지원 정책의 지속성 및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서 특정 규모 이상의 독립적 공간 마련
- 다문화가족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 39개 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을 위한 공간 공유(커뮤니티공간)
- 정보의 사각지대 해소, 가족공동체 회복, 다양한 취업교육 및 알선, 심리상담, 중도입국자녀를 비롯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고양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역할의 연계화**

- 고양시청은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정보 사각지대 개선 등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의 정책 수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욕구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산 공급
- 일반구청과 행정복지센터는 혼인신고, 개명신고,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일반 행정업무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사회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 및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에 참여 기회 제공
-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공유와 전문성을 토대로 직·간접적인 서비스 생산 또는 공급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주요**

-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기적 실태 및 욕구조사와 더불어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 수용성 조사 필요
- 성과평가체계를 통해 매년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연도별 계획과 평가결과가 연동될 수 있도록 환류기능(feed back) 강화
- 정책수혜자들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현실적인 효과성 담보

#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 제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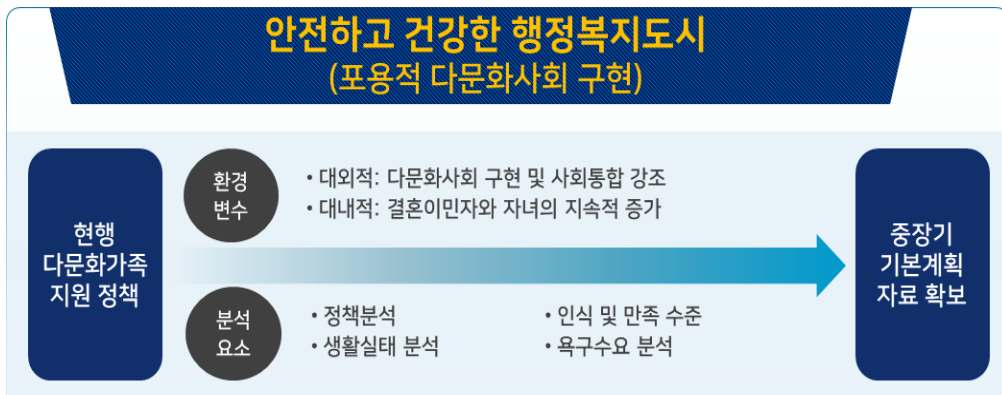
- 현 정부는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에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여 사회적 차별이 없는 공정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는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확대로 가족 삶의 질 및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모토로 2019년 현재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과제를 포함한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중점과제의 2019년 목표달성 수준은 성격차 지수 100위권 진입, 500대 기업 여성 임원 비율 4.0%,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11.3만 명,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지수 58.00점 획득 등으로 설정되어 있음
- 특히, 중점과제인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가족센터로 개편하여 관련 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한편, 2008년부터 2017년 현재 까지 고양시 관내 외국인 주민 수는 201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총 18,853명임
  - 구체적으로 2008년과 2009년 각각 31.6%, 21.8%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6년 소폭 감소(16.0%)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통계정보가 확보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현황을 일반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총 합계는 2017년 현재 14,207명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구별로는 일산동구를 제외하고, 덕양구와 일산서구 모두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더불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인배우자는 4,543명(32.0%)이며,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4,752명(33.4%), 자녀 2,941명(20.8%), 기타동거인 1,971명(13.8%)임
  - 특히, 다문화가족 전체 구성원의 수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귀화자 포함)와 그들의 자녀(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전술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수와 이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 수의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건대,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 및 고양시민의 인식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정책이 요구됨
- 이러한 환경 하에서 고양시는 2008년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및 2012년 전문개정을 통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안정화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원계획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추진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고양시 민선 6기 역점정책별 사업 중 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어르신,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이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미진하였으며 2019년 고양시 주요업무계획에도 해당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히 요구됨
  - 특히, 이러한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고양시 관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욕구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함

## 2. 연구의 목적

-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분석
  - －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 정책에 대한 특성분석을 통해 고양시의 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함
- 고양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포괄적 현황 분석
  - －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권역별, 유형별, 국적별 등 일반적 특성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계획(가칭)’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함
- 고양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욕구 및 수요조사 분석
  - － 고양시 다문화가족 구성원(결혼이민자·귀화자, 한국인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생활실태 및 욕구, 행정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관련 세부정책 개발을 위한 핵심자료로 활용함

[그림 1-1] 연구의 목적



---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본 연구의 목적임을 고려하여 고양시 관내로 공간범위를 한정함
- 시간적 범위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의 현실성과 즉시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원칙적으로 2019년을 기준시점으로 설정함
- 대상적 범위
  - 본 연구는 외국인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임을 고려하여,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시책의 수혜대상 중 다문화가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정함
- 내용적 범위
  - 지원시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현황분석, 실태분석, 욕구분석, 정책분석 등을 연구내용에 포함함

###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정책에 대한 각종 문헌의 검토를 통해서 향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실태 및 수요분석, 욕구분석(조사표 분석)

- 고양시 관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해 현행 지원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를 파악함
  - 설문조사의 주요 대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조사방법에 따라 가능한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함
  - 조사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민자종합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각 센터에서 수행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활용함
  - 설문조사 표본(600부)의 할당은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임을 고려하여, 일반구별로 비례할당을 하되, 국가별·행정동별 거주 현황의 확보 시 해당기준의 비례할당을 적용함
- FGI 조사
-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현행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정량적인 실태 및 욕구조사의 한계 보완
  - 설문조사의 주요 대상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임을 고려하여 FGI조사 대상은 배우자, 자녀 등 여타 가족구성원을 중심으로 진행함
  - FGI조사 대상의 선정은 고양시의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1차 권역별 비례할당과 2차 국가별·유형별 할당으로 적용함
- 전문가 자문
-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조사지표 개발을 위해 학계, 정책 및 현장 실무자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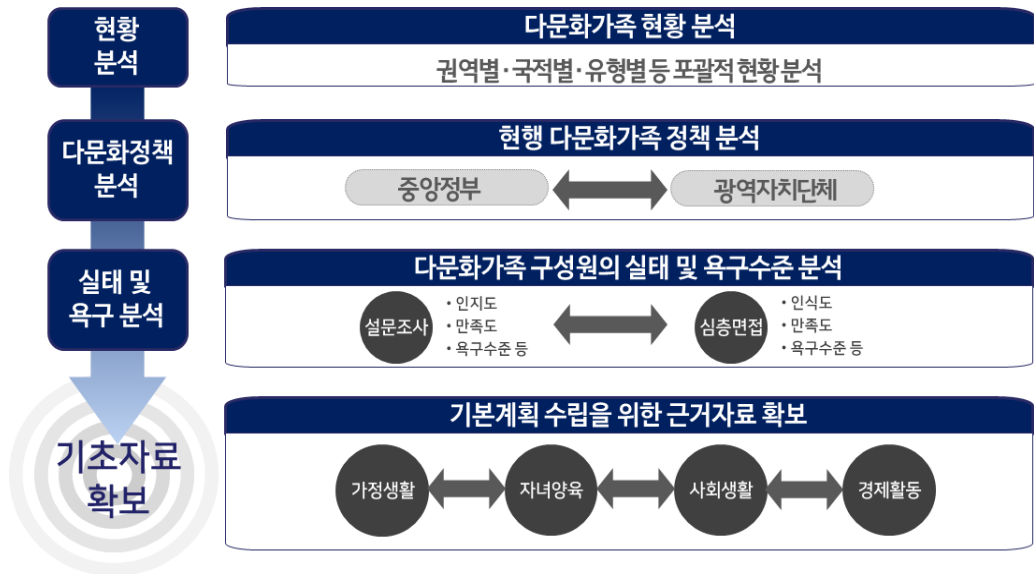
[표 1-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구분	주요 내용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 고양시 관내
	시간적 범위 □ 2019년 현재
	대상적 범위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혜대상 중 다문화가족
	내용적 범위 □ 현황분석 / 정책분석 / 실태 및 만족수준 분석 / 욕구분석
연구 방법	문헌연구 □ 다문화정책 관련 학술 및 정책보고서 검토
	설문분석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
	심층면접분석 □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집중심층면접조사
	전문가자문 □ 다문화정책 관련 전문가(학계, 정책 및 현장 실무자 등) 자문

## 제3절 연구의 체계

- 전술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등을 토대로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실태 및 욕구분석 틀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즉, 현행 다문화가족에 대한 권역별, 국적별, 유형별 등 포괄적인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고양시의 지원 정책 동향 및 성과를 분석함
  -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그들의 내국인 배우자와 자녀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통해 현행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와 욕구수준을 분석하여, 향후 지원영역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확보함

[그림 1-2] 실태 및 욕구분석 체계도



## 제 2 장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다문화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

제2절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제절 다문화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

- 현재 우리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문화, 다문화 등에 대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
-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문화(culture)라는 사전적 개념은 ‘경작하다, 또는 지배하다’라는 어원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양식이나 상징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이 주어진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본능을 적절히 조정하여 만들어낸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산물들 모두를 의미함<sup>1)</sup>
  -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는 사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전반의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음(Jary & Jary, 1991)
  - 더불어 Tylor(1974)는 그의 저서 「Primitive culture」에서 ‘문화 또는 문명이란 제 민족의 양식을 고려할 때 한 사회의 구성원이 갖는 법, 도덕, 신념, 예술 기타 여러 행동양식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
  - 그리고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문화란 ‘사회의 공동체가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고, 익히고, 공유하고, 전달하는 물질적, 정신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언급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면, 문화란 특정 지역 또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상호간 공유하는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음
- ‘다문화(多文化)’는 ‘단일문화(單一文化)’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후자가 특정 지역 또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주요한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전자는 둘 이상의 생활양식이 하나의 사회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함
  - 다시 말해서 다문화는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문화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또는 사회 안에 함께 존재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다문화사회라

<sup>1)</sup>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검색일 : 2019.08.30.

할 수 있음

- 하나의 공동체 내에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는 다문화사회를 인구현상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한 사회 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로 인종이 다양해지는 현상을 칭함(Kymlicka, 1995)
  - Kymlicka(1995)는 다문화사회를 다민족(multinational)사회 또는 다인종(polythnique)사회로 구분하면서, 전자를 기준에 존재하던 여러 다양한 문화적 실체들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 국가의 주류를 이끌어가는 다수집단과 문화적 다양성을 표출하는 소수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성된 사회로, 후자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기존의 인종과 대규모 이민으로 형성된 인종집단으로 구성된 사회로 주장함
  - 더불어 김혜순(2007)은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이 함께 어우러져 상호간에 다른 인종과 민족 때문에 받는 사회적 차별 없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라고 정의하였음
  - 다시 말해서, 구성원 상호 간에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해있는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구조가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음(조석주·박지영, 2012)
  - 이러한 다문화사회를 단순한 현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진행된 바, 박진경(2010)은 사회 전 영역에서 차별 요소를 배제하려 하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는 지향해야할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고 제기함
- 한편,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인 ‘다문화가족(多文化家族)’은 국적과 문화가 다른 남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뜻으로, 기존의 인구집단과는 다른 민족,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며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을 통칭함(김태원·김유리, 2011)
  - 다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념을 어느 범주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볼 수 있음. 광의적 개념으로는 배우자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 이외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는 귀화하여 한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다

른 국적을 가졌던 이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까지 확장한 반면, 협의적 개념으로는 한국인과 결혼한 또는 결혼을 경험한 결혼이민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함

– 더불어, 현행 우리의 법률적 개념으로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 인지에 의해 국민 자격을 획득한 한국인이 포함된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동법률의 개정을 통해 2008년 제정된 당시 보다 상당히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임

## 제2절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

### 1.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 하나의 현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다문화사회라면, 다문화주의는 사회현상에 대한 다문화 인정의 사고방식과 정책적 대응을 의미함
-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 주로 국민통합이나 사회통합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온 개념인 다문화주의는 1960년대 소외된 집단의 문화적 권리의 인정을 요구하는 시민권운동을 시작으로 태동되었으며, 캐나다에서 최초로 공식적 정책으로 채택된 이후 유럽국가로 확대되었음(오경석, 2007; 김상민 외, 2017)
  - 다문화주의는 기존문화에 새로이 유입된 이민자 집단의 문화와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었으며, 1970년대 이전 인종정책으로 사용되었던 동화주의(同化主義) 또는 문화상대주의(文化相對主義)에 대한 대안으로 소개되었음
  - 동화주의는 강한 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문화를 흡수하는 문화주의를 칭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이 국민됨을 전제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정장엽·정순관, 2014)
  - 문화상대주의는 개별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간 상하관계, 즉 문화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나, 극단적으로 활용될 경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 다문화주의는 학자들마다 그 개념 정의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광의적으로 국가 구성원들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민적 권리에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정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제도적 장치의 보장을 의미함(김유경 외, 2008)
  - 다문화주의는 산업화 및 후기 산업화 시대 이후 물질적 가치에서 탈물질적 가치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의 소수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서 발전하게 됨

[표 2-1]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특성 비교

구분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기본논리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며 적극적 조치 등 우대조치
정책목표	소수집단의 주류사회로의 동화	소수집단의 고유성 인정을 통한 사회통합
정체성	동질화	이질화
국적부여	속지주의 융이한 조건	속지주의 이중국적 허용
정주화	비교적 가능	가능
국가역할	제한적 지원	적극적 지원
이주민에 대한 관점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한 인정 노동력, 이방인 통합의 대상	상호존중과 관용 사회구성원 사회 다양성의 원천
평등개념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갈등해소 방안	완전한 동화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완전한 참여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정책수단	소수집단 차별방지의 법제화(소극적)	소수집단 문화와 권리 보호의 법제화(적극적)
문화적 지향	문화적 동질화 추구 추상적인 타문화 이해와 수용	문화적 이질성 존중 구체적인 타문화 인정과 보호
다양성 개념	사적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사적, 공적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비판	동화의 현실적 어려움 이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사회적 배제	민족정체성 약화 사회적 분열 초래
장점	동화로 인하여 이주민에 대한 차별성 배제	인류 공존과 공영이라는 보편적 가치 실현

자료 : 박진경·원숙연,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회보』, 2010.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2008.

-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정립을 추구한 Taylor와 Vertovec는 다문화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Taylor(1992)는 다수문화집단이 소수문화집단을 자신들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가 다문화주의라고 정의함
  - 그에 따르면 ‘인정의 정치’는 소수집단이 여타 다른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인정함을 넘어,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임

- 반면, Vertovec(1996)는 다문화주의를 ‘모자이크(mosaic)’와 ‘샐러드 그릇(salad bowl)’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모자이크는 개별 소수집단의 문화가 주류집단의 단일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점점이 박혀있다는 것으로 이는 주류문화 곳곳에 박힌 장식 정도지만, 그걸 굳이 녹여서 지우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샐러드 그릇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사회에 섞여 공존하며 각각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샐러드’로 통합되는 걸 의미함
- 종합하면, 다문화주의는 주류든 비주류든 다양한 문화 상호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신뢰를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류집단이 소수집단에 온정을 보내고 소수집단은 주류집단을 인정하는 것임
- 한편, 한건수(2012)는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선진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며,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온정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미등록 이주민, 화교, 이주노동자 가족 등을 제도권 외로 배제하는 등 이주민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리의 보호보다는 새로운 관리기술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함

## 2.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

### 1) 다문화정책의 개념

- Troper(1999)는 다문화주의를 다음의 세 가지 의미로 규정하는데, 하나는 인종·민족·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다른 하나는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 마지막 하나는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민족·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형평성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이 그것임
- 위와 같은 인식으로 다문화정책은 주류 또는 다수집단과 비주류 또는 소수집단의

차이에 대한 제도적 보장(오경석 외, 2007)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소수인종의 사회적 권리를 다루는 정책적 노력임

- 결국, 다문화주의를 사회통합적 관점에 의한 소수자의 정체성 인정과 구성원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합의된 실천이념이라 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전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다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음(박진경, 2010)

○ 다문화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여타의 정책과 다른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을 요구함(홍기원, 2009)

- 하나는 다문화정책이 양성평등정책과 유사하게 ‘관점(perspective)’ 지향적인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임. 이는 기존 정책분야에 대한 이론적 분류인 수직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 그리고 현실성이 가미된 수평적 분류(김형렬, 1993)처럼 어느 하나의 배타적인 영역을 갖는 것이 아닌 해당 영역을 가로지르는 보다 포괄적인 영역(핵심 정책대상과 그 환경)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다른 하나는 다문화정책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 ‘문화(culture)’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문화가 갖는 확장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다문화정책이 ‘다민족’ 또는 ‘다인종’과 같은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문화사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의 내적 가치에 대한 존중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임
- 현행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경향이 주요 정책대상에 대한 서비스 제공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다문화정책은 문화적 차이의 권리와 사회적 차이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과 ‘사회정책’의 복합적 특성을 내포할 필요성이 있음

## 2) 다문화정책의 유형

- 학술적으로 소수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 인정과 문화 다양성의 지향 정도에 따라 정부의 다문화정책을 다양하게 유형화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그러한 노력들 중 대표적인 유형화가 Castles and Miller(2003)의 이민자통합정책이론임
- Castles and Miller는 여러 국가의 이민자정책을 수용방법, 국적 부여 원칙, 사회적

분위기 등을 토대로 정책적 유형을 차별배제모형(difference exclusionary model), 동화주의모형(assimilationist model), 그리고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 model)으로 분류하였음(한건수, 2006; 최영민 외, 2009; 강기정 외, 2010)

- 구체적으로 차별배제모형은 일반적인 형태의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노동시장의 일부 영역(3D 업종 등)에만 개방하며, 공식적인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 유형임
  - 동화주의모형은 이민자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주한 지역의 주류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하는 통합정책 유형임
  -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모형은 이민자의 문화와 관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면서 주류문화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통합정책 유형임
- 동화주의모형과 차별배제모형을 채택한 국가는 대체로 문화적 단일성을 중시하지만, 다문화주의모형을 적용한 국가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사회구성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집단 간 상호존중의 질서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음(이광석 외, 2014; 김상민 외, 2017)

[표 2-2] 다문화정책의 유형

구분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모형
지향성	국가 및 사회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영주 가능성을 막고 내국인과 차별적 대우 유지	자국민이 되는 것을 전제로 동화를 지원, 내국인과 평등하게 처우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조를 지원, 적극적 조치 등 우대조치 마련
목표	인종적 소수자의 제거 및 최소화	소수자의 주류사회 동화	다양성 인정과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
국가 역할	적극적 규제	제한적 지원	적극적 지원
이주민에 대한 관심	이방인, 위협적 존재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	상호존중과 관용
법적 수단	단속 및 추방	비차별의 제도화	제반권리의 허용
국적부여	속민주의 엄격한 조건	속지주의 용이한 조건	속지주의 이중국적 허용
사례국가	독일,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비판	현대사회에 부적합	이주민 동화 곤란 및 현실적 사회 배제	민족정체성 약화 및 사회적 분열 초래 가능

자료 : 김행렬, “한국의 다문화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013.

이광석 외, 『다문화행정론』, 서울:조명문화사, 2014.

김상민 외,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이혼을 저감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 Castles and Miller(2003)의 정책유형에 비추어 우리 정부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살펴보면,
  -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에 따르면,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고 순응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화주의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위의 정책모형을 토대로 우리 정부정책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주요 대상에 따라 선별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박진경(2010)은 비전문인력정책과 동포정책에 있어서는 차별배제 유형을 채택한 반면, 결혼이민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동화모형을, 전문인력정책은 다문화주의모형을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
  - 더불어, 이로미 외(2010)는 우리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상은 혈통중심과 도구적 효율성이라는 정책이념에 따라 차별배제모형과 동화모형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유네스코 정의에 의하면 통합(integration)은 일방적인 동화보다 이민자 혹은 소수집단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는 쌍방향적인 통합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소수자 통합의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음(박진경, 2010)
- 우리 정부와 사회가 이민자 또는 소수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온전한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느끼는 이주사회에 대한 적응전략에 적합한 정책의 선정이 무엇보다 주요함
  - Berry(1997)는 이주자들이 수용국가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이주자들의 문화변용(acculturation)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적응모형을 제시함
  - 적응모형은 이주민 또는 소수집단이 고유한 문화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문화적응)과 이주수용국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태

도(구조적 적응)를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첫째, 통합(Integration)유형은 이주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과 특징을 유지하면서 수용국가의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수용국 사회와 이주자들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 또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동화(Assimilation)유형은 이주자들이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식이 낮으면서 수용국가의 주류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동화되는 경우임. 이는 자발적 동화와 일방적 또는 강압적 동화로 구분되며, 전자인 경우에는 갈등의 발생 여지가 비교적 낮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갈등 발생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분리(Separation/Segregation)유형은 이주자들이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수용국 사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로 표면적·내면적 갈등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음
- 마지막으로 주변화(Marginalization)유형은 이주자들이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식이 낮으면서 수용국 주류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로,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용국에서 강압적 동화를 시도할 경우 발생될 개연성이 높음

[표 2-3] 이주자의 적응모형

구분		문화적응: 고유 정체성 및 특성 유지 여부	
		예	아니오
구조적 적응: 주류사회와 적극적 관계 유지 여부	예	통합 (Integration)	동화 (Assimilation)
	아니오	분리 (Separation/Segreg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

자료 : Berry, J.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1997.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 하나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우리의 현 사회와 그에 따른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새로운 인식 및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술적 성격의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임
  - 먼저, 학술적 성격의 연구는 연구대상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대분되며 연구방법으로는 정책사례분석과 설문조사·분석을 주로 활용하였고, 주요연구내용으로는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다문화정책 수립, 다문화가족 외에 이주민 전체로의 정책 확대, 이주민의 적응주기와 자녀의 성장주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채택,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수용성 제고 등이 언급되었음
  - 정책적 연구의 경향은 연구범위에 따라 전국과 광역단위로 진행되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음
- 다문화정책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주요 정책 대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었음(홍기원, 2009; 강기정·변미희, 2010)
  - 다시 말해서,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단순히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었다면, 향후에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귀화자, 자녀,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외국 이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정책에 투영되도록 하여 현실 적합성이 높은 정책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임
  - 더불어 정장엽·정순관(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은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결혼이민자와 내국인의 영역별 정향성 또한 정부정책의 그것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의 개발 및 적용에 있어 외국 이

주민과 내국인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함

- 다음으로 다문화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민자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적응수준별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강기정·변미희, 2010; 문성은·방은령, 2012; 김혜영, 2014)
  -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초기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통적으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취·창업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강기정·변미희, 2010)
  - 더불어 김준식·안광현(2012)은 최근 다문화가족의 해체 사례를 지적하면서 다문화가족이 결성된 이후에 지원되는 사후관리적 차원의 정책에만 경주하기보다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의 정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셋째, 한국 사회에 외국 이주민들이 구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생활 지원 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그들이 한국사회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데 필수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문성은·방은령, 2012; 김정인, 2018)
  - 다시 말해, 현행 외국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급속한 동화전략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심리적 동화과정에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주류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노동시장의 선순환을 견인해야 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음(한건수, 2012; 김혜영, 2014)
  - 주요 신흥 수출국으로 분류되어 온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혼인이주 유인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과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기존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자 범주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정책의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으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2-4] 지역(마을)공동체 선행연구(학술연구)

연도	저자	제목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2009	홍기원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정책을 문화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분석하여 다문화정책의 개념과 영역을 명료하게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적 관점에 입각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실행 필요</li> <li>기존의 관주도적 다문화정책에서 담론적 민주주의 구현을 통해 당사자들의 정책과정에의 참여 독려</li> </ul>
2010	강기정·변미희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 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 분석을 통해 향후 다문화 가족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은 지역의 대상 인구 및 욕구 등의 조사와 다문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수립 필요</li> <li>지역 사회 내 다문화가족을 위한 취업 수용성 수준을 높이는 교육 및 취·창업 체계 구축 필요</li> <li>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속도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구축</li> </ul>
2012	김준식·안광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주체, 목표, 내용, 대상, 방법, 시기에 따른 평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li> </ul>
2012	문성은·방은령	충청남도의 결혼이민자 현황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 내 결혼이민자 현황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다문화 가족의 인식과 요구를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도시지역과 결혼 이민자수가 많은 곳에서 활발하고, 군지역이나 결혼이민자수가 적은 곳에서는 취약</li> <li>충청남도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결혼 이민자에게 집중되고 한국인 가족이 결혼이민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엔 소홀함</li> </ul>
2014	김혜영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정책 이념과 정책의 탈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정책이 급속하게 추진된 배경과 그 논거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의 특징과 위상 재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 적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노동이주 등 새로운 이주자들을 정책대상으로 확장 필요</li> <li>다문화에 포함된 다양한 이주자가족과 국내 다양한 가족자원과의 유기적 공존이 가능한 정책패러다임 수용</li> </ul>
2012	한건수	통합과 분열의 기로에 선 한국의 다문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탈구적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스케이프의 탈구적 현실 개혁을 위한 정책 필요</li> <li>이민정책과 사회적 다문화 정책의 명확</li> </ul>

연도	저자	제목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책이 처한 기로에 대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 필요</li> <li>■ 이주 노동자의 수용과 정착 필요</li> <li>■ 이민행정 또는 다문화 행정 체계의 정비와 혁신 필요</li> </ul>
2014	정장엽·정순관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책영역별로 정향성 분석: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의 내용과 이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동화주의인지 다문화주의인지를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정책영역별로 일관성이 부족</li> <li>■ 지역주민과 결혼이민자들의 전체적인 인식은 다문화주의 성향을 보임</li> <li>■ 정책영역별로 이주적응, 고용, 복지는 다문화주의로, 문화는 동화주의 성향을 보임</li> <li>■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정향성 정립 필요</li> </ul>
2018	김정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의 이주사회 적응전략: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자치법규(조례) 조항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집행자를 분석하여 다문화가족들이 어떠한 적응전략을 선택하도록 하였는지 규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구조적 적응과 관련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은 도입하고 있었으나, 문화적응 관련 조례 조항의 도입은 양분되어 나타남</li> <li>■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집행 성공여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사회의 포용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li> </ul>

-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적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연구수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대분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는 법정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실태분석이 진행되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의 특성(도시 및 농촌)별 다문화정책 수립,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 개선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음
- 기존 정책적 성향의 연구에 활용된 방법은 설문조사·분석과 정책사례분석, 외국사례분석 등이 대부분이며, 법정계획 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차원에서 수행되었음

[표 2-5] 다문화정책 관련 선행연구(정책연구)

연도	저자	제목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2012	김영란 외 3인	지역특성별(도농, 도농복합형)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추진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특성별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기초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운영 모델을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및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모델 제시</li> <li>다문화가족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설계 필요</li> <li>다문화가족지원 코디네이터 인력 도입 필요</li> </ul>
2014	김근홍 외 3인	경기도 다문화 가족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과 지원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내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맞춤형 다문화지원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와 정책의 방향성 및 제도적 보완점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정책사례 분석</li> <li>경기도 내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인식분석</li> <li>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제시</li> </ul>
2017	권정미	사회통합을 위한 수원시 다문화가족 정책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수원시의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도출과 향후 정책적 방향성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관련 법·제도 및 정책변화 분석</li> <li>수원시 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분석 및 주민에 대한 수용성·사회통합 인지 조사분석</li> </ul>
2017	김상민 외 3인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이혼율 저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의 갈등저감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영향요인 검토</li> <li>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분석</li> <li>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분석</li> <li>다문화가족의 이혼율 저감 방안 제시</li> </ul>
2017	최윤정 외 6인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존 정책의 성과·한계 분석, 향후 정책환경 및 수요전망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의 성과 점검</li> <li>다문화가족 여건 전망 및 정책 이슈 도출</li> <li>제3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안) 수립</li> </ul>
2018	김이선 외 6인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심층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와 농촌 간의 다문화가족의 특징, 욕구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사례 분석</li> <li>외국의 다문화 정책사례 분석</li> <li>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li> </ul>
2018	박대식 외 3인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파악 및 정책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및 문제점 분석</li> <li>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분석</li> <li>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방향 제시</li> </ul>

연도	저자	제목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2018	김이선 외 6인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다문화수용성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수용성 개념 및 선행연구 특성 파악</li> <li>■ 이민자에 대한 태도 등 영향요인 도출</li> <li>■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 검토</li> <li>■ 다문화수용성 측정지표 개발</li> <li>■ 일반국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수준 측정</li> <li>■ 다문화수용성 제고 정책 제시</li> </ul>
2019	최윤정 외 7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요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자녀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국내 성장 자녀 비중의 확대</li> <li>■ 다문화가족의 취약한 부모자녀관계 개선 지원</li> <li>■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수행 등 교육지원방안 마련</li> <li>■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배경을 고려한 정책설계의 필요성 제기</li> </ul>



## 제 3 장

### 다문화가족 현황 분석

제1절 전국의 다문화가족 현황

제2절 지방자치단체(광역시)의 다문화가족 현황

제3절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현황

제4절 소결



# 제절 전국의 다문화가족 현황

## 1.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

-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4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다문화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는 2016년 963,174명에서 2017년 963,801명으로 소폭(0.001%) 증가함. 2017년 기준으로 전국 다문화가족 내 한국인배우자는 301,354명(31.3%),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20,645명(33.3%), 자녀 220,950명(22.9%), 기타동거인 120,852명(12.5%)임
  - － 특히 다문화가족 전체 구성원 수가 대체적으로 상승하면서 한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의 수가 상승한 반면 기타 동거인의 수가 155,533명에서 120,852명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단순 동거를 떠나 결혼 제도 등을 통한 2인 이상 구성 가족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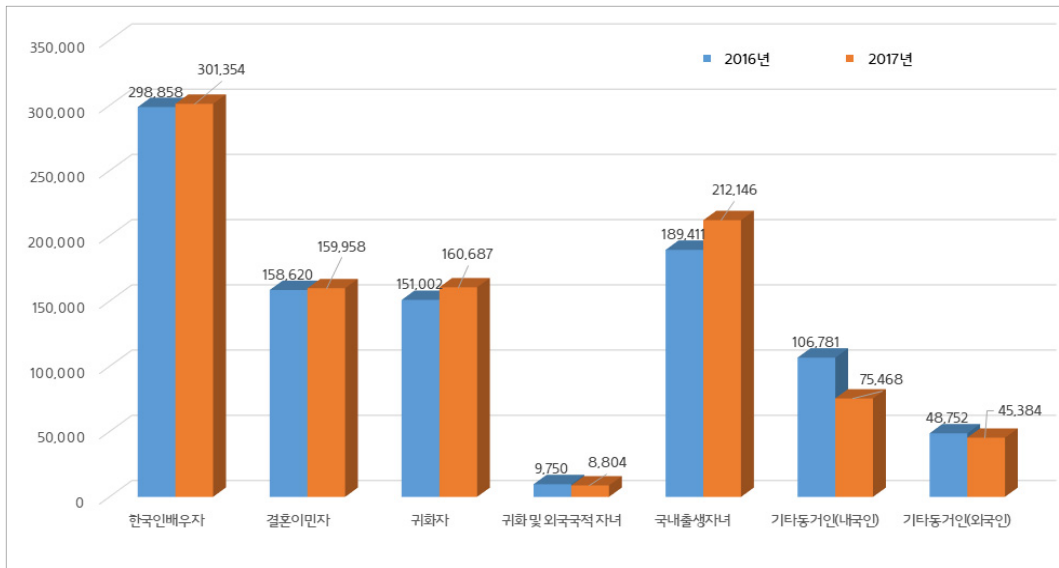
[표 3-1] 전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단위: 명)

연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합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소계	귀화 및 외국 국적자녀	국내 출생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2016	298,858	158,620	151,002	309,622	9,750	189,411	199,161	106,781	48,752	155,533	963,174
2017	301,354	159,958	160,687	320,645	8,804	212,146	220,950	75,468	45,384	120,852	963,801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그림 3-1] 전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 다문화가족 구성원 내 결혼이민자와 국적 취득자의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 다문화가족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 또한 증가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7년 87,964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7년 160,653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적취득자의 경우에도 2007년 38,991명에서 2017년 169,535명으로 나타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07년 21,905명에서 2017년 65,507명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2007년 120,110명에서 2017년 264,681명으로 나타남
  - 비율로 살펴볼 때,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전체에서 2007년에는 남성이 15.4%, 여성이 84.6%였으나 2017년 남성 19.8%, 여성 80.2%로,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남성비율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단위: 명)

연도 (‘07~ 15)	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연도 (‘16~)	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여		
2017	330,188	65,507	264,681	160,653	30,745	129,908	169,535	34,762		134,773		
2016	318,948	61,544	257,404	159,501	28,728	130,773	159,447	32,816		126,631		
2015	294,663	56,652	238,011	144,912	25,263	119,649	93,249	10,308	82,941	56,502	21,081	35,421
2014	295,842	48,787	247,055	149,764	21,953	127,811	90,439	4,261	86,178	55,639	22,573	33,066
2013	281,295	45,348	235,947	147,591	20,887	126,704	83,929	4,264	79,665	49,775	20,197	29,578
2012	267,727	42,459	225,268	144,214	19,630	124,584	76,473	4,268	72,205	47,040	18,561	28,479
2011	252,764	39,825	212,939	141,654	18,561	123,093	69,804	4,317	65,487	41,306	16,947	24,359
2010	221,548	34,144	187,404	125,087	15,876	109,211	56,584	3,796	52,788	39,877	14,472	25,405
2009	199,398	30,988	168,410	125,673	15,190	110,483	41,417	2,047	39,370	32,308	13,751	18,557
2008	168,224	26,339	141,885	102,713	13,711	89,002	41,672	2,991	38,681	23,839	9,637	14,202
2007	142,015	21,905	120,110	87,964	12,497	75,467	38,991	2,624	36,367	15,060	6,784	8,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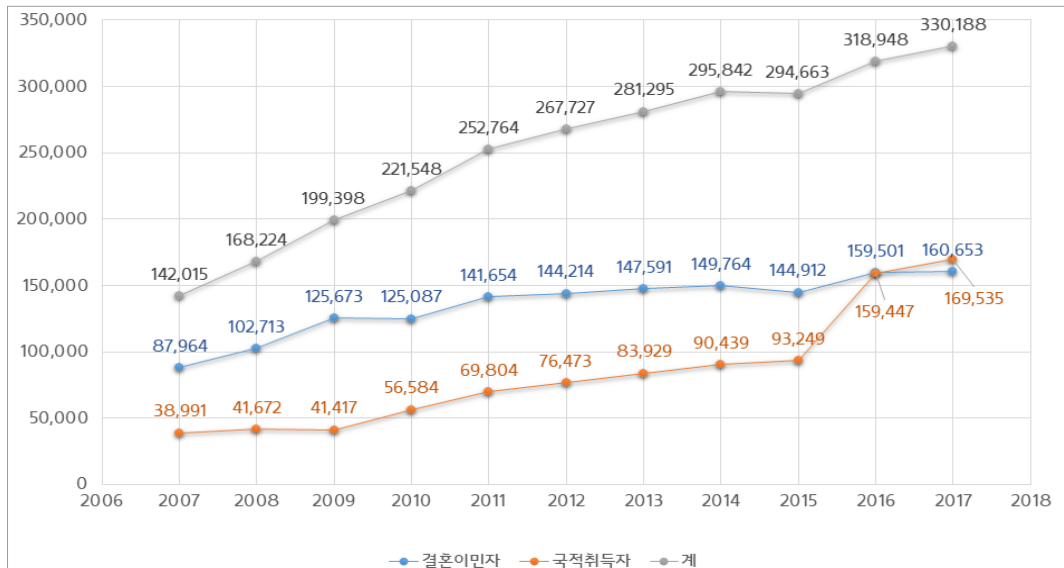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07-2017.

\* '15년부터 통계 기준 변경 : 조사시점이 1.1일자에서 11.1일자로 변경,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조사, 조사시점 기준 전후 3개월 중 91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제외

\*\* '16년부터 귀화요인(혼인 등) 미구분(사유: 기타사유 국적취득의 경우도 대부분 결혼귀화자라 구분 실익이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개정, '11.10.5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자·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그림 3-2]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추이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07-2017.

○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 2017년을 기준으로 중국(한국계)이 114,10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베트남 69,774명, 중국 67,257명, 필리핀 18,695명, 일본 12,117명 순으로 나타남
-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 국적이 2007년에도 59,902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42.2%)을 차지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34.6%임. 중국 국적의 경우 2007년 33,577명으로 23.6%의 비율을 차지하다가 2017년 20.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의 경우 2007년에는 16,305명으로 11.5%였으나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17년에는 21.1%인 것으로 확인됨

[표 3-3]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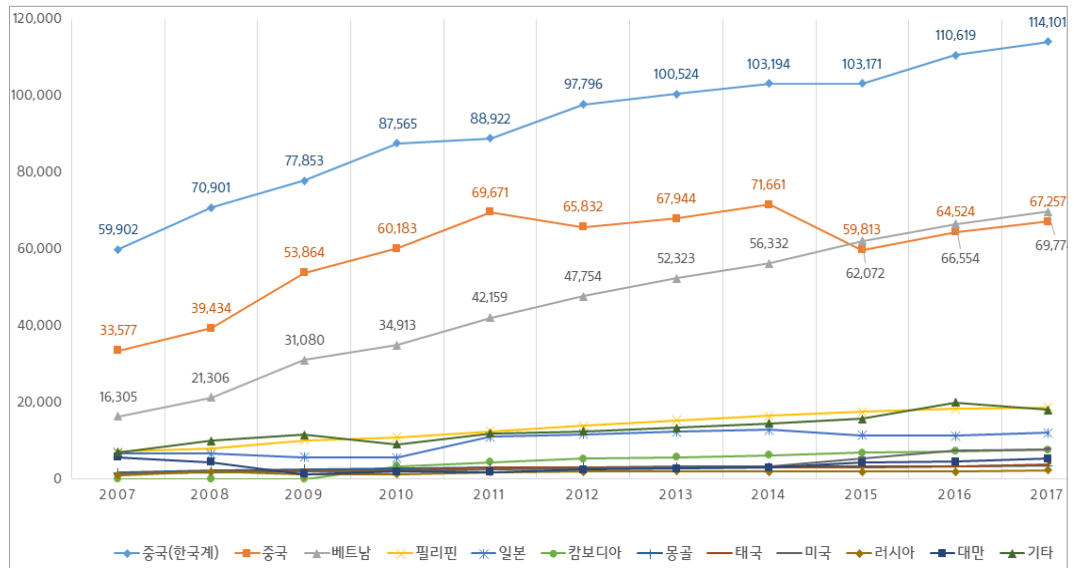
(단위 : 명)

국적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294,663	318,948	330,188
중국 (한투계)	59,902	70,901	77,853	87,565	88,922	97,796	100,524	103,194	103,171	110,619	114,101
중국	33,577	39,434	53,864	60,183	69,671	65,832	67,944	71,661	59,813	64,524	67,257
베트남	16,305	21,306	31,080	34,913	42,159	47,754	52,323	56,332	62,072	66,554	69,774
필리핀	7,146	8,033	10,150	10,868	12,428	13,829	15,256	16,473	17,576	18,247	18,695
일본	6,742	6,653	5,742	5,594	11,070	11,705	12,338	12,875	11,391	11,278	12,117
캄보디아	-	-	-	3,354	4,422	5,316	5,684	6,184	6,902	7,221	7,621
몽골	1,605	2,121	2,591	2,665	2,959	3,068	3,186	3,257	3,308	3,394	3,523
태국	1,566	1,896	2,291	2,350	2,914	2,918	2,975	3,088	3,069	3,328	3,803
미국	1,436	1,750	1,911	1,890	2,598	2,747	3,081	3,350	5,368	7,377	7,711
러시아	997	1,854	1,162	1,279	1,827	1,943	2,025	1,976	1,937	1,895	2,253
대만	5,696	4,336	1,211	1,856	1,836	2,390	2,661	2,953	4,298	4,552	5,308
기타	7,043	9,940	11,543	9,031	11,958	12,429	13,298	14,499	15,758	19,959	18,025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07-2017.

\* 캄보디아의 경우 '09년 이전에는 '기타'에 포함

[그림 3-3]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추이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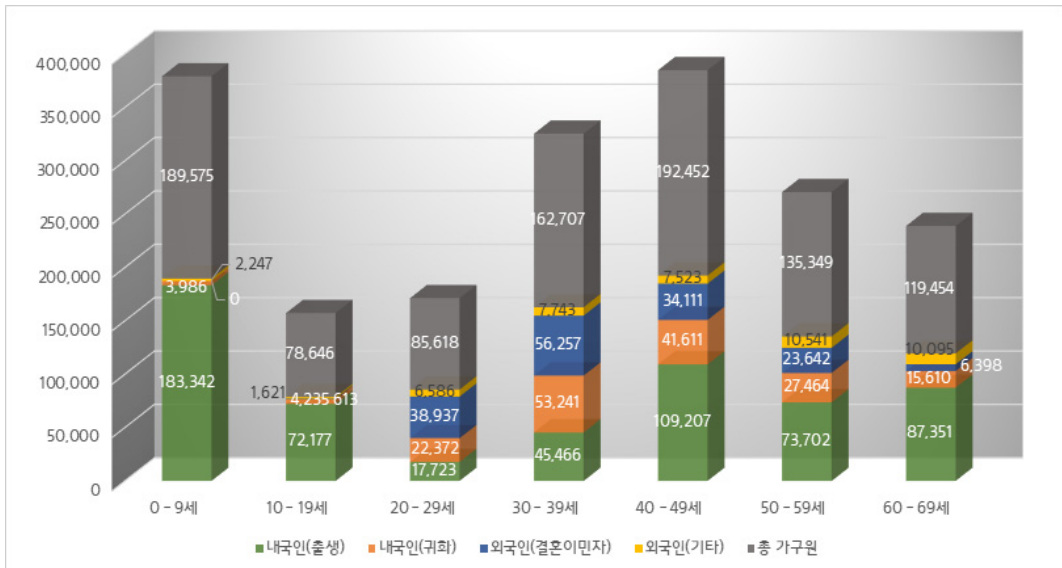
- 전국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49세가 192,452명으로 가장 많고 0-9세가 189,575명, 30-39세 162,707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구 자녀의 수, 특히 국내 출생 자녀 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3-4] 전국의 다문화가족 연령별 현황(2017)

연령별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기타)	총 가구원
0 - 9세	183,342	3,986	X	2,247	189,575
10 - 19세	72,177	4,235	613	1,621	78,646
20 - 29세	17,723	22,372	38,937	6,586	85,618
30 - 39세	45,466	53,241	56,257	7,743	162,707
40 - 49세	109,207	41,611	34,111	7,523	192,452
50 - 59세	73,702	27,464	23,642	10,541	135,349
60 - 69세	87,351	15,610	6,398	10,095	119,454
<b>합계</b>	<b>588,968</b>	<b>168,519</b>	<b>159,958</b>	<b>46,356</b>	<b>963,801</b>

출처 : 통계청, “연령 및 성별 다문화가구원”, 『인구총조사』, 2017.

[그림 3-4] 전국의 다문화가족 연령별 현황(2017)



출처 : 통계청, “연령 및 성별 다문화가구원”, 『인구총조사』, 2017.

-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외국인 주민의 국적별 전국 분포를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성별 구분 없이 살펴볼 때 한국계 중국 국적이 497,65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212,072명, 베트남 147,519명 태국 93,077명 순으로 나타남
  - － 성별에 따라 살펴볼 때 남성의 경우 한국계 중국 국적이 266,4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99,568명, 베트남 73,060명, 태국 51,422명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도 한국계 중국 231,16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 112,504명, 베트남 74,459명 순으로 나타남

[표 3-5] 외국인 주민의 국적별 전국분포 현황(2017)

구분	성별	합계	중국	중국 (한 국계)	대만	일본	몽골	베트 남	필리 핀	태국	인도 네시아	캄보 디아
전국	남자	845,663	99,568	266,490	7,555	3,463	14,821	73,060	27,084	51,422	34,708	31,144
	여자	633,584	112,504	231,166	7,947	14,913	14,909	74,459	20,949	41,655	3,710	14,262
	계	1,479,247	212,072	497,656	15,502	18,376	29,730	147,519	48,033	93,077	38,418	45,406
전국 평균	남자	49,745	5,857	15,676	444	204	872	4,298	1,593	3,025	2,042	1,832
	여자	37,270	6,618	13,598	467	877	877	4,380	1,232	2,450	218	839
	계	87,015	12,475	29,274	912	1,081	1,749	8,678	2,825	5,475	2,260	2,671
구분	성별	미얀 마	스리 랑카	파키 스탄	방글 라데 시	네팔	우즈 베키 스탄	카자 흐스 탄	러시 아	미국	캐나 다	기타
전국	남자	22,212	24,980	10,016	13,995	30,731	34,892	10,662	8,029	22,175	6,594	52,062
	여자	773	779	1,210	785	3,562	16,225	6,331	6,264	22,857	6,970	31,354
	계	22,985	25,759	11,226	14,780	34,293	51,117	16,993	14,293	45,032	13,564	83,416
전국 평균	남자	1,307	1,469	589	823	1,808	2,052	627	472	1,304	388	3,062
	여자	45	46	71	46	210	954	372	368	1,345	410	1,844
	계	1,352	1,515	660	869	2,017	3,007	1,000	841	2,649	798	4,907

출처 : 통계청. “성 및 현재 국적별 외국인”, 『인구총조사』, 2017.

## 2.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현황

- 다문화가족 구성의 주요 원인인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총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비중은 2009년 10.8%로 가장 높았다가 매년 점차 감소하여 2015년 7.6%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가 2016년 7.3%, 2017년 7.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 혼인의 형태는 매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이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혼인'보다 높았고, 특히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혼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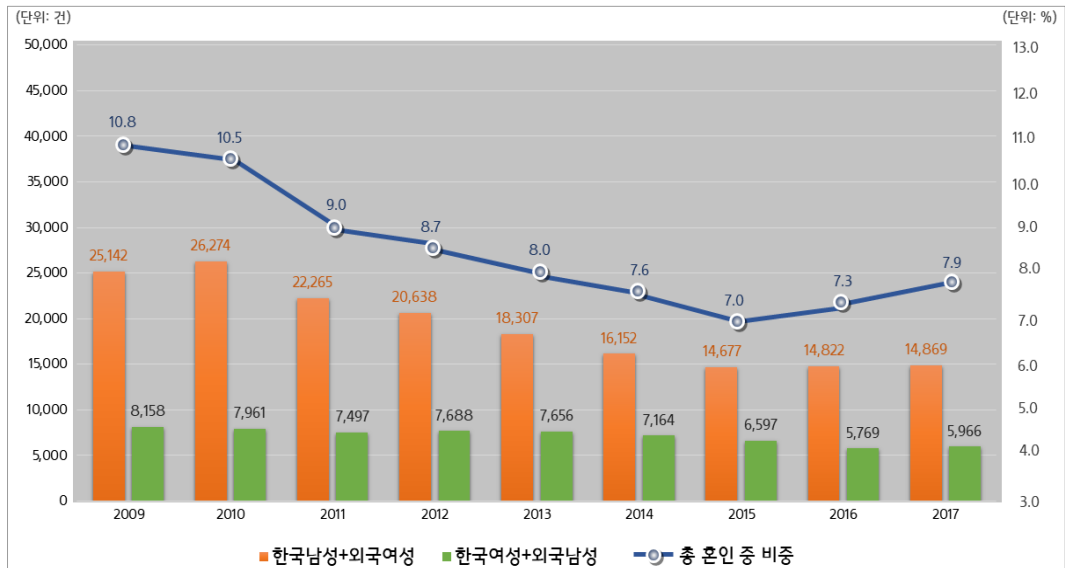
[표 3-6]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단위 : 건,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혼인건수	309,759	326,104	329,087	327,073	322,807	305,507	302,828	281,635	264,455
외국인과의 혼인	33,300	34,235	29,762	28,326	25,963	23,316	21,274	20,591	20,835
(총 혼인 중 비중)	(10.8)	(10.5)	(9.0)	(8.7)	(8.0)	(7.6)	(7.0)	(7.3)	(7.9)
■ 한국남성+외국여성	25,142	26,274	22,265	20,638	18,307	16,152	14,677	14,822	14,869
■ 한국여성+외국남성	8,158	7,961	7,497	7,688	7,656	7,164	6,597	5,769	5,966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혼인·이혼통계』(통계청), 2018.

[그림 3-5]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혼인·이혼통계』(통계청), 2018.

- 외국인과의 혼인 대상을 국적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7년에는 중국인과의 혼인이 16,970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2015년까지도 가장 높았다가 2016년부터 중국 5,661건, 베트남 5,942건으로 역전하면서 2017년에는 베트남 5,950건(28.6%), 중국 5,403건(25.9%)인 것으로 나타남

[표 3-7]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단위 : 건,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구성비
계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28,325	25,963	23,316	21,274	20,591	20,835	100
베트남	6,671	8,343	7,298	9,690	7,729	6,766	6,049	5,026	5,083	5,942	5,950	28.6
중국	16,970	15,304	13,981	11,916	9,418	9,033	7,785	7,064	5,979	5,661	5,403	25.9
미국	1,710	1,691	1,728	1,944	2,139	2,119	2,392	2,384	2,189	1,947	1,933	9.3
일본	4,555	3,905	3,562	3,283	2,833	2,891	2,584	2,521	1,838	1,219	1,154	5.5
필리핀	1,497	1,857	1,643	1,906	2,072	2,216	1,692	1,130	1,006	864	842	4.0
태국	524	633	496	438	354	323	291	439	543	720	1,017	4.9
캄보디아	1804	659	851	1205	961	525	735	564	524	466	480	2.3
캐 나 다	374	371	332	403	448	505	475	481	465	398	436	2.1
호 주	158	164	159	194	216	220	308	249	254	197	203	1.0
기 타	3,297	3,277	3,250	3,256	3,592	3,727	3,652	3,458	3,393	3,177	3,417	16.4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혼인·이혼통계』(통계청), 2018.

##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총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비중은 2009년 9.3%를 시작으로 2011년 10.1%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6.7%인 것으로 나타남
- 형태별 이혼 추이를 살펴보면, 혼인형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이혼'이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이혼'보다 매년 높고, 2017년에는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이혼'이 5,206건,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이혼'이 1,924건으로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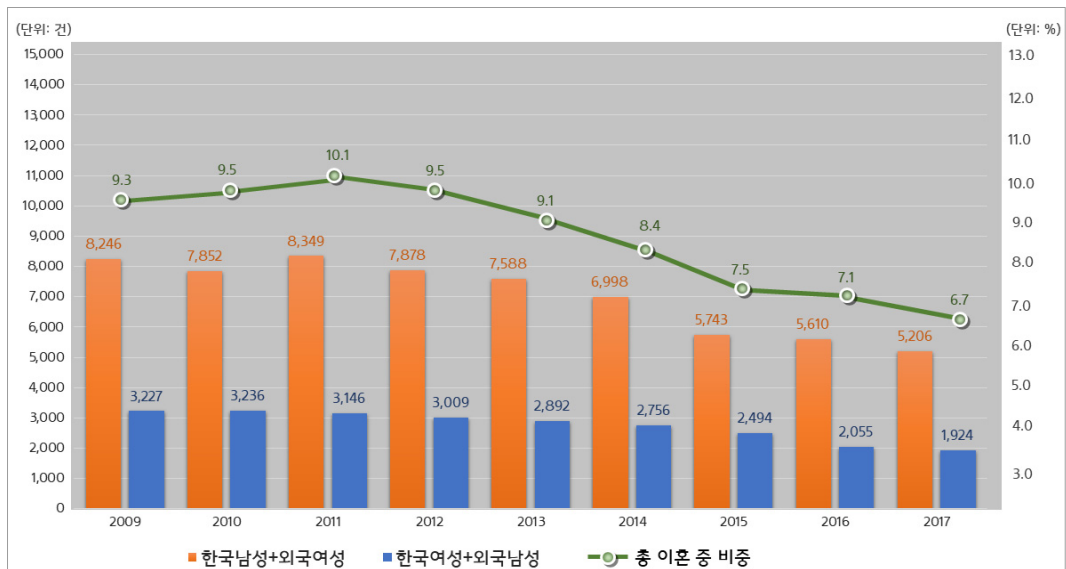
[표 3-8]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단위 : 건,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이혼건수	123,999	116,858	114,284	114,316	115,292	115,510	109,153	107,328	106,032
외국인과의 이혼	11,473	11,088	11,495	10,887	10,480	9,754	8,237	7,665	7,130
(총 이혼 중 비중)	(9.3)	(9.5)	(10.1)	(9.5)	(9.1)	(8.4)	(7.5)	(7.1)	(6.7)
■ 한국남성+외국여성	8,246	7,852	8,349	7,878	7,588	6,998	5,743	5,610	5,206
■ 한국여성+외국남성	3,227	3,236	3,146	3,009	2,892	2,756	2,494	2,055	1,924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혼인·이혼통계』(통계청), 2018.

[그림 3-6]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혼인·이혼통계』(통계청), 2018.

- 외국인과의 이혼 대상을 국적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7년 중국인과의 이혼이 4,301건으로 전체 이혼의 51.9%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2017년에는 중국 3,194건(44.8%), 베트남 1,636건(22.9%)인 것으로 나타남

[표 3-9]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단위 : 건,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구성비
계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10,887	10,480	9,754	8,237	7,665	7,130	100
중국	4,301	6,439	6,626	5,730	5,922	5,255	4,877	4,427	3,822	3,622	3,194	44.8
베트남	904	1083	1308	1570	1948	2010	2076	1846	1516	1632	1,636	22.9
일본	1,744	1,761	1,855	1,897	1,758	1,650	1,455	1,398	1,128	691	614	8.6
미 국	328	333	357	384	325	338	363	367	337	341	351	4.9
필리핀	213	268	285	299	328	395	435	449	366	298	242	3.4
캄보디아	99	178	109	167	192	180	152	155	137	157	134	1.9
우즈베키스탄	112	160	174	174	133	141	158	169	102	113	-	-
캐 나 다	24	34	29	43	32	52	48	54	32	49	47	0.7
파키스탄	35	32	35	38	51	49	55	54	54	33	49	0.7
기 타	534	692	695	786	806	817	861	835	743	729	863	12.1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혼인·이혼통계』(통계청), 2018.

\* '17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은 기타에 포함



### 3.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가 늘어감에 따라 자녀의 수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각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 6세 이하'가 매년 가장 많은데 2007년 26,445명에서 2017년 115,08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어 '만 7~12세'가 81,826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만 6세 이하~만12세'까지의 연령이 전체의 88.5%를 차지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표 3-10]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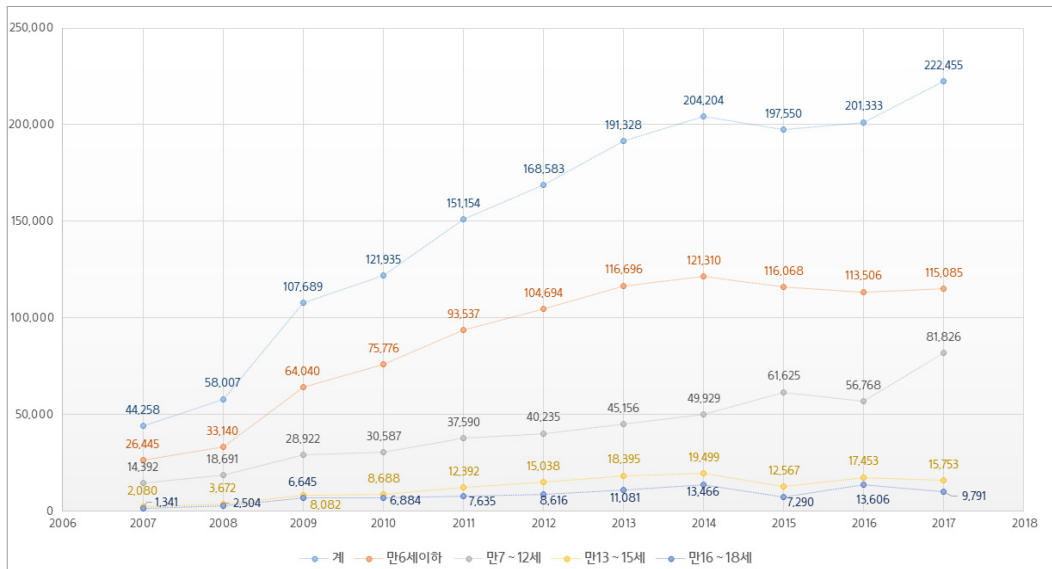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6세 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17	222,455	115,085	81,826	15,753	9,791
2016	201,333	113,506	56,768	17,453	13,606
2015	197,550	116,068	61,625	12,567	7,290
2014	204,204	121,310	49,929	19,499	13,466
2013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2012	168,583	104,694	40,235	15,038	8,616
2011	151,154	93,537	37,590	12,392	7,635
2010	121,935	75,776	30,587	8,688	6,884
2009	107,689	64,040	28,922	8,082	6,645
2008	58,007	33,140	18,691	3,672	2,504
2007	44,258	26,445	14,392	2,080	1,341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외국민주민현황조사』(행정안전부, 2018).

[그림 3-7]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추이

(단위 : 명)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외국민주민현황조사』(행정안전부, 2018).

-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베트남 국적이 71,8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43,197명, 한국계 중국 38,090명, 필리핀 22,270명 순으로 나타남
- － 연도별 추이로 살펴보면 2007년에는 한국계 중국 국적이 14,201명으로 전체의 32.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7,716명(17.4%), 일본 6,016명(13.6%)순이었으며 2017년에는 베트남 국적이 32.3%, 중국 19.4%, 한국계 중국 17.1%, 필리핀 10.0%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1]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

(단위 : 명)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197,550	201,333	222,455
중국 (한국계)	14,201	16,681	18,669	31,404	33,186	39,278	42,294	43,890	35,439	36,610	38,090
중국	7,716	10,889	35,932	29,800	34,852	33,231	37,084	38,824	40,351	37,963	43,197
베트남	5,062	8,194	22,491	27,517	34,256	41,238	49,458	54,737	57,464	56,468	71,864
필리핀	6,013	6,378	10,687	11,926	13,937	15,820	18,020	19,568	19,918	20,146	22,270
일본	6,016	6,508	6,838	5,734	14,510	16,237	17,806	18,185	7,773	9,485	6,886
캄보디아	-	-	-	2,554	3,565	4,690	5,961	6,777	7,016	6,909	9,448
몽골	405	816	1,681	1,807	2,250	2,468	2,802	2,952	2,771	2,719	3,132
태국	799	870	1,563	1,711	2,082	2,427	2,663	2,767	2,254	2,543	2,609
미국	852	2,406	683	821	1,207	1,422	1,697	1,855	6,140	5,874	4,899
러시아	263	303	736	766	1,090	1,139	1,289	1,319	1,017	1,058	1,155
대만	878	1,515	770	1,129	1,191	1,615	1,758	1,892	2,877	2,522	2,995
기타	2,053	3,447	7,639	6,766	9,028	9,018	10,496	11,348	14,530	19,036	15,910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외국민주민현황조사』(행정안전부), 2018.

## ○ 부모의 국적에 따른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년의 경우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등의 동북아시아 국적이 89,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적이 87,455명으로 많았으며 미국 5,874명, 중앙아시아 3,475명 서남아시아 2,574명 순으로 나타남
- 2017년에는 베트남, 필리핀 국적이 크게 늘면서 동남아시아 국적의 자녀가 107,741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어 동북아시아는 94,300명으로 나타남

[표 3-12] 부모의 국적별 외국인주민 자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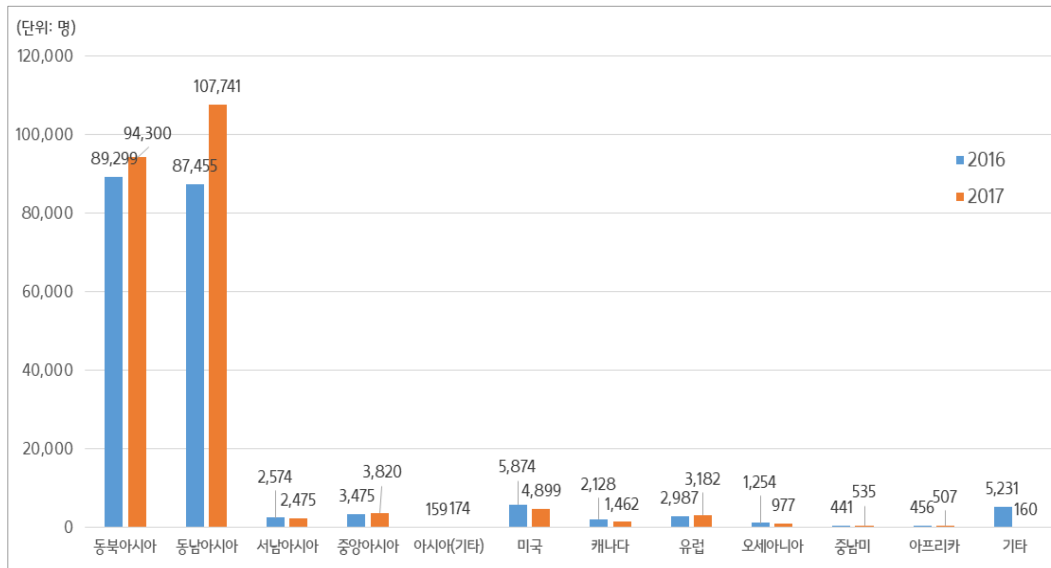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연도	동북 아시아	동남 아시아	서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아시아 (기타)	미국	합계
합계	2016	89,299	87,455	2,574	3,475	159	5,874	
	2017	94,300	107,741	2,475	3,820	174	4,899	
전국 평균	2016	5,253	5,144	151	204	18	346	
	2017	5,547	6,338	146	225	20	288	
구분	연도	캐나다	유럽	오세 아니아	중남미	아프 리카	기타	
합계	2016	2,128	2,987	1,254	441	456	5,231	
	2017	1,462	3,182	977	535	507	160	
전국 평균	2016	125	176	78	31	28	308	
	2017	86	187	57	37	36	13	

출처 : 행정안전부. “부모의 국적별 외국인주민”,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그림 3-8] 부모의 국적별 외국인주민 자녀 구성

(단위 : 명)



출처 : 행정안전부. “부모의 국적별 외국인주민”,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매년 시행·발간하는 교육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38,678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0.55%를 차지하였고 매년 점차 증가하여 2017년 109,387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8년에는 122,212명으로 2.1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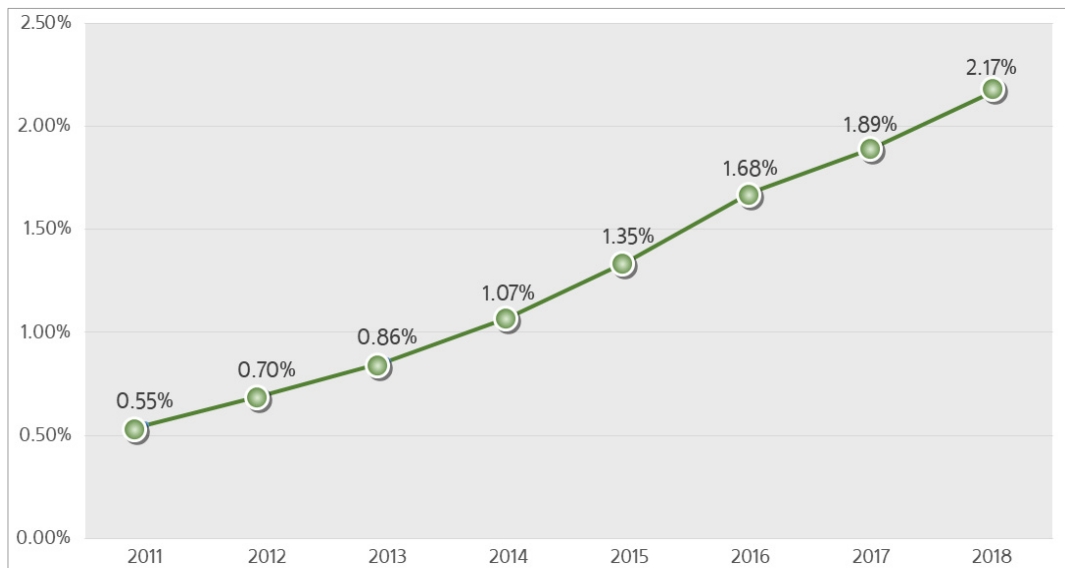
[표 3-13]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단위: 명)

연도 인원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다문화 학생 수(A)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전체 학생 수(B)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6,097,297	5,890,949	5,773,998	5,633,725
다문화학생 비율 (A/B*100)	0.55%	0.70%	0.86%	1.07%	1.35%	1.68%	1.89%	2.17%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교육통계』(교육부), 2018.

[그림 3-9]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교육통계』(교육부), 2018.

○ 학교급(초·중·고)별 다문화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8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93,027명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하고 중학생 18,068명(14.8%), 고등학생 10,688명(8.7%)로 나타나 자녀 연령별 추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확인됨
-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외국국적 자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국내출생이 98,26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중도입국 8,320명, 외국국적 15,629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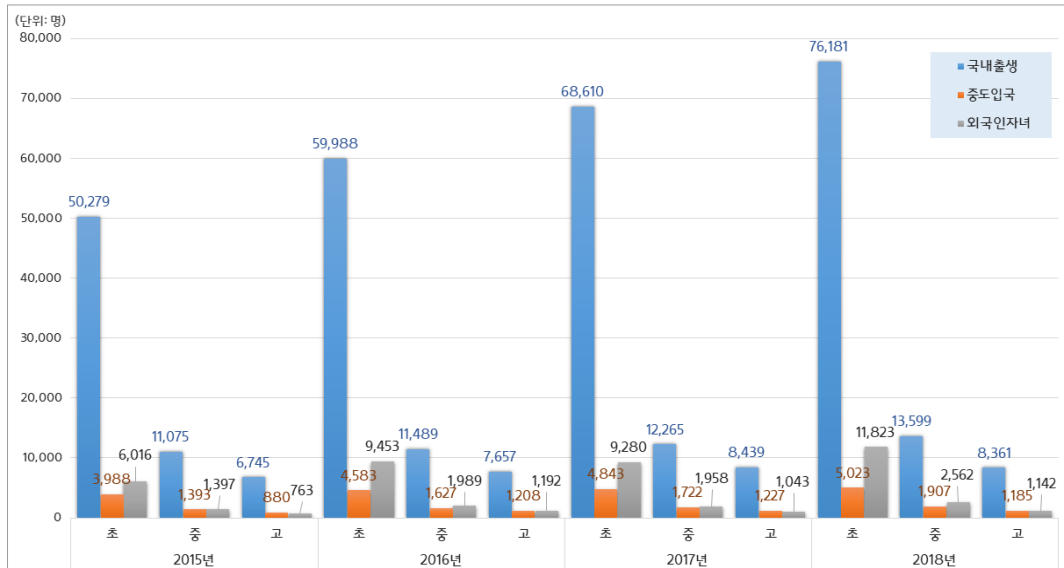
[표 3-14] 학교급(초·중·고)별 다문화학생 수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각종 학교	계
국내출생	50,279	11,075	6,745	68,099	59,998	11,489	7,657	79,134	68,610	12,265	8,439	98,141	76,181	13,599	8,361	122	98,263
중도입국	3,988	1,393	880	6,261	4,583	1,627	1,208	7,418	4,843	1,722	1,227	8,115	5,023	1,907	1,185	205	8,320
외국인자녀	6,016	1,397	763	8,176	9,453	1,989	1,192	12,634	9,280	1,958	1,043	15,527	11,823	2,562	1,142	102	15,629
계	60,283	13,865	8,388	82,536	74,024	15,105	10,057	99,186	82,733	15,945	10,709	109,387	93,027	18,068	10,688	429	122,212
비율	73.0%	16.8%	10.2%	100%	74.6%	15.2%	10.1%	100%	75.6%	14.6%	9.8%	100%	76.1%	14.8%	8.7%	0.4%	100%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교육통계』(교육부), 2018.

[그림 3-10] 학교급(초·중·고)별 다문화학생 수 추이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교육통계』(교육부), 2018.

- 질병, 해외출국을 제외하고 가사, 학업, 대인관계, 교직, 품행, 기타 사유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를 파악한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 현황을 학교급 및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학교급별 구분 없이 전체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의 경우 2017년이 1.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매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

[표 3-15]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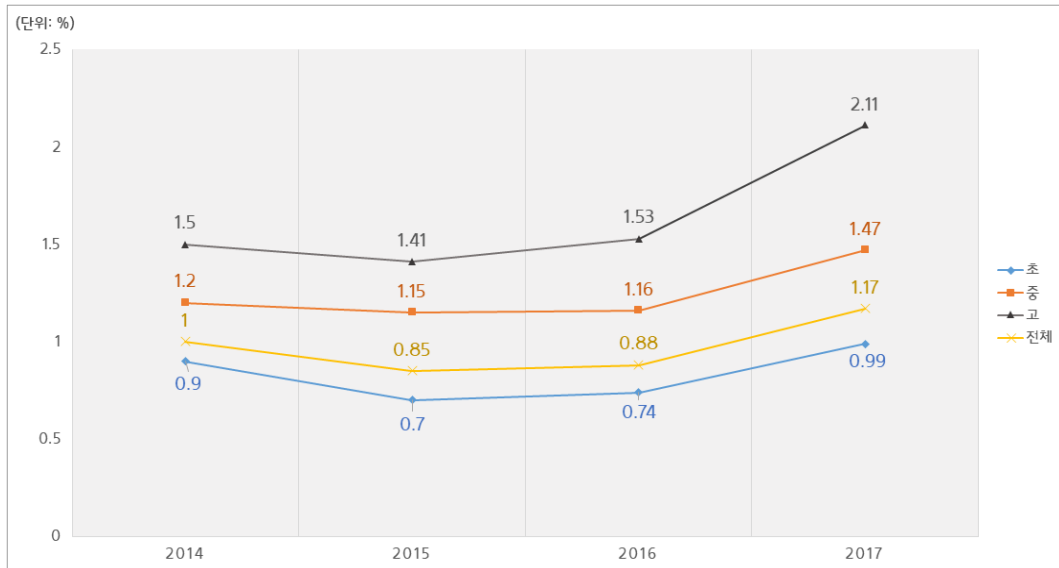
연도	구 분	초	중	고	계
'14년도 (‘14.3~’15.2)	재학생수	48,297	12,525	6,984	67,806
	학업중단자수 (부적응)	435 (110)	146 (75)	107 (73)	688 (258)
	학업중단율(%)	0.9 (0.2)	1.2 (0.6)	1.5 (1.1)	1.0 (0.4)
'15년도 (‘15.3~’16.2)	재학생수	60,283	13,865	8,388	82,536
	학업중단자수 (부적응)	423 (86)	159 (65)	118 (85)	700 (235)
	학업중단율(%)	0.7 (0.1)	1.15 (0.5)	1.41 (1.0)	0.85 (0.3)
'16년도 (‘16.3~’17.2)	재학생수	74,024	15,105	10,057	99,186
	학업중단자수 (부적응)	547 (84)	178 (78)	154 (121)	876 (283)
	학업중단율(%)	0.74 (0.11)	1.16 (0.52)	1.53 (1.20)	0.88 (0.29)
'17년도	재학생수	82,806	15,983	10,598	109,387
	학업중단자수 (부적응)	819 (126)	235 (83)	224 (145)	1,278 (354)
	학업중단율(%)	0.99 (0.15)	1.47 (0.52)	2.11 (1.37)	1.17 (0.32)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교육통계』(교육부), 2018.

\*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자 수, 중단율 () : 질병, 해외출국을 제외하고 가사, 학업, 대인관계, 교칙, 품행, 기타 사유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학업중단율

\*\* 전체 학생 학업중단율('15 : 초 0.5, 중 0.6, 고 1.3, 전체 0.8)

[그림 3-11]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현황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교육통계』(교육부), 2018.



#### 4.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현황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특성별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전체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17년에는 68.1%, 18년 68%로 나타났고 경제활동 참가율의 경우 17년 70.9%, 18년 71.4%로 나타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제활동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체류자격으로 구분했을 때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결혼이민자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17년 49.8%, 18년 58.0%였고 고용률의 경우 17년 47.9%, 18년 55.3%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화하지 않은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의 절반가량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3-16] 외국인 특성별 경제활동 현황

(단위 : 천 명, %)

구분		'17년					'18년				
		경제활동인구		비경 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 율	고용 률	경제활동인구		비경 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 율	고용 률
'18년 외국인 합계		868.7	834.2	356.6	70.9	68.1	929.1	884.3	371.7	71.4	68.0
체류 자격	비전문취업(E-9)	255.7	255.6	0.2*	99.9	99.9	262.3	262.1	0.0*	100.0	99.9
	방문취업(H-2)	174.4	166.7	27.1	86.6	82.7	179.8	170.5	29.9	85.7	81.3
	전문인력(E-1~E-7)	38.2	38.2	0.4*	99.2	99.2	36.9	36.6	0.3*	99.2	98.4
	유학생(D-2, D-4-1, 7)	15.4	12.4	83.2	15.6	12.6	25.3	19.6	96.1	20.9	16.2
	재외동포(F-4)	194.0	181.6	83.9	69.8	65.3	211.6	199.1	95.0	69.0	64.9
	영주(F-5)	78.1	74.8	24.5	76.0	72.8	83.0	78.6	21.1	79.8	75.6
	결혼이민(F-2-1, F-6)	54.0	52.0	54.5	49.8	47.9	63.0	60.1	45.6	58.0	55.3
	기타	58.9	53.0	82.8	41.6	37.4	67.2	57.7	83.7	44.6	38.3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통계청, 2018).

\*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표시를 하였음

○ 다음으로 외국인 취업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2017년 834,200명에서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884,300명으로 증가하였음
-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 국적이 2017년 364,500명, 2018년 377,6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베트남의 경우 2017년 66,300명, 2018년 79,000명임
- 체류자격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때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2017년 52,000명에서 2018년 60,100명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 외국인 취업자 중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이 15,700명, 여성이 44,400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7] 국적별 외국인 취업자 현황

(단위 : 천 명)

구분		외국인				귀화허가자			
		'17년 전체	'18년 전체	남자	여자	'17년 전체	'18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834.2	884.3	590.3	293.9	33.8	34.6	7.1	27.4
국적	아시아	772.2	818.1	548.7	269.4	33.5	34.3	7.0	27.3
	한국계 중국	364.5	377.6	226.6	150.9	12.7	13.2	5.1	8.1
	중국	50.3	52.4	22.3	30.1	4.7	4.2	0.9	3.3
	베트남	66.3	79.0	49.3	29.7	11.4	12.0	0.1	11.9
	기타 아시아	291.0	309.1	250.5	58.6	4.8	5.0	1.0	4.0
	아시아 이외	62.0	66.2	41.6	24.6	0.3	0.3	0.1	0.2
	비전문취업(E-9)	255.6	262.1	239.1	23.0	-	-	-	-
체류 자격	방문취업(H-2)	166.7	170.5	110.1	60.4	-	-	-	-
	전문인력(E-1~E-7)	38.2	36.6	21.8	14.9	-	-	-	-
	유학생(D-2, D-4-1, 7)	12.4	19.6	8.6	11.0	-	-	-	-
	재외동포(F-4)	181.6	199.1	115.9	83.1	-	-	-	-
	영주(F-5)	74.8	78.6	39.2	39.4	-	-	-	-
	결혼이민(F-2-1, F-6)	52.0	60.1	15.7	44.4	-	-	-	-
	기타	53.0	57.7	40.1	17.6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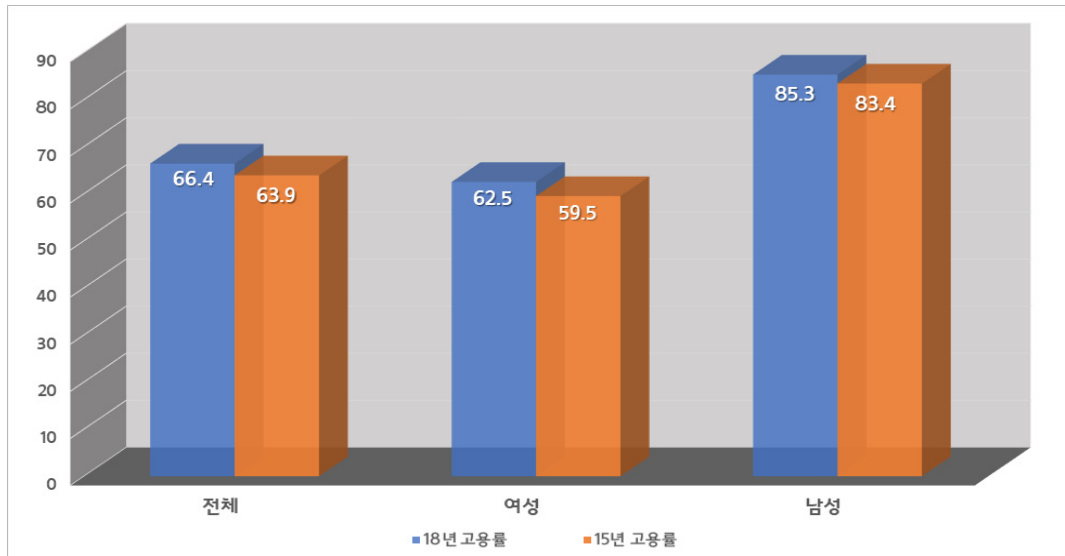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통계청, 2018).

\* 귀화허가자 중 24.9%이 결혼으로 인한 거주임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고용률을 2015년과 2018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고용률은 15년 63.9%에서 18년 66.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 여성의 경우 15년 59.5%에서 18년 62.5%, 남성의 경우 15년 83.4%에서 18년 85.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

(단위 : %)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통계청, 2018).

## 5.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결혼이민자의 체류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증감 추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2013년 150,865명에서 2018년 10월 기준 158,3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8]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7년7월	'18년10월
인 원	150,865	150,994	151,608	152,374	155,457	154,072	158,302
전년대비 증감률	1.6%	0.1%	0.2%	0.5%	2.0%	-	2.3%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법무부), 2018.

- 결혼이민자의 국적 및 성별에 따른 체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남성과 여성 전체를 살펴보면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국적이 3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베트남이 2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가 83.2%이고 그 중에서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국적이 45.7%, 베트남 30.5%, 일본 9.4%, 필리핀 8.7%로 나타나 성별 전체에서 살펴본바와 유사한 양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남성의 경우 결혼이민자 전체의 16.8%를 차지하고 있고,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포함 중국 국적이 남성 결혼이민자의 75.6%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베트남 8.0%, 일본 4.6%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9]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체류현황

(단위: 명)

국적 구분	계	중국 (한국계 포함)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 디아	태국	몽골	기타
전체	158,302	58,456	21,835	42,235	13,682	11,836	4,492	4,280	2,421	20,900
	(100%)	(36.9%)		(26.7%)	(8.6%)	(7.5%)	(2.8%)	(2.7%)	(1.5%)	(13.2%)
남자	26,545	12,601	7,463	2,114	1,233	409	205	85	144	9,754
	(16.8%)									
여자	131,757	45,855	14,372	40,121	12,449	11,427	4,287	4,195	2,277	11,146
	(83.2%)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법무부), 2018.

- 결혼이민자의 전국 지역별 체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결혼이민자 수는 총 156,324 명이고 경기도에 44,772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서울 27,414명, 경남 10,250명, 인천 10,151명, 세종을 포함하여 충남 9,011명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20] 결혼이민자 지역별 체류현황

(단위: 명)

구분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충남	경북	부산	전남	계
체류인구	44,772	27,414	10,250	10,151	9,011	7,957	7,251	6,562	156,324
구분	전북	대구	충북	강원	대전	광주	울산	제주	
체류인구	6,014	5,342	5,143	3,637	3,379	3,484	3,362	2,595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법무부), 2018.

- 결혼이민자 중 혼인 후 귀화한 자의 체류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2013년 93,953명, 2014년 101,560명, 2015년 108,526명, 2016년 114,901명, 2017년 121,339명으로 12만 명을 초과하였고, 18년 10월 기준 127,820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3-21] 혼인귀화자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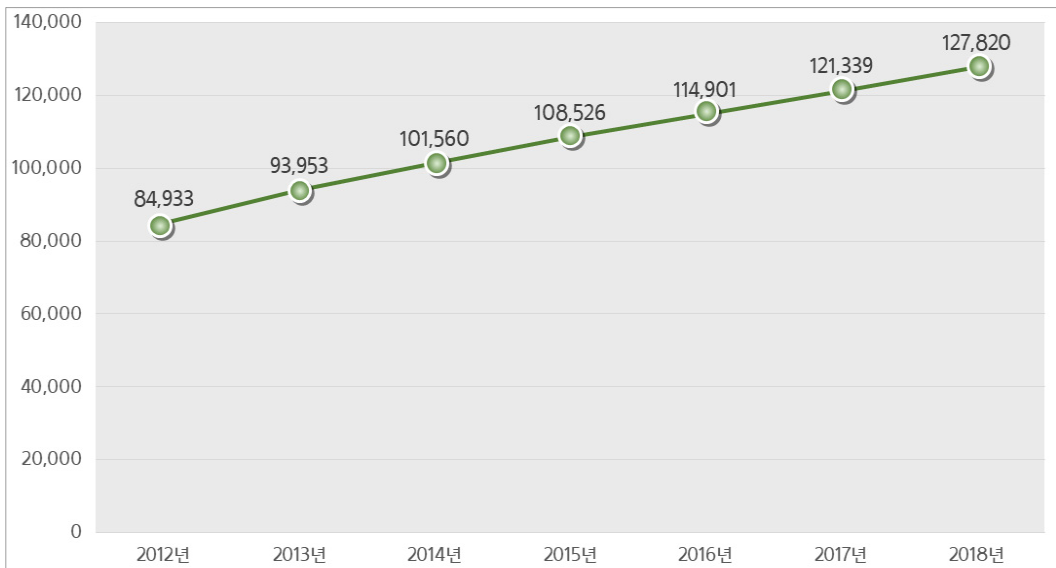
(단위: 명)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10월
혼인귀화자 ( 전체누계 )	84,933	93,953	101,560	108,526	114,901	121,339	127,820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법무부), 2018.

[그림 3-13] 혼인귀화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법무부), 2018.

## 6. 다문화가구 현황

- 다문화가구 분포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다문화가구와 국내 전체가구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구의 수는 2015년 299,241개에서 2017년 318,917개로 매년 증가하였고 전체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비율 또한 2015년 1.57%에서 2017년 1.6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2] 전국의 다문화가구 현황(2015-2017)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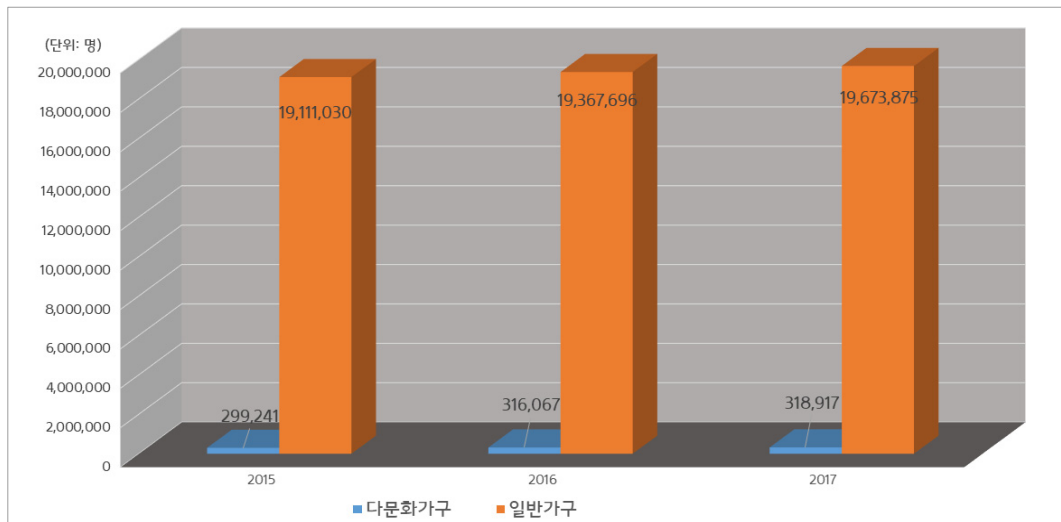
연도	구분	일반 가구	다문화 가구	다문화가구 비율(%)*
2015		19,111,030	299,241	1.57
2016		19,367,696	316,067	1.63
2017		19,673,875	318,917	1.62

출처: 통계청,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시/군/구)”, 『인구총조사』, 2015-2017.

\* 다문화가구비율=다문화가구/일반가구\*100

[그림 3-14] 전국의 다문화가구 현황(2015-2017)

(단위: 가구, %)



출처: 통계청,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시/군/구)”, 『인구총조사』, 2015-2017.

\* 다문화가구비율=다문화가구/일반가구\*100

## 제2절 지방자치단체(광역)의 다문화가족 현황

### 1.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7개 광역시도별로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 경기도가 266,61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79,426명, 경상남도 62,478명, 인천 60,809명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에 다문화인구의 52.6%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연도별 증감을 살펴보면, 전국 다문화인구의 경우 2016년 963,174명에서 2017년 963,801명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인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으로 전국 다문화가족 내 한국인배우자는 301,354명(31.3%),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20,645명(33.3%), 자녀 220,950명(22.9%), 기타동거인 120,852명(12.5%)임

[표 3-23] 시도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단위: 명)

구분	연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합계
			결혼 이민자	귀화 자	소계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소계	내국 인	외국 인	소계	
전국	2016	298,858	158,620	151,002	309,622	9,750	189,411	199,161	106,781	48,752	155,533	963,174
	2017	301,354	159,958	160,687	320,645	8,804	212,146	220,950	75,468	45,384	120,852	963,801
서울	2016	49,811	32,988	38,418	71,406	2,655	27,932	30,587	19,747	16,899	36,646	188,450
	2017	48,116	31,929	39,179	71,108	2,459	28,302	30,761	15,062	14,379	29,441	179,426
부산	2016	14,701	6,643	4,920	11,563	325	8,443	8,768	5,174	964	6,138	41,170
	2017	14,946	6,825	5,224	12,049	286	9,835	10,121	3,519	986	4,505	41,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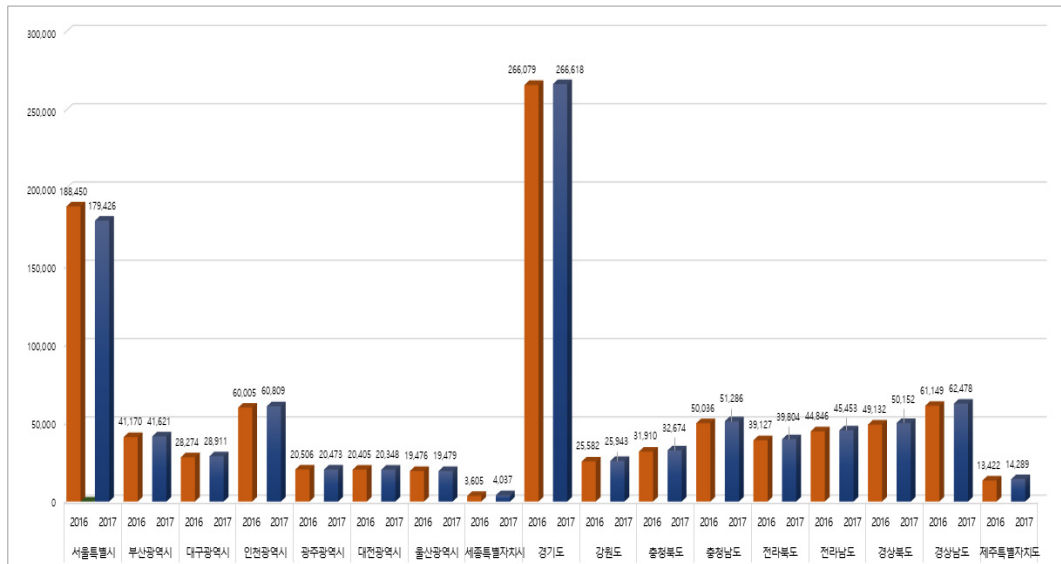
구분	연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합계
			결혼 이민자	귀화 자	소계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소계	내국 인	외국 인	소계	
대구	2016	9,725	4,725	3,426	8,151	238	6,086	6,324	3,331	743	4,074	28,274
	2017	10,036	4,881	3,671	8,552	200	7,258	7,458	2,164	701	2,865	28,911
인천	2016	17,752	9,830	10,460	20,290	754	11,604	12,358	6,663	2,942	9,605	60,005
	2017	17,732	10,116	11,772	21,888	740	12,776	13,516	4,804	2,869	7,673	60,809
광주	2016	6,523	3,281	2,599	5,880	122	4,719	4,841	2,615	647	3,262	20,506
	2017	6,546	3,362	2,796	6,158	108	5,439	5,547	1,589	633	2,222	20,473
대전	2016	6,988	3,329	2,400	5,729	162	4,395	4,557	2,642	489	3,131	20,405
	2017	6,992	3,325	2,633	5,958	121	5,108	5,229	1,647	522	2,169	20,348
울산	2016	6,155	3,313	2,771	6,084	146	4,227	4,373	2,122	742	2,864	19,476
	2017	6,277	3,325	2,846	6,171	117	4,818	4,935	1,398	698	2,096	19,479
세종	2016	1,215	594	423	1,017	35	779	814	452	107	559	3,605
	2017	1,386	690	501	1,191	32	936	968	391	101	492	4,037
경기	2016	76,551	46,064	46,711	92,775	3,287	48,863	52,150	28,249	16,354	44,603	266,079
	2017	76,642	46,963	50,360	97,323	3,034	53,122	56,156	20,888	15,629	36,497	266,618
강원	2016	9,399	3,532	3,076	6,608	159	5,774	5,933	3,151	491	3,642	25,582
	2017	9,681	3,527	3,327	6,854	123	6,671	6,794	2,120	494	2,614	25,943
충북	2016	10,906	4,792	4,379	9,171	227	7,025	7,252	3,581	1,000	4,581	31,910
	2017	11,243	4,980	4,658	9,638	196	8,129	8,325	2,382	1,086	3,468	32,674
충남	2016	16,768	7,953	6,495	14,448	386	11,022	11,408	5,573	1,839	7,412	50,036
	2017	17,312	8,115	7,116	15,231	332	12,623	12,955	3,896	1,892	5,788	51,286
전북	2016	13,622	5,748	4,592	10,340	257	9,301	9,558	4,627	980	5,607	39,127
	2017	13,901	5,805	4,876	10,681	201	10,983	11,184	3,066	972	4,038	39,804
전남	2016	15,958	6,629	4,905	11,534	248	11,038	11,286	5,009	1,059	6,068	44,846
	2017	16,278	6,504	5,205	11,709	205	12,894	13,099	3,366	1,001	4,367	45,453
경북	2016	17,585	7,420	5,907	13,327	284	11,261	11,545	5,434	1,241	6,675	49,132
	2017	18,149	7,468	6,232	13,700	231	13,420	13,651	3,454	1,198	4,652	50,152

구분	연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합계
			결혼 이민자	귀화 자	소계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소계	내국 인	외국 인	소계	
경남	2016	20,501	9,508	8,092	17,600	347	13,866	14,213	6,946	1,889	8,835	61,149
	2017	21,043	9,700	8,678	18,378	312	16,313	16,625	4,571	1,861	6,432	62,478
제주	2016	4,698	2,271	1,428	3,699	118	3,076	3,194	1,465	366	1,831	13,422
	2017	5,074	2,443	1,613	4,056	107	3,519	3,626	1,171	362	1,533	14,289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그림 3-15] 시도별 다문화가족 현황(2016-2017)

(단위: 명)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 전국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연령별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가 많은 순서대로 다섯 번째 지역까지 선별하여 살펴보면 경기의 경우 40-49세가 55,912명(2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0-9세 48,450명(18.2%), 30-39세 47,780명(17.9%), 50-59세 40,079명(15%) 순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 경기와 마찬가지로 40-49세가 36,122명(20.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30-39세 31,966명(17.8%), 50-59세 30,916명(17.2%), 0-9세 27,888명(15.5%) 순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 타 지자체와 달리 0-9세가 14,256명(22.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40-49세 11,857명(19%), 30-39세 10,611명(17%), 50-59세 7,180명(11.5%) 순으로 나타남
  - 인천의 경우, 40-49세가 12,481명(20.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0-9세 11,244명(18.5%), 30-39세 10,952명(18%), 50-59세 8,893명(14.6%) 순으로 나타남
  - 충남의 경우, 0-9세가 10,827명(21.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40-49세 10,004명(19.5%), 30-39세 8,019명(15.6%), 50-59세 6,611명(12.9%) 순으로 나타남
- 종합해보면 경기, 서울, 인천의 경우 가족구성원 중 40-49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경남, 충남의 경우 가족구성원 중 0-9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의 경우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의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3-24] 시도별 다문화가족 연령별 현황(2017)

(단위: 명)

구분	연령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기타)	총 가구원
전국	계	588,968	168,519	159,958	46,356	963,801
	0~9세	183,342	3,986	X	2,247	189,575

구분	연령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기타)	총 가구원
	10~19세	72,177	4,235	613	1,621	78,646
	20~29세	17,723	22,372	38,937	6,586	85,618
	30~39세	45,466	53,241	56,257	7,743	162,707
	40~49세	109,207	41,611	34,111	7,523	192,452
	50~59세	73,702	27,464	23,642	10,541	135,349
	60세 이상	87,351	15,610	6,398	10,095	119,454
서울	계	91,480	41,441	31,929	14,576	179,426
	0~9세	26,138	1,061	X	689	27,888
	10~19세	10,643	1,302	46	446	12,437
	20~29세	3,422	3,811	4,426	2,034	13,693
	30~39세	10,262	8,686	10,470	2,548	31,966
	40~49세	15,080	10,609	8,076	2,357	36,122
	50~59세	11,293	9,643	6,695	3,285	30,916
	60세 이상	14,642	6,329	2,216	3,217	26,404
부산	계	28,300	5,466	6,825	1,030	41,621
	0~9세	8,714	127	X	46	8,887
	10~19세	2,986	135	30	67	3,218
	20~29세	875	995	2,142	163	4,175
	30~39세	2,240	1,947	2,507	151	6,845
	40~49세	5,380	1,277	1,302	156	8,115
	50~59세	3,397	697	665	254	5,013
	60세 이상	4,708	288	179	193	5,368
대구	계	19,458	3,845	4,881	727	28,911
	0~9세	6,233	108	X	33	6,374
	10~19세	2,234	72	33	41	2,380
	20~29세	554	739	1,651	92	3,036
	30~39세	1,387	1,620	1,883	80	4,970
	40~49세	4,024	846	853	117	5,840
	50~59세	2,206	327	375	222	3,130
	60세 이상	2,820	133	86	142	3,181
인천	계	35,312	12,440	10,116	2,941	60,809
	0~9세	10,730	352	X	162	11,244
	10~19세	4,731	356	25	118	5,230
	20~29세	1,233	1,527	2,072	457	5,289
	30~39세	2,976	3,682	3,801	493	10,952
	40~49세	6,439	3,325	2,284	433	12,481
	50~59세	4,743	2,115	1,531	504	8,893
	60세 이상	4,460	1,083	403	774	6,720
광주	계	13,574	2,892	3,362	645	20,473
	0~9세	4,649	52	X	20	4,721

구분	연령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기타)	총 가구원
	10~19세	1,706	50	19	22	1,797
	20~29세	405	586	1,151	84	2,226
	30~39세	934	1,245	1,148	88	3,415
	40~49세	2,767	638	630	111	4,146
	50~59세	1,633	236	355	190	2,414
	60세 이상	1,480	85	59	130	1,754
대전	계	13,747	2,746	3,325	530	20,348
	0~9세	4,431	51	X	24	4,506
	10~19세	1,598	79	18	17	1,712
	20~29세	430	519	1,032	61	2,042
	30~39세	1,065	1,075	1,223	70	3,433
	40~49세	2,670	584	622	83	3,959
	50~59세	1,650	315	351	144	2,460
	60세 이상	1,903	123	79	131	2,236
울산	계	12,493	2,940	3,325	721	19,479
	0~9세	4,089	52	X	45	4,186
	10~19세	1,500	47	22	36	1,605
	20~29세	358	437	1,059	82	1,936
	30~39세	942	1,212	1,215	121	3,490
	40~49세	2,572	668	609	119	3,968
	50~59세	1,490	376	347	164	2,377
	60세 이상	1,542	148	73	154	1,917
세종	계	2,713	527	690	107	4,037
	0~9세	885	13	X	X	902
	10~19세	295	14	X	6	319
	20~29세	93	83	174	5	355
	30~39세	241	226	293	11	771
	40~49세	498	107	121	17	743
	50~59세	337	62	82	27	508
	60세 이상	364	22	16	37	439
경기	계	150,632	53,047	46,963	15,976	266,618
	0~9세	46,152	1,383	X	915	48,450
	10~19세	19,051	1,419	119	540	21,129
	20~29세	5,111	6,100	8,809	2,548	22,568
	30~39세	12,914	15,297	16,628	2,941	47,780
	40~49세	27,815	14,176	11,419	2,502	55,912
	50~59세	19,683	9,389	7,858	3,149	40,079
	60세 이상	19,906	5,283	2,130	3,381	30,700
강원	계	18,472	3,431	3,527	513	25,943
	0~9세	5,342	54	X	8	5,404
	10~19세	2,580	54	24	22	2,680

구분	연령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기타)	총 가구원
	20~29세	456	587	1,040	40	2,123
	30~39세	891	1,328	1,152	44	3,415
	40~49세	3,211	866	695	94	4,866
	50~59세	2,563	370	513	159	3,605
	60세 이상	3,429	172	103	146	3,850
충북	계	21,754	4,828	4,980	1,112	32,674
	0~9세	6,777	86	X	54	6,917
	10~19세	2,758	97	22	37	2,914
	20~29세	552	733	1,564	132	2,981
	30~39세	1,284	1,873	1,647	165	4,969
	40~49세	4,047	1,075	977	199	6,298
	50~59세	2,860	591	641	284	4,376
	60세 이상	3,476	373	129	241	4,219
충남	계	33,831	7,410	8,115	1,930	51,286
	0~9세	10,621	142	X	64	10,827
	10~19세	4,260	169	37	66	4,532
	20~29세	943	1,102	2,416	246	4,707
	30~39세	2,081	2,780	2,848	310	8,019
	40~49세	6,416	1,707	1,524	357	10,004
	50~59세	4,126	948	1,068	469	6,611
	60세 이상	5,384	562	222	418	6,586
전북	계	27,950	5,053	5,805	996	39,804
	0~9세	9,126	88	X	25	9,239
	10~19세	3,655	99	38	44	3,836
	20~29세	673	890	2,039	94	3,696
	30~39세	1,399	2,163	1,924	84	5,570
	40~49세	5,183	1,137	988	180	7,488
	50~59세	3,489	494	668	342	4,993
	60세 이상	4,425	182	148	227	4,982
전남	계	32,538	5,368	6,504	1,043	45,453
	0~9세	10,862	93	X	29	10,984
	10~19세	4,158	81	53	42	4,334
	20~29세	618	973	2,411	94	4,096
	30~39세	1,520	2,345	2,137	119	6,121
	40~49세	5,986	1,226	1,057	189	8,458
	50~59세	4,049	479	716	351	5,595
	60세 이상	5,345	171	130	219	5,865
경북	계	35,023	6,432	7,468	1,229	50,152
	0~9세	11,373	110	X	31	11,514
	10~19세	4,050	99	45	40	4,234
	20~29세	727	1,224	2,793	137	4,881

구분	연령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기타)	총 가구원
	30~39세	2,042	3,044	2,776	149	8,011
	40~49세	6,798	1,264	1,088	230	9,380
	50~59세	4,116	480	625	385	5,606
	60세 이상	5,917	211	141	257	6,526
경남	계	41,927	8,942	9,700	1,909	62,478
	0~9세	14,010	161	X	85	14,256
	10~19세	5,035	112	58	65	5,270
	20~29세	1,012	1,766	3,316	265	6,359
	30~39세	2,573	4,069	3,655	314	10,611
	40~49세	8,302	1,726	1,514	315	11,857
	50~59세	4,954	763	955	508	7,180
	60세 이상	6,041	345	202	357	6,945
제주	계	9,764	1,711	2,443	371	14,289
	0~9세	3,210	53	X	13	3,276
	10~19세	937	50	20	12	1,019
	20~29세	261	300	842	52	1,455
	30~39세	715	649	950	55	2,369
	40~49세	2,019	380	352	64	2,815
	50~59세	1,113	179	197	104	1,593
	60세 이상	1,509	100	82	71	1,762

출처 : 통계청, “연령 및 성별 다문화가구원”, 『인구총조사』, 2017.

○ 다문화가구 구성원 중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가장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인 수도권을 먼저 살펴보면, 경기의 경우 2007년 35,461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7년 100,529명으로 나타났고, 서울의 경우 2007년 45,601명으로 시작하여 2011년에서 2014년까지는 변동폭이 매우 작았다가 2015년 소폭 하락한 후 2017년에는 73,753명인 것으로 나타남
- 인천의 경우 2007년 8,059명에서 2009년 11,872명으로 급증한 후 2017년 22,626명인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지역인 경남의 경우 2007년에는 6,301명이었고 2009년 10,107명으로 만 명을 초과한 후 2017년 18,725명으로 나타남

[표 3-25]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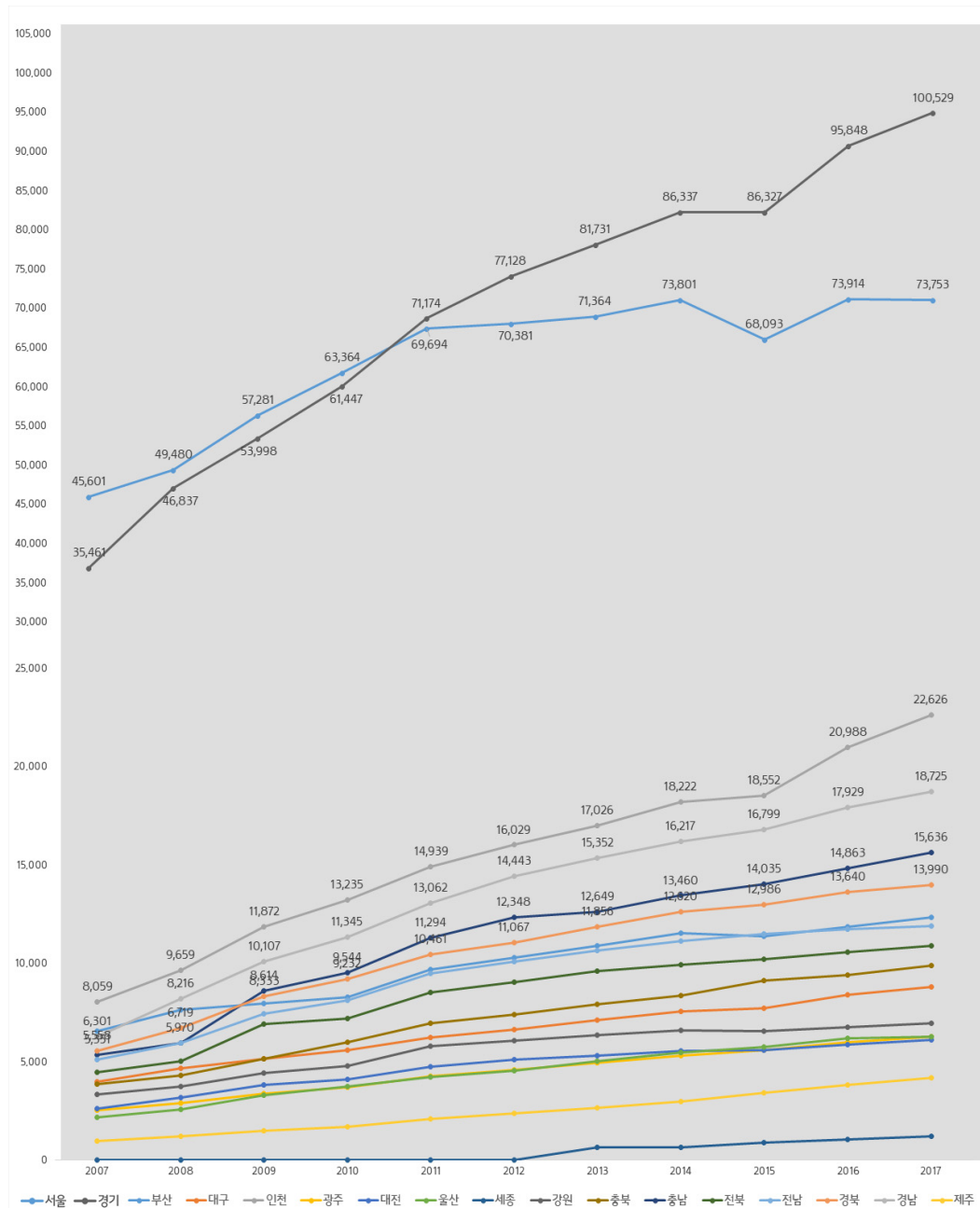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294,663	318,948	330,188
서울	45,601	49,480	57,281	63,364	69,694	70,381	71,364	73,801	68,093	73,914	73,753
부산	6,556	7,654	7,973	8,314	9,705	10,305	10,915	11,529	11,380	11,853	12,337
대구	3,980	4,666	5,170	5,599	6,261	6,664	7,131	7,580	7,743	8,403	8,815
인천	8,059	9,659	11,872	13,235	14,939	16,029	17,026	18,222	18,552	20,988	22,626
광주	2,548	2,909	3,384	3,705	4,283	4,590	4,960	5,336	5,603	6,001	6,284
대전	2,630	3,175	3,849	4,117	4,758	5,123	5,337	5,575	5,610	5,899	6,106
울산	2,183	2,604	3,301	3,755	4,225	4,561	5,049	5,497	5,759	6,217	6,296
세종	-	-	-	-	-	-	653	650	894	1,053	1,225
경기	35,461	46,837	53,998	61,447	71,174	77,128	81,731	86,337	86,327	95,848	100,529
강원	3,357	3,764	4,449	4,809	5,793	6,103	6,381	6,590	6,571	6,768	6,989
충북	3,881	4,307	5,165	6,023	6,982	7,417	7,941	8,370	9,126	9,433	9,882
충남	5,351	5,970	8,614	9,544	11,294	12,348	12,649	13,460	14,035	14,863	15,636
전북	4,479	5,042	6,940	7,197	8,523	9,068	9,626	9,951	10,237	10,568	10,900
전남	5,106	5,982	7,452	8,142	9,489	10,115	10,657	11,129	11,502	11,749	11,906
경북	5,558	6,719	8,333	9,232	10,461	11,067	11,856	12,620	12,986	13,640	13,990
경남	6,301	8,216	10,107	11,345	13,062	14,443	15,352	16,217	16,799	17,929	18,725
제주	964	1,240	1,510	1,720	2,121	2,385	2,667	2,978	3,446	3,822	4,189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07-2017.



[그림 3-16]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추이

(단위: 명)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07-2017.

## 2.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다문화가구 구성원인 부모의 국적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자녀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구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동북아시아가 16년에는 17,604명, 17년에는 17,8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시아가 16년 6,684명에서 17년에 8,12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타 지역과는 달리 미국 국적의 자녀 수가 16년 2,407명, 17년 1,853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동북아시아가 2016년 28,479명, 2017년 30,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남아시아가 16년 16,630명, 17년 20,187명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적이 16년 8,553명, 17년 10,7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북아시아가 17년 4,829명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의 경우 동북아시아가 16년 7,000명에서 17년 7,701명으로 증가하였고 동남아시아는 16년 3,896명, 17년 4,618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합계로 살펴본 양상과 유사하게 중국, 한국계 중국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등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적의 자녀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동남아시아 국적의 인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확인됨

[표 3-26] 부모의 국적별 외국인주민 자녀

(단위: 명)

구분	연도	동북 아시아	동남 아시아	서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아시아 (기타)	미국	캐나다	유럽	오세 아니아	중남미	아프 리카	기타	합계
서울특별시	2016	17,604	6,684	317	435	43	2,407	787	809	499	84	131	961	30,761
	2017	17,859	8,129	319	445	38	1,853	500	853	342	98	141	26	31,052
부산광역시	2016	3,252	4,363	118	147	6	216	120	285	59	49	22	215	8,852
	2017	3,538	5,509	122	183	8	213	87	302	55	45	23	*	10,181
대구광역시	2016	2,364	3,148	135	127	6	180	57	101	33	22	9	206	6,388
	2017	2,673	4,057	117	144	8	199	46	111	41	26	16	6	7,501
인천광역시	2016	7,000	3,896	209	266	24	254	105	179	55	21	35	396	12,440
	2017	7,701	4,618	193	303	26	211	71	207	41	33	37	17	13,609
광주광역시	2016	1,880	2,613	57	88	*	56	25	52	16	*	10	80	4,881
	2017	1,967	3,257	58	97	*	66	17	50	14	*	10	5	5,597
대전광역시	2016	1,702	2,322	24	116	5	147	40	89	29	8	10	102	4,594
	2017	1,844	2,946	20	127	6	110	38	88	24	8	12	*	5,255
울산광역시	2016	1,691	2,281	26	88	*	47	39	85	14	11	10	106	4,400
	2017	1,815	2,789	29	95	*	43	31	74	17	14	9	*	4,962
세종 특별자치시	2016	319	390	7	21	*	30	14	13	*	7	*	21	829
	2017	365	508	7	21	*	22	12	12	7	10	*	*	973
경기도	2016	28,479	16,630	839	962	50	1,748	685	804	400	139	153	1,557	52,446
	2017	30,399	20,187	773	1,038	63	1,468	413	844	281	177	173	39	56,584
강원도	2016	2,062	3,377	73	179	*	82	28	49	18	*	6	167	6,046

구분	연도	동북 아시아	동남 아시아	서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아시아 (기타)	미국	캐나다	유럽	오세 아니아	중남미	아프 리카	기타	합계
충청북도	2017	2,077	4,225	77	211	*	71	33	57	17	6	*	*	6,824
	2016	2,849	4,003	76	115	*	81	36	49	25	7	10	172	7,424
	2017	2,992	4,910	76	125	*	74	29	53	23	*	15	9	8,381
충청남도	2016	4,256	6,485	104	216	*	109	31	69	22	13	13	255	11,574
	2017	4,484	7,889	94	211	*	104	22	69	18	19	12	6	13,021
전라북도	2016	3,230	5,891	90	131	7	95	24	47	15	20	8	193	9,751
	2017	3,394	7,330	85	150	6	85	19	56	22	14	9	6	11,256
전라남도	2016	3,330	7,718	50	133	*	76	13	36	10	18	6	197	11,590
	2017	3,305	9,393	54	144	*	63	14	52	10	23	*	7	13,167
경상북도	2016	3,556	7,380	105	169	*	158	26	82	12	15	11	239	11,755
	2017	3,826	9,197	99	191	*	142	25	96	17	26	10	10	13,721
경상남도	2016	4,591	8,553	232	235	5	141	56	192	35	19	14	315	14,388
	2017	4,829	10,755	234	269	6	132	63	198	40	24	27	15	16,720
제주 특별자치도	2016	1,134	1,721	112	47	*	47	42	46	8	*	5	49	3,214
	2017	1,232	2,042	118	66	*	43	42	60	8	*	5	*	3,651
합계	2016	89,299	87,455	2,574	3,475	159	5,874	2,128	2,987	1,254	441	456	5,231	201,333
	2017	94,300	107,741	2,475	3,820	174	4,899	1,462	3,182	977	535	507	160	222,455
평균	2016	5,253	5,144	151	204	18	346	125	176	78	31	28	308	11,843
	2017	5,547	6,338	146	225	20	288	86	187	57	37	36	13	13,086

출처 : 행정안전부. “부모의 국적별 외국인주민 자녀(시/도)”,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의 수를 시·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된 지역인 경기도의 경우 2007년 6,617명에서 2009년 25,648명으로 급증한 후 2017년 56,584명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 2007년 5,305명이었고 경기도와 유사한 양상으로 2009년 16,77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13년부터는 미미한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17년 31,052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3-27]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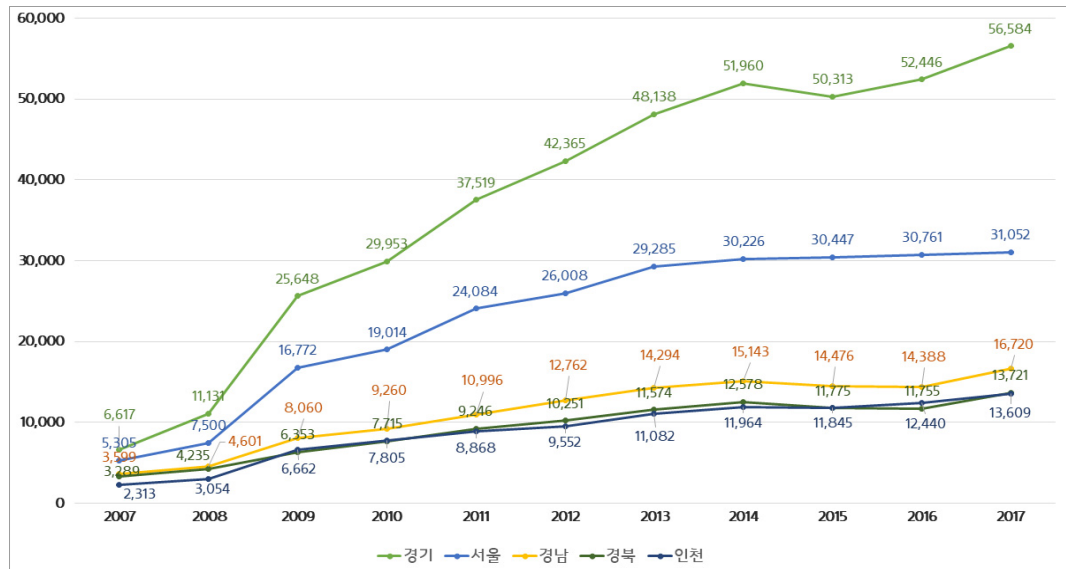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	5,305	7,500	16,772	19,014	24,084	26,008	29,285	30,226	30,447	30,761	31,052
부산	2,269	3,057	5,091	5,698	6,837	7,375	8,311	9,022	9,157	8,852	10,181
대구	2,019	2,254	3,656	3,904	4,475	5,125	5,829	6,305	6,423	6,388	7,501
인천	2,313	3,054	6,662	7,805	8,868	9,552	11,082	11,964	11,845	12,440	13,609
광주	1,231	1,608	2,420	2,752	3,403	3,926	4,519	4,997	5,090	4,881	5,597
대전	824	985	2,441	2,881	3,439	3,847	4,365	4,666	4,561	4,594	5,255
울산	884	1,068	2,489	2,798	3,233	3,582	4,092	4,437	4,376	4,400	4,962
세종	-	-	-	-	-	-	563	660	729	829	973
경기	6,617	11,131	25,648	29,953	37,519	42,365	48,138	51,960	50,313	52,446	56,584
강원	2,366	2,590	4,017	3,900	5,161	5,780	6,498	6,917	6,042	6,046	6,824
충북	2,288	2,584	3,748	4,710	5,675	6,445	7,272	7,718	7,089	7,424	8,381
충남	3,432	3,421	6,399	6,953	9,119	10,023	11,010	11,863	10,908	11,574	13,021
전북	3,275	4,283	5,474	5,849	7,755	8,766	9,989	10,316	9,744	9,751	11,256
전남	4,153	4,902	7,279	7,453	9,764	10,763	12,149	12,832	11,524	11,590	13,167
경북	3,289	4,235	6,353	7,715	9,246	10,251	11,574	12,578	11,775	11,755	13,721
경남	3,599	4,601	8,060	9,260	10,996	12,762	14,294	15,143	14,476	14,388	16,720
제주	394	734	1,180	1,290	1,580	2,013	2,358	2,600	3,051	3,214	3,651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07-2017.

[그림 3-17]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5개 시도)

(단위: 명)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07-2017.

### 3. 다문화가구 현황

- 다문화가구 분포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다문화가구와 전체가구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전체 다문화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50% 가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6.5%), 경남(6.1%), 충남(4.9%) 순으로 다문화가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총 가구 비율대비 경기 지역에 다문화 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경기도 내에 다문화 가구가 타 지역에 비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8] 시도별 다문화가구 분포 현황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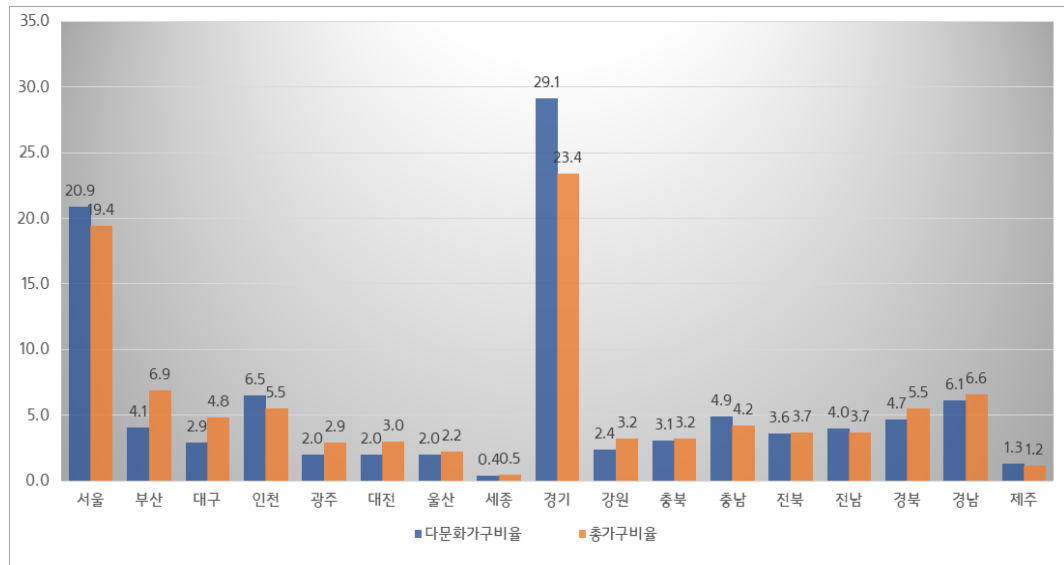
구분	일반 가구	다문화 가구	다문화가구 비율(%)*
서울특별시	3,813,260	66,618	1.75
부산광역시	1,354,401	13,060	0.96
대구광역시	948,030	9,239	0.97
인천광역시	1,080,285	20,641	1.91
광주광역시	575,732	6,529	1.13
대전광역시	597,736	6,323	1.06
울산광역시	428,720	6,397	1.49
세종특별자치시	104,325	1,231	1.18
경기도	4,602,950	92,834	2.02
강원도	620,729	7,495	1.21
충청북도	629,073	10,012	1.59
충청남도	834,986	15,708	1.88
전라북도	728,871	11,492	1.58
전라남도	733,757	12,822	1.75
경상북도	1,087,807	14,853	1.37
경상남도	1,292,998	19,387	1.50
제주특별자치도	240,215	4,276	1.78
계	19,673,875	318,917	1.62

출처 : 통계청,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시/군/구)”, 『인구총조사』, 2017.

\*다문화가구비율=다문화가구/일반가구\*100

[그림 3-18] 시도별 다문화가구 분포 현황

(단위: 가구, %)



출처 : 통계청,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시/군/구)”, 『인구총조사』, 2017.

\*다문화가구비율=다문화가구/일반가구\*100



## 제3절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현황

### 1.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현황

-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경기도에서 다문화인구가 많은 10개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먼저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안산시의 경우, 2016년 28,986명에서 이듬해 27,714명으로 감소 (-4.4%)하였음
  - 수원시 또한 23,699명에서 23,439명으로 1.1% 감소하였으며 부천시의 경우 20,309명에서 20,859명으로 2.7% 증가하였음
  - 한편 성남시의 경우 16,236명에서 15,297명으로 5.8% 감소하였으며 화성시의 경우 14,615명에서 15,235명으로 4.2% 증가함
  - 고양시의 경우 2016년 14,298명에서 14,207명으로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귀화자와 국내출생 자녀 수가 각각 6.6%, 7.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29]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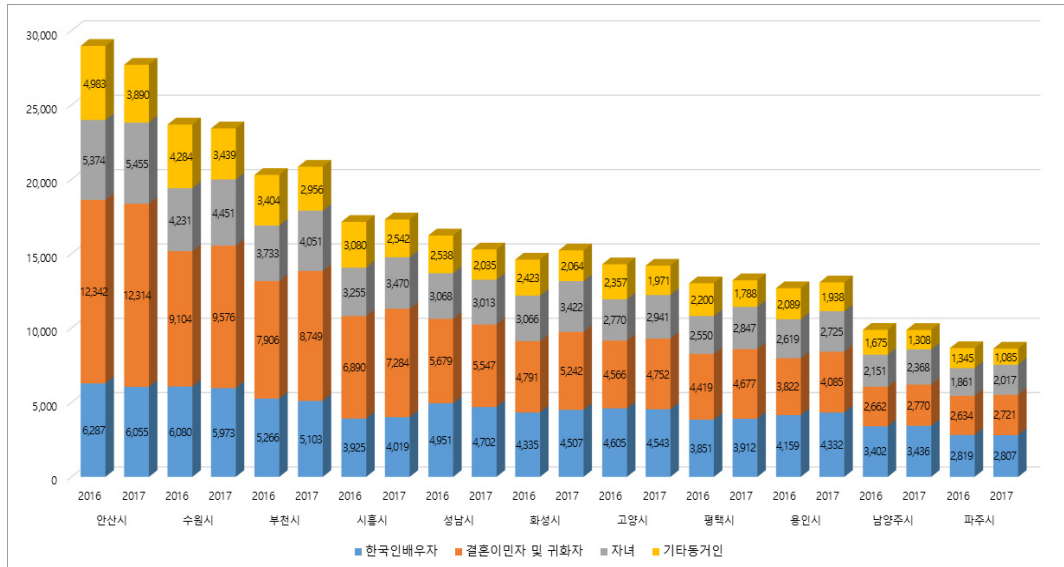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합계
			결혼 이민자	귀화 자	소계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자녀	소계	내 국 인	외 국 인	소계	
안 산	2016	6,287	5,624	6,718	12,342	509	4,862	5,374	2,204	2,779	4,983	28,986
	2017	6,055	5,320	6,994	12,314	461	4,994	5,455	1,499	2,391	3,890	27,714
수 원	2016	6,080	4,227	4,877	9,104	331	3,900	4,231	2,360	1,924	4,284	23,699
	2017	5,973	4,313	5,263	9,576	317	4,134	4,451	1,654	1,785	3,439	23,439
부 천	2016	5,266	3,384	4,522	7,906	313	3,420	3,733	1,933	1,471	3,404	20,309
	2017	5,103	3,536	5,213	8,749	327	3,724	4,051	1,318	1,638	2,956	20,859
시 흥	2016	3,925	3,339	3,551	6,890	265	2,990	3,255	1,396	1,684	3,080	17,150
	2017	4,019	3,375	3,909	7,284	237	3,233	3,470	987	1,555	2,542	17,315
성 남	2016	4,951	2,898	2,781	5,679	189	2,879	3,068	1,820	718	2,538	16,236
	2017	4,702	2,773	2,774	5,547	148	2,865	3,013	1,334	701	2,035	15,297
화 성	2016	4,335	2,670	2,121	4,791	152	2,914	3,066	1,425	998	2,423	14,615
	2017	4,507	2,878	2,364	5,242	141	3,281	3,422	1,124	940	2,064	15,235
고 양	2016	4,605	2,499	2,067	4,566	146	2,624	2,770	1,768	589	2,357	14,298
	2017	4,543	2,548	2,204	4,752	128	2,813	2,941	1,356	615	1,971	14,207
평 택	2016	3,851	2,388	2,031	4,419	147	2,403	2,550	1,386	814	2,200	13,020
	2017	3,912	2,460	2,217	4,677	142	2,705	2,847	1,066	722	1,788	13,224
용 인	2016	4,159	2,158	1,664	3,822	118	2,501	2,619	1,525	564	2,089	12,689
	2017	4,332	2,312	1,773	4,085	100	2,625	2,725	1,345	593	1,938	13,080
남 양 주	2016	3,402	1,504	1,158	2,662	79	2,072	2,151	1,379	296	1,675	9,890
	2017	3,436	1,525	1,245	2,770	77	2,291	2,368	1,051	257	1,308	9,882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그림 3-19] 경기도 10개 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단위: 명)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 경기도 전체 다문화주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내국인(출생) 150,632명으로 가장 많고 내국인(귀화) 53,047명, 외국인(결혼이민자) 46,963명, 외국인(기타) 15,976명으로 나타남
  - － 연령별로 살펴보면 총 가구원의 경우 40-49세가 55,9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0-9세 48,450명, 30-39세 47,780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특히 0-9세에서 내국인(출생) 비율(95.2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국내 출생하는 다문화자녀 대상 정책수요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0] 경기도 다문화가족 연령별 현황(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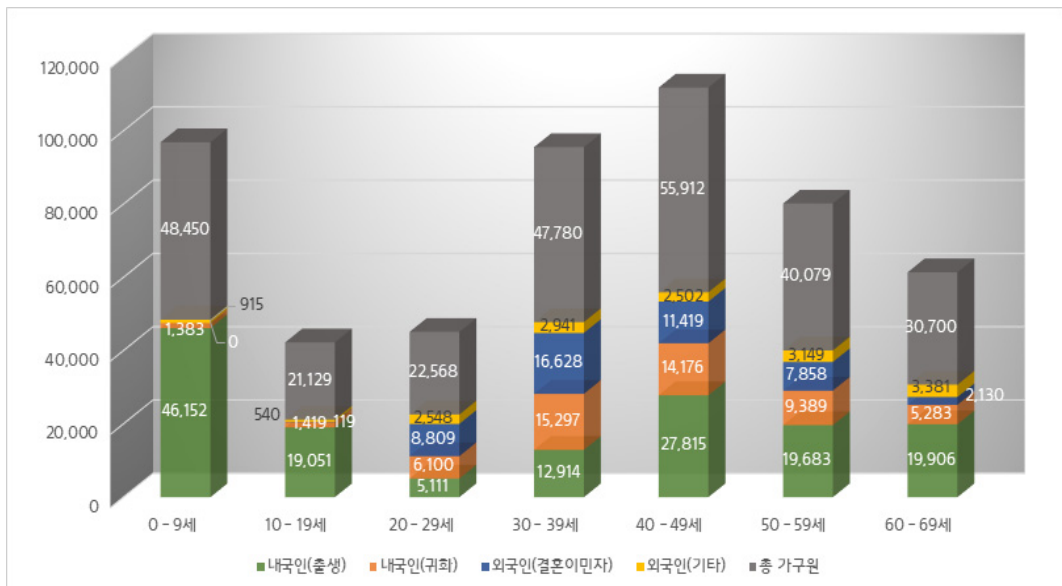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령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기타)	총 가구원
경기	0~9세	46,152	1,383	X	915	48,450
	10~19세	19,051	1,419	119	540	21,129
	20~29세	5,111	6,100	8,809	2,548	22,568
	30~39세	12,914	15,297	16,628	2,941	47,780
	40~49세	27,815	14,176	11,419	2,502	55,912
	50~59세	19,683	9,389	7,858	3,149	40,079
	60세 이상	19,906	5,283	2,130	3,381	30,700
	계	150,632	53,047	46,963	15,976	266,618

출처 : 통계청, “연령 및 성별 다문화가구원”, 『인구총조사』, 2017.

[그림 3-20] 경기도 다문화가족 연령별 현황(2017)

(단위: 명)



출처 : 통계청, “연령 및 성별 다문화가구원”, 『인구총조사』, 2017.

- 경기도내 도시별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경기도 전체 외국인주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39세가 156,936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28.5%)을 차지하였고 이어 20-29세 124,075명(22.5%), 40-49세 102,899명(18.7%) 순임
  - 한국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동일하게 30-39세 구간이 15,36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30-39세 구간이 66,587명으로 가장 많았음
  -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성남시와 용인시를 제외한 모든 시에서도 30-39세 구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성남시의 경우 50-59세 구간이 5,725명으로 21.9%의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나 30-39세 구간은 20.7%로 미미한 차이를 보임
  - 용인시의 경우 20-29세 구간이 6,874명으로 28.3%의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나 30-39세가 6,309명으로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중 60세 이상 비율이 9.7%로 나타나 고령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표 3-31]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연령별 분포(2017)

(단위: 명)

지역	연령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합계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 적동포	기타 외국인		
경기도 전체	0 - 9세	16,334	*	*	*	284	16,050	1,385	17,719
	10 - 19세	8,530	141	119	1,985	521	5,764	1,436	9,966
	20 - 29세	117,896	58,469	8,846	10,880	15,167	24,534	6,179	124,075
	30 - 39세	141,570	66,587	16,692	1,560	21,354	35,377	15,366	156,936
	40 - 49세	88,662	32,326	11,465	173	17,141	27,557	14,237	102,899
	50 - 59세	75,961	28,756	7,901	11	17,192	22,101	9,441	85,402
	60 - 69세	40,311	2,651	1,893	*	29,074	6,693	3,951	44,262
	70세 이상	7,825	98	245	*	6,094	1,388	1,373	9,198
	계	497,089	189,028	47,161	14,609	106,827	139,464	53,368	550,457
수원시	0 - 9세	2,382	*	*	*	12	2,370	145	2,527
	10 - 19세	1,128	*	11	448	46	623	157	1,285
	20 - 29세	8,904	1,581	635	2,459	2,120	2,109	584	9,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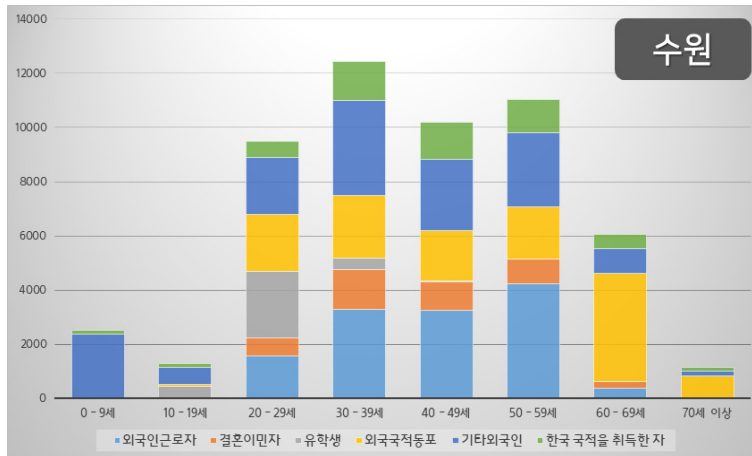
지역	연령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합계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 적동포	기타 외국인		
	30 - 39세	11,000	3,285	1,470	427	2,322	3,496	1,420	12,420
	40 - 49세	8,824	3,255	1,057	26	1,853	2,633	1,382	10,206
	50 - 59세	9,819	4,231	925	*	1,904	2,759	1,223	11,042
	60 - 69세	5,523	387	219	*	4,011	906	517	6,040
	70세 이상	1,012	8	12	*	813	179	146	1,158
	계	48,592	12,747	4,329	3,360	13,081	15,075	5,574	54,166
성남시	0 - 9세	785	*	*	*	41	744	65	850
	10 - 19세	555	*	*	118	78	355	76	631
	20 - 29세	4,005	770	453	939	979	864	311	4,316
	30 - 39세	4,718	1,374	972	95	1,070	1,207	686	5,404
	40 - 49세	4,498	1,542	673	5	1,026	1,252	768	5,266
	50 - 59세	5,135	2,031	507	*	1,276	1,321	590	5,725
	60 - 69세	2,966	190	155	*	2,166	455	337	3,303
	70세 이상	562	9	16	*	456	81	89	651
	계	23,224	5,916	2,780	1,157	7,092	6,279	2,922	26,146
부천시	0 - 9세	1,248	*	*	*	9	1,239	156	1,404
	10 - 19세	504	6	*	120	21	354	151	655
	20 - 29세	4,655	1,283	583	400	1,330	1,059	556	5,211
	30 - 39세	6,760	2,183	1,216	41	1,720	1,600	1,349	8,109
	40 - 49세	4,703	1,540	858	*	1,044	1,257	1,416	6,119
	50 - 59세	5,663	2,046	662	*	1,285	1,670	1,194	6,857
	60 - 69세	3,825	210	202	*	2,806	607	566	4,391
	70세 이상	663	7	15	*	567	74	142	805
	계	28,021	7,275	3,539	565	8,782	7,860	5,530	33,551
평택시	0 - 9세	1,015	*	*	*	6	1,009	69	1,084
	10 - 19세	575	*	6	63	21	485	58	633
	20 - 29세	6,027	2,825	509	367	781	1,545	293	6,320
	30 - 39세	8,359	3,886	899	86	1,292	2,196	793	9,152
	40 - 49세	4,827	1,760	543	10	889	1,625	625	5,452
	50 - 59세	3,740	1,327	373	*	833	1,206	372	4,112
	60 - 69세	1,912	131	108	*	1,305	368	120	2,032
	70세 이상	437	*	35	*	269	131	27	464
	계	26,892	9,931	2,473	527	5,396	8,565	2,357	29,249
안산시	0 - 9세	3,270	*	*	*	51	3,219	197	3,467
	10 - 19세	1,375	21	*	56	120	1,174	236	1,611
	20 - 29세	12,026	4,591	792	664	2,940	3,039	820	12,846
	30 - 39세	18,613	7,781	1,727	178	4,329	4,598	1,983	20,596

지역	연령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합계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 적동포	기타 외국인		
	40 - 49세	14,782	6,213	1,497	24	3,427	3,621	2,133	16,915
	50 - 59세	12,403	5,628	1,057	*	2,765	2,950	1,310	13,713
	60 - 69세	6,187	461	224	*	4,704	798	523	6,710
	70세 이상	1,107	10	37	*	919	141	276	1,383
	계	69,763	24,705	5,338	925	19,255	19,540	7,478	77,241
고양시	0 - 9세	448	*	*	*	16	432	59	507
	10 - 19세	236	7	10	22	20	177	67	303
	20 - 29세	3,659	1,507	468	307	466	911	266	3,925
	30 - 39세	4,358	1,609	925	57	569	1,198	615	4,973
	40 - 49세	3,015	809	631	8	553	1,014	665	3,680
	50 - 59세	2,821	889	396	*	719	817	420	3,241
	60 - 69세	1,575	92	100	*	1,115	268	185	1,760
	70세 이상	410	7	23	*	303	77	54	464
	계	16,522	4,920	2,553	394	3,761	4,894	2,331	18,853
시흥시	0 - 9세	1,962	*	*	*	6	1,956	102	2,064
	10 - 19세	553	7	6	54	35	451	108	661
	20 - 29세	8,573	4,186	681	271	1,930	1,505	499	9,072
	30 - 39세	13,187	5,927	1,314	43	3,016	2,887	1,406	14,593
	40 - 49세	7,924	3,132	805	*	1,872	2,113	1,108	9,032
	50 - 59세	6,001	2,629	481	*	1,322	1,569	635	6,636
	60 - 69세	3,430	230	90	*	2,716	394	216	3,646
	70세 이상	576	*	8	*	497	69	48	624
	계	42,206	16,113	3,385	370	11,394	10,944	4,122	46,328
용인시	0 - 9세	560	*	*	*	43	517	48	608
	10 - 19세	609	18	8	351	42	190	51	660
	20 - 29세	6,654	2,741	402	2,010	520	981	220	6,874
	30 - 39세	5,752	2,545	903	218	641	1,445	557	6,309
	40 - 49세	3,722	1,194	602	27	701	1,198	502	4,224
	50 - 59세	3,023	1,030	325	*	761	906	329	3,352
	60 - 69세	1,692	110	72	*	1,198	312	126	1,818
	70세 이상	408	*	18	*	314	74	54	462
	계	22,420	7,640	2,330	2,607	4,220	5,623	1,887	24,307
김포시	0 - 9세	352	*	*	*	6	346	47	399
	10 - 19세	215	8	*	41	10	155	53	268
	20 - 29세	7,356	5,364	291	230	269	1,202	174	7,530
	30 - 39세	7,935	5,374	555	36	429	1,541	491	8,426
	40 - 49세	3,362	1,406	355	6	486	1,109	459	3,821
	50 - 59세	2,322	815	217	*	598	692	281	2,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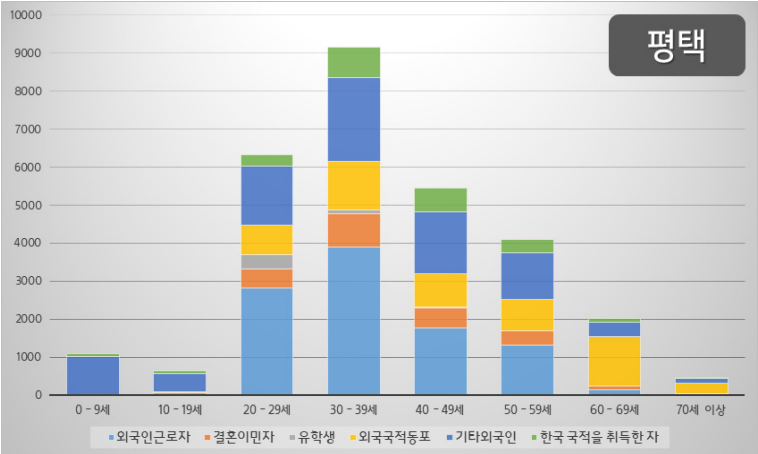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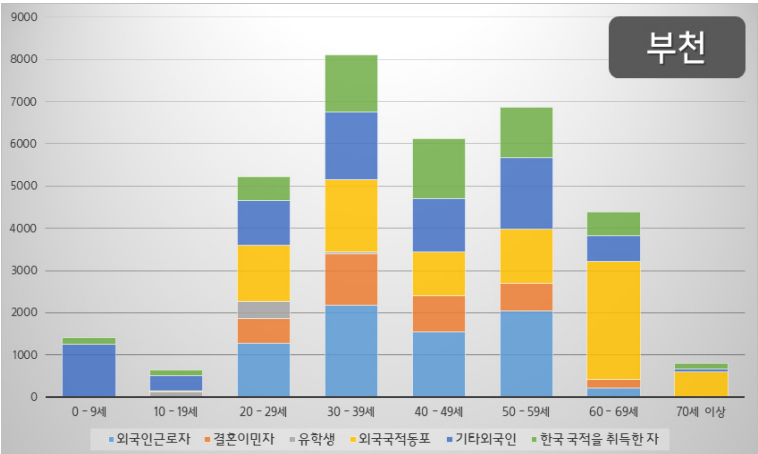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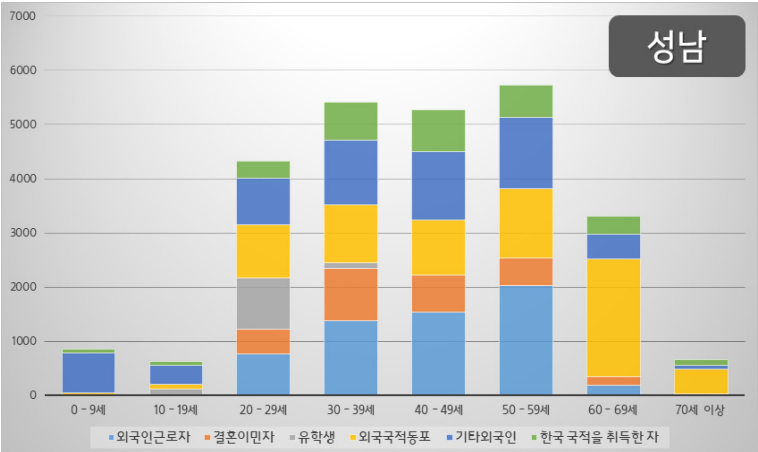
지역	연령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합계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 적동포	기타 외국인		
	60 - 69세	1,032	72	42	*	709	209	135	1,167
	70세 이상	190	7	9	*	135	39	126	316
	계	22,764	13,046	1,470	313	2,642	5,293	1,766	24,530
화성시	0 - 9세	862	*	*	*	23	839	70	932
	10 - 19세	447	10	7	60	27	343	60	507
	20 - 29세	14,151	9,811	608	451	646	2,635	305	14,456
	30 - 39세	16,646	10,792	1,197	47	1,098	3,512	893	17,539
	40 - 49세	7,375	3,100	664	*	1,136	2,472	624	7,999
	50 - 59세	4,607	1,705	351	*	1,055	1,496	399	5,006
	60 - 69세	1,703	129	75	*	1,143	356	135	1,838
	70세 이상	339	5	6	*	239	89	31	370
	계	46,130	25,552	2,908	561	5,367	11,742	2,517	48,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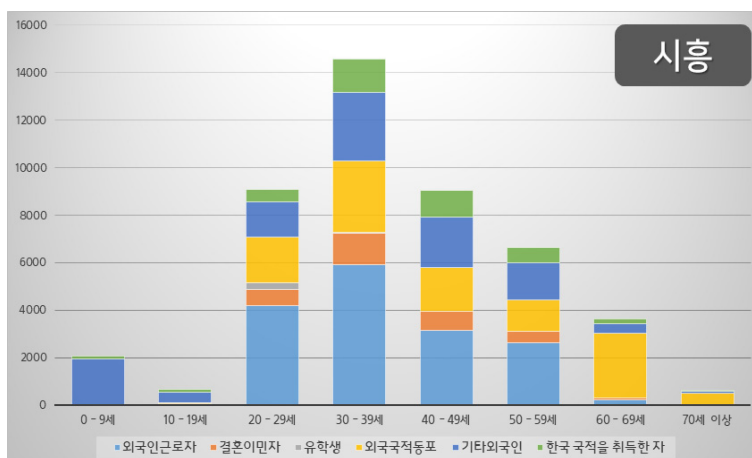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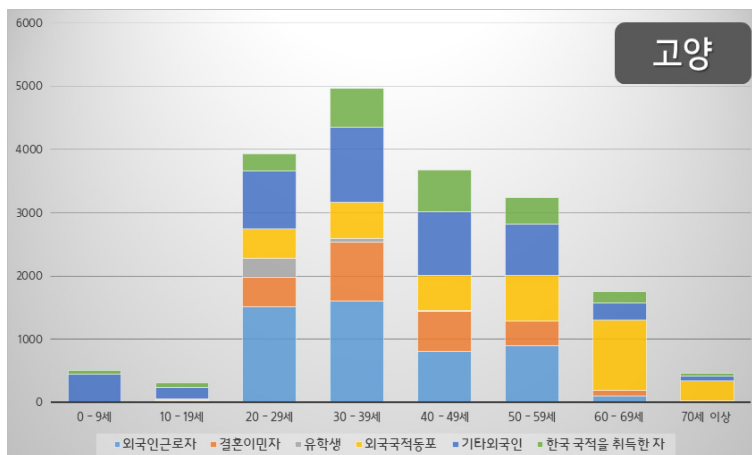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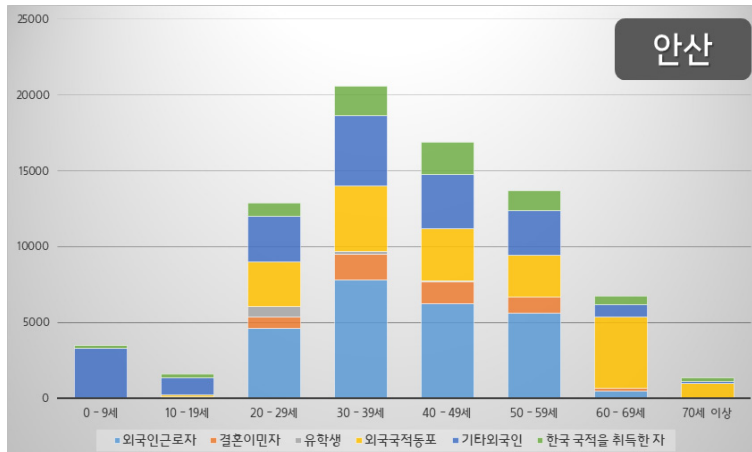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연령 및 성별 다문화가구원”, 『인구총조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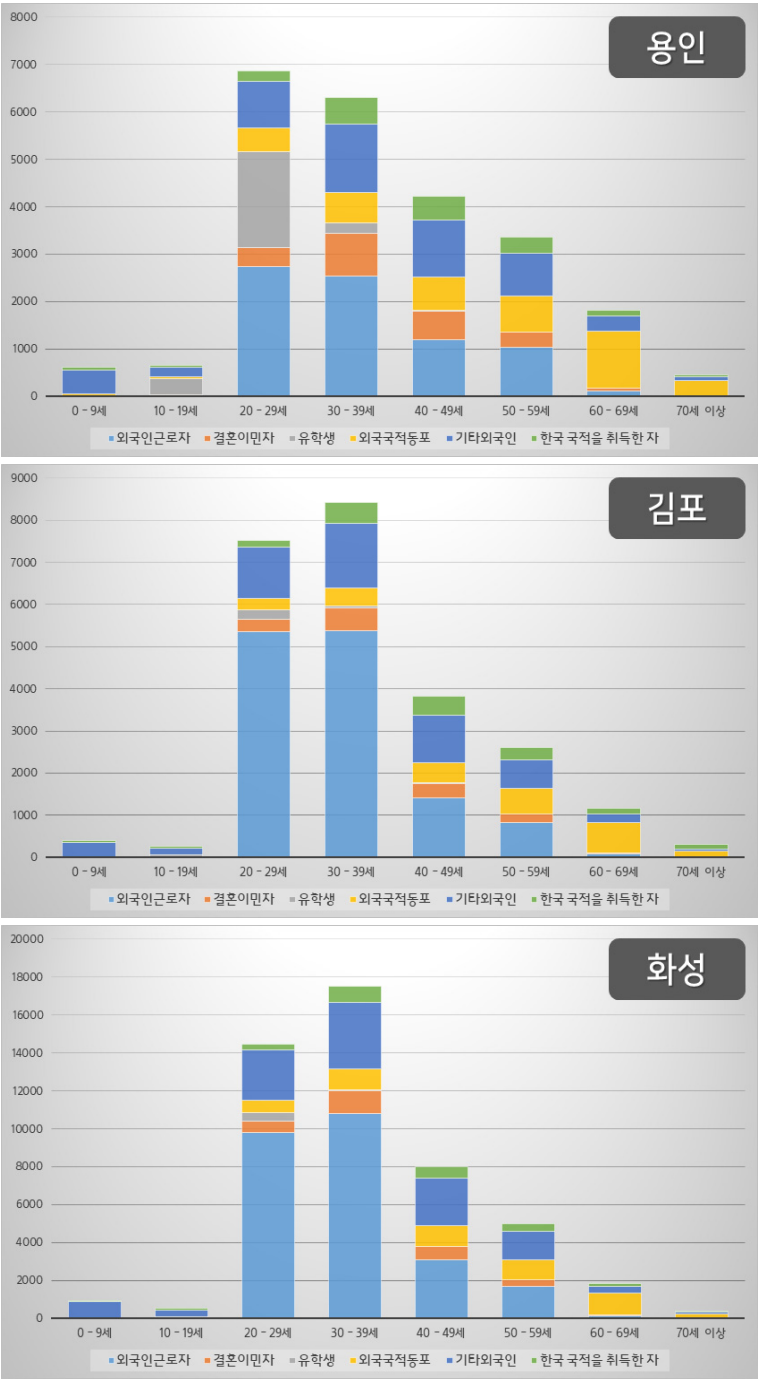
[그림 3-21] 경기도내 10개 시 외국인주민 연령별 분포(2017)











출처 : 통계청, “연령 및 성별 다문화가구원”, 『인구총조사』, 2017.

- 다문화가구의 분포비율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다문화가구와 전체가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기도 내 다문화가구 수는 2016년 91,716개에서 2017년 92,834개로 소폭 증가 (0.01%)하였으나 전체가구 대비 다문화가구 비율은 2016년 1.97%에서 2017년 1.94%로 감소하였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원시의 경우 2016년 8,712개에서 이듬해 8,761개로 증가하였으나 일반 가구 대비 비율은 1.91%에서 1.88%로 소폭 감소하였고 성남시의 경우 다문화가구 수는 5,864개에서 5,523개로, 전체가구대비 비율은 1.59%에서 1.5%로 모두 감소함
  - 부천시는 다문화가구 수는 7,300개에서 7,680개로, 비율은 2.33%에서 2.41%로 모두 증가하였으며 평택시의 경우 4,498개에서 4,594개로 다문화가구 수는 늘었으나 전체 가구 대비 비율은 2.51%에서 2.45%로 감소하였음
  - 안산시의 경우 다문화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다문화 가구 수도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가구 수의 경우 2016년 11,129개에서 2017년에는 10,792개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일반가구 대비 비율은 3.93%에서 3.82%로 감소하였음
  - 고양시의 경우 다문화 가구 수는 4,805개에서 4,772개로 감소하였고 비율 또한 1.32%에서 1.29%로 감소하였고 시흥시의 경우 다문화 가구 수는 6,280개에서 6,494개로 늘었으나 전체 가구 수 대비 비율은 3.89%에서 3.83%로 소폭 감소함

[표 3-32] 경기도의 다문화가구 분포 현황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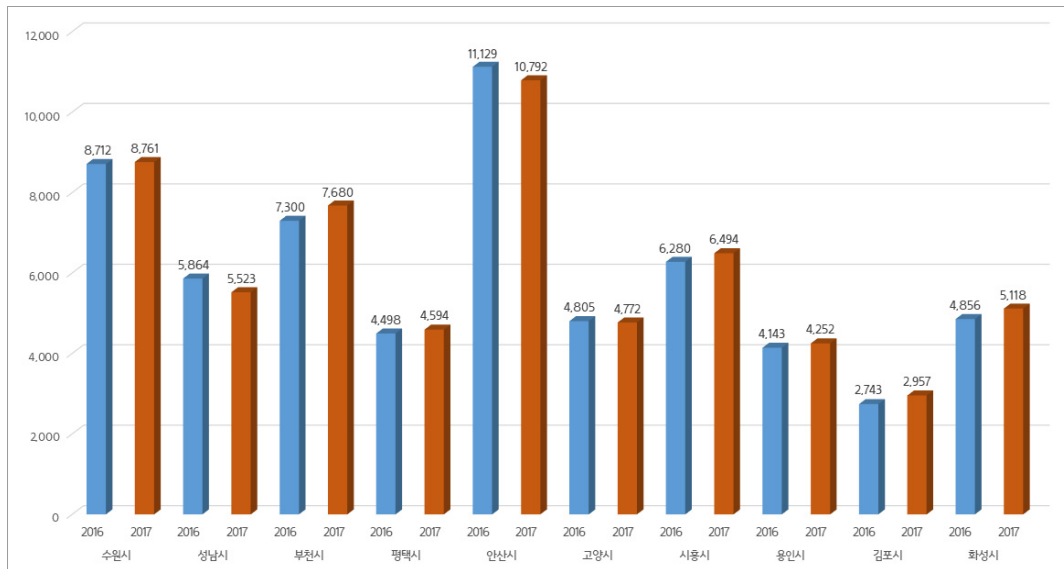
구분	연도	일반가구	다문화가구	다문화가구 비율(%)*
수원시	2016	454,982	8,712	1.91
	2017	465,209	8,761	1.88
성남시	2016	368,992	5,864	1.59
	2017	369,366	5,523	1.50
부천시	2016	313,624	7,300	2.33
	2017	318,135	7,680	2.41
평택시	2016	179,176	4,498	2.51
	2017	187,516	4,594	2.45
안산시	2016	283,154	11,129	3.93
	2017	282,608	10,792	3.82
고양시	2016	363,388	4,805	1.32
	2017	370,113	4,772	1.29
시흥시	2016	161,330	6,280	3.89
	2017	169,630	6,494	3.83
용인시	2016	337,159	4,143	1.23
	2017	346,336	4,252	1.23
김포시	2016	129,385	2,743	2.12
	2017	140,347	2,957	2.11
화성시	2016	231,731	4,856	2.10
	2017	254,974	5,118	2.01
경기도 전체	2016	4,647,205	91,716	1.97
	2017	4,773,632	92,834	1.94

출처 : 통계청,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시/군/구)”, 『인구총조사』, 2016-2017.

\*다문화가구비율=다문화가구/일반가구\*100

[그림 3-22] 경기도 다문화가구 지역별 현황(2016-2017)

(단위: 가구)



출처 : 통계청,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시/군/구)”, 『인구총조사』, 2016-2017.

\*다문화가구비율=다문화가구/일반가구\*100

## 2.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현황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고양시 관내 외국인 주민 현황을 일반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체 인구 수는 2017년 18,853명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구별로는 일산동구를 제외하고, 덕양구와 일산서구 모두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더불어 2017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6,522명(87.6%)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2,331명(12.4%)으로 나타남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외국인 근로자는 4,920명(29.8%)이며, 결혼이민자 2,553명(15.5%), 유학생 394명(2.4%), 외국국적 동포 3,761명(22.7%), 기타 외국인 4,894명(29.6%)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대상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3] 고양시의 일반구별 외국인 주민 현황(201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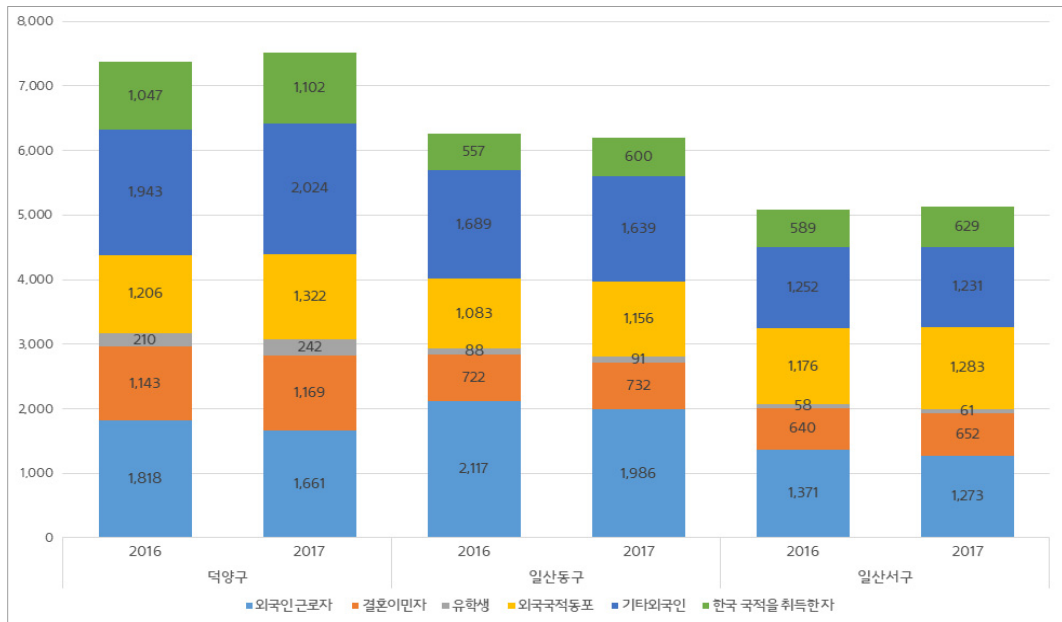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연도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덕양구	2016	7,367	6,320	1,818	1,143	210	1,206	1,943	1,047
	2017	7,520	6,418	1,661	1,169	242	1,322	2,024	1,102
일산동구	2016	6,256	5,699	2,117	722	88	1,083	1,689	557
	2017	6,204	5,604	1,986	732	91	1,156	1,639	600
일산서구	2016	5,086	4,497	1,371	640	58	1,176	1,252	589
	2017	5,129	4,500	1,273	652	61	1,283	1,231	629
합계	2016	18,709	16,516	5,306	2,505	356	3,465	4,884	2,193
	2017	18,853	16,522	4,920	2,553	394	3,761	4,894	2,331
평균	2016	9,354.5	8,258.0	2,653.0	1,252.5	178.0	1,732.5	2,442.0	1,096.5
	2017	9,426.5	8,261.0	2,460.0	1,276.5	197.0	1,880.5	2,447.0	1,165.5

출처 : 행정안전부.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그림 3-23] 고양시의 일반구별 외국인 주민 현황(2016-2017)

(단위: 명)



출처 : 행정안전부.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 ○ 고양시 관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현황을 일반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총 합계는 2017년 현재 14,207명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구별로는 일산동구를 제외하고, 덕양구와 일산서구 모두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더불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인배우자는 4,543명(32.0%)이며,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4,752명(33.4%), 자녀 2,941명(20.8%), 기타동거인 1,971명(13.8%)으로 나타남
- 특히, 다문화가족 전체 구성원의 수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귀화자 포함)와 그들의 자녀(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3-34] 고양시의 일반구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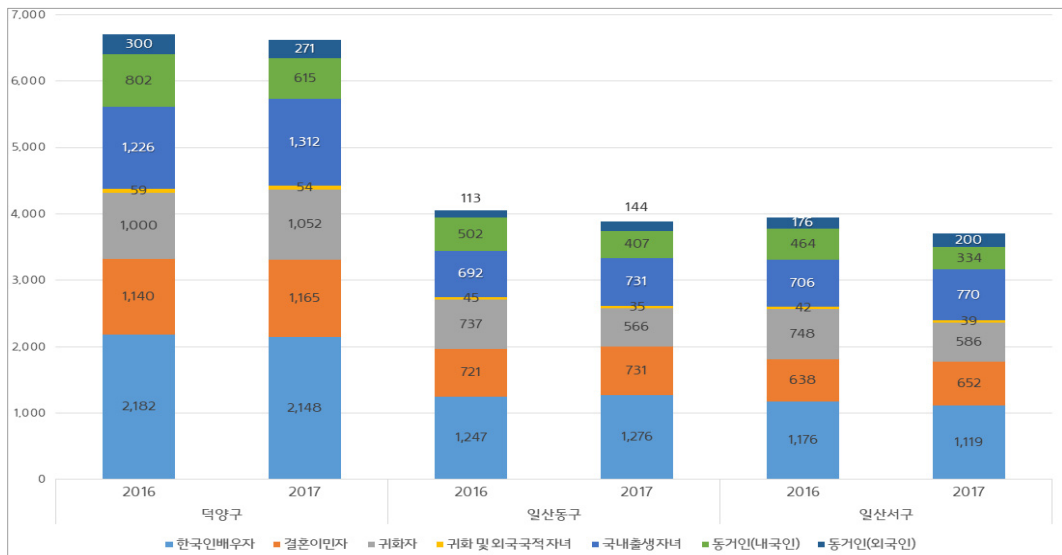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연도	합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소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소계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소계	내국 인	외국인
덕양구	2016	6,709	2,182	2,140	1,140	1,000	1,285	59	1,226	1,102	802	300
	2017	6,617	2,148	2,217	1,165	1,052	1,366	54	1,312	886	615	271
일산 동구	2016	3,837	1,247	1,238	721	737	737	45	692	615	502	113
	2017	3,890	1,276	1,297	731	566	766	35	731	551	407	144
일산 서구	2016	3,752	1,176	1,188	638	748	748	42	706	640	464	176
	2017	3,700	1,119	1,238	652	586	809	39	770	534	334	200
합계	2016	14,298	4,605	4,566	2,499	2,067	2,770	146	2,624	2,357	1,768	589
	2017	14,207	4,543	4,752	2,548	2,204	2,941	128	2,813	1,971	1,356	615
평균	2016	7,149.0	2,302.5	2,283.0	1,249.5	1,138.0	1,385.0	73.0	1,312.0	1,178.5	884.0	294.5
	2017	7,103.5	2,271.5	2,376.0	1,274.0	6,062.0	1,470.5	64.0	1,406.5	985.5	678.0	307.5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그림 3-24] 고양시의 일반구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단위: 명)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 고양시 관내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을 각 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덕양구의 경우,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6,709명에서 2017년 6,617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결혼 이민자와 자녀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동별로 살펴보면, 원신동, 성사2동, 신도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행신2동은 그 수가 증가하였으나 다른 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덕양구 내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가 가장 많은 동은 2017년 기준에서 관산동으로, 총 937명(14.2%)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흥도동 595명(9.0%%), 행신3동 558명(8.4%) 순임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와 자녀의 경우 마찬가지로 관산동이 각각 280명(12.6%), 231명(16.9%)으로 나타남

[표 3-35] 덕양구의 동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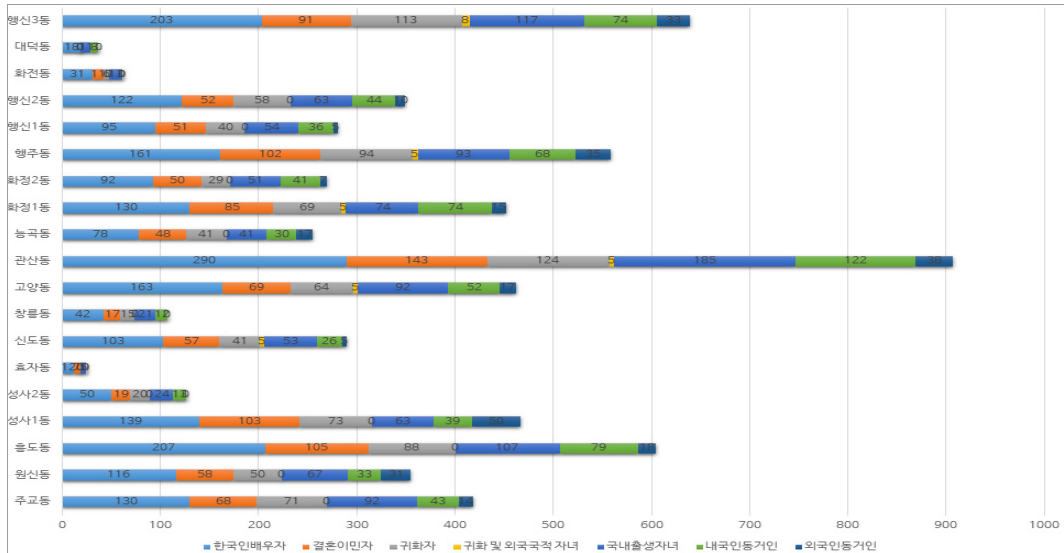
구분	연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합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소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 출생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주교동	2016	130	68	71	139	*	92	96	43	14	57	422
	2017	116	79	65	144	5	84	89	34	27	61	410
원신동	2016	116	58	50	108	*	67	69	33	31	64	357
	2017	119	65	56	121	*	70	72	40	10	50	362
흥도동	2016	207	105	88	193	*	107	111	79	18	97	608
	2017	196	105	98	203	*	119	122	54	20	74	595
성사1동	2016	139	103	73	176	*	63	67	39	50	89	471
	2017	131	103	83	186	6	66	72	35	39	74	463
성사2동	2016	50	19	20	39	*	24	25	13	*	16	130
	2017	55	24	21	45	*	29	30	10	*	11	141
효자동	2016	12	7	***	8	0	5	5	*	0	*	29
	2017	8	5	*	6	*	5	5	*	*	*	22
신도동	2016	103	57	41	98	5	53	58	26	5	31	290
	2017	108	59	46	105	*	56	59	31	10	41	313

구분	연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합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소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 출생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창릉동	2016	42	17	15	32	*	21	22	12	*	13	109
	2017	58	30	18	48	*	24	25	18	*	20	151
고양동	2016	163	69	64	133	5	92	97	52	17	69	462
	2017	170	75	67	142	*	101	104	36	21	57	473
관산동	2016	290	143	124	267	5	185	190	122	38	160	907
	2017	306	145	135	280	5	226	231	93	27	120	937
능곡동	2016	78	48	41	89	*	41	44	30	17	47	258
	2017	84	52	47	99	5	43	48	27	18	45	276
화정1동	2016	130	85	69	154	5	74	79	74	15	89	452
	2017	131	74	69	143	5	81	86	50	14	64	424
화정2동	2016	92	50	29	79	*	51	54	41	7	48	273
	2017	76	42	32	74	*	49	50	28	8	36	236
행주동	2016	161	102	94	196	5	93	98	68	35	103	558
	2017	153	108	101	209	5	85	90	54	35	89	541
행신1동	2016	95	51	40	91	*	54	57	36	5	41	284
	2017	91	43	41	84	*	47	50	27	7	34	259
행신2동	2016	122	52	58	110	*	63	64	44	10	54	350
	2017	128	51	54	105	*	92	94	30	6	36	363
화전동	2016	31	11	6	17	0	13	13	*	*	5	66
	2017	25	14	7	21	*	11	11	*	*	6	63
대덕동	2016	18	***	***	7	0	11	11	8	0	8	44
	2017	11	5	*	7	*	8	8	*	*	*	30
행신3동	2016	203	91	113	204	8	117	125	74	33	107	639
	2017	182	86	109	195	*	116	120	40	21	61	558
계	2016	2,182	1,140	1,000	2,140	59	1,226	1,285	802	300	1,102	6,709
	2017	2,148	1,165	1,052	2,217	54	1,312	1,366	615	271	886	6,617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그림 3-25] 덕양구 동별 2016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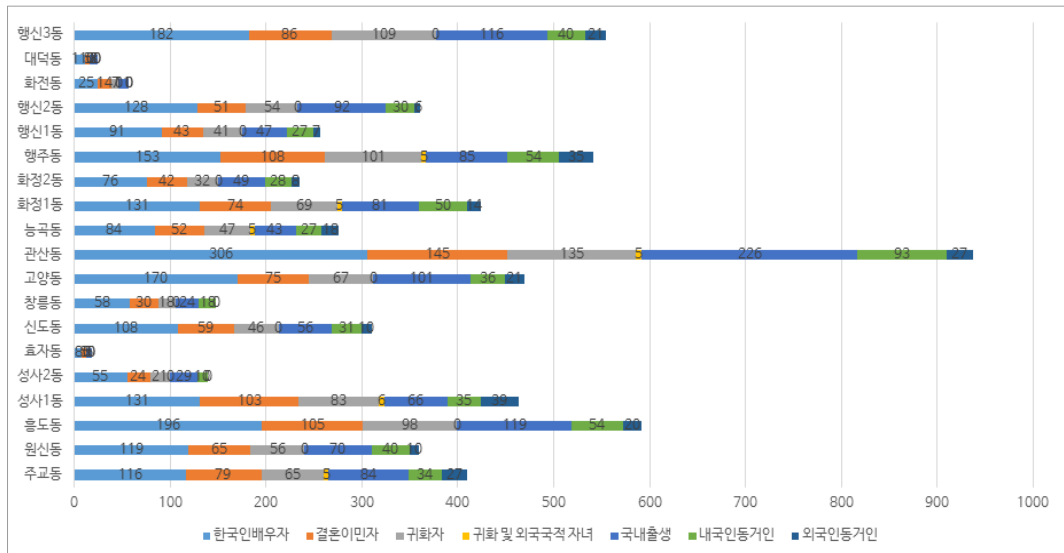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

[그림 3-26] 덕양구 동별 2017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

(단위: 명)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7.

- 일산동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을 각 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산동구 전체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수는 2016년 3,837명에서 2017년 3,890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일산동구 내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가장 많은 동인 중산동의 경우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2016년 228명, 2017년 225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자녀는 2016년 125명에서 2017년 13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정발산동의 경우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는 2016년 494명에서 2017년 481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16년 165명에서 17년 173명으로 증가하였고 자녀 또한 98명에서 이듬해 1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봉동의 경우 가족 구성원 수가 2016년 423명에서 2017년 47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수는 136명에서 163명으로, 자녀는 92명에서 101명으로 증가하여 일산동구 내의 타 동과 비교할 때 구성원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

[표 3-36] 일산동구의 동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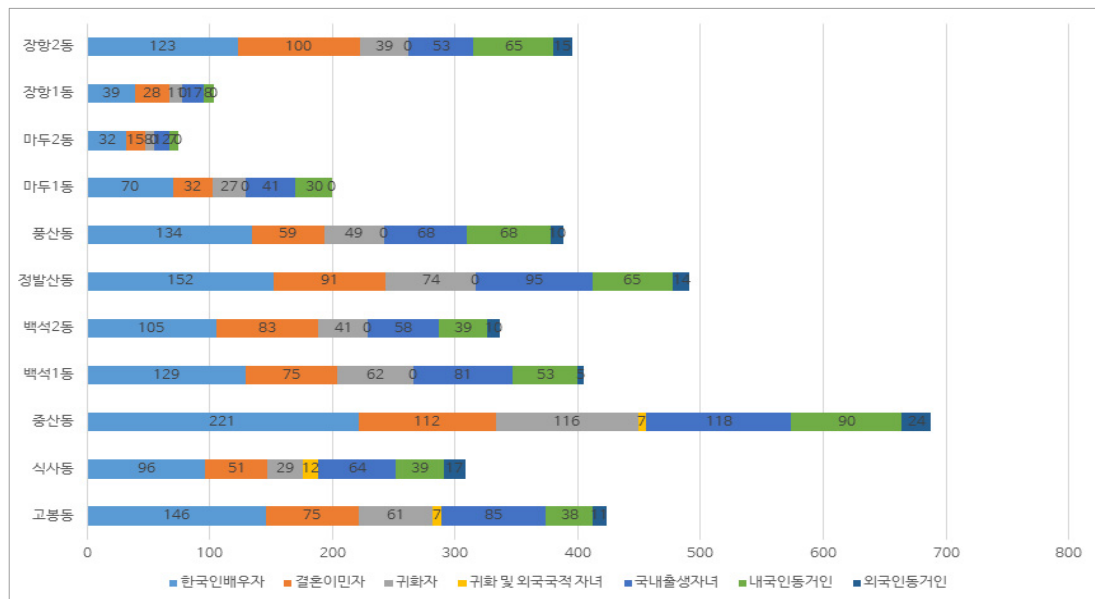
구분	연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합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소계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고봉동	2016	146	75	61	136	7	85	92	38	11	49	423
	2017	159	85	78	163	5	96	101	32	18	50	473
석사동	2016	96	51	29	80	12	64	76	39	17	56	308
	2017	114	66	32	98	8	69	77	47	18	65	354
중산동	2016	221	112	116	228	7	118	125	90	24	114	688
	2017	206	105	120	225	8	128	136	70	17	87	654
백석 1동	2016	129	75	62	137	*	81	85	53	5	58	409
	2017	126	80	69	149	*	76	80	42	19	61	416
백석 2동	2016	105	83	41	124	0	58	58	39	10	49	336
	2017	105	76	49	125	*	57	57	30	14	44	331
정발산동	2016	152	91	74	165	*	95	98	65	14	79	494
	2017	150	97	76	173	*	98	100	41	17	58	481
풍산동	2016	134	59	49	108	*	68	72	68	10	78	392
	2017	140	58	61	119	*	94	98	49	21	70	427

구분	연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합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소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 출생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마두 1동	2016	70	32	27	59	*	41	45	30	*	33	207
	2017	81	37	24	61	*	35	38	35	*	37	217
마두 2동	2016	32	15	8	23	0	12	12	7	*	8	75
	2017	38	17	7	24	*	14	14	10	*	11	87
장항 1동	2016	39	28	11	39	*	17	18	8	*	11	107
	2017	40	23	11	34	*	22	22	5	6	11	107
장항 2동	2016	123	100	39	139	*	53	56	65	15	80	398
	2017	117	87	39	126	*	42	43	46	11	57	343
소계	2016	1,247	721	517	1,238	45	692	737	502	113	615	3,837
	2017	1,276	731	566	1,297	35	731	766	407	144	551	3,890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그림 3-27] 일산동구 동별 2016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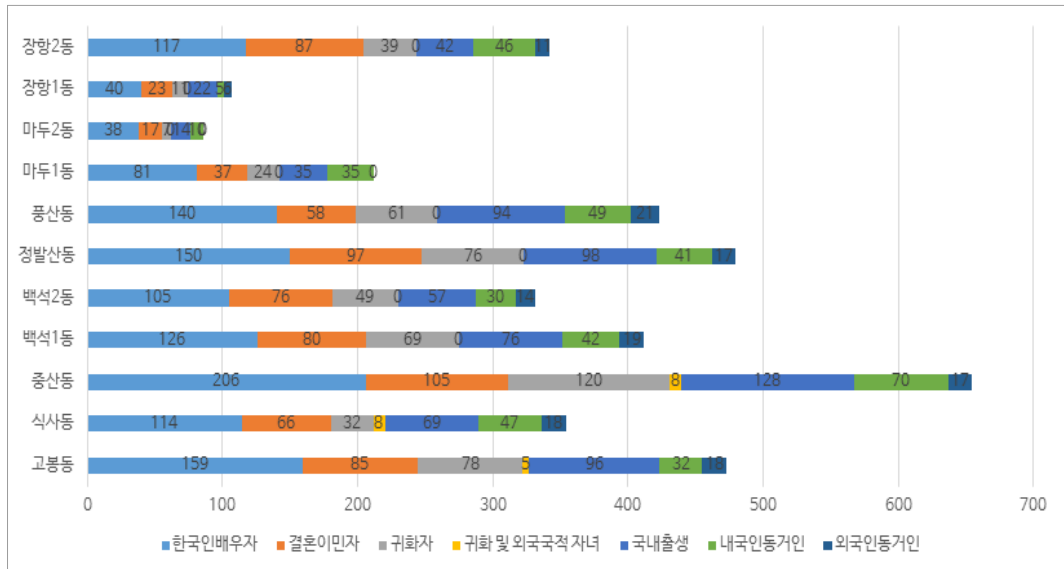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

[그림 3-28] 일산동구 동별 2017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

(단위: 명)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7.

## ○ 일산서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을 각 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산서구 내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가 가장 많은 동인 탄현동의 경우 2016년 709명에서 2017년 692명으로 전체 가족원 수는 감소하였으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 191명에서 208명으로, 자녀의 경우 160명에서 181명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함
- 송산동의 경우 전체 수는 641명에서 이듬해 687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 179명에서 208명으로, 자녀의 경우 143명에서 14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일산2동의 경우에도 전체 가족원 수가 597명에서 62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 253명에서 261명으로, 자녀의 경우 77명에서 89명으로 증가하여 타 동에 비해 자녀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7] 일산서구의 등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6-2017)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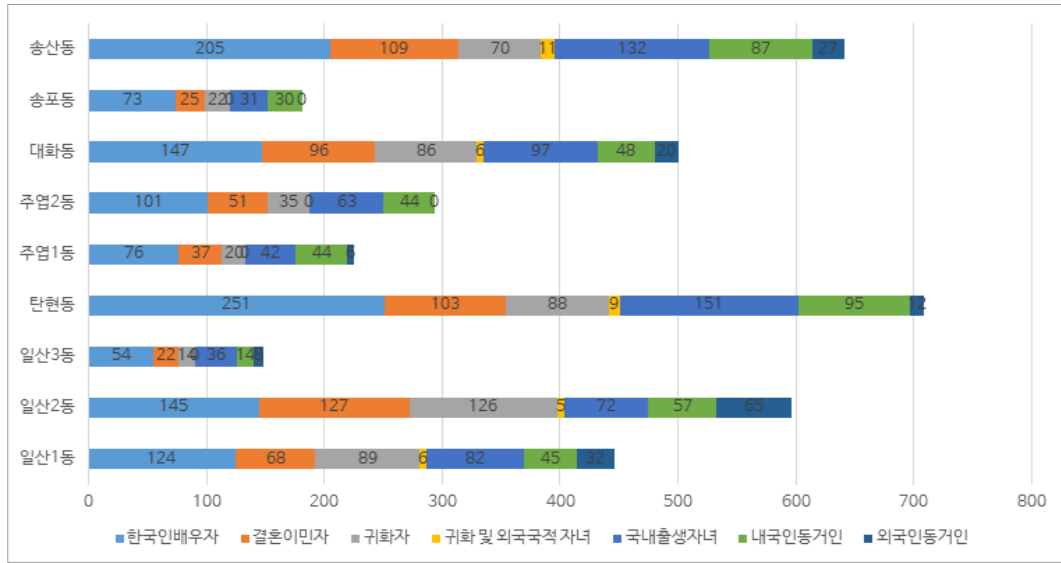
구분	연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합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소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 출생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일산1동	2016	124	68	89	157	6	82	88	45	32	77	446
	2017	134	70	89	159	8	92	100	34	19	53	446
일산2동	2016	145	127	126	253	5	72	77	57	65	122	597
	2017	150	127	134	261	5	84	89	42	86	128	628
일산3동	2016	54	22	14	36	*	36	38	14	8	22	150
	2017	57	25	17	42	*	49	51	10	6	16	166
탄현동	2016	251	103	88	191	9	151	160	95	12	107	709
	2017	232	115	93	208	8	173	181	58	13	71	692
주엽1동	2016	76	37	20	57	*	42	44	44	6	50	227
	2017	77	38	23	61	*	47	48	29	6	35	221
주엽2동	2016	101	51	35	86	0	63	63	44	*	47	297
	2017	86	43	34	77	*	55	56	31	*	35	254
대화동	2016	147	96	86	182	6	97	103	48	20	68	500
	2017	112	89	91	180	5	99	104	30	24	54	450
송포동	2016	73	25	22	47	*	31	32	30	*	33	185
	2017	60	20	22	42	*	35	35	17	*	19	156
송산동	2016	205	109	70	179	11	132	143	87	27	114	641
	2017	211	125	83	208	9	136	145	83	40	123	687
소계	2016	1,176	638	550	1,188	42	706	748	464	176	640	3,752
	2017	1,119	652	586	1,238	39	770	809	334	200	534	3,700

출처 :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그림 3-29] 일산서구 동별 2016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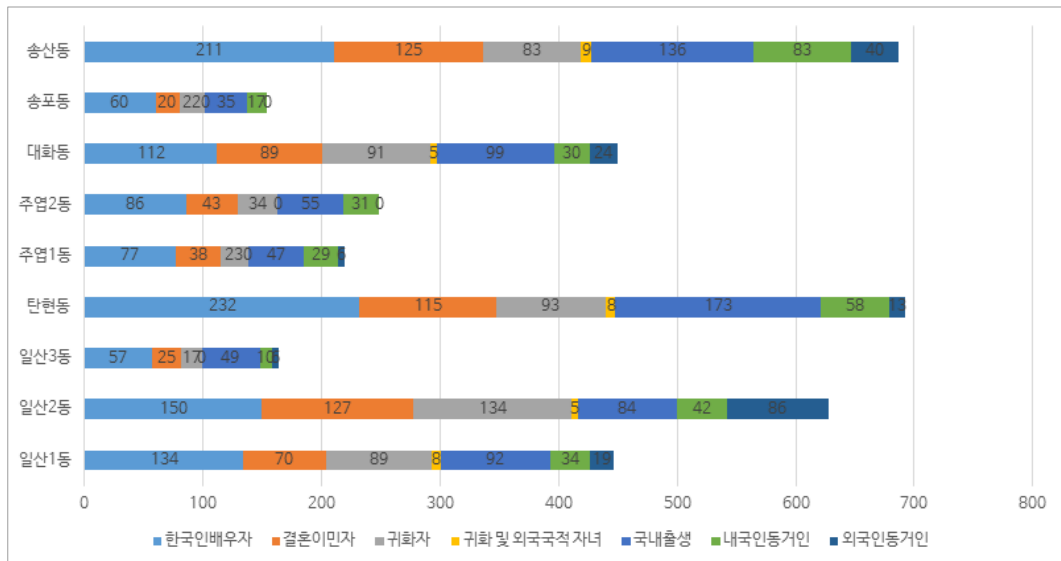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

[그림 3-30] 일산서구 동별 2017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

(단위: 명)



출처: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2017.

- 고양시 관내 다문화가구 분포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구와 전체가구 분포 현황을 일반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고양시 전체의 다문화가구 비율은 2016년 1.32%에서 2017년 1.29%로 소폭 감소하였고 다문화가구의 수를 살펴볼 때는 4,805개에서 4,772개로 그 수 또한 감소함
  - － 일반구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2016년 2,220개(1.39%)에서 2017년 2,190개(1.34%)로 감소하였고 일산동구의 경우 1,340개(1.28%)에서 1,344개(1.25%)로 다문화가구 수는 4개 늘었으나 전체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산서구의 경우 1,245개(1.26%)에서 1,238개(1.24%)로 다문화가구 수와 전체 가구 대비 다문화가구 비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8] 고양시의 일반구별 다문화가구 분포 현황**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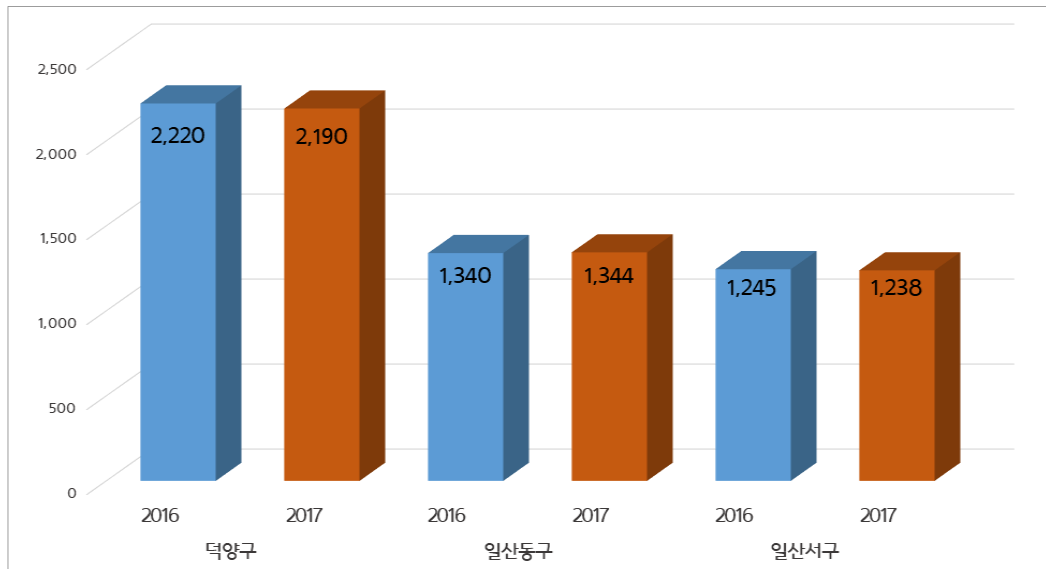
구분	연도	총 가구	다문화가구	다문화가구 비율(%)*
덕양구	2016	159,328	2,220	1.39
	2017	162,991	2,190	1.34
일산동구	2016	104,983	1,340	1.28
	2017	107,240	1,344	1.25
일산서구	2016	99,077	1,245	1.26
	2017	99,882	1,238	1.24
계	2016	363,388	4,805	1.32
	2017	370,113	4,772	1.29

출처 : 통계청,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시/군/구)”, 『인구총조사』, 2016-2017.

\* 다문화가구비율=다문화가구/일반가구\*100

[그림 3-31] 고양시 다문화가구 일반구별 현황(2016-2017)

(단위: 가구)



출처 : 통계청,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시/군/구)”, 『인구총조사』, 2016-2017.

\* 다문화가구비율=다문화가구/일반가구\*100

## 제4절 소결

- 본 장에서는 전국 단위에서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 및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전국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 수는 2016년 963,174명에서 2017년 963,801명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다문화가족 전체 구성원 수가 대체적으로 상승하면서 한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의 수가 상승한 반면 기타 동거인의 수가 155,533명에서 120,852명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단순 동거를 떠나 결혼 제도 등을 통한 2인 이상 구성 가족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함
  - 다문화가족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 또한 증가하고 있음. 비율로 살펴볼 때,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전체에서 2007년에는 남성이 15.4%, 여성이 84.6%였으나 2017년 남성 19.8%, 여성 80.2%로,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남성비율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7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49세가 192,452명으로 가장 많고 0-9세가 189,575명, 30-39세 162,707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구 자녀의 수, 특히 국내 출생 자녀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특성별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전체의 고용률은 17년 68.1%, 18년 68%로 나타났고 경제활동 참가율의 경우 17년 70.9%, 18년 71.4%로 나타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제활동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결혼이민자의 전국 지역별 체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결혼이민자 수는 총 156,324명이고 경기도에 44,772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어 서울 27,414명, 경남 10,250명, 인천 10,151명, 세종을 포함하여 충남 9,011명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음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냄
  - 지역별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는 경기도가 266,61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79,426명, 경상남도 62,478명, 인천 60,809명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에 다문화인구의 52.6%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증감을 살펴보면, 전국 다문화인구의 경우 2016년 963,174명에서 2017년 963,801명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인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연령별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경기, 서울, 인천의 경우 가족구성원 중 40-49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경남, 충남의 경우 가족구성원 중 0-9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의 경우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의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다문화가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전체 다문화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50% 가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6.5%), 경남(6.1%), 충남(4.9%) 순으로 다문화가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총 가구 비율대비 경기 지역에 다문화 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경기도 내에 다문화 가구가 타 지역에 비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세 번째로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경기도 내에서 타 시도와 비교하여 고양시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경기도 내 다문화인구가 많은 10개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먼저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안산시의 경우, 2016년 28,986명에서 이듬해 27,714명으로 감소(-4.4%)하였음. 수원시 또한 23,699명에서 23,439명으로 1.1% 감소하였으며 부천시의 경우 20,309명에서 20,859명으로 2.7% 증가하였음. 한편 성남시의 경우 16,236명에서 15,297명으로 5.8% 감소하였으며 화성시의 경우 14,615명에서 15,235명으로

4.2% 증가함. 고양시의 경우 2016년 14,298명에서 14,207명으로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귀화자와 국내출생 자녀 수가 각각 6.6%, 7.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주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가구원의 경우 40-49세가 55,9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0-9세 48,450명, 30-39세 47,780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0-9세에서 내국인(출생) 비율(95.2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국내 출생하는 다문화자녀 대상 정책수요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고양시 관내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먼저 외국인주민의 경우 전체 수는 2017년 18,853명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구별로는 일산동구를 제외하고, 덕양구와 일산서구 모두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대상자(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관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일반구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6,709명에서 2017년 6,617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결혼 이민자와 자녀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일산동구의 경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수는 2016년 3,837명에서 2017년 3,890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일산동구 내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가장 많은 동인 중산동의 경우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2016년 228명, 2017년 225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자녀는 2016년 125명에서 2017년 13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일산서구 내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가 가장 많은 동인 탄현동의 경우 2016년 709명에서 2017년 692명으로 전체 가족원 수는 감소하였으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 191명에서 208명으로, 자녀의 경우 160명에서 181명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함
- 고양시 관내 다문화가구 분포비율을 일반구별로 살펴본 결과, 덕양구의 경우 2016년 2,220개(1.39%)에서 2017년 2,190개(1.34%)로 감소하였고 일산동구의 경우 1,340개(1.28%)에서 1,344개(1.25%)로 다문화가구 수는 4개 늘었으나 전체 비

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산서구의 경우 1,245개(1.26%)에서 1,238개(1.24%)로 다문화가구 수와 전체 가구 대비 다문화가구 비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제 4 장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분석

제1절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제2절 광역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제3절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제4절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제5절 소결



## 제절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 1. 추진체계

-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재한외국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 「외국인처우법」과 「다문화가족법」은 각각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소관법률이며, 전자법은 2007년 7월, 후자법은 2008년 9월에 각각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 외국인정책의 추진체계

- 법무부 주관 외국인정책은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을 의미함
  - － 즉,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외국인정책은 관계법령에 따라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5년을 기준으로 수립되며, 2008년 1차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하여 2013년 2차 기본계획, 2018년 3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수행되고 있음
- 기본계획은 국무총리 소속의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필두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음(「외국인처우법」 제6조)
  - －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무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한 15개 중앙행정기관과 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외국인처우법」 제8조)

-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표 4-1]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구 분	주요 내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처우법)」</li> </ul>
정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한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li> </ul> </li> <li>■ 결혼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li> </ul> </li> </ul>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정책 기본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처우법」 제5조 및 제6조</li> <li>-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중(2018 ~ 2022년)</li> </ul> </li> </ul>
전담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외국인정책과</li> <li>■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정책위원회(「외국인처우법」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국무총리</li> <li>- 위원: 법무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한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전문가</li> </ul> </li> </ul>

출처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처우법)

## 2)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주관의 다문화정책은 특정의 소수자 집단이 무시되거나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차이에 근거한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며,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다문화가족정책은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그들의 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5년을 기준으로 수립되며, 2010년 1차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하여, 2013년 2차 기본계획, 2018년 3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수행되고 있음
- 기본계획은 국무총리 소속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필두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음(「다문화가족법」 제3조의3)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가족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12개 중앙행정기관과 학계 등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다문화가족법」 제3조의4)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 각종 조사 및 연구, 각종 사업의 조정 및 협력, 국가 간 협력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표 4-2]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구 분	주요 내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li> </ul>
정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li> <li>-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li> </ul> </li> </ul>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3</li> <li>-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중(2018 ~ 2022년)</li> </ul> </li> </ul>
전담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li> <li>■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법」 제3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국무총리</li> <li>- 위원: 여성가족부장관,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12개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전문가</li> </ul> </li> </ul>

출처 :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

### 3)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의 관계

-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의 고조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민송출국에서 수용국 지위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 이에 2005년 8월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서 최초로 결혼이민여성의 체류안정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 4월 대통령 주재 제74회 국정과제 회의인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대책’에서 차별금지, 복지향상,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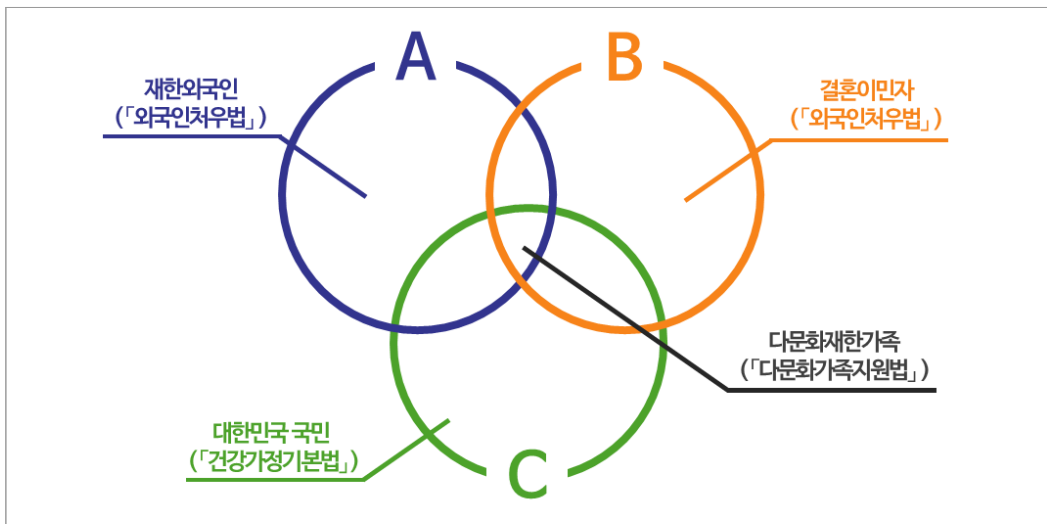
통합 방안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음(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 이후 2006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에 근거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21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되었고, 이듬해인 2007년 38개소로 확대되었음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3월 「다문화가족법」이 제정되면서, 전달체계가 명문화되었고, 명칭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되면서 급속히 확대되었음
- 그러나 「다문화가족법」 제정 당시, 기존 「외국인처우법」과 지원 대상 및 방법에 있어서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음(김혜영, 2014)
  - 당시 법무부에서는 혼혈인·이주자의 문제가 「외국인처우법」에서 규정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또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미 법무부에서 외국인정책과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의 제정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함
  - 반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정책대상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존재하며, 다문화가족정책은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법무부의 외국인정책과는 상이하다고 주장함
  -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결혼이민자들은 최초 입국 때부터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의 외국인정책의 경계 내에 존재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을 형성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며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외국인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방법으로 형성된 가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가족의 문제로 접근하면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정책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국내 일반적인 가족과 비교하여 언어 및 문화적 배경과 가족문제의 유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바, 지원정책의 내용적 측면에서 별도

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여성가족위원회, 2007)

- 이러한 논의 끝에 「외국인처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못한 가족생활지원정책이 강조되는 효과가 발생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한국인의 가족주의 정서에 부합하는 정책적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지형에 매우 유리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음(송지현·이태영, 2012; 황정미, 2011)
- 종합하면,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은 그 대상에 있어서는 대부분 중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다만, 정책수혜자 입장에서 고려할 때 법무부의 외국인정책은 재한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별적 접근방법을 통해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지원정책은 재한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어 차별성과 특수성에서 양자 간의 명확한 차이가 존재함

[그림 4-1] 현행 다문화가족의 적용 범위



출처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1) 추진경과

- 2007년 「외국인처우법」의 제정에 따른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2008년 12월 제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채택되었음
  - 이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2012년 11월,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결정으로 수립되었으며, 2017년까지 유지되어 왔음
- 법무부는 2018년부터 적용할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2016년 연구용역의 발주를 시작으로 하여, 2017년 7월 관계부처 간담회, 동년 9월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11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2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표 4-3]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경과

연월	주요 내용
2007.07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처우법)」 제정 -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규정, 외국인정책위원회 출범
2008.12.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08 ~ 2012) - 제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
2012.11.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3 ~ 2017) -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
2016.11.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정책자문 시행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2017.07.	■ 전문가 세미나 및 관계부처 간담회 개최 ■ 기본계획 작성지침 통보
2017.09.	■ 인권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2017.10.	■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기본계획(안) 부처 의견수렴
2017.11.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7.12.	■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개최
2018.02.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8 ~ 2022)

자료 :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 pp. 9-17.



## 2) 추진성과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정책목표와 13개의 중점과제가 채택되었음
  - 구체적으로 정책목표는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 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그리고 ‘외국인 인권 옹호’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포함한 13개 중점과제가 추진되었음

[표 4-4]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의 비전 및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비 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정 책 목 표	1.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3.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4. 외국인 인권 옹호
중 점 과 제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정보 관리
	3-3.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4-1.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 보장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자료 : 외국인정책위원회,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 p. 13.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된 성과를 살펴보면,
  -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한 과제 수에 있어서 2009년 778개를 시작으로 2010년 907개, 2011년 1,023개, 2012년 953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세부과제가 추진되었음

-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6,406억원이 투입되었고, 사회통합 분야(54.0%)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총 6,958억 원이 투입되었고 연평균 약 8%의 예산 증가폭을 보였음
- 정책목표에 따른 구체적 추진성과는 국가 차원의 우수인재 유치 시스템 구축,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전자여권 판독시스템 구축, 난민법 제정 등임
- 다만, 단순기능직 인력 편중화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편중, 법규 위반 외국인 증가 등 한계 및 문제점이 노정되었음

[표 4-5]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구 분		2009	2010	2011	2012
과제 수(개)	중앙	190	173	165	149
	지방	588	734	858	804
	합계	778	907	1,023	953
투입 예산 (억원, %)	중앙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6,406억원 투입			
		■ 연평균 약 28% 예산 증가			
		■ 정책목표별 예산비율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이민행정	인권 옹호
		37.0%	54.0%	4.0%	5.0%
	지방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6,958억원 투입			
		■ 연평균 약 8% 예산 증가			
정책 목표별 주요 추진성과	국가 경쟁력강화	■ 국가 차원의 우수인재 유치 전략 최초 도입 - Contact Korea, Hunet Korea 시스템 구축 및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기준 완화 - 영주 자격 요건 완화 - 우수 인재의 제한적 복수 국적 허용 등			
	사회통합	■ 사회 전 분야에서 이민자 지원에 대한 관심과 사업 급증 - 부처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이민자 지원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등 체계적 지원노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구축 등			
	이민행정	■ 국경관리 과학화 및 고객만족의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고 -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 구축(2008) - 출국승객 정보분석 시스템 도입(2009) - 국민 입국심사인 날인생략(2010) - 전자여권 판독시스템 구축(2011) - 외국인지문 얼굴확인제도 시행(2012)			
	인권옹호	■ 난민법 제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이자스민 당선자가 언급된 트위터 544만여 개 가운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의견이 84%에 달함(2012. 4. 19)			

구 분	2009	2010	2011	2012
한계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기능 인력 편중 심화 및 정주화 증가 우려</li> <li>▣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의 편중 및 용어사용 혼란</li> <li>▣ 법질서 위반 외국인이 증가하는 등 이민자 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li> <li>▣ 우리나라의 국격 신장에 비해 이민자 출신국과의 공동발전을 위한 관심과 역할 부족</li> </ul>			

자료 : 외국인정책위원회,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2, pp. 12-16.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의 정책목표와 19개의 중점과제가 채택되었음
- － 구체적으로 정책목표는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개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인권)’,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안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협력)’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 관광객 유치’를 포함한 19개 중점과제가 추진되었음

[표 4-6]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비전 및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비 전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정 책 목 표	1. 개방 -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2. 통합 -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3. 인권 -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4. 안전 -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5. 협력 -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중 점 과 제	1-1.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1-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1-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1-4.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2-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2-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2-3.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2-4.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5.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구 분	주요 내용
	3-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3-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4-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4-2.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4-3.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4-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5-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5-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5-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산

출처 : 외국인정책위원회,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2, p. 12.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된 성과를 살펴보면,

-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한 과제 수에 있어서 2013년 1,142개를 시작으로 2014년 1,272개, 2015년 1,166개, 2016년 1,223개, 2017년 1,248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세부과제가 추진되었음
-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조 1,770억원이 투입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총 1조 1,33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1차 기본계획 추진 당시와 비교하여 중앙은 239.8%, 지방은 62.9% 증가한 것임
- 정책목표에 따른 구체적 추진성과는 출입국 심사서비스 고도화로 의료관광 활성화 도모, 부동산투자이민제 등 도입,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인도적 의료서비스 제공, 유기적 일입국 방지 대책 추진, 국제이주기구(IOM) 등 다자협의체 협력 등임
- 다만,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안전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새로운 과제를 추진하였음에도, 단순 기능인력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편중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추가로 국민 일자리 침해와 중앙 및 지자체·시민단체 간의 협력 부족 등의 한계가 발생되었음

[표 4-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17															
과제 수(개)	중앙	194	207	201	198	189															
	지방	948	1,065	965	1,025	1,059															
	합계	1,142	1,272	1,166	1,223	1,248															
투입예산 (억원, %)	중앙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조1천770억원 투입																			
	지방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조1천337억원 투입																			
정책 목표별 주요 추진성과	개방	■ 출입국 심사 서비스 고도화, 비자제도 개선 및 환승관광·의료관광 활성화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 외국인 관광객 수(2009년 6,448명에서 2016년 14,202명)																			
		■ 공익사업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국내 경기 활성화 도모																			
		<연도별 투자 유치 실적> (단위: 백만원)																			
		<table><tr><td>구분</td><td>2013</td><td>2014</td><td>2015</td><td>2016</td></tr><tr><td>부동산투자이민제</td><td>453,154</td><td>347,792</td><td>106,000</td><td>150,659</td></tr><tr><td>공익사업투자이민제</td><td>1,300</td><td>20,470</td><td>38,740</td><td>23,985</td></tr></table>					구분	2013	2014	2015	2016	부동산투자이민제	453,154	347,792	106,000	150,659	공익사업투자이민제	1,300	20,470	38,740	23,985
		구분	2013	2014	2015	2016															
	부동산투자이민제	453,154	347,792	106,000	150,659																
	공익사업투자이민제	1,300	20,470	38,740	23,985																
	■ 외국인 유학 활성화 및 우수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연계등 유치·활용 기반 구축 - 국제장학프로그램 시행, 일·학습연계비자 도입,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등																				
	통합	■ 이민자의 입국 초기 사회 적응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수(2009년 1,435명에서 2016년 60,358명)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수준별 단계별로 체계화 및 참여 촉진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2009년 1,331명에서 2016년 30,515명)																			
■ 국제결혼 관련 법·제도 정비 - 국제결혼 비자심사기준 강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체류관리 강화 등																					
■ 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등																					
■ 이민배경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공교육 진입강화, 진로·직업교육 지원																					
인권	■ 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정책결정 과정 참여, 자조모임 형성 지원 등 -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 촉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자원협의회 구성·운영 등																				
	■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																				
	■ 교육·의료·범죄피해 관련 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 인도적 의료 서비스 제공																				
	■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상담, 쉼터 제공, 법률 지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17
	안전	■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유기적 밀입국 방지 대책, 출입국 심사 강화 등 국경 안전 제고 ■ 이민특수조사대 및 광역 단속팀 운영 등 불법체류 발생 억제 ■ 체류외국인 법질서 확립 추진				
	협력	■ 국제이주기구(IOM) 등 다자협의체 및 각 국 이민당국과 협력 ■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등 체계적 난민심사 시스템 구축 ■ 외국국적 동포의 자유왕래 및 경제활동 보장 확대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수(2009년 430명에서 2016년 776명)				
한계 및 문제점		■ 우수 외국인재 유치 미흡 및 단순 기능인력의 장기 거주 ■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 결혼이민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그 이외의 재한외국인 자원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 체계 부족 ■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비 부족 ■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및 중앙·지자체·민간 협력 부족				

자료 :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 pp. 9-17.

### 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 ~ 2022)

#### (1) 비전 및 정책목표

- 2018년 수립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개의 정책목표와 18개의 중점과제를 채택하여 추진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정책목표는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상생)’,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안전)’,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인권)’, 그리고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협력)’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를 포함한 18개 중점과제가 추진되고 있음

[표 4-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및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비 전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
정 책 목 표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중 점 과 제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1-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1-4. 유입 체계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2-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2-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3-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3-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4-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4-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5-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5-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5-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자료 :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 p. 23.

## (2) 세부 추진과제

- 5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는 각각 46개, 16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과제를 시행하는 소관부처는 법무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19개 중앙부처임
- 정책목표 중 가장 많은 세부과제가 추진되는 것은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이며, 참여하는 중앙부처 또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9] 정책목표별 세부 추진과제 현황

정책목표	중점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3	12	5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2	5	2
	1-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3	13	6
	1-4. 유입 체계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3	10	2
	소계평균	11	40	3.8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4	23	5
	2-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2	5	3
	2-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2	5	4
	2-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2	6	2
	소계평균	10	39	3.5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3-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3	10	4
	3-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2	9	2
	소계평균	5	19	3.0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3	12	4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3	10	7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2	8	3
	4-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2	7	2
	4-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3	6	2
	소계평균	13	43	3.6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5-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2	6	3
	5-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3	10	2
	5-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2	9	3
	소계평균	7	25	2.7
합계 평균		46	166	3.4

자료 :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 pp. 76-92.

○ 정책목표별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중앙부처의 현황을 살펴보면,

- 총 19개의 중앙관서가 외국인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세부 추진과제가 115개(협력사업 포함)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교육부가 14개(협력사업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13개(협력사업 포함) 등으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음



[표 4-10] 중앙부처별 세부 추진과제 현황(협력사업 포함)

구 분	정책목표					합계
	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	
법무부	23	23	19	27	23	115
교육부	5	5		4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3
여성가족부		6		2	2	10
산업통상자원부	2					2
중소벤처기업부	1					1
고용노동부	3	4		4	1	12
외교부	1			2	1	4
문화체육관광부	7			6		13
국토교통부	1		1			2
해양수산부	1		2	1		4
농림축산식품부		1				1
보건복지부	1	3		1		5
행정안전부		2		1	1	4
방송통신위원회		2				2
경찰청			3	1		4
해양경찰청			2	1		3
병무청	1					1
통계청					1	1
합계	49	46	27	50	29	201

자료 :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 pp. 76-92.

### (3) 예산 규모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행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 투입 예산규모는 1조 1,413억 원이며, 이중 국비가 1조 851억(95.0%)이고, 지방비는 561억 원(5.0%)임
  -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335억 원을 시작으로 하여, 2019년 2,317억 원, 2020년 2,261억 원, 2021년 2,285억 원,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표 4-11] 연도별 투입 예산 규모 추계

(단위: 억 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1,413.14	2,335.54	2,317.34	2,261.01	2,285.64	1,031.94
국비	일반회계	6,631.07	1,482.06	1,395.48	1,281.77	1,290.09
	특별회계	89.03	31.00	10.00	28.03	10.00
	기 금	4,131.47	698.52	802.48	841.83	876.14
	소 계	10,851.57	2,211.58	2,207.96	2,151.63	2,176.23
지방비	561.57	123.96	109.38	109.38	109.41	109.44

출처 :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 p. 94.

○ 연도별 투입 예산 규모를 정책목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이 총 8,113억원(71.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구현에 1,117억원(9.8%),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가 1,032억원(9.0%) 등의 순으로 투입될 예정임

[표 4-12] 정책목표별 연도별 투입 예산 규모 추계

(단위: 억 원, %)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1,413.14 (100.0)	2,335.54 (100.0)	2,317.34 (100.0)	2,261.01 (100.0)	2,285.64 (100.0)	2,213.61 (100.0)
정책 목표	개방	8,113.07 (71.1)	1,645.77 (70.5)	1,584.57 (68.4)	1,590.31 (70.3)	1,629.11 (71.3)
	통합	1,117.15 (9.8)	196.33 (8.4)	255.37 (11.0)	214.75 (9.5)	221.32 (9.7)
	안전	1,032.80 (9.0)	177.50 (7.6)	325.20 (14.0)	277.10 (12.3)	111.00 (4.9)
	인권	636.11 (5.6)	113.88 (4.9)	121.25 (5.2)	129.70 (5.7)	130.31 (5.7)
	협력	514.00 (4.5)	202.06 (8.7)	30.95 (1.3)	49.15 (2.2)	193.90 (8.5)
						37.94 (1.7)

출처 :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 p. 94.

### 3.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1) 추진경과

- 2008년 「다문화가족법」의 제정에 따른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2010년 5월 제2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채택되었음
  - 다만, 국가 주도의 기본계획이 일반적으로 5년임을 고려하면,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적용 기간은 2년으로, 이는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함께 연동해야 한다는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후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2012년 12월에 수립되었으며, 2017년까지 수행되어 왔음
-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적용될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2017년 5월 연구용역의 발주를 시작으로 하여, 동년 10월 관계부처 의견수렴, 11월 공청회와 정책 수요자인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2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표 4-1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경과

연월	주요 내용
2008.09	■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 제정 -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규정
2009.12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출범
2010.05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확정 -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0 ~ 2012)
2011.04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2011.05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TF팀 구성·운영(7회) 및 전문가 조사 실시
2012.12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 확정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3 ~ 2017)
2017.05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추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분야별 의제발굴을 위한 세미나 및 전문가 자문회의(총 7회)
2017.10	■ 관계부처 1, 2차 의견수렴

연월	주요 내용
20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및 지자체, 현장, 정책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li> <li>▣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을 위한 다문화가족 참여회의</li> </ul>
2017.12	▣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 개최
201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확정</li> <li>-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8 ~ 2022)</li> </ul>

자료 :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8, p. 1.

## 2) 추진성과

-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개의 정책목표와 5개의 추진과제, 20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채택되었음
  -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포함한 20개의 세부 과제가 추진되었음

[표 4-14]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의 비전 및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비 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정 책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추진 과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li> <li>○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li> <li>○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li> </ul>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li> <li>○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li> <li>○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li> </ul>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li> <li>○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li> <li>○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li> </ul>

구 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li> <li>○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li> <li>○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li> </ul>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li> <li>○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li> <li>○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li> <li>○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li> </ul>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li> <li>○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li> <li>○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li> <li>○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li> </ul>

자료 : 여성가족부,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 p. 7.

-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된 성과를 살펴보면,
-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한 과제 수는 2011년 388개에서 2012년 534개로 대폭 증가되어 추진되었음
  -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총 1,815억 원이 투입되었고, 이 중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에 40.0%가 지원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년간 총 1,463억 원이 지출되었음
  - 정책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성과는 「다문화가족법」 개정 등 다문화가족정책 기반 확대,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 등 지원 강화,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임
  - 다만, 한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이해 제고 미흡,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책 부족, 역차별 및 외국인 혐오증 등에 대한 인식 야기 등 한계 및 문제점이 노정되었음

[표 4-15]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구 분		2011	2012					
과제 수(개)	중앙	61	53					
	지방	327	481					
	합계	388	534					
투입 예산 (억 원, %)	중앙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15억원 투입						
		■ 정책분야별 예산비율						
		정책 추진 체계 정비 20.0%	국제결혼 중개관리 등 2.0%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40.0%	자녀의 성장환경 조성 31.0%	사회적 이해 제고 7.0%		
	지방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463억원 투입						
정책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추진체계 정비	■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문화가족법」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 마련</li><li>-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정, 협의회 구성 및 전담부서 설치 등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정책 기반 확대</li><li>- 제2차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및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의 기초자료 구축</li></ul>						
	국제결혼 중개 관리	■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하여 법령·제도 개선과 함께 베트남 등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강화, 만 18세 미만 소개 금지 등 제도 개선</li><li>- 결혼이민자 대상 입국 전 사전교육 실시(3개국) 및 특정국가(7개국)의 한국인 배우자 대상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 제고</li><li>- 주한대사 협업체 구성, 베트남·필리핀 등과 정부간 양해각서 체결 등 주요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li></ul>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통번역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지원 확대</li><li>-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지역센터 확대, 다누리 콜센터 개설 등으로 서비스 수혜자 확대</li><li>- 결혼이민자에 적합한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일배움카드제, 고용서비스인턴 등 각종 일자리 사업에 결혼이민자 우대</li><li>-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 대상 기초생활보장 지원, 긴급의료서비스 제공</li></ul>						

구 분		2011	2012
	자녀의 성장환경 조성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등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li> <li>-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및 엄마(아빠)나라 언어 습득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li> <li>- 글로벌 선도학교 지정,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으로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 지원</li> </ul>	
	사회적 이해 제고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시설 종사자, 공무원, 교원, 경찰, 군인 등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li> <li>-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 생활체육교실, 캠프 및 우수 다문화 작품 지역 순회 공연 실시</li> <li>- 지상파·케이블 TV,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광고 확대를 통하여 다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확산</li> </ul>	
한계 및 문제점		■ 한국인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의 문화 등에 대한 이해제고는 미흡 ■ 취학자녀 지원 등은 다소 부족한 상황 ■ 가족해체 등에 대한 예방정책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책에는 관심 소홀 ■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 지원 요구에는 대응 부족 ■ 역차별 논란, 외국인혐오증제노포비아 등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야기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다문화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 및 역할 강화 필요성 제기	

자료 :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2, pp. 7-12.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6개의 정책목표와 23개의 중점과제가 채택되었음
- 구체적으로 정책목표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그리고 ‘정책추진체계 정비’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포함한 23개 과제가 추진되었음

[표 4-16]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비전 및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비 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정 책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목 표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구 분	주요 내용	
추진과제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1-1.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1-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지지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2-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2. 한국어능력 향상 2-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2-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3-1.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3-2.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3-3. 소외계층 지원 강화 3-4. 피해자 보호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4-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4-2. 직업교육훈련 지원 4-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4-4.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5-1.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5-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5-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5.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6-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6-3.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출처 :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2, p. 30.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된 성과를 살펴보면,

- 먼저, 「다문화가족법」의 제·개정과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음
- 다음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 등록제 시행과 사기결혼 피해 예방 등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였음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자녀 지원 등을 토대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다문화가족포럼 등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제고하였음



- 다만, 초기 적응을 위한 정책에서 장기적 정착화 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며,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함

[표 4-17]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구 분	주요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정책의 법적근거 마련</li> <li>■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종합적·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기초 통계자료 구축</li> <li>■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총괄,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조정 등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li> </ul>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제 도입, 사기결혼 피해 예방 등 관리 강화</li> <li>■ 결혼상대국과 협업체를 구성하고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공조수사 및 불법소지 업체 단속 강화 등으로 국제결혼 피해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상담건수(소비자원) : ('14) 603건 → ('16) 376건</li> </ul> </li> </ul>
추진 성과 다문화가족 정책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상담, 가족통합교육 등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지속기간 ('12) 8.8년 → ('15) 9.8년</li> </ul> </li> <li>■ 직업훈련, 취업지원, 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고용률 : ('12) 47.4% → ('16) 52.3%</li> <li>-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 ('12) 26.0% → ('15) 37.8%</li> </ul> </li> <li>■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지원을 통해 취학률 향상, 학업중단을 감소 등 학교생활 적응도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향상(초등 98%, 중등 94%, 고등 90%)되고 있으며, 차별을 경험한 비율도 감소('12년 14% → '15년 9%)</li> </ul> </li> </ul>
다문화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12년 51.17점에서 '15년 53.95점으로 소폭 상승</li> </ul> </li> <li>■ 학계·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포럼을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 '16년 다문화가족포럼 8회, 학술대회 6회 개최</li> </ul> </li> </ul>
한계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적응 중심의 정책에서 정기정착화에 따른 정책으로 재편 필요</li> <li>■ 중장기 관점에서 다문화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시행 필요</li> </ul>

자료 :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8, pp. 2-4.

### 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 ~ 2022)

#### (1) 비전 및 정책목표

- 2018년 수립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의 정책목표와 17개의 정책과제를 채택하여 추진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정책목표는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등 17개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음

[표 4-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및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비 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정 책 목 표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추진과제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1-1.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2.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1-3.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1-4. 서비스 연계 활성화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2-1. 자립역량 강화 2-2.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2-3.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3-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3-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3-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3-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4-1.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4-2.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4-3.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4-4.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5-1.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5-2. 다문화가족 자원체계 내실화

출처 :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8, p. 10.

## (2) 세부 추진과제

- 5개의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는 각각 17개, 7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과제를 시행하는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임
  - 정책과제 중 가장 많은 세부과제가 추진되는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강화’이며, 참여하는 중앙부처가 가장 많은 과제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로 나타남

[표 4-19]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현황

정책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1-1.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4	2
	1-2.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4	2
	1-3.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6	6
	1-4. 서비스 연계 활성화	2	2
	소계평균	16	3.0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2-1. 자립역량 강화	5	4
	2-2.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6	6
	2-3. 사회참여 기회 확대	4	4
	소계평균	15	4.7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3-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5	2
	3-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4	3
	3-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4	5
	3-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6	3
	소계평균	19	3.3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4-1.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2	1
	4-2.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5	9
	4-3.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4	3
	4-4.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3	4
	소계평균	14	4.3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5-1.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4	4
	5-2.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2	1
	소계평균	6	2.5
합계 평균		70	3.6

자료 :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8, pp. 27-32.

## (3) 예산 규모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2019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총 4,688억 원이 투입 되고 있으며, 그 중 중앙정부가 3,892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795억 원임
- 정책과제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경우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이 2,9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가 22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

[표 4-20] 정책과제별 투입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과제 번호	세부과제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합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9년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1,538	2,946	200	205	3,151
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726	389	148	141	530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664	416	190	226	642
4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148	66	84	89	156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37	31	97	133	164
합계		3,115	3,892	721	795	4,688
대책 과제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지원	-	42	-	-	42

출처 :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p. 9.

## 제2절 광역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 1. 추진근거

- 광역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추진은 「다문화가족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개별 자치단체의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법」 제3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광역시·도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함
  - 2019년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조례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 인주민을 포함한 조례임
  - 이러한 형태는 앞서 언급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기능 유사·중복에 따른 결과 인 것으로 판단되며, 비교적 최근에 전면개정 또는 제정된 조례의 경우에는 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보다 과거에 제정된 전자의 경우에는 개정을 통해 중앙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응하고 있음
  -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별 지원 조례는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과 협의회 또는 위원 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와 대전,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시행 계획의 수립 등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또한 규정하고 있음

[표 4-21] 광역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근거

구분	조례명	제정 연도	기본계획 유무	시행계획 유무(매년)	전담조직	
					집행부	협의회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4	○(5년)	○	○	○
부산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9			○	○

구분	조례명	제정 연도	기본계획 유무	시행계획 유무(매년)	전담조직	
					집행부	협의회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3		○	○	○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6		○	○	○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5		○	○	○
대전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9			○	○
울산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0			○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3		○	○	○
경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8		○	○	○
강원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7		○	○	○
충북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4		○	○	○
충남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2		○	○	○
전북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6		○	○	○
전남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	○	○
경북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3		○	○	○
경남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9		○	○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8	○(4년)	○	○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접속일 2019.09.11.

## 2. 추진경과

- 광역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은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수립·시행되며, 1차 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수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 연도별 시행계획은 올해 1월 심의·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음

[표 4-22] 광역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추진경과

연월	주요 내용
2011.03.	<div> <div>■ 2011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div> <div>-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 ~ 2012)」</div> </div>
2012.04.	<div> <div>■ 2012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div> <div>-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 ~ 2012)」</div> </div>
2013.04.	<div> <div>■ 2013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div> <div>-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 ~ 2017)」</div> </div>
2014.04.	<div> <div>■ 2014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div> <div>-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 ~ 2017)」</div> </div>
2015.05.	<div> <div>■ 2015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div> <div>-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 ~ 2017)」</div> </div>
2016.05.	<div> <div>■ 2016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div> <div>-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 ~ 2017)」</div> </div>
2017.05.	<div> <div>■ 2017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div> <div>-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 ~ 2017)」</div> </div>
2018.06.	<div> <div>■ 2018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div> <div>-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 ~ 2022)」</div> </div>
2019.01.	<div> <div>■ 2019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div> <div>-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 ~ 2022)」</div> </div>

출처 :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p. 3.

### 3. 추진성과

#### 1)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사업규모

##### (1) 예산규모

-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한 연도별 예산 투입 규모는 2011년 총 68,208백만원, 2012년 77,165백만원임
  - 2011년과 2012년 모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활용되었으며, 각각 43.8%, 43.5%의 비중을 보였음

[표 4-23]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예산 규모(제1차 기본계획)

(단위: 백만 원, %)

정책분야	2011년		2012년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9,795	14.4	16,839	21.8
국제결혼증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5	-	7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24,983	36.6	23,107	29.9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9,850	43.8	33,503	43.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3,575	5.2	3,709	4.8
합계	68,208	100.0	77,165	100.0

자료 : 여성가족부,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2,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3,

- 다음으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한 연도별 예산 투입 규모는 2013년 91,435백만 원, 2014년 59,176백만 원, 2015년 53,940백만 원, 2016년 60,798백만 원, 그리고 2017년 64,222백만 원임
  -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13년 전년 대비 18.5% 증가로 정점을 찍고, 2014년 대폭적인 감소(35.3%) 추세를 보였으며, 이후 소폭 증가 추이를 다시 보이고 있음
  -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매년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활용되었음



[표 4-24]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예산 규모(제2차 기본계획)

(단위: 백만 원, %)

정책분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30,775	33.7	21,122	35.7	17,570	32.6	19,855	32.7	19,654	30.6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22,537	24.6	10,793	18.2	9,973	18.5	10,792	17.8	11,147	17.4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16,639	18.2	11,937	20.2	12,678	23.5	12,703	20.9	13,944	21.7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4,723	5.2	5,442	9.2	4,188	7.8	5,021	8.3	5,887	9.2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5,006	5.5	4,351	7.4	4,313	8.0	4,775	7.9	5,023	7.8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11,755	12.9	5,531	9.3	5,218	9.6	7,652	12.6	8,567	13.3
합계	91,435	100.0	59,176	100.0	53,940	100.0	60,798	100.0	64,222	100.0

자료 :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4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5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6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7

- 마지막으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예산 투입 규모는 2018년 72,192백만 원, 2019년 79,591백만 원임
- 연도별 예산 추이는 2014년 대폭적인 삭감 이후 점진적인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분야별로는 2018년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분야가 27.87%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2019년 현재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분야가 28.4%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임

[표 4-25]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예산 규모(제3차 기본계획)

(단위: 백만 원, %)

정책분야	2018년		2019년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20,045	27.8	20,528	25.8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14,839	20.6	14,135	17.8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19,087	26.4	22,617	28.4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8,495	11.8	8,986	11.3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9,726	13.5	13,325	16.7
합계	72,192	100.0	79,591	100.0

자료 :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8.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 (2) 사업 규모

- 제1차 기본계획에 근거한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수를 살펴보면, 2011년 327개에서 2012년 468개로 증가하였음
  - － 정책분야별로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분야에 각각 42.5%, 46.2%로 가장 많은 수의 사업이 추진되었음

[표 4-26]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사업 규모(제1차 기본계획)

(단위: 개, %)

정책분야	2011년		2012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52	15.9	69	14.7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18	5.5	17	3.6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139	42.5	216	46.2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69	21.1	89	19.0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49	15.0	77	16.5
합계	327	100.0	468	100.0

자료 : 여성가족부,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2,

여성가족부,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3,

- 제2차 기본계획에 근거한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소폭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여 왔음
  - － 정책분야별로는 매해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분야가 가장 많은 사업 규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표 4-27]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사업 규모(제2차 기본계획)

(단위: 개, %)

정책분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34	7.8	80	12.2	62	9.6	71	10.5	72	10.1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90	20.6	140	21.3	136	21.0	142	21.0	153	21.5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131	30.0	182	27.7	202	31.2	196	29.0	205	28.8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89	20.4	127	19.3	124	19.2	130	19.2	137	19.2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63	14.4	93	14.2	89	13.8	101	14.9	105	14.7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30	6.9	35	5.3	34	5.3	36	5.3	40	5.6
합계	437	100.0	657	100.0	647	100.0	676	100.0	712	100.0

자료 :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4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5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6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7

- 제3차 기본계획이 시행된 2018년 광역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수는 867개 이고, 2019년 현재에는 1,087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추진된 이래 2013년만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2018년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분야가 25.7%로 가장 많은 규모를 보였고, 2019년 현재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분야가 24.5%로 높은 세부 사업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표 4-28]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사업 규모(제3차 기본계획)

(단위: 개, %)

정책분야	2018년		2019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223	25.7	208	19.1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210	24.2	232	21.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191	22.0	266	24.5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185	21.3	220	20.2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58	6.7	89	8.2
합계	867	100.0	1,087	100.0

자료 :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8.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 제3절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 1. 추진체계

-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추진은 「다문화가족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음
  - －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법」 제3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함
  - － 더불어 경기도는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여성가족국장과 가족다문화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경기도의회 의원과 민간전문가 등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7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됨

[표 4-29]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구 분	주요 내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법」 및 동법 시행령</li> <li>▣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li> </ul>
정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li> <li>-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li> </ul> </li> </ul>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5년)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법」 제3조의3,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li> <li>- 2019년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추진중</li> </ul> </li> </ul>
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li> </ul>

구 분	주요 내용
조직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 위원장: 행정(1)부지사 - 위원: 여성가족국장, 경기도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등(7 ~ 12명 이내)

자료 :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8.

## 2. 경기도의 연도별 사업규모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경기도가 수립·추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예산 및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2011년을 시작으로 하여 예산 규모는 2012년 20,012백만 원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세부사업 수에 있어서는 2014년을 정점으로 하여 예산 규모와 마찬가지로 증감 추이를 보이고 있음
  -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예산 규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줄곧 1위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비해 다소 낮은 예산 규모를 보였으며, 이후 2019년 현재 다시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 규모에 있어서는 2013년 대폭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현재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표 4-30] 경기도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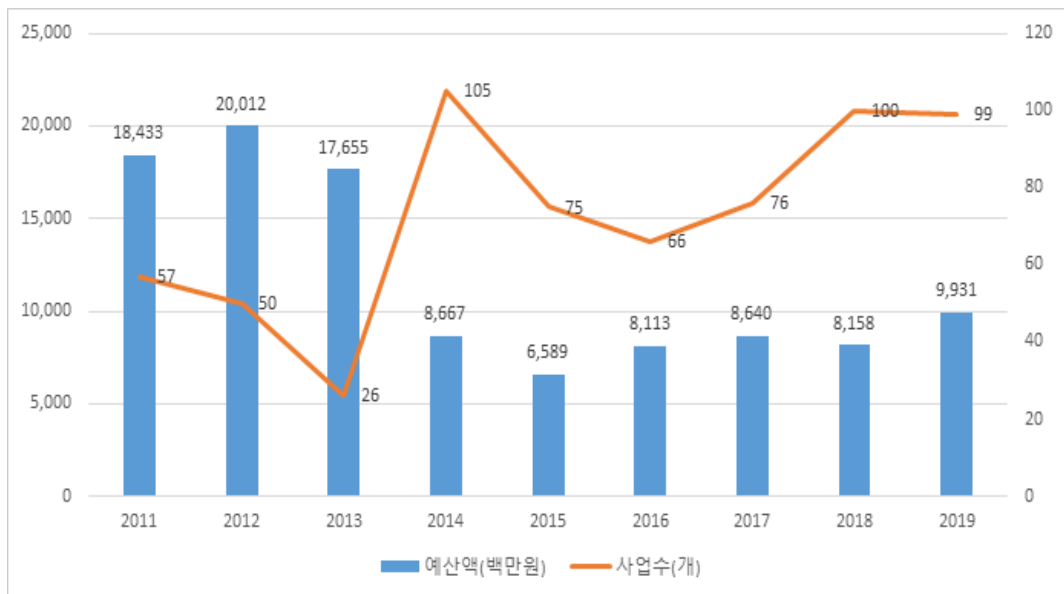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개, 위)

구 분	예산 규모		사업 규모	
	예산액	순위	사업수	순위
2011	18,433	1	57	1
2012	20,012	1	50	1
2013	17,655	1	26	8

구 분	예산 규모		사업 규모	
	예산액	순위	사업수	순위
2014	8,667	1	105	1
2015	6,589	2	75	1
2016	8,113	2	66	1
2017	8,640	2	76	1
2018	8,158	3	100	1
2019	9,931	1	99	2

자료 : 여성가족부.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2-2013.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4-2017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8.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그림 4-2] 경기도의 연도별 사업 규모 추이



자료 : 여성가족부.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2-2013.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4-2017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8.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 3. 경기도의 연도별 사업성과

- 제1,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달성된 정책과제별 성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언급한 기본계획의 특성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의 시행계획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과 정착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행계획은 지속적으로 안정된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와 자녀의 성장 및 발달,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추어짐
  -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5개년 동안의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는 경기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전구성원으로 하여금 한국사회의 온연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전개되었고, 더불어 내국인들의 가족 및 문화다양성 감성 지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 또한 병행되어 추진되어 왔음

[표 4-31] 경기도의 연도별 사업성과

구 분	정책과제	주요 내용
2011	다문화 지원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24 → 29개소)</li> </ul>
	다문화가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4,055가정),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10,701건), 한국어 교육 지원(6,619명)</li> <li>▣ 다국어 가능자 네트워크 인력풀 구축(24개국 언어, 513명) 및 다문화 동화책 배부(6개국 언어 61,560권)</li> </ul>
	다문화가족 화목 및 편익증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부부 대상 다문화 이해·양성평등 교육 실시(6회)</li> <li>▣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 및 인식개선 사업추진</li> </ul>
2012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교실 운영(97개서/8,250명), 방문교육(지도사 598명/2,545명), 다문화e-배움터 구축(7개 언어/11,163명)</li> <li>▣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결연사업 추진(100쌍), 통번역 서비스 지원(전담인력 38명), 무료법률 및 상담 지원(75건), 국제우편요금 할인 지원(경인지방우정청과 협약)</li> </ul>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및 역량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깨치기 방문학습지 지원(2,240명) 및 중도입국자녀 학교생활 적응지원(231명)</li> <li>▣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지도사 27명), 이중언어지원(강사 16명)</li> </ul>
	건강하고 화목한 다문화가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행복프로그램(2회, 162명) 및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실(2회, 140명)</li> <li>▣ 제2회 전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700명), 전국 한국어 및 이중언어말하기 대회(400명)</li> </ul>



구 분	정책과제	주요 내용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자립강화를 위한 취업연계(148명 취업) 및 교육(733명) 확대</li> </ul>
	다문화 인식개선 및 공동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등 추진(4,811회/166,064명)</li> <li>■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실시(78명)</li> <li>■ 전통문화행사(9개 단체) 및 자조모임(35개) 지원</li> <li>■ 소식지 발행(3회, 3만부/6개 언어)</li> </ul>
	정책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주민지원사업위원회 운영(15명, 1회)</li>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29개소) 및 거점센터(1개소) 운영</li> </ul>
2013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집합교육(91개소, 6,628명), 방문교육(방문지도사 558명, 4,114명), 온라인교육(7개 언어, 8개 강좌, 7,083명)</li> <li>■ 통번역 서비스(47,944건) 및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31개 시·군, 214,045부)</li> </ul>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31개 시·군, 1,336명), 이중언어(22명 활용, 1,136명) 및 언어발달(39명 활용, 2,116명) 지원</li> <li>■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16개 시·군, 311명),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58회) 운영</li> </ul>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동(522명, 2,316건), 상담 슈퍼비전 운영(19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li> <li>■ 테마가 있는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2회, 75가정), 무료법률교육(174명) 및 상담(63명)</li> </ul>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국 전통문화행사(4개) 및 자조모임(23개) 지원</li> <li>■ 취업교육(교육 952명, 수료 778명, 취업 164명)</li> <li>■ 보호시설 운영(3개소, 평균보호인원 34.4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30개소, 30,807명) 및 거점센터(1개소, 415회) 운영 지원</li> </ul>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공직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45회, 4,909명), 내국인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4,140회, 164,004명)</li> </ul>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실시 및 다문화가족 역사문화 교실 운영(85명)</li> </ul>
2014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교육 사업 추진(4,114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2,260명), 자녀 내모습 알기 캠프(327명) 등</li> <li>■ 자녀 토요학교 운영(36명),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11명)</li> </ul>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번역 서비스 지원(59,903건), 생활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5,000부), 서포터즈 운영(9,264건) 등</li> <li>■ 부모교육 '엄마표 홈스쿨링' 운영(60명), 무료 의료지원(300명), 아동교실 해피리더 양성(236명) 등</li> </ul>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교육 지원(1,001명), 정보화교육 실시(8개 기관, 579명), 동아리모임 지원(31개)</li> </ul>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5,941회, 163,941명)</li> </ul>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26회)</li> </ul>

구 분	정책과제	주요 내용
2015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화상교육시스템 구축 추진, 역사문화 교실 운영(102명)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전국다문화 말하기 대회(150명), 이주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444명), 유소년 스포츠팀 및 오케스트라단 운영, 진로진학지도 상담실 운영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서포터즈 위촉(475명) 및 활동(10,309건), 다문화가족캠프, 중도입국청소년 캠프(1회) 등 ▣ 육아정보나눔터 운영(59명), 아동교실 해피리더 양성(10개소, 456명) 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어린이 외국어 회화교실(4개반, 중국어, 영어), 취업교육(535명) 및 정보화교육(480명) 등 ▣ 검정고시 준비반(11명 합격), 동아리모임(70개, 합창단 ‘어울림’운영(40명), 자조모임(12개, 167명)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13개 시군), 다문화사회 이해교육(2,838회, 255,922명), 다문화 소통프로그램 운영(2,698명)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7회)
2016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화상교육서비스 구축 및 실시(102가구), 역사문화교실 운영(37명), 북아트로 만나는 한국문화유산(45명)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이주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592명), 아동 심리검사 등 심리정서 지원(66명), 독서지도 및 글쓰기훈련 등 지원(15명) 등 ▣ 진로진학지도 상담실 운영(338명), 유소년 스포츠팀, 오케스트라단 운영, 글로벌 봉사단 운영(21명)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서포터즈 운영(466명, 멘토활동 등 11,254건), 다문화가족캠프(1회) ▣ 외상통역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188건),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228명), 출산도우미 서비스 제공(25명) 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아동교실 해피리더 프로그램(272명), 어린이 외국어 회화교실(4개반, 60명), 취업교육(652명) 및 정보화교육 실시(480명), 검정고시 준비반(11명 합격), 학습동아리 운영(53명), 동아리모임 지원(77개 단체)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13개 시군), 한국문화체험(9개 시군), 다문화사회 이해교육(2,060회, 230,182명), 다문화 소통프로그램(2,938명)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2017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화상교육서비스 구축 및 실시(센터 기본교육, 자녀 학습 등), 안양 플러스 경기도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시정담당 및 역사문화 기행)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말하기대회 개최(100명), 유소년 스포츠팀 운영, 오케스트라 운영(22명), 독서지도(15명) 및 심리정서 지원(80명) 등 ▣ 글로벌 봉사단 운영(80건), 오감타치 프로그램(20명), 악기교육 및 합창교육(27명)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서포터즈 운영(210명) 및 활동(4,000명),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동시통역서비스 지원, 육아정보나눔터 운영 등

구 분	정책과제	주요 내용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교실 해피리더 양성(250명), 어린이 외국어 화화교실 운영(60명), 취업교육(430명) 등</li> <li>▣ 검정고시 준비반 운영(35명), 동아리모임 활성화(100개), 결혼이민자 정보교류 센터 운영 등</li> </ul>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사계인의 날 행사 개최(19개 시군), 한국문화체험(10개 시군), 체육대회(7개 시군), 다문화사회 이해교육(3,000회) 등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도 1, 시군 18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및 안산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등

자료 : 여성가족부,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2-2013.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4-2017

#### 4.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3차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의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정책과제는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을 포함한 5개로 설정되어 있고, 각 정책과제에 포함된 세부과제는 총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과제수는 2018년 100개, 2019년 99개로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음
  - 2018년의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총 8,158.2백만 원이 투입되었고, 이 중 44.5%인 3,634.1백만 원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과제에 투입되었음
  - 2019년 현재에는 총 9,931.0백만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2018년과 동일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이며, 4,071.0백만 원(41.0%)이 집행되고 있음

[표 4-32] 3차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단위: 백만 원, %, 개)

정책과제	세부과제	예산		과제수	
		2018	2019	2018	2019
전체 합계		8,158.2 (100.0)	9,931.0 (100.0)	100	99
1. 다문화가족 장기장착 지원	1-1.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600.8	74	20	1
	1-2.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1-3.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766		18
	1-4. 서비스 연계 활성화	329	321	5	5
	소계	929.8 (11.4)	1,161.0 (11.7)	25	24
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2-1. 자립역량 강화	997.6	827	8	9
	2-2.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571.7	667	13	10
	2-3. 사회참여 확대	149	165	6	5
	소계	1,718.3 (21.1)	1,659.0 (16.7)	27	24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3-1.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1,462.6	1,565	12	11
	3-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959.9	1,208	13	14
	3-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3-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1,211.5	1,298	4	5
	소계	3,634.1 (44.5)	4,071.0 (41.0)	29	30
4.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4-1.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4-2.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260	767	3	5
	4-3.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4-4.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730	1,329	12	12
	소계	990 (12.1)	2,096.0 (21.1)	15	17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5-1.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3	3	2	2
	5-2. 다문화가족 자원체계 내실화	883	941	2	2
	소계	886 (10.9)	944 (9.5)	4	4

출처 :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018.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 제4절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 1. 추진체계

-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추진은 「다문화가족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지원 정책 대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국적법」에 명시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그들의 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족이며, 조례 상 매년 수립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추진주체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집행부 내 전담부서이고, 다른 하나는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며, 마지막 하나는 동 조례 제16조제2항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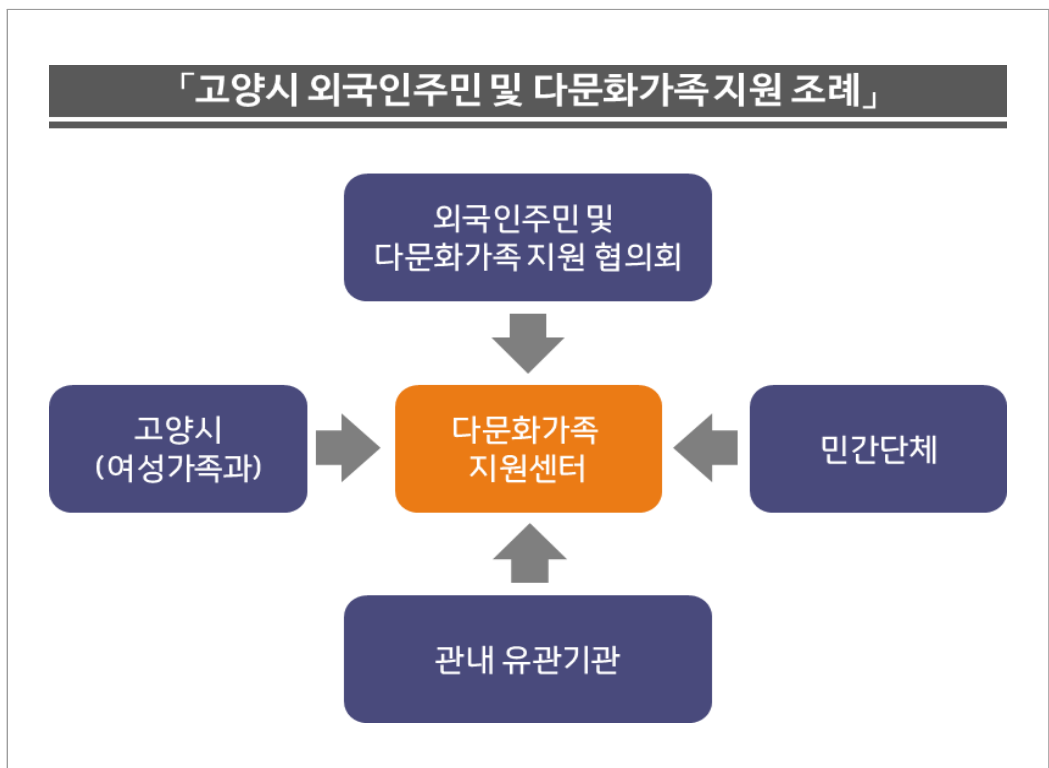
【표 4-33】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구 분	주요 내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법」 및 동법 시행령</li> <li>▣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li> </ul>
정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li> <li>-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li> </ul> </li> </ul>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li> </ul> </li> </ul>
전담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li> <li>▣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li> </ul>

구 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제1부시장</li> <li>- 당연직: 시의회 의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자</li> <li>- 위촉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등 시장이 위촉</li> </ul>
	<p>■ 다문화가족지원센터(「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 및 사무 위탁</li> </ul>

출처 :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8.

[그림 4-3]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추진구조



## 2. 고양시의 연도별 사업규모

- 2012년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전문개정 이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었음
- － 연도별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예산에 있어 2013년 719,190천 원이 투입되었고, 2014년 676,403천 원, 2015년 616,731천 원, 그리고 2018년 현재 698,534천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4년과 2015년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 － 세부사업 규모는 2013년 17개 단위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2014년과 2015년 15개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부터 소폭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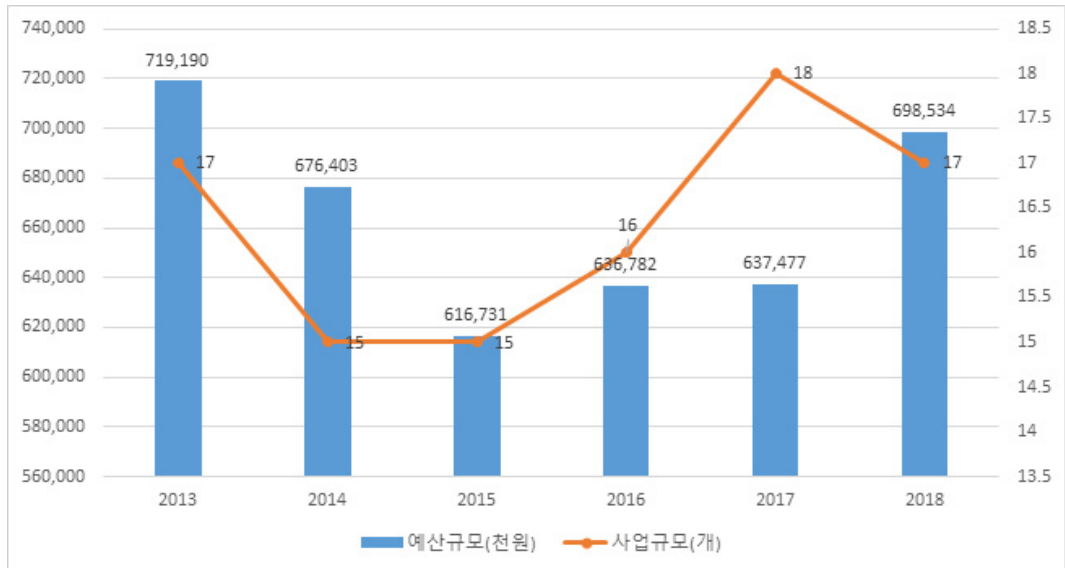
[표 4-34] 고양시의 연도별 사업 규모

(단위: 천 원, 개)

구 분	예산 규모	사업 규모
2013	719,190	17
2014	676,403	15
2015	616,731	15
2016	636,782	16
2017	637,477	18
2018	698,534	17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그림 4-4] 고양시의 연도별 사업규모 추이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사업은 총 23개임
  - － 이들 사업을 여성가족부의 제3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사업분야별로 구분하면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8개,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4개,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6개,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3개, 그리고 ‘추진체계 강화’ 2개로 나타남
  - － 각 세부사업을 추진주체별로 구분하면,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4개 사업은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였고,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 등 19개 단위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였음
  - － 세부사업의 주요 추진방법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해당 센터의 직접공급 방법으로 수행되었음



[표 4-35]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 주체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주체 및 방법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8)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	■ 초기 입국한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정착 이민자와 1: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결혼이민자에 대한 입국초기 상담, 정보제공, 행정기관, 병원 등 기관이용 시 통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한국어교육(국비)	■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 위기 다문화가족 상담 및 사례발굴,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도비)	■ 결혼이민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전담기관이 운영토록 하여 교육을 체계화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국내 조기정착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 한국사회에 익숙한 결혼이민자(서포터즈) 여성들의 신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 지원 활동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상담슈퍼비전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상담사례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상담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집합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시청(공모사업) (여성가족과)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4)	결혼이민자 맞춤형취업지원	■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들에게 적합한 직종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 3개의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의 운영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	■ 다문화가정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법 및 감정코칭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본국에서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하는 직업,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본국으로 귀환 할 수 있도록 유도 및 불법체류 방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6)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 경제적 어려움, 지리적 접근성 등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도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로 인한 부적응 문제해결을 위한 언어발달 진단 및 언어 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자원을 위한 진로적성 검사 및 부모상담, 역사논술지도, 유적지 탐방, 1인 1책 팝업북 만들기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주체 및 방법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학습지 지원	시청(직접지원) (여성가족과)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 부모의 재혼 등으로 외국에서 출생하고 중도입국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맞춤형 방문교육, 음악활동(사물놀이), 문화체험 멘토링 활동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다문화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 학생들에게 교육지원, 문화체험 및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여 개인역량 강화도모와 비(非) 다문화학생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소통하는 기회 제공	시청(공모사업) (여성가족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3)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 강의식 교육 및 외국문화체험과 다문화 공연, 캠페인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고양다문화 어울마당	▣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 다문화 관련 신문 무료 보급	시청(직접지원) (여성가족과)
추진체계 강화(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내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건비 및 사업비, 운영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	▣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 지원,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지원)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3. 세부사업의 연도별 예산규모

-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분야는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그리고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등임
  - ‘상담슈퍼비전 운영 지원’과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사업은 각각 2013년, 2017년 1회에 그쳤고,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어교육(국비)’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분야의 연도별 소요 예산은 2013년 70,450천원을 시작으로 2018년 129,087천원까지 매년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세부사업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로 확인되었음
-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분야는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임
  -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과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2013년 1회에 그쳤고,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분야의 연도별 소요 예산은 2013년 22,133천원을 시작으로 2017년 7,590천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2,610천원의 예산이 일정하게 투입되고 있고,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세부사업은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나타났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분야는 총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등임
  -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었으며, ‘다문화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18년에 처음으로 수행되었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분야의 연도별 소요 예산은 2013년 161,686천원을 시작으로 2018년 296,830천원까지 매년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세부사업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로 확인되었음
-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분야는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세부사업이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해당 분야의 연도별 소요 예산은 2013년 55,001천원을 시작으로 2018년 54,547천 원까지 매해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세부사업은

‘고양다문화 어울마당’으로 확인되었음

- 마지막으로 ‘추진체계 강화’분야는 총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은 2016년 한 해에만 추진되었음
- 해당 분야의 연도별 소요 예산은 2013년 409,920천 원으로 시작하여 2018년 205,460천 원으로 201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4-36] 세부사업 및 연도별 예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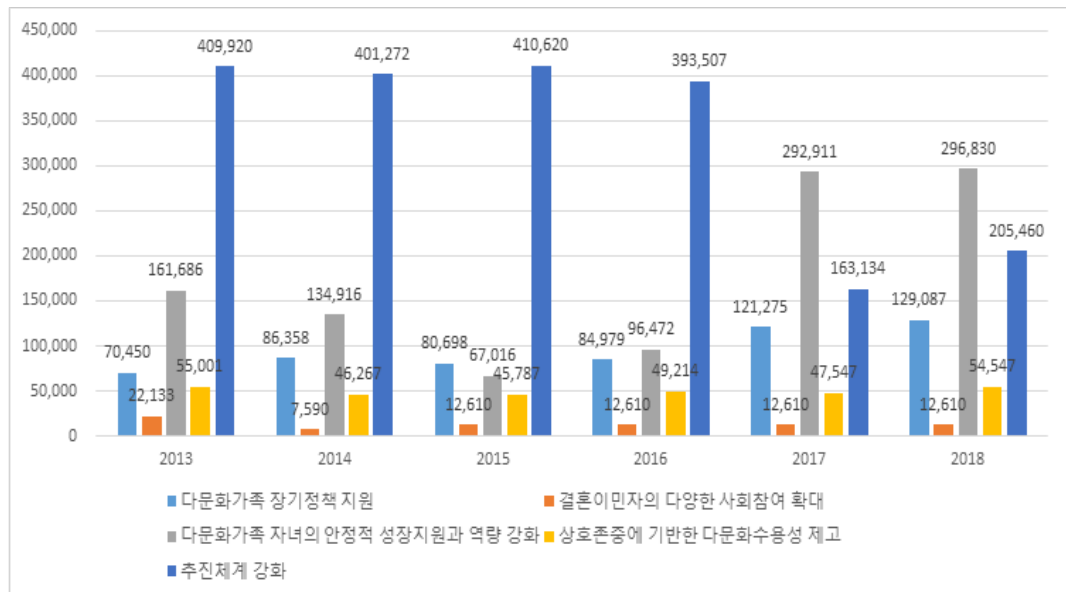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사업분야	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8)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	0	0	0	0	3,000	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28,640	35,504	35,364	37,224	42,750	48,460
	한국어교육(국비)	0	22,262	22,162	22,162	22,162	22,162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0	0	0	0	20,000	21,752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도비)	34,910	17,200	13,230	13,230	21,000	21,000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0	4,992	4,992	7,413	7,413	7,413
	상담슈퍼비전 운영 지원	500	0	0	0	0	0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6,400	6,400	4,950	4,950	4,950	8,300
	소계	70,450	86,358	80,698	84,979	121,275	129,087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4)	결혼이민자 맞춤형취업지원	7,333	7,590	8,110	8,110	8,110	8,110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0	0	4,500	4,500	4,500	4,500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	3,300	0	0	0	0	0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11,500	0	0	0	0	0
	소계	22,133	7,590	12,610	12,610	12,610	12,610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6)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97,380	75,110	0	0	196,299	186,83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29,456	29,456	29,456	58,912	58,912	60,198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7,000	7,000	5,000	5,000	5,000	5,000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16,350	16,350	19,660	19,660	19,800	19,800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11,500	7,000	12,900	12,900	12,900	0
	다문화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지원	0	0	0	0	0	25,000
	소계	161,686	134,916	67,016	96,472	292,911	296,830

사업분야	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3)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6,667	6,667	6,667	6,667	5,000	7,000
	고양다문화 어울마당	30,000	30,000	30,000	25,000	25,000	30,000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18,334	9,600	9,120	17,547	17,547	17,547
	소계	55,001	46,267	45,787	49,214	47,547	54,547
추진체계 강화(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409,920	401,272	410,620	158,144	163,134	205,46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	0	0	0	235,363	0	0
	소계	409,920	401,272	410,620	393,507	163,134	205,460
합계		719,190	676,403	616,731	636,782	637,477	698,534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그림 4-5] 주요 사업분야의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한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사업 분야의 연도별 예산 증감률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전체 예산의 증감률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5.9%, 8.8% 감소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 까지는 소폭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 첫 해인 2013년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분야는 2015년 6.6%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분야는 2014년 65.7%의 대폭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2015년 66.1%으로 증가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분야는 2014년과 2015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가파른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추진체계 강화’ 분야는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임
- 다음으로 사업 분야별 예산비중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분야는 2013년 9.8%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다가 2018년 소폭 축소되었으며,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분야는 2013년 3.1%의 비중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분야는 2013년 22.5%에서 시작하여 2015년까지 낮아지다가 2016년부터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분야는 매년 소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 ‘추진체계 강화’ 분야는 2013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8년 현재 29.4%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2018년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이며, 가장 낮은 분야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분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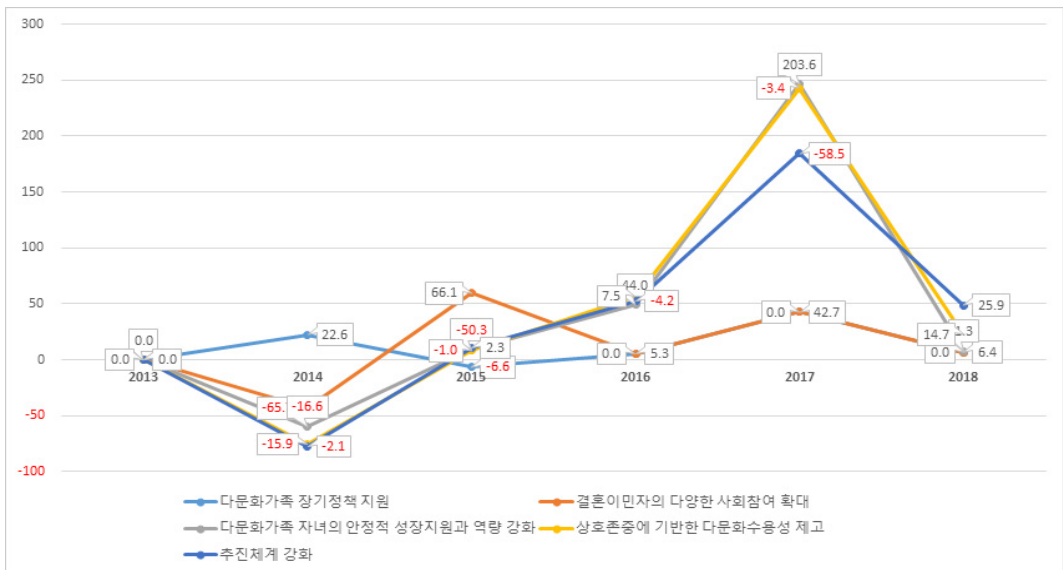
[표 4-37] 주요 사업분야의 연도별 예산 및 증감률 추이

(단위: 천원, %)

사업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비중)	증감률	예산 (비중)	증감률	예산 (비중)	증감률	예산 (비중)	증감률	예산 (비중)	증감률	예산 (비중)	증감률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70,450 (9.8)	0.0	86,358 (12.8)	22.6	80,698 (13.1)	-6.6	84,979 (13.3)	5.3	121,275 (19.0)	42.7	129,087 (18.5)	6.4
결혼이민자 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22,133 (3.1)	0.0	7,590 (1.1)	-65.7	12,610 (2.0)	66.1	12,610 (2.0)	0.0	12,610 (2.0)	0.0	12,610 (1.8)	0.0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16,666 (2.5)	0.0	134,916 (19.9)	-16.6	67,016 (10.9)	-50.3	96,472 (15.1)	44.0	292,911 (45.9)	203.6	296,880 (42.5)	1.3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55,001 (7.6)	0.0	46,267 (6.8)	-15.9	45,787 (7.4)	-1.0	49,214 (7.7)	7.5	47,547 (7.5)	-3.4	54,547 (7.8)	14.7
추진체계 강화	409,920 (57.0)	0.0	401,272 (59.3)	-2.1	410,620 (66.6)	2.3	393,507 (61.8)	-4.2	163,134 (25.6)	-58.5	205,460 (29.4)	25.9
합계	719,190 (100.0)	0.0	676,403 (100.0)	-5.9	616,731 (100.0)	-8.8	666,782 (100.0)	3.3	637,477 (100.0)	0.1	688,534 (100.0)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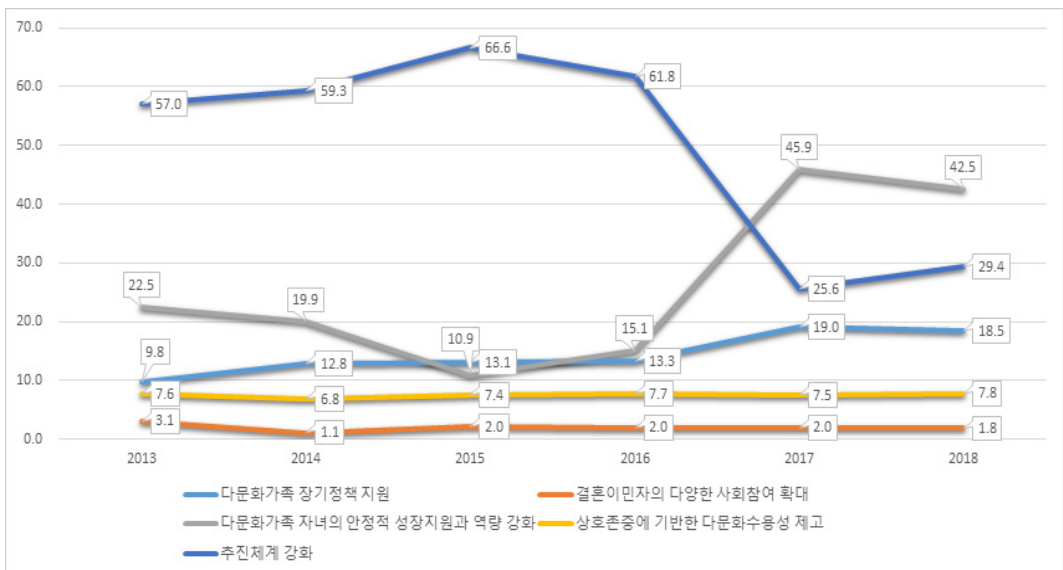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그림 4-6] 주요 사업분야의 연도별 증감을 추이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그림 4-7] 주요 사업분야의 연도별 비중추이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사업 분야에 투입된 재원출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현재 총 698,534천 원에서 국비는 48.7%인 340,313천 원이고, 도비는 8.7%인 60,919천 원, 시비는 42.6%인 297,302천 원으로 확인됨
  - 국비의 지원규모는 2013년 45.6%의 비중에서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도비는 2013년 21.9%의 비중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10% 미만의 지원규모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시비의 투입규모는 2013년 32.5%에서 2014년 43.0%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주요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비의 경우 ‘추진체계 강화’와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분야에 중점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도비의 경우에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분야, 시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및 ‘추진체계 강화’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

[표 4-38] 세부사업의 연도별·자원종류별 규모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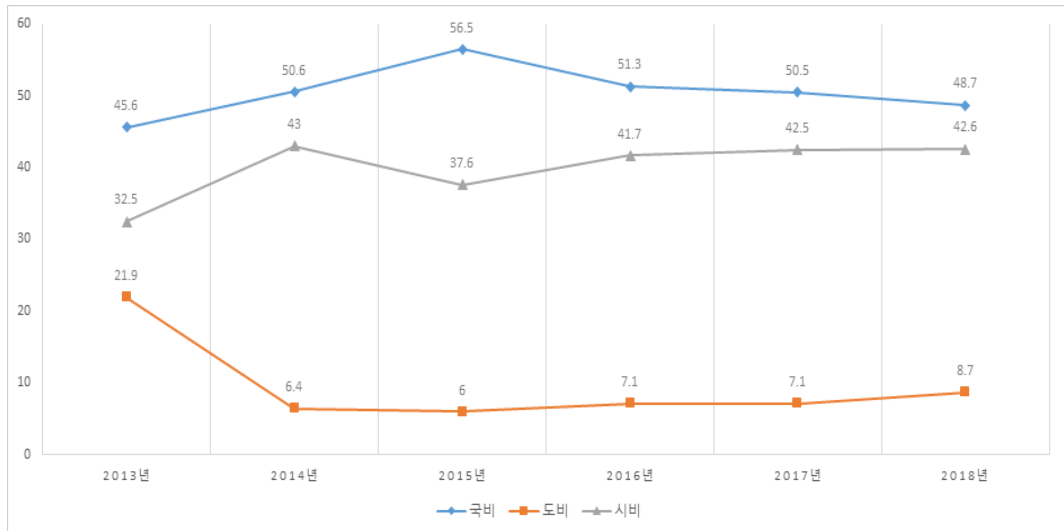
사업분야	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	0	0	0	0	0	0	0	0	0	0	0	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20,048	4,296	4,296	28,640	24,853	1,598	9,054	35,505	24,755	1,591	9,018	35,364
	한국어교육	0	0	0	0	15,583	1,002	5,677	22,262	15,513	997	5,651	22,161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0	0	0	0	0	0	0	0	0	0	0	0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0	10,473	24,437	34,910	0	1,720	15,480	17,200	0	1,323	11,907	13,230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0	0	0	0	0	499	4,493	4,992	0	499	4,493	4,992
	상담슈퍼비전 운영 지원	0	150	350	500	0	0	0	0	0	0	0	0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0	1,920	4,480	6,400	0	1,920	4,480	6,400	0	1,485	3,465	4,950
	소계	20,048	16,839	33,563	70,450	40,436	6,739	39,183	86,358	40,268	5,896	34,534	80,698
	비율	28.5	23.9	47.6	100.0	46.8	7.8	45.4	100.0	49.9	7.3	42.8	100.0
결혼 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결혼이민자 맞춤형취업지원	0	2,200	5,133	7,333	0	759	6,831	7,590	0	811	7,299	8,110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0	0	0	0	0	0	0	0	0	2,250	2,250	4,500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	0	990	2,310	3,300	0	0	0	0	0	0	0	0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0	3,450	8,050	11,500	0	0	0	0	0	0	0	0
	소계	0	6,640	15,493	22,133	0	759	6,831	7,590	0	3,061	9,549	12,610
	비율	0.0	30.0	70.0	100.0	0.0	10.0	90.0	100.0	0.0	24.3	75.7	100.0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재능향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0	48,690	48,690	97,380	0	7,511	67,599	75,110	0	0	0	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20,619	4,418	4,418	29,455	20,619	1,326	7,511	29,456	20,619	1,326	7,511	29,456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0	0	7,000	7,000	0	0	7,000	7,000	0	0	5,000	5,000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0	4,905	11,445	16,350	0	1,635	14,715	16,350	0	1,966	17,694	19,660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0	3,450	8,050	11,500	0	700	6,300	7,000	0	1,290	11,610	12,900
	다문화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지원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20,619	61,463	79,603	161,685	20,619	11,172	103,125	134,916	20,619	4,582	41,815	67,016
	비율	12.8	38.0	49.2	100.0	15.3	8.3	76.4	100.0	30.8	6.8	62.4	100.0
상호존중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0	2,000	4,667	6,667	0	2,000	4,667	6,667	0	2,000	4,667	6,667

사업분야	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고양다문화 어울마당	0	0	30,000	30,000	0	0	30,000	30,000	0	0	30,000	30,000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0	9,167	9,167	18,334	0	4,800	4,800	9,600	0	2,736	6,384	9,120
	소계	0	11,167	43,834	55,001	0	6,800	39,467	46,267	0	4,736	41,051	45,787
	비율	0.0	20.3	79.7	100.0	0.0	14.7	85.3	100.0	0.0	10.3	89.7	100.0
추진체계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286,944	61,488	61,488	409,920	280,890	18,057	102,324	401,271	287,434	18,478	104,708	410,6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286,944	61,488	61,488	409,920	280,890	18,057	102,324	401,271	287,434	18,478	104,708	410,620
	비율	70.0	15.0	15.0	100.0	70.0	4.5	25.5	100.0	70.0	4.5	25.5	100.0
합계		327,611	157,597	233,981	719,189	341,946	43,527	290,931	676,404	348,321	36,752	231,657	616,730
비율		45.6	21.9	32.5	100.0	50.6	6.4	43.0	100.0	56.5	6.0	37.6	100.0
사업분야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	0	0	0	0	2,100	135	765	3,000	0	0	0	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26,057	1,675	9,492	37,224	29,925	1,924	10,901	42,750	33,922	2,181	12,357	48,460
	한국어교육	15,513	997	5,651	22,161	15,513	997	5,651	22,161	15,513	997	5,651	22,161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0	0	0	0	14,000	900	5,100	20,000	15,226	979	5,547	21,752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0	1,323	11,907	13,230	0	2,100	18,900	21,000	0	2,100	18,900	21,000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0	741	6,672	7,413	0	741	6,672	7,413	0	741	6,672	7,413
	상담슈퍼비전 운영 지원	0	0	0	0	0	0	0	0	0	0	0	0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0	1,485	3,465	4,950	0	1,485	3,465	4,950	0	2,490	5,810	8,300
	소계	41,570	6,222	37,187	84,979	61,538	8,282	51,454	121,274	64,662	9,488	54,937	129,087
	비율	48.9	7.3	43.8	100.0	50.7	6.8	42.4	100.0	50.1	7.4	42.6	100.0
결혼 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결혼이민자 맞춤형취업지원	0	811	7,299	8,110	0	811	7,299	8,110	0	811	7,299	8,110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0	2,250	2,250	4,500	0	2,250	2,250	4,500	0	2,250	2,250	4,500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	0	0	0	0	0	0	0	0	0	0	0	0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3,061	9,549	12,610	0	3,061	9,549	12,610	0	3,061	9,549	12,610

사업분야	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비율	0.0	24.3	75.7	100.0	0.0	24.3	75.7	100.0	0.0	24.3	75.7	100.0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재난양육 및 재능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0	0	0	0	137,409	8,833	50,056	196,298	130,782	8,407	47,642	186,83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41,238	2,651	15,023	58,912	41,238	2,651	15,023	58,912	42,139	2,709	15,350	60,198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0	0	5,000	5,000	0	0	5,000	5,000	0	0	5,000	5,000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0	1,966	17,694	19,660	0	1,980	17,820	19,800	0	1,980	17,820	19,800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0	1,290	11,610	12,900	0	1,290	11,610	12,900	0	0	0	0
	다문화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지원	0	0	0	0	0	0	0	0	0	12,500	12,500	25,000
	소계	41,238	5,907	49,327	96,472	178,648	14,754	99,509	292,911	172,921	25,596	98,313	296,830
	비율	42.7	6.1	51.1	100.0	61.0	5.0	34.0	100.0	58.3	8.6	33.1	100.0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 성 제고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0	2,000	4,667	6,667	0	1,500	3,500	5,000	0	2,100	4,900	7,000
	고양다문화 어울마당	0	0	25,000	25,000	0	0	25,000	25,000	0	0	30,000	30,000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0	5,264	12,283	17,547	0	5,264	12,283	17,547	0	5,264	12,283	17,547
	소계	0	7,264	41,950	49,214	0	6,764	40,783	47,547	0	7,364	47,183	54,547
	비율	0.0	14.8	85.2	100.0	0.0	14.2	85.8	100.0	0.0	13.5	86.5	100.0
추진체계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79,072	11,861	67,211	158,144	81,567	12,235	69,332	163,134	102,730	15,410	87,321	205,46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	164,754	10,591	60,018	235,363	0	0	0	0	0	0	0	0
	소계	243,826	22,452	127,229	393,507	81,567	12,235	69,332	163,134	102,730	15,410	87,321	205,461
	비율	62.0	5.7	32.3	100.0	50.0	7.5	42.5	100.0	50.0	7.5	42.5	100.0
	합계	326,635	44,906	265,241	636,782	321,753	45,097	270,627	637,477	340,313	60,919	297,302	698,534
	비율	51.3	7.1	41.7	100.0	50.5	7.1	42.5	100.0	48.7	8.7	42.6	10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그림 4-8] 예산투입 방법의 연도별 비중추이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4. 고양시의 연도별 사업성과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 － 초기에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와 ‘추진체계 강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후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및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분야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
  - －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언어교육과 취업지원, 사회적응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 자녀에 대한 각종 교육 지원, 일반 시민에 대한 다문화사회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온전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표 4-39] 고양시의 세부사업별 성과(2013~2015)

사업분야	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	-	-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통번역서비스: 1,972명 - 중국어: 1,032명 - 베트남어: 940명	통번역서비스: 3,093명 - 중국어: 1,866명 - 베트남어: 1,227명	통번역서비스: 7,910명 - 중국어: 4,218명 - 베트남어: 3,692명
	한국어교육	-	1단계: 18명 2단계: 18명 3단계: 32명 중도입국: 9명 심화: 53명 방학특강: 38명	초급: 84명 중급: 121명 방학특강: 44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	-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총 180명	총 134명 - 기초: 50명 - 초급: 46명 - 중급: 38명	총 57명 - 1단계: 29명 - 2단계: 22명 - 3단계: 6명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	총 401명 - 어려움발굴: 51명 - 신규자발굴: 96명 - 멘토멘티연결: 254명	총 433명 - 센터등록: 76명 - 프로그램 이용연계: 91명 - 생활지원: 276명
	상담슈퍼비전 운영 지원	지원: 2회	-	-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교육: 56명	교육: 4강좌 / 69명	교육: 2강좌 / 36명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결혼이민자 맞춤형취업지원	총 20명 - 피부관리사: 8명 - 네일아트1급: 12명	총 27명 - 도배기능사: 13명 - 신규강사양성: 14명	총 46명 - 원어민강사: 21명 - 산후관리사: 6명 - 다문화이해교육강사: 19명

사업분야	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	-	3개 동아리 지원 - 에이핑크: 20명 - 세계로클럽: 25명 - 씨밀레: 32명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	교육: 28명 - 2013.01.26.	-	-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총 106명 - 운전면허학과: 18명 - pc정비사: 20명 - 토탈공예강사: 15명 - 미용사 양성: 18명 - 태권도지도사양성: 17명 - 바리스타양성: 18명	-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방문교육: 60명	방문교육: 48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언어평가: 37명 부모상담(교육): 20명	언어평가: 30명 언어교육: 18명 부모상담(교육): 32명	언어평가: 31명 언어교육: 19명 부모상담(교육): 42명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 교육인원: 10명 - 기간: 2013.4~12.	- 교육인원: 28명 - 기간: 2014.5~12.	- 교육인원: 15명 - 교육횟수: 19회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월평균: 96명	월평균: 100명	월평균: 109명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총 8명 - 한국어 - 문화체험 - 여체멘토링 등	총 51명 - 한국어교육: 12명 - 미술교육: 10명 - 방송댄스: 10명 - 문화체험: 19명	총 58명 - 한국어교육: 14명 - 심리상담: 11명 - 음악활동: 11명 - 문화체험: 22명

사업분야	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다문화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지원	-	-	-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교육: 3,872명	교육: 27회	총 57회 - 이해교육: 50회 - 캠페인: 7회
	고양다문화 어울마당	참여: 5,000명 - 13.10.5(토)/13~18시	참여: 5,000명 - 14.10.11(토)/13~18시	참여: 5,000명 - 15.10.3(토)/13~17시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구독: 13,320부	구독: 6,400부	구독: 6,080부
추진체계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한국어교육: 159명 가족통합교육: 437명 취업교육 및 연계: 52명 개인가족상담: 82명 나눔봉사단: 138명 자조모임: 84명 다문화인식개선: 35명	가족통합교육: 849명 취업교육 및 연계: 135명 개인가족상담: 84명 나눔봉사단: 59명 지역사회네트워크: 68명 다문화인식개선: 124명 방문교육: 183명 친정어머니결연: 70명	방문교육: 175명 가족통합교육: 1,017명 성평등 및 인권교육: 643명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 399명 나눔봉사단: 257명 자조모임: 469명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416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	-	-	-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표 4-40] 고양시의 세부사업별 성과(2016~2018)

사업분야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	-	결혼이민자 멘토링: 80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통번역서비스: 4,719명 - 중국어: 2,203명 - 베트남어: 2,516명	통번역서비스: 4,862명 - 중국어: 2,337명 - 베트남어: 2,525명	통번역서비스: 4,348명 - 중국어: 2,462명 - 베트남어: 1,886명
	한국어교육	총 273명/9개반	총 108명	총 112명



사업분야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 1단계 36명, 2단계 34명, 3단계 44명, 4단계 25명, 토박반 49명 - 찾아가는한국어교육 1단계 28명, 2단계 18명, 3단계 9명, 방학 특강 30명	- 1단계 22명, 2단계 28명, 3단계 28명, 4단계 30명	- 1단계 30명, 2단계 21명, 3단계 31명, 4단계 30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	지원: 15가정	지원: 15가정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총 57명 - 1단계: 28명 - 2단계: 29명	총 119명 - 1단계: 38명 - 2단계: 43명 - 토박반: 38명	총 143명 - 1단계: 68명 - 2단계: 35명 - 토박반: 40명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총 615명 - 센터등록: 148명 - 프로그램 이용연계: 63명 - 생활지원: 404명	총 774명 - 센터등록: 126명 - 프로그램 이용연계: 64명 - 생활지원: 584명	실적: 총 719명 - 센터등록: 148명 - 프로그램 이용연계: 68명 - 생활지원: 503명
	상담슈퍼비전 운영 지원	-	-	-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교육: 2강좌 / 36명	교육: 2강좌 / 28명	교육: 4강좌 / 32명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결혼이민자 맞춤형취업지원	총 37명 - 원어민강사: 11명 - 다국적 요리강사: 12명 - 다문화이해교육강사: 14명	총 32명 - 통번역사 양성: 16명 - 산후도우미 양성: 6명 - 다문화이해교육강사: 10명	총 25명 - 바리스타 양성: 14명 - 다문화이해교육강사: 11명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3개 동아리 지원 - 에이핑크: 20명 - 세계로클럽: 25명 - 씨밀레: 20명	3개 동아리 지원 - 에이핑크: 20명 - 세계로클럽: 32명 - 씨밀레: 32명	3개 동아리 지원 - 에이핑크: 16명 - 다사랑난타클럽: 15명 - 다문화봉사단: 33명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	-	-	-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	-	-

사업분야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	방문교육: 158명	방문교육: 139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언어평가: 58명 언어교육: 28명	언어평가: 68명 언어교육: 33명 부모상담: 68명	언어평가: 71명 언어교육: 38명 부모상담: 86명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 교육인원: 15명 - 교육횟수: 20회	- 교육인원: 13명 - 교육횟수: 20회	- 교육인원: 14명 - 교육횟수: 16회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월평균: 109명	월평균: 110명	월평균: 110명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총 75명 - 한국어교육: 18명 - 집단미술치료: 16명 - 창의활동: 16명 - 문화체험: 25명	총 67명 - 한국어교육: 20명 - 집단상담: 19명 - 체육활동: 19명 - 진로탐색교육: 9명	-
	다문화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지원	-	-	총 136회/166명 - 동아리 42회/30명 - 문화체험 4회/72명 - 소통캠프 3회/28명 - 교육지원 87회/36명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총 119회 - 이해교육: 93회 - 캠페인: 26회	총 120회 - 이해교육: 93회 - 문화체험: 14회 - 공연, 캠페인: 21회	총 190회 - 이해교육: 145회 - 체험캠페인: 45회
	고양다문화 어울마당	참여: 2,500명 - 16.05.28(토)/ 12~17시	참여: 2,000명 - 17.10.21(토)/ 12~17시	참여: 2,000명 - 18.10.21(토)/ 12~17시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구독: 11,698부	구독: 11,690부	구독: 11,690부
추진체계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가족통합교육: 500명 성평등 및 인권교육: 370명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 74명 가족통합교육: 437명	가족사업: 361명 성평등 및 인권: 483명

사업분야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 27명 나눔봉사단: 80명 자조모임: 121명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393건	성평등 및 인권교육: 700명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 45명 나눔봉사단: 75명 개인가족상담 :130명 홍보 및 자원연계: 225건	상담사업: 106회 사회통합: 781명 홍보 및 자원연계: 201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	방문교육: 111명 사례관리 지원: 15명 결혼이민자 멘토링: 80명	-	-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제5절 소결

- 본 장에서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고양시의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추진 근거와 체계, 예산 및 사업규모, 추진성과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명확한 정책 구분이 요구됨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무임을 고려하면, 중앙부처 간의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불명확성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음
  - 더불어 「외국인처우법」과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각각의 기본계획이 갖는 위상이 동일하고,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에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정책이 시행되는 현장에서는 상호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에 따라 정책수혜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는 관계 법령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방향과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부사업 간의 연계역할 뿐만 아니라 보충적 기능 또한 수행해야 함
  -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따른 계획과 실적 평가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있는 바, 광역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은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충실성과 구체성, 연계성, 실현 가능성 등이 필수적임
  -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보건대, 광역단위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음
  -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세부사업과

- 반드시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규모에 있어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예산투입과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배제 등 합리적 정책 운용이 필수적임
- 한편, 고양시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추진체계에 담아 공동 관리하는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이는 외국인주민의 포괄범위 내에 다문화가족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양자의 지원정책을 일원화하고, 집행에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원정책의 일원화가 추진방법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주민은 정책 수혜자를 중심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적용하고,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국인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포괄하는 가족공동체 활성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그들이 지역공동체에 온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향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시행계획과 병행하여 고양시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이 요구되며, 이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 및 욕구분석이 선행되어야 그 효과가 보장될 수 있음
    - 그리고 세부사업의 추진주체들 간, 관내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 간의 명확한 기능 조정과 정보공유, 상호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또한 필수적임
  -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다문화관련 정책방향과 경기도 시행계획의 경향을 보건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양시의 관련 정책 또한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대상자들의 수요를 고려한 접근이 요구됨



## 제 5 장

# 다문화가족 실태 및 욕구 분석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조사 내용의 구성

제3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4절 고양시와 전국기준과의 비교분석

제5절 심층면접(FGI) 분석 결과





## 제절 조사 설계

### 1. 분석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고양시 다문화가족 구성원(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실태 및 욕구분석을 통해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실태 및 욕구조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통해 기존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자녀양육,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인식 수준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현행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세부적인 사업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2. 분석의 방법

- 고양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실태 및 욕구분석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됨. 첫 번째 단계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을 통한 설문조사이며, 두 번째 단계는 정량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심층면접(FGI)임
- 설문조사는 자기기입방식을 적용하되 조사결과 타당성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은 5개국(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조사원으로 채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FGI) 대상자는 지역별·국가별로 안배하여 선정하되, 다문화가족 구성시기와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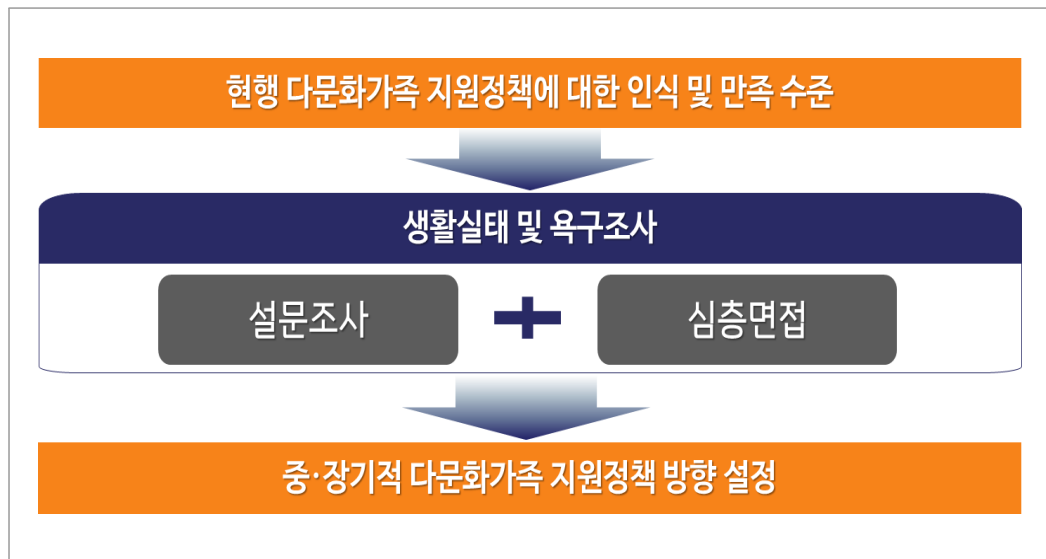
[표 5-1] 실증조사 체계

구분		주요 내용
조사목적	설문조사	▣ 고양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수준, 생활실태, 욕구수요 등 확인
	심층면접	
조사시기	설문조사	▣ 2019년 8 ~ 9월
	심층면접	▣ 2019년 9 ~ 10월
조사방법	설문조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조 -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를 국가별(5개국)로 조사원 채용(5명)
	심층면접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조 - 지역별·국가별로 안배하여 선정하되 입국시기와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6가구)
작성방법	설문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의 자기기입방식 또는 면접식 적용
	심층면접	▣ 개별면접법 또는 집중집단면접법 적용
조사대상	설문조사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
	심층면접	▣ 다문화가족 구성원

### 3. 분석의 체계

-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및 욕구분석은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됨
  - 먼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에 대한 결혼 생활 및 가정생활, 자녀양육, 사회생활 등 실태분석과 현행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만족조사 등 욕구수준을 분석함
  - 더불어 설문조사(질문지법)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 조사결과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면접(FGI)을 활용하며, 주요 대상자는 다문화가족의 내국인 가족과 자녀를 중심으로 진행함
  - 이를 통해 현행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수준과 한계를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실태 및 욕구수준을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정책의 접근방법을 선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임

[그림 5-1] 실태 및 욕구분석 체계



## 제2절 조사 내용의 구성

-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위한 설문내용은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현행 고양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발하였음
- 다시 말해서 결혼생활 및 자녀양육, 경제활동 등은 기존 연구된 내용을 준용하였고, 현행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사회생활 내 사회자본 수준, 기타 문항은 고양시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내용을 추가하였음

[표 5-2] 설문조사 조사체계

구 분	설문구조	설문대상	문항 수	척도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수준</li> <li>▣ 현행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li> <li>▣ 추가 지원서비스</li> <li>▣ 관내 공공시설 이용 경험 및 만족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li> <li>▣ 배우자</li> </ul>	28	서열 및 명목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li> <li>▣ 배우자와의 만남과 결혼</li> <li>▣ 현재 혼인상태</li> <li>▣ 부부생활에서의 만족도</li> <li>▣ 가족들과의 관계 및 가정생활 만족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li> <li>▣ 배우자</li> </ul>	43	서열 및 명목
자녀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역할에 대한 의식수준</li> <li>▣ 자녀와의 관계</li> <li>▣ 미취학 자녀 돌봄 활동에 대한 부담</li> <li>▣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li> <li>▣ 배우자</li> </ul>	10	서열 및 명목
사회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수준</li> <li>▣ 한국생활의 어려움</li> <li>▣ 지역 또는 조직(직장) 내 사회자본 수준</li> <li>▣ 모임 등 활동 경험 및 선호, 어려움</li> <li>▣ 차별 경험 및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li> <li>▣ 배우자</li> </ul>	27	서열 및 명목
경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 유무</li> <li>▣ 경제활동 만족도</li> <li>▣ 근로의 어려움</li> <li>▣ 구직활동 유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li> </ul>	8	서열 및 명목

구 분	설문구조	설문대상	문항 수	척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 형태 및 계획</li> <li>▣ 건강상태</li> <li>▣ 고양시 생활 만족도</li> <li>▣ 고양시 거주 의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li> <li>▣ 배우자</li> </ul>	12	서열 및 명목

○ 다문화가족에 대한 심층면접(FGI)은 지역별로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거주인원을 고려하여 표본 수를 추출하였음

－ 조사대상은 설문조사 대상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 모두를 적의 선정하였으며, 주요 면접내용은 설문구조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표 5-3] 심층면접(FGI) 조사체계

조사대상			면접내용
I 그룹 (덕양구)	14명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서비스</li> <li>▣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li> <li>▣ 자녀양육</li> <li>▣ 사회생활</li> <li>▣ 경제활동</li> </ul>
II 그룹 (일산동구)	6명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서비스</li> <li>▣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li> <li>▣ 자녀양육</li> <li>▣ 사회생활</li> <li>▣ 경제활동</li> </ul>
III 그룹 (일산서구)	6명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서비스</li> <li>▣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li> <li>▣ 자녀양육</li> <li>▣ 사회생활</li> <li>▣ 경제활동</li> </ul>

## 제3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 1. 조사 대상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고양시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 표본 수는 고양시 내 다문화가족 현황과 지역별 특성, 연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600부로 설정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16일부터 동년 9월 16일까지 실시하였음
  -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포하여 69.2%인 415부를 회수하였고, 응답내용이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한 설문은 377부이며, 이중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가 236부(62.6%)였고, 내국인 배우자는 141부(37.4%)임
- 설문대상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총 236명 중 여성이 230명(97.5%), 남성 6명(2.5%)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거주지(일반구별)로는 덕양구가 118명(50.0%), 일산동구 53명(22.5%), 일산서구 65명(27.5%)이 각각 응답하였음
  - 행정동별 분포를 살펴보면, 덕양구에서는 행신동이 28명(23.7%)으로 가장 많았고, 일산동구에서는 중산동이 12명(22.6%), 일산서구에서는 대화동이 21명(32.3%)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 ~ 30대 미만 52명(22.0%), 30대 ~ 40대 미만 100명(42.4%), 40대 ~ 50대 미만 46명(19.5%), 그리고 50대 이상 33명(14.0%)이 참여하였음
- 다음으로, 내국인 배우자 총 141명 중 여성이 7명(5.0%), 남성 134명(95.0%)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거주지(일반구별)로는 덕양구가 71명(50.4%), 일산동구 32명(22.6%), 일산서구 38명(27.0%)이 각각 응답하였음

- 행정동별 분포를 살펴보면, 덕양구에서는 행신동이 18명(25.4%)으로 가장 많았고, 일산동구에서는 백석동이 8명(25.0%), 일산서구에서는 대화동이 10명(26.3%)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 ~ 30대 미만 1명(0.7%), 30대 ~ 40대 미만 19명(13.5%), 40대 ~ 50대 미만 65명(46.1%), 그리고 50대 이상 55명(39.0%)이 참여하였음

[표 5-4]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① 여 성	230	97.5	7	5.0	237	62.9
	② 남 성	6	2.5	134	95.0	140	37.1
	무응답	0	0.0	0	0.0	0	0.0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거주지 (일반구)	① 덕양구	118	50.0	71	50.4	189	50.1
	② 일산동구	53	22.5	32	22.6	85	22.5
	③ 일산서구	65	27.5	38	27.0	103	27.3
	무응답	0	0.0	0	0.0	0	0.0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거주지 (덕양구)	① 주교동	10	8.5	4	5.6	14	7.4
	② 원신동	2	1.7	3	4.2	5	2.6
	③ 흥도동	14	11.9	8	11.3	22	11.6
	④ 성사동(1, 2동)	2	1.7	0	0.0	2	1.1
	⑤ 효자동	0	0.0	1	1.4	1	0.5
	⑥ 삼송동	11	9.3	5	7.0	16	8.5
	⑦ 창릉동	5	4.2	4	5.6	9	4.8
	⑧ 고양동	8	6.8	8	11.3	16	8.5
	⑨ 관산동	6	5.1	6	8.5	12	6.3
	⑩ 능곡동	9	7.6	9	12.7	18	9.5
	⑪ 화정동(1, 2동)	8	6.8	4	5.6	12	6.3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⑫ 행주동	12	10.2	0	0.0	12	6.3
	⑬ 행신동(1, 2, 3동)	28	23.7	18	25.4	46	24.3
	⑭ 화전동	2	1.7	1	1.4	3	1.6
	⑮ 대덕동	1	0.8	0	0.0	1	0.5
	무응답	0	0.0	0	0.0	0	0.0
	합계	118	100.0	71	100.0	189	100.0
거주지 (일산동구)	① 식사동	3	5.7	1	3.1	4	4.7
	② 중산동	12	22.6	5	15.6	17	20.0
	③ 정발산동	11	20.8	2	6.3	13	15.3
	④ 풍산동	9	17.0	6	18.8	15	17.6
	⑤ 백석동(1, 2동)	9	17.0	8	25.0	17	20.0
	⑥ 마두동(1, 2동)	2	3.8	1	3.1	3	3.5
	⑦ 장항동(1, 2동)	6	11.3	7	21.9	13	15.3
	⑧ 고봉동	1	1.9	2	6.3	3	3.5
	무응답	0	0.0	0	0.0	0	0.0
	합계	53	100.0	32	100.0	85	100.0
거주지 (일산서구)	① 일산동(1, 2, 3동)	13	20.0	8	21.1	21	20.4
	② 탄현동	10	15.4	5	13.2	15	14.6
	③ 주엽동(1, 2동)	9	13.8	6	15.8	15	14.6
	④ 대화동	21	32.3	10	26.3	31	30.1
	⑤ 송포동	0	0.0	3	7.9	3	2.9
	⑥ 송산동	12	18.5	6	15.8	18	17.5
	무응답	0	0.0	0	0.0	0	0.0
	합계	65	100.0	38	100.0	103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① 20대 ~ 30대 미만	52	22.0	1	0.7	53	14.1
	② 30대 ~ 40대 미만	100	42.4	19	13.5	119	31.6
	③ 40대 ~ 50대 미만	46	19.5	65	46.1	111	29.4
	④ 50대 이상	33	14.0	55	39.0	88	23.3
	무응답	5	2.1	1	0.7	6	1.6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2. 지원서비스

- 지원서비스 요인에 대한 세부질문문항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질문의 척도에 따라 분석방법을 결정하였고, 설문대상 집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5-5] 지원서비스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요인	세부질문	설문대상		척도	분석 방법
		결혼이민자 등	배우자		
지원 서비스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인식 유무	○	○	명목	기술(빈도)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수혜 유무	○	○	명목	기술(빈도)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별 경험 유무 및 만족수준	○	○	명목, 서열	기술(빈도)
	▣ 현행 서비스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	○	○	개방형	기술(빈도)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미수혜 사유	○	○	명목(순위)	기술(빈도)
	▣ 고양시 관내 공공기관 및 시설 이용 경험 및 만족수준	○		명목, 서열	기술(빈도)
	▣ 다문화가족 예비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의 필요성		○	서열	기술

- 고양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인식 유무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에는 236명 중 대다수인 218명(92.4%)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141명 중 88명(62.4%)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5-6]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인식 유무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① 알고 있다	218	92.4	88	62.4	306	81.2
② 알지 못한다	18	7.6	53	37.6	71	18.8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다음으로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수혜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와 배우자 각각 85.5%(200명), 80.4%(111명)가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수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앞선 질문과 비교하여 배우자의 경우 서비스의 인식 수준과 수혜 유무 간에 상관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경험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주체에 대한 정확한 인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5-7]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수혜 유무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① 있다	200	85.5	111	80.4	311	83.6
② 없다	34	14.5	27	19.6	61	16.4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현행 고양시에서 제공되고 있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수혜 유무와 만족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과 ‘한국사회 적응 교육’만이 과반 수 이상 경험하였고, 나머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소수만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만족수준에 있어서는 모든 서비스에서 동일하게 긍정적인 만족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별 경험 유무 및 만족수준(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경험 유무				만족수준			
구분		빈도	백분율(%)	N(Valid)	N(Missing)	Mean	Std. Dev.
1.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① 있다	161	68.2	154	82	4.48	.849
	② 없다	41	17.4				
	무응답	34	14.4				
	합계	236	100.0				

경험 유무				만족수준			
구분		빈도	백분율(%)	N(Valid)	N(Missing)	Mean	Std. Dev.
2. 한국사회 적응 교육	① 있다	128	54.2	121	115	4.24	.968
	② 없다	73	30.9				
	무응답	35	14.8				
	합계	236	100.0				
3. 통·번역 서비스 지원	① 있다	53	22.5	50	186	4.30	.789
	② 없다	148	62.7				
	무응답	35	14.8				
	합계	236	100.0				
4. 임신·출산 지원	① 있다	56	23.7	54	182	4.48	.636
	② 없다	145	61.4				
	무응답	35	14.8				
	합계	236	100.0				
5. 부모교육	① 있다	66	28.0	62	174	4.52	.864
	② 없다	135	57.2				
	무응답	35	14.8				
	합계	236	100.0				
6.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교육	① 있다	69	29.2	62	174	4.24	1.008
	② 없다	132	55.9				
	무응답	35	14.8				
	합계	236	100.0				
7.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	① 있다	74	31.4	66	170	4.33	.917
	② 없다	127	53.8				
	무응답	35	14.8				
	합계	236	100.0				
8. 사회활동 지원(자조모임 등)	① 있다	74	31.4	69	167	4.28	.971
	② 없다	127	53.8				
	무응답	35	14.8				
	합계	236	100.0				
9. 각종 상담	① 있다	44	18.6	42	194	4.36	.656
	② 없다	157	66.5				
	무응답	35	14.8				
	합계	236	100.0				
10. 일자리 교육 및 소개	① 있다	56	23.7	52	184	4.23	.877
	② 없다	145	61.4				
	무응답	35	14.8				
	합계	236	100.0				

경험 유무				만족수준			
구분		빈도	백분율(%)	N(Valid)	N(Missing)	Mean	Std. Dev.
11. 아이돌보미 지원	① 있다	39	16.5	38	198	4.50	.830
	② 없다	161	68.2				
	무응답	36	15.3				
	합계	236	100.0				
12. 도서관 지원	① 있다	45	19.1	43	193	4.47	.827
	② 없다	156	66.1				
	무응답	35	14.8				
	합계	236	100.0				

-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 지원서비스 수혜 경험자 중 과반 수 이상이 개별 지원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지원서비스는 ‘배우자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개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5-9] 다문화가족 자원서비스별 경험 유무 및 만족수준(배우자)

경험 유무				만족수준			
구분		빈도	백분율(%)	N(Valid)	N(Missing)	Mean	Std. Dev.
1. 결혼 전 정보제공 및 안내 프로그램	① 있다	31	13.1	29	207	3.41	.983
	② 없다	70	29.7				
	무응답	135	57.2				
	합계	236	100.0				
2. 가족관계 관련 상담 또는 교육	① 있다	25	10.6	23	213	3.57	1.121
	② 없다	76	32.2				
	무응답	135	57.2				
	합계	236	100.0				
3. 배우자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① 있다	50	21.2	48	188	3.88	1.024
	② 없다	52	22.0				
	무응답	134	56.8				
	합계	236	100.0				
4. 자녀의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	① 있다	28	11.9	25	211	3.68	1.108
	② 없다	71	30.1				
	무응답	137	58.1				
	합계	236	100.0				
5.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① 있다	22	9.3	21	215	3.86	.910
	② 없다	79	33.5				
	무응답	135	57.2				
	합계	236	100.0				

- 다음으로 서비스 수혜자 중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와 내국인 배우자 모두 ‘취업 교육 및 알선’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더불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창업지원서비스’와 ‘자녀에 대한 학습 및 생활도우미서비스’에 관심을 보였고, 내국인 배우자는 ‘다문화체험교육서비스’와 ‘자녀의 학습도우미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표 5-10] 현행 서비스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구분	빈도	백분율(%)
① 자녀학습도우미서비스	3	1.5
② 창업지원서비스	4	2.0
③ 청소년생활도우미서비스	3	1.5
④ 취업교육 및 알선	8	4.0
⑤ 치매예방서비스(가족 포함)	3	1.5
기타	22	11.0
무응답	157	78.5
합계	200	100.0

[기타응답]

가족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 다문화 체험교육서비스, 다문화어린이모임서비스, 다양한 국가자격증 교육서비스, 다양한 어린이프로그램지원서비스, 모국의 경력인정 취업 알선, 별거 결혼이민자 생활지원서비스, 사춘기/자녀부모교육서비스, 생활법률교육서비스, 생활용품 지원서비스, 생활정보제공서비스, 아동심리상담서비스, 외국어책 대출 서비스, 자녀에 대한 구기운동서비스, 자조모임지원서비스, 통번역서비스, 한국문화교육서비스 등

[배우자]		
구분	빈도	백분율(%)
① 다문화 체험교육서비스	4	3.6
② 소식지서비스(우편, 인터넷, SNS 등)	3	2.7
③ 자녀학습도우미서비스	4	3.6
④ 취업교육 및 알선	5	4.5
기타	27	24.3
무응답	68	61.3
합계	111	100.0

[기타응답]

가족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주택특별공급 안내서비스,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다문화수용성 강화 교육서비스, 모국어교육서비스, 문화복지서비스, 방언언어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 생활예절교육서비스, 생활정보제공서비스, 아동체육활동서비스, 의료서비스, 이중언어교육서비스, 자원봉사프로그램서비스, 정보화교육서비스, 출산육아서비스, 통번역서비스, 한국어교육서비스, 행정업무도우미서비스, 현지적응교육서비스, 휴일제공서비스 등

-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유를 묻는 질문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먼저, 양자 모두 1순위로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순위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배우자는 ‘가족이 반대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5-11] 다문화가족 자원서비스 미수혜 사유(순위응답)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순위	①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18	7.6	71	50.4	89	23.6
	② 시간이 없어서	7	3.0	24	17.0	31	8.2
	③ 가족이 반대해서	1	0.4	6	4.3	7	1.9
	④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2	0.8	3	2.1	5	1.3
	⑤ 받을 필요가 없어서	3	1.3	1	0.7	4	1.1
	⑥ 기타	0	0.0	0	0.0	0	0.0
	⑦ 무응답	205	86.9	36	25.5	241	63.9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2순위	①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3	1.3	4	2.8	7	1.9
	② 시간이 없어서	9	3.8	20	14.2	29	7.7
	③ 가족이 반대해서	0	0.0	43	30.5	43	11.4
	④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10	4.2	11	7.8	21	5.6
	⑤ 받을 필요가 없어서	1	0.4	3	2.1	4	1.1
	⑥ 기타	1	0.4	0	0.0	1	0.3
	⑦ 무응답	212	89.8	60	42.6	272	72.1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한편, 고양시 관내 공공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과 그에 따른 만족수준을 살펴 보면, 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즉,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이용 경험이 높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용 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용 만족수준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기타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5-12] 고양시 관내 공공기관 및 시설 이용 경험 및 만족수준(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경험 유무				만족수준			
구분		빈도	백분율(%)	N(Valid)	N(Missing)	Mean	Std. Dev.
1. 고양시청	① 있다	110	46.6	104	132	4.25	.945
	② 없다	118	50.0				
	무응답	8	3.4				
	합계	236	100.0				
2. 구청	① 있다	148	62.7	143	93	4.32	.916
	② 없다	79	33.5				
	무응답	9	3.8				
	합계	236	100.0				
3. 행정복지센터	① 있다	128	54.2	124	112	4.33	.843
	② 없다	99	41.9				
	무응답	9	3.8				
	합계	236	100.0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있다	186	78.8	176	60	4.45	.840
	② 없다	41	17.4				
	무응답	9	3.8				
	합계	236	100.0				
5. 이민자통합센터	① 있다	60	25.4	60	176	4.48	.812
	② 없다	168	71.2				
	무응답	8	3.4				
	합계	236	100.0				
6. 건강가정지원센터	① 있다	36	15.3	35	201	4.22	.807
	② 없다	192	81.4				
	무응답	8	3.4				
	합계	236	100.0				
7. 일자리센터	① 있다	50	21.2	48	188	4.16	.858
	② 없다	178	75.4				
	무응답	8	3.4				
	합계	236	100.0				
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① 있다	31	13.1	30	206	4.46	.730
	② 없다	197	83.5				
	무응답	8	3.4				
	합계	236	100.0				
9. 여성인력개발센터	① 있다	27	11.4	27	209	3.77	1.154
	② 없다	201	85.2				
	무응답	8	3.4				
	합계	236	100.0				
10. 사회복지관	① 있다	56	23.7	55	181	4.49	.766
	② 없다	172	72.9				



경험 유무				만족수준			
구분		빈도	백분율(%)	N(Valid)	N(Missing)	Mean	Std. Dev.
	무응답	8	3.4				
	합계	236	100.0				
11. 기타 외국인 지원단체	① 있다	23	9.7	22	214	3.81	1.006
	② 없다	205	86.9				
	무응답	8	3.4				
	합계	236	100.0				
12. 도서관	① 있다	76	32.2	73	163	4.16	1.105
	② 없다	152	64.4				
	무응답	8	3.4				
	합계	236	100.0				

-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가족 예비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필요수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더불어, ‘자녀의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과 ‘결혼 전 정보제공 및 안내 프로그램’ 등에서도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표 5-13] 다문화가족 예비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의 필요성 인식수준(배우자)

구분	필요수준			
	N(Valid)	N(Missing)	Mean	Std. Dev.
① 결혼 전 정보제공 및 안내 프로그램	132	9	4.09	.963
② 가족관계 관련 상담 또는 교육	130	11	3.97	.952
③ 배우자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134	7	4.27	.912
④ 자녀의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	131	10	4.17	.915
④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130	11	3.62	.925

### 3.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요인에 대한 세부질문문항은 총 1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질문의 척도에 따라 분석방법을 결정하였고, 설문대상 집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5-14]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요인	세부질문	설문대상		척도	분석 방법
		결혼이민자 등	배우자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input type="checkbox"/> 현재 혼인 및 동거 상태 - 현재 혼인상태 - 배우자 동거 여부 - 동거 자녀 여부	○	○	명목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없음 - 배우자 사망 시기 - 배우자 사망 후 동거 자녀 - 이혼 또는 별거 사유 - 이혼 또는 별거 후 자녀 양육 - 양육비 수령 여부	○		명목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	○	○	서열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동거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수준	○	○	서열	t-test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의 한국생활에 대한 지원 수준		○	서열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가정에서의 결정권	○	○	명목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가사노동의 분담정도	○	○	명목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와 동거 기간	○	○	서열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와 만남 방법	○	○	명목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와 문화적 차이 수준	○	○	서열	t-test
	<input type="checkbox"/> 최근 배우자와 다툼 경험 및 횟수	○	○	명목, 등간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와 다투는 주된 사유	○	○	명목(순위)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와 문제 발생시 행동 패턴	○	○	명목(중복)	기술(빈도)

- 설문대상자들에 대한 현재 혼인 및 동거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 총 236명 중 225명(95.3%)이 배우자가 있으며, 현재 동거 중인 경우도 동일한 수준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213명(90.3%)으로 응답하였음

- －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총 141명 중 140명(99.3%)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와 동거 중이며, 자녀와의 거주는 132명(93.6%)으로 나타났다

[표 5-15] 현재 혼인 및 동거 상태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현재 혼인 상태	①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225	95.3	141	100.0	366	97.1
	② 배우자 사망	5	2.1	0	0.0	5	1.3
	③ 이혼 또는 별거	6	2.5	0	0.0	6	1.6
	무응답	0	0.0	0	0.0	0	0.0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배우자 동거 여부	① 예	225	95.3	140	99.3	366	97.1
	② 아니요(주말부부 등)	11	4.7	1	0.7	11	2.9
	무응답	0	0.0	0	0.0	0	0.0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동거 자녀 여부	① 있다	213	90.3	132	93.6	345	91.5
	② 없다	23	9.7	9	6.4	32	8.5
	무응답	0	0.0	0	0.0	0	0.0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현재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총 5명이며, 자녀와 동거하는 응답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 － 더불어 이혼 또는 별거한 가족은 총 6가구이며, 사유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고, 자녀의 양육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가구는 4가구로 확인되었음

[표 5-16] 배우자 없음(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구분		빈도	백분율(%)
배우자 사망 시기	① 1년 전	2	0.8
	② 3년 전	1	0.4
	③ 5년 전	0	0.0
	④ 10년 전	2	0.8
	⑤ 10년 이상	0	0.0
	무응답	231	97.9
	합계	236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배우자 사망 후 동거 자녀	① 있다	4	1.7
	② 없다	0	0.0
	무응답	232	98.3
	합계	236	100.0
이혼 또는 별거 사유 (중복)	① 외도 등의 애정문제	3	0.6
	② 성격차이	7	1.5
	③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0	0.0
	④ 경제적 문제	4	0.8
	⑤ 자녀문제	0	0.0
	⑥ 배우자의 학대·폭력	0	0.0
	⑦ 배우자의 음주·도박	4	0.8
	⑧ 배우자의 가출	1	0.2
	⑨ 기타	0	0.0
	무응답	453	96.0
	합계	472	100.0
이혼 또는 별거 후 자녀 양육	① 본인	6	2.6
	② 배우자	0	0.0
	③ 자녀 없음	0	0.0
	무응답	230	97.4
	합계	236	100.0
양육비 수령 여부	① 받고 있음	2	0.8
	② 받고 있지 않음	4	1.6
	무응답	230	97.6
	합계	236	100.0

-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서로 대화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30분 미만’, ‘2시간 이상’ 등이 뒤를 따르고 있음

[표 5-17]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하루 기준)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① 전혀 없다	15	6.4	5	3.5	20	5.3
② 30분 미만	67	28.4	41	29.1	108	28.6
③ 30분 ~ 1시간 미만	66	28.0	47	33.3	113	30.0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④ 1시간 ~ 2시간 미만	33	14.0	18	12.8	51	13.5
⑤ 2시간 이상	42	17.8	28	19.9	70	18.6
무응답	13	5.5	2	1.4	15	4.0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와 그들의 배우자들이 인식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만족 수준은 배우자의 경우 모든 대상자들에게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기타 동거 중인 가족들에게 느끼는 관계만족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양자 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t-test결과 95% 신뢰수준에서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기타 동거 중인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이 통계학적으로 양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5-18] 동거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수준

구분	집단	N	Mean	Std. Dev.	t	Sig. (s-tailed)
1. 배우자	결혼이민자	224	3.9732	1.11218	-2.830	.005***
	배우자	141	4.2979	0.99099		
2. 배우자의 부모	결혼이민자	208	3.8221	1.00822	-2.767	.006***
	배우자	137	4.1241	0.96593		
3. 배우자의 친척	결혼이민자	221	3.7602	0.98232	-1.246	.214
	배우자	133	3.8947	0.98675		
4. 본인의 부모	결혼이민자	217	4.3502	0.86437	1.076	.283
	배우자	127	4.2441	0.91475		
5. 자녀	결혼이민자	203	4.4926	0.82275	.288	.773
	배우자	133	4.4662	0.82157		
6. 기타 동거 중인 가족	결혼이민자	107	3.7757	0.97428	-2.165	.032**
	배우자	73	4.0959	0.97417		

\*\*p&lt;0.05, \*\*\*p&lt;0.01

- 다음으로 내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인 배우자의 한국 생활에 대한 지원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독려와 직장생활에 대한 지지를 보이는 반면, 동네 주민 등 한국인들과의 관계 확대와 이주자 모임에 참여토록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5-19] 배우자의 한국생활에 대한 지원 수준(배우자)

구분	필요수준			
	N(Valid)	N(Missing)	Mean	Std. Dev.
1.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140	1	4.05	.871
2. 배우자가 동네 주민 등 한국인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141	0	3.72	.949
3. 배우자가 자신의 모국인 친구나 이주자 모임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141	0	3.79	.922
4. 배우자가 한국에서 직장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140	1	4.00	.970

- 다문화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훈육 및 교육, 배우자와 본인의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 대체로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이는 바와 같이 질문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설문결과와 응답자들의 방어적 설문행태를 일부 고려하더라도, 고양시 관내 다문화가족은 부부 상호 간 존중의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개별질문의 응답 비중이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녀와 생활용품 구매, 기타 가정일 부분에 있어서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본인의 결정권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배우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의견이 우선적인 것으로 판단됨

[표 5-20] 가정에서의 결정권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자녀에 대한 훈육	① 항상 본인	29	12.3	6	4.3	35	9.3
	② 대체로 본인	47	19.9	12	8.5	59	15.6
	③ 부부 공동	107	45.3	85	60.3	192	50.9
	④ 대체로 배우자	14	5.9	23	16.3	37	9.8
	⑤ 항상 배우자	4	1.7	7	5.0	11	2.9
	무응답	35	14.8	8	5.7	43	11.4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2. 자녀에 대한 교육	① 항상 본인	28	11.9	10	7.1	38	10.1
	② 대체로 본인	50	21.2	8	5.7	58	15.4
	③ 부부 공동	104	44.1	79	56.0	183	48.5
	④ 대체로 배우자	12	5.1	28	19.9	40	10.6
	⑤ 항상 배우자	6	2.5	7	5.0	13	3.4
	무응답	36	15.3	9	6.4	45	11.9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3. 배우자 부모님에 대한 지원	① 항상 본인	13	5.5	10	7.1	23	6.1
	② 대체로 본인	17	7.2	22	15.6	39	10.3
	③ 부부 공동	91	38.6	76	53.9	167	44.3
	④ 대체로 배우자	41	17.4	17	12.1	58	15.4
	⑤ 항상 배우자	39	16.5	10	7.1	49	13.0
	무응답	35	14.8	6	4.3	41	10.9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4. 본인 부모님에 대한 지원	① 항상 본인	26	11.0	17	12.1	43	11.4
	② 대체로 본인	41	17.4	34	24.1	75	19.9
	③ 부부 공동	96	40.7	59	41.8	155	41.1
	④ 대체로 배우자	24	10.2	8	5.7	32	8.5
	⑤ 항상 배우자	16	6.8	7	5.0	23	6.1
	무응답	33	14.0	16	11.3	49	13.0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5. 생활용품의 구매	① 항상 본인	29	12.3	14	9.9	43	11.4
	② 대체로 본인	46	19.5	18	12.8	64	17.0
	③ 부부 공동	112	47.5	75	53.2	187	49.6
	④ 대체로 배우자	19	8.1	24	17.0	43	11.4
	⑤ 항상 배우자	14	5.9	9	6.4	23	6.1
	무응답	16	6.8	1	0.7	17	4.5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6. 기타 가정일	① 항상 본인	21	8.9	9	6.4	30	8.0
	② 대체로 본인	36	15.3	13	9.2	49	13.0
	③ 부부 공동	105	44.5	83	58.9	188	49.9
	④ 대체로 배우자	15	6.4	18	12.8	33	8.8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⑤ 항상 배우자	9	3.8	10	7.1	19	5.0
	무응답	50	21.2	8	5.7	58	15.4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다음은 가사노동의 배분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로, 식사준비를 비롯한 세탁, 청소 등 모든 개별 질문에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본인이 대부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서 살펴본 가정 내에서의 결정권에 대한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의견이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는 있으나, 가사노동의 경우에는 현행 우리의 일반적인 가정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다수의 배우자가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가사노동의 편중성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에게 극단적으로 부과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면,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할 수 있음

[표 5-21] 가사노동의 분담 정도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식사준비	① 항상 본인	112	47.5	12	8.5	124	32.9
	② 대체로 본인	66	28.0	6	4.3	72	19.1
	③ 부부 공동	31	13.1	28	19.9	59	15.6
	④ 대체로 배우자	10	4.2	59	41.8	69	18.3
	⑤ 항상 배우자	6	2.5	35	24.8	41	10.9
	무응답	11	4.7	1	0.7	12	3.2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2. 식사 후 뒤처리	① 항상 본인	94	39.8	10	7.1	104	27.6
	② 대체로 본인	69	29.2	10	7.1	79	21.0
	③ 부부 공동	49	20.8	35	24.8	84	22.3
	④ 대체로 배우자	9	3.8	58	41.1	67	17.8
	⑤ 항상 배우자	4	1.7	26	18.4	30	8.0
	무응답	11	4.7	2	1.4	13	3.4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3. 세탁	① 항상 본인	104	44.1	11	7.8	115	30.5
	② 대체로 본인	53	22.5	10	7.1	63	16.7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③ 부부 공동	52	22.0	31	22.0	83	22.0
	④ 대체로 배우자	11	4.7	53	37.6	64	17.0
	⑤ 항상 배우자	5	2.1	35	24.8	40	10.6
	무응답	11	4.7	1	0.7	12	3.2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4. 세탁 후 옷 정리	① 항상 본인	101	42.8	9	6.4	110	29.2
	② 대체로 본인	63	26.7	5	3.5	68	18.0
	③ 부부 공동	50	21.2	35	24.8	85	22.5
	④ 대체로 배우자	6	2.5	53	37.6	59	15.6
	⑤ 항상 배우자	4	1.7	38	27.0	42	11.1
	무응답	12	5.1	1	0.7	13	3.4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5. 집안 청소	① 항상 본인	88	37.3	11	7.8	99	26.3
	② 대체로 본인	65	27.5	11	7.8	76	20.2
	③ 부부 공동	56	23.7	48	34.0	104	27.6
	④ 대체로 배우자	12	5.1	45	31.9	57	15.1
	⑤ 항상 배우자	4	1.7	25	17.7	29	7.7
	무응답	11	4.7	1	0.7	12	3.2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한편, 현재 고양시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10년 이상’의 동거기간을 갖는 가족이 40.3%(152명)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는 ‘5년에서 10년 미만’이 29.2%(110명), ‘3년에서 5년 미만’ 15.4%(58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5-22] 배우자와 동거 기간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① 3년 미만	20	8.5	22	15.6	42	11.1
② 3년 ~ 5년 미만	36	15.3	22	15.6	58	15.4
③ 5년 ~ 10년 미만	72	30.5	38	27.0	110	29.2
④ 10년 이상	95	40.3	57	40.4	152	40.3
무응답	13	5.5	2	1.4	15	4.0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다음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첫 만남에 대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확인하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에는 ‘친구 또는 지인의 소개로’와 ‘자유로운 연애’가 동일하게 23.7%(56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가 27.0%(38명)로 가장 높았으며, ‘자유로운 연애’가 23.4%(33명)로 그 뒤를 이었음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고양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농촌지역과 비교하여 결혼중개업체를 활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만남과 결혼을 하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

[표 5-23] 배우자와 만남 방법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①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	25	10.6	13	9.2	38	10.1
② 친구 또는 지인의 소개로	56	23.7	27	19.1	83	22.0
③ 종교 기관을 통해서	40	16.9	26	18.4	66	17.5
④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41	17.4	38	27.0	79	21.0
⑤ 자유로운 연애	56	23.7	33	23.4	89	23.6
⑥ 기타	4	1.7	2	1.4	6	1.6
무응답	14	5.9	2	1.4	16	4.2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다음으로 현재의 배우자와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수준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 자녀 양육 방식 등 모든 개별 질문에서 동일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 모두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가정 내에서 서로 느끼는 문화적 차이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표 5-24]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 수준

구분	집단	N	Mean	Std. Dev.	t	Sig. (s-tailed)
1. 음식 등의 식습관	결혼이민자	220	2.4818	1.07891	-.777	.438
	배우자	139	2.5755	1.16705		
2. 의복 등 옷 입는 습관	결혼이민자	220	2.2409	1.02086	.804	.422
	배우자	139	2.1511	1.04890		
3. 자녀 양육 방식	결혼이민자	211	2.6209	1.02276	.647	.518
	배우자	130	2.5462	1.05736		
4. 가사분담 방식	결혼이민자	220	2.4545	1.02602	.425	.671
	배우자	139	2.4029	1.17781		
5. 부모 부양 방식	결혼이민자	211	2.3081	1.02580	.495	.621
	배우자	136	2.2500	1.12711		
6. 가족행사 등 가족 의례	결혼이민자	217	2.3733	1.06451	.596	.551
	배우자	138	2.3043	1.05753		
7. 종교생활	결혼이민자	218	2.0413	1.07040	.966	.335
	배우자	137	1.9270	1.10902		
8. 저축, 소비, 돈 관리 등 경제생활	결혼이민자	218	2.3578	1.02972	-1.131	.259
	배우자	139	2.4964	1.18795		
9. 대화 등 의사소통방식	결혼이민자	221	2.5656	1.02314	.697	.486
	배우자	139	2.4892	0.99540		

\*\*p&lt;0.05, \*\*\*p&lt;0.01

- 최근 배우자와 다툼 경험과 월에 얼마나 자주 다투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49.2%(116명)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58.2%(82명)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얼마나 자주 다투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두 집단 모두 ‘월1회 이내’가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월 2회 이내’가 각각 14.4%, 11.3%로 확인되었음

[표 5-25] 최근 배우자와 다툼 경험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최근 다툼 경험	① 있다	106	44.9	82	58.2	188	49.9
	② 없다	116	49.2	55	39.0	171	45.4
	무응답	14	5.9	4	2.8	18	4.8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다툼 횟수	① 월 1회 이내	80	33.9	65	46.1	145	38.5
	② 월 2회 이내	34	14.4	16	11.3	50	13.3
	③ 월 3회 이내	10	4.2	7	5.0	17	4.5
	④ 월 4회 이상	16	6.8	9	6.4	25	6.6
	무응답	96	40.7	44	31.2	140	37.1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두 집단 모두 ‘성격차이’를 배우자와 다투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순위로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배우자는 ‘자녀의 교육 및 훈육’을 원인으로 꼽았음
- 앞서 살펴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설문응답결과를 고려하면, 두 집단 모두 다소 방어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더불어 다툰다는 의미를 의견마찰 정도의 협의적 개념으로 접근 하더라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국내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양자 간의 다문화수용성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자의적 또는 타의적 적응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5-26] 배우자와 다투는 주된 사유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순위	① 성격차이	69	29.2	44	31.2	113	30.0
	②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10	4.2	3	2.1	13	3.4
	③ 본인 가족과의 갈등	1	0.4	2	1.4	3	0.8
	④ 문화, 종교, 가치관 차이	8	3.4	8	5.7	16	4.2
	⑤ 언어 소통의 어려움	11	4.7	15	10.6	26	6.9
	⑥ 외도 문제	0	0.0	0	0.0	0	0.0
	⑦ 자녀의 교육 및 훈육	15	6.4	14	9.9	29	7.7
	⑧ 폭언 또는 폭행 등 학대	0	0.0	1	0.7	1	0.3
	⑨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14	5.9	4	2.8	18	4.8
	⑩ 음주 문제	7	3.0	1	0.7	8	2.1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⑪ 나에 대한 심한 의심	0	0.0	0	0.0	0	0.0
	⑫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	1	0.4	4	2.8	5	1.3
	⑬ 기타	2	0.8	2	1.4	4	1.1
	무응답	98	41.5	43	30.5	141	37.4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2순위	① 성격차이	12	5.1	5	3.5	17	4.5
	②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9	3.8	9	6.4	18	4.8
	③ 본인 가족과의 갈등	9	3.8	3	4.3	15	4.0
	④ 문화, 종교, 가치관 차이	10	4.2	12	8.5	22	5.8
	⑤ 언어 소통의 어려움	31	13.1	14	9.9	45	11.9
	⑥ 외도 문제	1	0.4	0	0.0	1	0.3
	⑦ 자녀의 교육 및 훈육	18	7.6	16	11.3	34	9.0
	⑧ 폭언 또는 폭행 등 학대	1	0.4	1	0.7	2	0.5
	⑨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13	5.5	14	9.9	27	7.2
	⑩ 음주 문제	5	2.1	3	2.1	8	2.1
	⑪ 나에 대한 심한 의심	0	0.0	0	0.0	0	0.0
	⑫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	6	2.5	3	2.1	9	2.4
	⑬ 기타	0	0.0	1	0.7	1	0.3
	무응답	121	51.3	57	40.4	178	47.2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다투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가 28.0%(1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냥 참고 이해한다’가 32.6%(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음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앞서 확인된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수준의 결과와 다투는 주된 사유에 대한 응답결과와 연계하면 양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을 판단할 수 있음

[표 5-27] 배우자와 문제 발생시 행동 패턴(중복응답)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① 그냥 참고 이해한다	102	21.6	92	32.6	194	25.7
②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	132	28.0	85	30.1	217	28.8
③ 쇼핑을 한다	38	8.1	5	1.8	43	5.7
④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한다	21	4.4	12	4.3	33	4.4
⑤ 술을 마신다	5	1.1	24	8.5	29	3.8
⑥ 자녀에게 화풀이를 한다	5	1.1	2	0.7	7	0.9
⑦ 친구 또는 지인에게 이야기 한다	78	16.5	15	5.3	93	12.3
⑧ 전문가와 상담한다	3	0.6	3	1.1	6	0.8
⑨ 종교활동을 한다	7	1.5	2	0.7	9	1.2
⑩ 집을 나간다(가출)	10	2.1	1	0.4	11	1.5
⑪ 기타	5	1.1	8	2.8	13	1.7
무응답	66	14.0	33	11.7	99	13.1
합계	472	100.0	282	100.0	754	100.0

## 4. 자녀양육

- 자녀양육 요인에 대한 세부질문문항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질문의 척도에 따라 분석방법을 결정하였고, 설문대상 집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5-28] 자녀양육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요인	세부질문	설문대상		척도	분석 방법
		결혼이민자 등	배우자		
자녀 양육	<input type="checkbox"/> 현재 자녀 수 - 현재 총 자녀수 - 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수	○		명목	교차
	<input type="checkbox"/>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수준	○	○	서열	t-test
	<input type="checkbox"/>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5세 미만)	○	○	명목(순위)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자녀돌봄 부담 수준(5세 미만)	○	○	명목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	○	명목(중복)	기술(빈도)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대상으로 현재 총 자녀 수와 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수를 교차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수가 총 자녀 수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1명이 89.7%(70명), 2명 95.4%(83명), 3명 83.3%(30명), 4명 이상 85.7%(6명)로 나타났다
  - 현 배우자를 만나기 이전에 자녀, 즉 중도입국자녀가 있거나 또는 재혼 가정은 총 19가족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5-29] 현재 자녀 수(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구분		현재 총 자녀 수				합계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수	① 1명	70 (89.7)	4 (4.6)	5 (0)	0 (0.0)	79 (38.0)
	② 2명	0 (0.0)	83 (95.4)	0 (0.0)	0 (0.0)	83 (39.9)
	③ 3명	0 (0.0)	0 (0.0)	30 (83.3)	1 (14.3)	31 (14.9)
	④ 4명 이상	0 (0.0)	0 (0.0)	0 (0.0)	6 (85.7)	6 (2.9)
	⑤ 없음	8 (10.3)	0 (0.0)	1 (2.8)	0 (0.0)	9 (4.3)
합계		78 (100.0)	87 (100.0)	36 (100.0)	7 (100.0)	208 (100.0)

- 다음으로 설문응답 집단별로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수준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 모두 개별 질문에서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만, t-test결과 95% 신뢰수준에서 두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와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질문에서 배우자의 인식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인식 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0]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수준

구분	집단	N	Mean	Std. Dev.	t	Sig. (s-tailed)
1.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다룬다	결혼이민자	211	3.4313	0.86121	.653	.514
	배우자	130	3.3692	0.83655		
2.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결혼이민자	212	3.4434	0.79190	1.243	.215
	배우자	130	3.3308	0.84806		
3.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결혼이민자	211	3.6919	0.78974	3.206	.001***
	배우자	130	3.4077	0.80402		
4.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결혼이민자	207	4.0435	0.79014	1.920	.048**
	배우자	131	3.8702	0.83571		

\*\*p&lt;0.05, \*\*\*p&lt;0.01

- 한편,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질문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응답결과 1순위로는 ‘바쁘거나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순위로는 ‘체력적,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5-31]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5세 미만: 1순위)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순 위	① 배우자나 가족과의 의견차이	16	6.8	14	9.9	30	8.0
	② 바쁘거나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38	16.1	18	12.8	56	14.9
	③ 체력적인 어려움	8	3.4	8	5.7	16	4.2
	④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해 잘 모름	10	4.2	4	2.8	14	3.7
	⑤ 경제적인 어려움	7	3.0	9	6.4	16	4.2
	⑥ 편견 또는 차별	2	0.8	2	1.4	4	1.1
	⑦ 기타	7	0.4	0	0.0	7	1.9
	⑧ 어려움 없음	6	2.5	11	7.8	17	4.5
	무응답	148	62.7	75	53.2	223	59.2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2 순 위	① 배우자나 가족과의 의견차이	10	4.2	5	3.5	15	4.0
	② 바쁘거나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17	7.2	10	7.1	27	7.2
	③ 체력적인 어려움	20	8.5	12	8.5	32	8.5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④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해 잘 모름	14	5.9	9	6.4	23	6.1
⑤ 경제적인 어려움	10	4.2	12	8.5	22	5.8
⑥ 편견 또는 차별	2	0.8	3	2.1	5	1.3
⑦ 기타	1	0.4	1	0.7	2	0.5
⑧ 어려움 없음	2	0.8	2	1.4	4	1.1
무응답	160	67.8	87	61.7	247	65.5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5세 미만 자녀돌봄에 따른 부담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두 집단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라는 응답이 각각 14.4%(34명), 21.3%(3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5-32] 자녀돌봄 부담 수준(5세 미만)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① 항상 나 혼자	19	8.1	0	0.0	19	5.0
② 대체로 나 혼자	30	12.7	6	4.3	36	9.5
③ 부부가 공동으로	34	14.4	30	21.3	64	17.0
④ 대체로 배우자 혼자	2	0.8	24	17.0	26	6.9
⑤ 항상 배우자가	1	0.4	6	4.3	7	1.9
무응답	150	63.6	75	53.2	225	59.7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마지막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 모두 ‘자녀의 학업,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을 가장 힘들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자녀에게 드는 비용’, ‘게임, 스마트폰 등 자녀와의 갈등’이 뒤를 이었음

[표 5-33]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중복응답)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① 자녀에게 드는 비용	97	20.6	52	18.4	149	19.8
② 자녀의 학업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	100	21.2	53	18.8	153	20.3
③ 자녀와의 대화 부족	36	7.6	22	7.8	58	7.7
④ 학부모회 등 학부모활동 참여 어려움	21	4.4	21	7.4	42	5.6
⑤ 게임, 스마트폰 등 자녀와의 갈등	57	12.1	32	11.3	89	11.8
⑥ 자녀의 음주, 흡연, 가출 등의 문제	1	0.2	0	0.0	1	0.1
⑦ 학교 선생님과과의 상담	5	1.1	3	1.1	8	1.1
⑧ 기타	6	1.3	5	1.8	11	1.5
⑨ 어려움 없음	12	2.5	17	6.0	29	3.8
무응답	137	29.0	77	27.3	214	28.4
합계	472	100.0	282	100.0	754	100.0

## 5. 사회생활(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사회생활(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요인에 대한 세부질문문항은 총 2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질문의 척도에 따라 분석방법을 결정하였고, 설문대상 집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5-34] 사회생활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요인	세부질문	설문대상		척도	분석 방법
		결혼이민자 등	배우자		
사회 생활	<input type="checkbox"/> 한국어 실력 수준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서열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한국어 능력시험 경험 유무	○		명목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한국어 능력시험 등급	○		명목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한국어 능력시험 지속적 응시 여부(응시자)	○		명목	기술(빈도)
	<input type="checkbox"/>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여부(미 응시자)	○		명목	기술(빈도)

요인	세부질문	설문대상		척도	분석 방법
		결혼이민자 등	배우자		
	▣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명목(순위)	기술(빈도)
	▣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 수준 -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		서열	기술(빈도)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한국어 실력 수준을 살펴보면,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쓰기 모두 보통보다는 다소 상회하는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한국어 쓰기의 경우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쓰기에 상대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35] 한국어 실력 수준

구분	실력수준			
	N(Valid)	N(Missing)	Mean	Std. Dev.
1. 한국어 말하기	236	0	3.36	.920
2. 한국어 듣기	235	1	3.43	.881
3. 한국어 읽기	236	0	3.44	.865
4. 한국어 쓰기	236	0	3.11	.925

- 다음으로 총 응답자 236명 중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9명(25.0%)에 불과하였으며,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65명(69.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앞서 살펴본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결과를 보건대, 현재 국내에 상당히 긴 시간을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5-36] 한국어 능력시험 경험 유무

구분	빈도	백분율(%)
① 있다	59	25.0
② 없다	165	69.9
무응답	12	5.1
합계	236	100.0

- 한국어 능력시험을 경험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등급을 살펴보면, 4급이 19명(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5급이 12명(5.1%), 6급 7명(3.0%)으로 그 뒤를 따랐음
  - －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소수가 한국어 능력시험을 경험하나, 과반 수 이상이 중급을 상회하는 등급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한국어 수준은 상당부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37] 한국어 능력시험 등급

구분	빈도	백분율(%)
① 1급	6	2.5
② 2급	4	1.7
③ 3급	9	3.8
④ 4급	19	8.1
⑤ 5급	12	5.1
⑥ 6급	7	3.0
⑦ 등급 없음	2	0.8
무응답	177	75.0
합계	236	100.0

- 한국어 능력시험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지속적인 응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23명(9.7%)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12명(5.2%)으로 나타났음
  - － 한국어 능력시험 경험자들의 등급 수준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준이 한국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가 응시에 대한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5-38] 한국어 능력시험 지속적 응시 여부(응시자)

구분	빈도	백분율(%)
① 그렇다	23	9.7
② 그렇지 않다	12	5.1
무응답	201	85.2
합계	236	100.0

- 한편, 한국어 능력시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에 대해 해당 시험 응시 여부를 질문한 결과, 29.7%(70명)가 응시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3명(22.5%)만이 응시하겠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앞서 설문결과를 토대로 본 설문문항에 무응답 한 비율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응답자가 한국어 능력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5-39]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여부(미 응시자)

구분	빈도	백분율(%)
① 그렇다	53	22.5
② 그렇지 않다	70	29.7
무응답	113	47.9
합계	236	100.0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결과, 1순위로는 ‘자녀양육 및 교육’이 65명(27.5%)으로 가장 많았으며, 2순위로는 ‘언어 문제’ 45명(19.1%), 3순위로는 ‘경제적 어려움’ 37명(15.7%)으로 뒤를 따랐음
-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어려움은 여타의 질문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 예측 가능한 결과이나, 언어에 대한 문제로 인한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위의 한국어 능력시험 관련 질문결과와 상충되는 부분으로, 타국에서 결혼이민자로서의 지위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체류국가의 언어는 그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임을 감안하면 향후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5-40]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구분		빈도	백분율(%)
1순위	① 외로움	57	24.2
	② 가족 간의 갈등	16	6.8
	③ 자녀양육 및 교육	65	27.5
	④ 은행, 마트, 시청 등 기관 이용	6	2.5
	⑤ 경제적 어려움	21	8.9
	⑥ 언어 문제	49	20.8
	⑦ 음식, 관습 등 문화차이	5	2.1
	⑧ 편견과 차별	6	2.5
	⑨ 기타	0	0.0
	⑩ 없음	7	3.0
	무응답	4	1.7
	합계	236	100.0
2순위	① 외로움	23	9.7
	② 가족 간의 갈등	18	7.6
	③ 자녀양육 및 교육	40	16.9
	④ 은행, 마트, 시청 등 기관 이용	9	3.8
	⑤ 경제적 어려움	43	18.2
	⑥ 언어 문제	45	19.1
	⑦ 음식, 관습 등 문화차이	16	6.8
	⑧ 편견과 차별	15	6.4
	⑨ 기타	2	0.8
	⑩ 없음	2	0.8
	무응답	23	9.7
	합계	236	100.0
3순위	① 외로움	13	5.5
	② 가족 간의 갈등	14	5.9
	③ 자녀양육 및 교육	25	10.6
	④ 은행, 마트, 시청 등 기관 이용	12	5.1
	⑤ 경제적 어려움	37	15.7
	⑥ 언어 문제	24	10.2
	⑦ 음식, 관습 등 문화차이	23	9.7
	⑧ 편견과 차별	20	8.5
	⑨ 기타	4	1.7
	⑩ 없음	5	2.1
	무응답	59	25.0
	합계	236	100.0

-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관계에 기초하는 것으로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등을 주요 요소로 하며, 상호보완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 요소를 통해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 내의 활동에 순기능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전성훈, 2013)
  - 다시 말해서, 다문화가족에게 축적된 사회자본은 그들로 하여금 거주지 중심의 지역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며, 주류문화에 점진적으로 적응토록 하여 심리적 동화과정에서의 부정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현행 고양시 관내 다문화가족의 사회자본 축적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인 신뢰(trust)는 ‘타인이 행위를 할 때 나의 이해 관심을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Lin, 2001)’, ‘배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Coleman, 1988)’으로 정의됨
  - 규범(norms)은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공유되는 표현, 해석, 의미체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혜성을 기본 속성으로 하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줌(Adler & Kwon, 2000)
  - 마지막으로 네트워크(network)는 구조화되지 않는 상호작용, 연계, 결합, 참여 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 간의 전반적인 연계행태를 의미함(Adler & Kwon, 2000)
- 분석결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사회자본의 수준을 살펴보면, 신뢰의 경우 3.70, 호혜적 규범 3.44, 네트워크 2.91정도로 네트워크를 제외한 신뢰와 호혜적 규범의 경우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네트워크의 형성 정도가 신뢰 및 호혜적 규범의 형성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행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지역 내 사회자본의 크기는

지극히 작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판단됨

[표 5-41]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 수준

구분		사회자본 수준			
		N(Valid)	N(Missing)	Mean	Std. Dev.
신뢰	① 나는 대한민국을 신뢰한다.	236	0	3.89	0.773
	② 나는 고양시를 신뢰한다.	236	0	3.93	0.743
	③ 나는 다문화가족센터, 이민자통합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고양시 내 지원기관을 신뢰한다.	235	1	3.97	0.800
	④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서로 신뢰한다고 생각한다.	234	2	3.48	0.776
	⑤ 나는 밤늦게 외출해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235	1	3.48	0.935
	⑥ 나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	235	1	3.42	0.985
	평균	-	-	3.70	-
호혜적 규범	⑦ 나는 내가 거주하는 동네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236	0	3.35	0.798
	⑧ 나는 동네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236	0	3.42	0.781
	⑨ 나는 동네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한다.	234	2	3.32	0.743
	⑩ 나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준다.	236	0	3.64	0.816
	⑪ 나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때 보답을 생각하지 않는다.	235	1	3.34	1.111
	⑫ 나는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보답을 한다.	235	1	3.54	0.906
	평균	-	-	3.44	-
네트 워크	⑬ 나는 이웃들과 자주 만난다.	236	0	3.05	0.982
	⑭ 나는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35	1	2.94	0.954
	⑮ 나는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과 협력한다.	235	1	3.02	0.956
	⑯ 나는 우리 동네 모임(부녀회, 반상회, 학부모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32	4	2.77	0.992
	⑰ 나는 우리 동네 모임(부녀회, 반상회, 학부모 모임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믿는다.	233	3	2.91	0.917
	⑱ 나는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235	1	2.74	0.980
	평균	-	-	2.91	-



## 6. 경제활동(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경제활동(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요인에 대한 세부질문문항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질문의 척도에 따라 분석방법을 결정하였고, 설문대상 집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5-42] 사회생활 요인의 세부질문체계

요인	세부질문	설문대상		척도	분석 방법
		결혼이민자 등	배우자		
사회 생활	■ 현재 직장생활 유무	○		명목	기술(빈도)
	■ 현재 직장의 형태	○		명목	기술(빈도)
	■ 현재 직장의 입사 방법	○		명목	기술(빈도)
	■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명목(순위)	기술(빈도)
	■ 직장에서 받는 보수의 수준	○		명목	기술(빈도)
	■ 취업활동 유무	○		명목	기술(빈도)
	■ 취업 시 어려운 점	○		명목(순위)	기술(빈도)

- 현재 총 236명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들 중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128명 (54.2%)임
  - 이들 중 가족이 운영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중은 5명(2.1%)이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응답자는 80명(33.9%), 그리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18명(7.6%)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5-43] 현재 직장생활 유무

구분		빈도	백분율(%)
직장 생활 유무	① 그렇다	128	54.2
	② 그렇지 않다	105	44.5
	무응답	3	1.3
	합계	236	100.0
현재 직장 형태	① 가족이 운영하는 직장	5	2.1
	②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직장	80	33.9
	③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직장	18	7.6
	④ 기타	25	10.6
	무응답	108	45.8
	합계	236	100.0

- 다음으로 현재 직장생활 형태의 계기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구체적으로 ‘모국인 친구의 소개’가 51명(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본인이 직접 창업’ 19명(8.1%), ‘한국인 친구의 소개’ 15명(6.4%),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의 소개’ 12명(5.1%)으로 뒤를 이었음

[표 5-44] 현재 직장의 입사 방법

구분	빈도	백분율(%)
①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	11	4.7
② 모국인 친구의 소개	51	21.6
③ 한국인 친구의 소개	15	6.4
④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의 소개	12	5.1
⑤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1	0.4
⑥ 신문, 전단지 등을 통해서	12	5.1
⑦ 본인이 직접 창업	19	8.1
⑧ 기타	3	1.3
무응답	112	47.5
합계	236	100.0

- 현재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결과, 1순위로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43명(1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순위로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응답이 21명(8.9%), 3순위로는 ‘돈을 너무 조금 받는다’가 15명(6.4%)으로 그 뒤를 따랐음
- 이러한 결과는 현행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지역경제의 다문화수용성 증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동화요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표 5-45]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구분		빈도	백분율(%)
1순위	①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렵다	43	18.2
	② 일이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	4	1.7
	③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12	5.1
	④ 돈을 너무 조금 받는다	24	10.2
	⑤ 상사나 동료가 무섭다	1	0.4
	⑥ 외국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8	3.4
	⑦ 기타	2	0.8
	⑧ 어려움이 없다	28	11.9
	무응답	114	48.3
	합계	236	100.0
2순위	①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렵다	8	3.4
	② 일이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	7	3.0
	③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21	8.9
	④ 돈을 너무 조금 받는다	18	7.6
	⑤ 상사나 동료가 무섭다	3	1.3
	⑥ 외국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10	4.2
	⑦ 기타	2	0.8
	⑧ 어려움이 없다	9	3.8
	무응답	158	66.9
	합계	236	100.0
3순위	①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렵다	6	2.5
	② 일이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	2	0.8
	③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12	5.1
	④ 돈을 너무 조금 받는다	15	6.4
	⑤ 상사나 동료가 무섭다	3	1.3
	⑥ 외국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8	3.4
	⑦ 기타	4	1.7
	⑧ 어려움이 없다	5	2.1
	무응답	181	76.7
	합계	236	100.0

- 한편, 현재 직장에서 받는 임금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100만 ~ 1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0명(16.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150만~200만원 미만’이 37명(15.7%), ‘50만~100만원 미만’ 25명(10.6%), ‘50만원 미만’ 13명(5.5%) 순으로 나타났음
- 앞서 살펴본, 가족기업 및 자영업자의 비중을 고려하면, 전일제 일터라기보다는 시간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보수의 수준을 근거로 예측할 때 전문직이기보다는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됨

[표 5-46] 직장에서 받는 보수의 수준

구분	빈도	백분율(%)
① 50만원 미만	13	5.5
② 50만 ~ 100만원 미만	25	10.6
③ 100만 ~ 150만원 미만	40	16.9
④ 150만 ~ 200만원 미만	37	15.7
⑤ 200만 ~ 250만원 미만	3	1.3
⑥ 250만 ~ 300만원 미만	4	1.7
⑦ 300만원 이상	3	1.3
⑧ 월급이 없음	0	0.0
무응답	111	47.0
합계	236	100.0

- 다음으로 취업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있다’라는 응답이 124명(52.5%)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 취업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결과,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45명(19.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순위로는 ‘집 근처에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0명(12.7%)으로 나타났음
- 이는 앞서 설문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인식하는 한국어 및 한국사회로의 동화 등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다만, 2순위로 언급한 거주지 주변의 일자리 부족은 현행 고양시의 다양한 기업유치 및 활동의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됨

[표 5-47] 취업활동 유무

구분		빈도	백분율(%)
취업 활동 유무	① 있다	124	52.5
	② 없다	101	42.8
	무응답	11	4.7
	합계	236	100.0
취업 활동 시 어려운 부분 (1순위)	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45	19.1
	② 가족을 돌봐야 해서	28	11.9
	③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22	9.3
	④ 집 근처에 일자리가 없어서	7	3.0
	⑤ 모국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4	1.7
	⑥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몰라서	2	0.8
	⑦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서	4	1.7
	⑧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1	0.4
	⑨ 기타	4	1.7
	⑩ 어려움 없음	7	3.0
	무응답	112	47.5
	합계	236	100.0
취업 활동 시 어려운 부분 (2순위)	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6	2.5
	② 가족을 돌봐야 해서	24	10.2
	③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27	11.4
	④ 집 근처에 일자리가 없어서	30	12.7
	⑤ 모국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5	2.1
	⑥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몰라서	2	0.8
	⑦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서	6	2.5
	⑧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1	0.4
	⑨ 기타	1	0.4
	⑩ 어려움 없음	0	0.0
	무응답	134	56.8
	합계	236	100.0

## 7. 기타 일반사항

- 기타 일반사항에 대한 세부질문문항은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질문의 척도에 따라 분석방법을 결정하였고, 설문대상 집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5-48] 기타 일반사항의 세부질문체계

요인	세부질문	설문대상		척도	분석 방법
		결혼이민자 등	배우자		
기타 일반 사항	▣ 한국 체류 자격	○		명목	기술(빈도)
	▣ 한국 영주권 취득 계획	○		명목	기술(빈도)
	▣ 한국 국적 취득 계획	○		명목	기술(빈도)
	▣ 가족 내 사용 언어		○	서열	기술
	▣ 현재 건강상태	○	○	명목	기술(빈도)
	▣ 우울증세 수준	○	○	명목	기술(빈도)
	▣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		명목	기술(빈도)
	▣ 병원에 가지 못한 사유	○		명목	기술(빈도)
	▣ 고양시 생활만족 수준	○	○	서열	기술(빈도)
	▣ 현재 고양시 거주 사유	○	○	명목	기술(빈도)
	▣ 지속적 거주 의사	○	○	명목	기술(빈도)
	▣ 다른 지역으로 이주 사유	○	○	명목	기술(빈도)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대상을 현재 체류 자격, 영주권 및 국적 취득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 236명 중 F-6(F-2-1 포함)를 받은 응답자는 118명(50.0%)이며, F-5는 52명(22.0%) 등으로 나타났음
  - 영주권자를 제외한 응답자들 중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 결과 86명(36.4%)이 받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국적 취득 계획을 묻은 결과 70명(29.7%)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음

[표 5-49] 현재 한국 체류 자격

구분		빈도	백분율(%)
현재 체류 자격	① 영주(F-5)	52	22.0
	② 결혼이민(F-6, F-2-1 포함)	118	50.0
	③ 거주(F-2, F-2-1 제외)	2	0.8
	④ 방문동거(F-1)	0	0.0
	⑤ 재외동포(F-4)	1	0.4
	⑥ 전문직 취업(E-1 ~ E-7)	0	0.0
	⑦ 방문취업(H-2)	0	0.0
	⑧ 기타	32	13.6
	무응답	31	13.1
	합계	236	100.0
영주권 취득 계획	① 있다	86	36.4
	② 없다	26	11.0
	③ 모르겠다	26	11.0
	무응답	98	41.5
	합계	236	100.0
국적 취득 계획	① 있다	70	29.7
	② 없다	47	19.9
	③ 모르겠다	39	16.5
	무응답	80	33.9
	합계	236	100.0

- 다음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질문을 진행한 결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모국어를 사용하는데 일정부분 격려를 하고는 있으나, 정작 본인은 배우자의 언어를 사용 또는 교육을 받는 데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는 앞서 살펴본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에서 확인되었듯이 양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요인 작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배우자의 인식개선이 요구됨

[표 5-50] 가족들과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배우자)

구분	실력수준			
	N(Valid)	N(Missing)	Mean	Std. Dev.
1. 나는 배우자가 자신의 나라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134	7	3.23	1.075
2. 나는 자녀가 배우자 나라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131	10	3.38	1.056
3. 나는 배우자 나라 말을 잘 한다	134	7	2.73	1.177
4. 나는 배우자 나라 말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134	7	2.61	1.267

- 한편, 설문 대상자인 두 집단에 대한 현재 건강상태와 우울증 증세에 대한 질문결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 ‘좋다’라는 응답이 117명(49.6%)으로 가장 많았고,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68명(4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두 집단 모두 현재 우울증 증세가 있냐는 질문에 ‘가끔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153명(64.8%), 68명(48.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5-51] 현재 건강상태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현재 건강 상태	① 매우 나쁘다	0	0.0	2	1.4	2	0.5
	② 나쁜 편이다	13	5.5	8	5.7	21	5.6
	③ 보통이다	97	41.1	68	48.2	165	43.8
	④ 좋은 편이다	85	36.0	47	33.3	132	35.0
	⑤ 매우 좋다	32	13.6	14	9.9	46	12.2
	무응답	9	3.8	2	1.4	11	2.9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현재 우울 증세	① 전혀 없다	60	25.4	63	44.7	123	32.6
	② 가끔 있다	153	64.8	68	48.2	221	58.6
	③ 자주 있다	14	5.9	6	4.3	20	5.3
	④ 항상 그렇다	1	0.4	2	1.4	3	0.8
	무응답	8	3.4	2	1.4	10	2.7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들을 대상으로 병환이 발생하였으나,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및 사유에 대한 응답결과, 177명(75.0%)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20.3%인 48명만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병원에 가지 못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사유에 대한 질문결과, ‘일, 육아 등에 너무 바빠서’라는 응답이 19명(8.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음

[표 5-52] 병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유무(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구분		빈도	백분율(%)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① 있다	48	20.3
	② <b>없다</b>	<b>177</b>	<b>75.0</b>
	무응답	11	4.7
	합계	236	100.0
병원에 가지 못한 사유	① 한국어를 못해서	13	5.5
	② 병원 접수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3	1.3
	③ 가까운 병원이 없어서	1	0.4
	④ <b>일, 육아 등에 너무 바빠서</b>	<b>19</b>	<b>8.1</b>
	⑤ 무슨 병원을 가야할지 몰라서	5	2.1
	⑥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7	3.0
	⑦ 기타	1	0.4
	무응답	187	79.2
	합계	236	100.0

- 현재 고양시에서의 생활만족 수준과 거주 사유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을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 이상의 응답이 각각 156명(66.1%), 80명(56.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고양시의 거주 및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에는 ‘가족의 뜻에 따라서’라는 응답이 112명(47.5%)으로 가장 많았고,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장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61명(43.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5-53] 고양시에서의 생활만족 및 거주 사유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양시 생활 만족 수준	① 매우 불만족	2	0.8	5	3.5	7	1.9
	② 약간 불만족	5	2.1	11	7.8	16	4.2
	③ 보통	71	30.1	43	30.5	114	30.2
	④ 대체로 만족	104	44.1	63	44.7	167	44.3
	⑤ 매우 만족	52	22.0	17	12.1	69	18.3
	무응답	2	0.8	2	1.4	4	1.1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고양시 거주 사유	① 직장이 있어서	34	14.4	61	43.3	95	25.2
	② 자녀의 교육 때문에	17	7.2	7	5.0	24	6.4
	③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1	0.4	4	2.8	5	1.3
	④ 교통이 편리해서	35	14.8	15	10.6	50	13.3
	⑤ 문화자원이 많아서	5	2.1	2	1.4	7	1.9
	⑥ 다문화관련 지원서비스가 좋아서	6	2.5	1	0.7	7	1.9
	⑦ 자연환경이 좋아서	14	5.9	13	9.2	27	7.2
	⑧ 가족의 뜻에 따라서	112	47.5	21	14.9	133	35.3
	⑨ 이웃들이 좋아서	1	0.4	2	1.4	3	0.8
	⑩ 기타	8	3.4	10	7.1	18	4.8
	무응답	3	1.3	5	3.5	8	2.1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마지막으로 응답대상 집단에 대해 고양시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의사와 이주 사유를 질문한 결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 모두 과반 이상이 지속적인 거주 의사를 보이고 있음
- 다만, 거주 의사가 없는 인원과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고부 간 갈등’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5-54] 향후 고양시에서 계속 거주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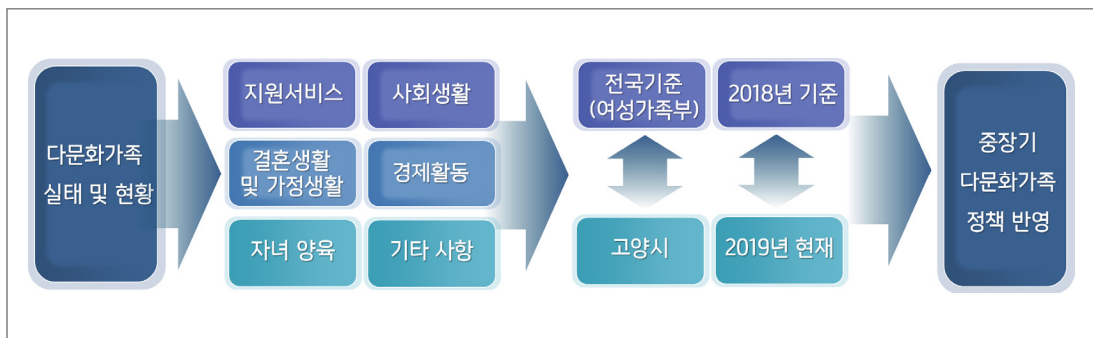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양시 거주 의사	① 그렇다	173	73.3	95	67.4	268	71.1
	② 그렇지 않다	3	1.3	7	5.0	10	2.7
	③ 잘 모르겠다	57	24.2	35	24.8	92	24.4
	무응답	3	1.3	4	2.8	7	1.9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이주 사유	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5	2.1	12	8.5	17	4.5
	② 직장을 옮기려고	8	3.4	3	2.1	11	2.9
	③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 때문에	2	0.8	2	1.4	4	1.1
	④ 자녀의 교육 때문에	6	2.5	7	5.0	13	3.4
	⑤ 고부간 갈등 때문에	17	7.2	0	0.0	17	4.5
	⑥ 가족의 뜻에 따라서	4	1.7	7	5.0	11	2.9
	⑦ 기타	2	0.8	5	3.5	7	1.9
	무응답	192	81.4	105	74.5	297	78.8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 제4절 고양시와 전국기준과의 비교분석

### 1. 비교분석 체계

- 본 절에서는 2018년 여성가족부의 의뢰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설문분석 결과를 비교하였음
  - －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분석과 고양시를 중심으로 진행된 설문결과를 비교하여 고양시만의 특성을 도출하여 향후 중장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설문결과 비교분석의 기준시점은 2019년으로 하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시기인 2018년을 고려하였고, 조사대상적인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는 제외하고,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 － 비교체계는 본 연구의 설문구성 체계를 따르되, 상호 동일한 문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그림 5-2] 설문결과 비교분석 체계



## 2. 세부질문 비교체계

- 고양시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비교한 세부질문은 총 22개이며, 개별 질문의 척도에 따라 분석방법을 결정하였고, 양자 간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5-55] 세부질문 비교체계

요인	세부질문	비교대상				척도	분석방법
		고양시		전국*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지원 서비스	☐ 지원서비스 수혜 유무	○	○	○	○	명목	기술(빈도)
	☐ 지원서비스별 유경험 비중	○	○	○	○	명목	기술(빈도)
결혼 생활 및 가정 생활	☐ 배우자와 동거 여부	○	○	○	○	명목	기술(빈도)
	☐ 배우자와 만남 방법	○	○	○	○	명목	기술(빈도)
	☐ 배우자 없는 경우	○		○		명목	기술(빈도)
	☐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	○	○	○	○	명목	기술(빈도)
	☐ 가족들과의 관계 만족수준	○	○	○	○	명목	기술(빈도)
	☐ 배우자와 다툼 경험 및 사유	○	○	○	○	명목	기술(빈도)
	☐ 배우자와 문제 발생시 행동 패턴	○	○	○	○	명목	기술(빈도)
	☐ 가정에서의 결정권	○	○	○	○	명목	기술(빈도)
	☐ 가사노동의 분담 정도	○	○	○	○	명목	기술(빈도)
	☐ 배우자의 한국생활에 대한 지원 수준		○		○	명목	기술(빈도)
	자녀 양육	☐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수준	○	○	○	○	서열
☐ 자녀양육에 가장 어려운 점		○	○	○	○	명목	기술(빈도)
사회 생활	☐ 한국어 실력 수준	○		○		서열	기술
	☐ 한국어 능력시험 경험 및 등급	○		○		명목	기술(빈도)
	☐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		명목	기술(빈도)
경제 활동	☐ 취업활동 유무 및 어려운 점	○		○		명목	기술(빈도)
기타 사항	☐ 가족들과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		○	서열	기술
	☐ 현재 건강상태 및 우울증세	○	○	○	○	명목	기술(빈도)
	☐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및 사유	○		○		명목	기술(빈도)
	☐ 생활만족 수준	○	○	○	○	서열	기술

\*전국 세부질문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2019, pp. 22-25.

### 3. 비교분석 결과

#### 1) 지원서비스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고양시의 경우에는 83.6%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국적으로는 41.3%가 수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고양시의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 모두 과반 이상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기준으로는 배우자 상당부분이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5-56]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수혜 유무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양시	① 있다	200	85.5	111	80.4	311	83.6
	② 없다	34	14.5	27	19.6	61	16.4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① 있다	170,562	60.9	37,664	16.8	208,226	41.3
	② 없다	109,458	39.1	185,914	83.2	295,372	58.7
	합계	280,020	100.0	223,578	100.0	503,598	100.0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운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 247-248, pp. 435-439.

-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별 유경험 비중을 살펴보면,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사회 적응 교육’ 등 대다수에서 전국기준 보다 상회하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만, 고양시 보다 전국기준이 보다 높은 서비스 수혜 프로그램은 ‘임신·출산 지원’, ‘각종 상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고려한 세부정책 추진이 요청됨

[표 5-57]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별 유경험 비중(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구분		빈도	백분율(%)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고양시	161	68.2
	전국	74,971	44.0
한국사회 적응 교육	고양시	128	54.2
	전국	88,399	51.8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고양시	53	22.5
	전국	26,462	15.5
임산·출산 지원	고양시	56	23.7
	전국	77,628	45.5
부모교육	고양시	66	28.0
	전국	36,178	21.2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교육	고양시	69	29.2
	전국	25,766	15.1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	고양시	74	31.4
	전국	39,780	23.3
사회활동 지원(자조모임 등)	고양시	74	31.4
	전국	22,170	13.0
각종 상담	고양시	44	18.6
	전국	46,980	32.9
일자리 교육 및 소개	고양시	56	23.7
	전국	56,122	17.4
아이돌보미 지원	고양시	39	16.5
	전국	29,597	-
도서관 지원	고양시	45	19.1
	전국	-	-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2019, pp. 250-253.

-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서비스별 수혜 비중을 살펴보면, ‘가족관계 관련 상담 또는 교육’과 ‘배우자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자녀의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에 대한 수혜비율이 전국기준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음
  - 그러나 ‘결혼 전 정보제공 및 안내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고양시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표 5-58] 다문화가족 자원서비스별 유경험 비중(배우자)

구분		빈도	백분율(%)
1. 결혼 전 정보제공 및 안내 프로그램	고양시	31	13.1
	전국	37,664	16.8
2. 가족관계 관련 상담 또는 교육	고양시	25	10.6
	전국	21,334	9.5
3. 배우자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고양시	50	21.2
	전국	33,056	14.8
4. 자녀의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	고양시	28	11.9
	전국	12,794	5.7
5.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고양시	22	9.3
	전국	28,500	12.7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 435-439.

## 2)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 현재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에서 고양시와 전국기준 각각 97.1%, 97.3%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다만, 고양시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배우자 동거여부가 다소 낮은 95.3%를 나타내고 있음

[표 5-59] 현재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배우자 동거 여부	고양시	① 예	225	95.3	140	99.3	366	97.1
		② 아니오(주말부부 등)	11	4.7	1	0.7	11	2.9
		무응답	0	0.0	0	0.0	0	0.0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① 예	199,583	96.9	201,104	97.7	400,687	97.3
		② 아니오(주말부부 등)	6,304	3.1	4,782	2.3	11,086	2.7
		합계	205,887	100.0	205,887	100.0	411,774	100.0

\*전국 세부질문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 78-79, pp. 327-329.



- 현재 배우자와의 만남 경로 또는 방법에 대한 결과, 고양시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연애’가 23.6%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나, 전국기준으로는 ‘친구 또는 지인의 소개’라는 응답이 29.3%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5-60] 배우자와 만남 방법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만남 방법	고양시	①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	25	10.6	13	9.2	38	10.1
		② 친구 또는 지인의 소개로	56	23.7	27	19.1	83	22.0
		③ 종교 기관을 통해서	40	16.9	26	18.4	66	17.5
		④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41	17.4	38	27.0	79	21.0
		⑤ 자유로운 연애	56	23.7	33	23.4	89	23.6
		⑥ 기타	4	1.7	2	1.4	6	1.6
		무응답	14	5.9	2	1.4	16	4.2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①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	56,509	21.1	37,818	18.4	94,327	19.9
		② 친구 또는 지인의 소개로	73,492	27.4	65,281	31.7	138,773	29.3
		③ 종교 기관을 통해서	14,813	5.5	6,916	3.4	21,729	4.6
		④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55,752	20.8	44,151	21.4	99,903	21.1
		⑤ 자유로운 연애	67,032	25.0	50,986	24.8	118,018	24.9
		⑥ 기타	426	0.2	735	0.4	1,161	0.2
		합계	268,024	100.0	205,887	100.0	473,911	100.0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어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 69-71, pp. 318-321.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들의 이혼 또는 별거사유는 고양시와 전국기준 모두 ‘성격차이’가 가장 큰 사유였고, 자녀의 양육 또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본인이 직접 양육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음
- － 다만, 직접 양육을 할 경우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하는지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 받고 있지 않음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다문화가족 내에서도 그대로 발생되고 있음

[표 5-61] 이혼 또는 별거 사유 및 자녀 양육(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구분			빈도	백분율(%)
이혼 또는 별거 사유 (중복)	고양시	① 외도 등의 애정문제	3	0.6
		② 성격차이	7	1.5
		③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0	0.0
		④ 경제적 문제	4	0.8
		⑤ 자녀문제	0	0.0
		⑥ 배우자의 학대·폭력	0	0.0
		⑦ 배우자의 음주·도박	4	0.8
		⑧ 심각한 정신장애	0	0.0
		⑨ 배우자의 가출	1	0.2
		⑩ 기타	0	0.0
		무응답	453	96.0
		합계	472	100.0
	전국	① 외도 등의 애정문제	3,856	8.4
		② 성격차이	23,944	52.0
		③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2,459	5.3
		④ 경제적 문제	5,807	12.6
		⑤ 자녀문제	730	1.6
		⑥ 배우자의 학대·폭력	3,959	8.6
		⑦ 배우자의 음주·도박	3,223	7.0
		⑧ 심각한 정신장애	424	0.9
		⑨ 배우자의 가출	1,315	2.9
		⑩ 기타	340	0.7
		무응답	0	0.0
		합계	46,507	100.0
이혼 또는 별거 후 자녀 양육	고양시	① 본인	6	2.6
		② 배우자	0	0.0
		③ 자녀 없음	0	0.0
		무응답	230	97.4
		합계	236	100.0
	전국	① 본인	11,701	94.9
		② 배우자	559	4.5
		③ 기타	67	0.5
		무응답	0	0.0
		합계	12,327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양육비 수령 여부	고양시	① 받고 있음	2	0.8
		② 받고 있지 않음	4	1.6
		무응답	230	97.6
		합계	236	100.0
	전국*	① 받고 있음	2,752	23.5
		② 받고 있지 않음	8,949	76.5
		무응답	0	0.0
		합계	11,701	100.0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 81-83, pp. 330-333.

- 다음으로 현재 배우자와 하루를 기준으로 서로 대화하는 시간에 대한 비교 결과, 전국기준은 ‘2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양시의 경우에는 ‘30분 ~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0.0%로 확인되었음
- 전국기준과 비교하여 부부간의 대화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개별 대상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함께 가족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표 5-62]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하루 기준)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양시	① 전혀 없다	15	6.4	5	3.5	20	5.3
	② 30분 미만	67	28.4	41	29.1	108	28.6
	③ 30분 ~ 1시간 미만	66	28.0	47	33.3	113	30.0
	④ 1시간 ~ 2시간 미만	33	14.0	18	12.8	51	13.5
	⑤ 2시간 이상	42	17.8	28	19.9	70	18.6
	무응답	13	5.5	2	1.4	15	4.0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① 전혀 없다	1,442	0.7	938	0.5	2,380	0.6
	② 30분 미만	28,503	13.8	27,530	13.4	56,033	13.6
	③ 30분 ~ 1시간 미만	49,304	23.9	52,987	25.7	102,291	24.8
	④ 1시간 ~ 2시간 미만	51,365	24.9	51,905	25.2	103,270	25.1
	⑤ 2시간 이상	75,273	36.6	72,528	35.2	147,801	35.9
	합계	205,887	100.0	205,887	100.0	411,774	100.0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93-95, pp.341-344.

- 한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개별 가족들과의 관계만족 수준을 비교한 결과, 고양시 및 전국기준 모두 과반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나타났음
- 다만, 고양시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에는 전국기준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바, 특히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표 5-63]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수준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배우자	고양시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	3.4	2	1.4	10	2.7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3	5.5	7	5.0	20	5.3
		③ 보통이다	54	22.9	21	14.9	75	19.9
		④ 약간 만족한다	51	21.6	28	19.9	79	21.0
		⑤ 매우 만족한다	98	41.5	83	58.9	181	48.0
		무응답	12	5.1	0	0.0	12	3.2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190	0.6	905	0.4	2,095	0.5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4,602	2.2	3,129	1.5	7,731	1.9
		③ 보통이다	34,616	16.8	31,329	15.2	65,945	16.0
		④ 약간 만족한다	55,199	26.8	55,733	27.1	110,932	26.9
		⑤ 매우 만족한다	110,281	53.6	114,792	55.8	225,073	54.7
		무응답						
		합계	205,887	100.0	205,887	100.0	411,774	100.0
배우자 부모	고양시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	2.1	1	0.7	6	1.6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0	4.2	4	2.8	14	3.7
		③ 보통이다	67	28.4	38	27.0	105	27.9
		④ 약간 만족한다	61	25.8	28	19.9	89	23.6
		⑤ 매우 만족한다	65	27.5	66	46.8	131	34.7
		무응답	28	11.9	4	2.8	32	8.5
		합계	236	100.0	41	100.0	377	100.0
	전국*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859	1.2	1,722	1.0	3,581	1.1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5,109	3.2	3,758	2.1	8,867	2.6
		③ 보통이다	35,733	22.3	43,087	24.6	78,820	23.5
		④ 약간 만족한다	45,347	28.3	47,711	27.2	93,058	27.8
		⑤ 매우 만족한다	71,982	45.0	78,976	45.1	150,958	45.0
		무응답						
		합계	160,031	100.0	175,253	100.0	335,284	100.0
본인 부모	고양시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	1.7	1	0.7	5	1.3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0	0.0	2	1.4	2	0.5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녀		③ 보통이다	32	13.6	29	20.6	61	16.2
		④ 약간 만족한다	61	25.8	28	19.9	89	23.6
		⑤ 매우 만족한다	120	50.8	67	57.5	187	49.6
		무응답	19	8.1	14	9.9	33	8.8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96	0.3	912	0.6	1,508	0.5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404	0.8	1,935	1.2	3,339	1.0
		③ 보통이다	22,128	12.6	27,585	17.4	49,713	14.8
		④ 약간 만족한다	45,020	25.5	44,544	28.1	89,564	26.7
		⑤ 매우 만족한다	107,169	60.8	83,728	52.8	190,897	57.0
		합계	176,317	100.0	158,704	100.0	335,021	100.0
	고양시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	1.3	0	0.0	3	0.8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	0.4	4	2.8	5	1.3
		③ 보통이다	22	9.3	16	11.3	38	10.1
		④ 약간 만족한다	44	18.6	27	19.1	71	18.8
		⑤ 매우 만족한다	133	56.4	86	61.0	219	58.1
		무응답	33	14.0	8	5.7	41	10.9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64	0.1	76	0.0	240	0.1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734	1.1	2,250	1.4	3,984	1.3
		③ 보통이다	13,740	8.8	18,383	11.8	32,123	10.3
		④ 약간 만족한다	54,361	34.7	62,575	40.3	116,936	37.5
		⑤ 매우 만족한다	86,487	55.3	71,968	46.4	158,455	50.8
		합계	156,485	100.0	155,252	100.0	311,737	100.0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 91-404.

- 최근 배우자와 다툼 경험에 대한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고양시의 경우 49.9%, 전국 기준 62.8%로 나타났음
- 다툼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고양시와 전국기준 모두 ‘성격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5-64] 최근 배우자와 다툼 경험 및 사유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최근 다툼 경험	고양시	① 있다	106	44.9	82	58.2	188	49.9
		② 없다	116	49.2	55	39.0	171	45.4
		무응답	14	5.9	4	2.8	18	4.8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① 있다	127,252	61.8	131,322	63.8	258,574	62.8
		② 없다	78,635	38.2	74,565	36.2	153,200	37.2
		합계	205,887	100.0	205,887	100.0	411,774	100.0
다툼 사유	고양시	① 성격차이	69	29.2	44	31.2	113	30.0
		②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10	4.2	3	2.1	13	3.4
		③ 본인 가족과의 갈등	1	0.4	2	1.4	3	0.8
		④ 문화, 종교, 가치관 차이	8	3.4	8	5.7	16	4.2
		⑤ 언어 소통의 어려움	11	4.7	15	10.6	26	6.9
		⑥ 외도 문제	0	0.0	0	0.0	0	0.0
		⑦ 자녀의 교육 및 훈육	15	6.4	14	9.9	29	7.7
		⑧ 폭언 또는 폭행 등 학대	0	0.0	1	0.7	1	0.3
		⑨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14	5.9	4	2.8	18	4.8
		⑩ 음주 문제	7	3.0	1	0.7	8	2.1
		⑪ 나에 대한 심한 의심	0	0.0	0	0.0	0	0.0
		⑫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	1	0.4	4	2.8	5	1.3
		⑬ 기타	2	0.8	2	1.4	4	1.1
		무응답	98	41.5	43	30.5	141	37.4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복수)	① 성격차이	69,747	54.8	73,035	55.6	142,782	33.6
		② 문화, 종교, 가치관 차이	23,043	18.1	23,717	18.1	46,760	11.0
		③ 언어 소통의 어려움	26,734	21.0	26,358	20.1	53,092	12.5
		④ 자녀의 교육 및 훈육	30,696	24.1	28,878	22.0	59,574	14.0
		⑤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28,032	22.0	29,084	22.1	57,116	13.5
		⑥ 음주 문제	12,845	10.1	11,150	8.5	23,995	5.7
		⑦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11,329	8.9	11,160	8.5	22,489	5.3
		⑧ 본인 가족과의 갈등	3,858	3.0	6,335	4.8	10,193	2.4
		⑨ 외도 문제	638	0.5	455	0.3	1,093	0.3
		⑩ 폭언 또는 폭행 등 학대	2,547	2.0	1,341	1.0	3,888	0.9
		⑪ 나에 대한 심한 의심	818	0.6	1,063	0.8	1,881	0.4
		⑫ 기타	1,053	0.8	665	0.5	1,718	0.4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100-104, pp.350-357.

- 현 배우자와 다투거나 의견마찰 등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처 방법에 있어 양자 모두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특이한 부분은 개별 응답자들 간의 대처 방법이 상호 반대로 나타났는데, 고양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에는 전국기준과 상이하게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도 ‘그냥 참고 이해한다’가 가장 높게 응답되어 전국기준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런 결과로 고양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여타 다른 지역과 달리, 부부 간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표 5-65] 배우자와 문제 발생시 대처방법(중복응답)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대처 방법	고양 시	① 그냥 참고 이해한다	102	21.6	92	32.6	194	25.7
		②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	132	28.0	85	30.1	217	28.8
		③ 쇼핑을 한다	38	8.1	5	1.8	43	5.7
		④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한다	21	4.4	12	4.3	33	4.4
		⑤ 술을 마신다	5	1.1	24	8.5	29	3.8
		⑥ 자녀에게 화풀이를 한다	5	1.1	2	0.7	7	0.9
		⑦ 친구 또는 지인에게 이야기 한다	78	16.5	15	5.3	93	12.3
		⑧ 전문가와 상담한다	3	0.6	3	1.1	6	0.8
		⑨ 종교활동을 한다	7	1.5	2	0.7	9	1.2
		⑩ 집을 나간다(가출)	10	2.1	1	0.4	11	1.5
		⑪ 기타	5	1.1	8	2.8	13	1.7
		무응답	66	14.0	33	11.7	99	13.1
		합계	472	100.0	282	100.0	754	100.0
전 국	① 그냥 참고 이해한다	99,024	48.1	78,447	38.1	177,471	33.0	
	② 혼자서 문제해결방법을 찾아 본다	39,390	19.1	20,153	9.8	59,543	11.1	
	③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	124,646	60.5	99,007	43.7	223,653	41.6	
	④ 쇼핑을 한다	6,614	3.2	816	0.4	7,430	1.4	
	⑤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한다	7,106	3.5	2,418	1.2	9,524	1.8	
	⑥ 술을 마신다	5,821	2.8	8,599	4.2	14,420	2.7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⑦ 자녀에게 화풀이를 한다	1,522	0.7	181	0.1	1,703	0.3
	⑧ 친구 또는 지인에게 이야기 한다	32,690	15.9	4,125	2.0	36,815	6.8
	⑨ 전문가와 상담한다	1,317	0.6	156	0.1	1,473	0.3
	⑩ 종교활동을 한다	3,669	1.8	570	0.3	4,239	0.8
	⑪ 기타	938	0.5	415	0.2	1,353	0.3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운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104-106, pp.357-360.

- 다음으로 가정 내에서 결정권은 대체로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고양시 및 전국기준 모두 ‘부부 공동’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5-66] 가정에서의 결정권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녀에 대한 교육	고양시	① 항상 본인	28	11.9	10	7.1	38	10.1
		② 대체로 본인	50	21.2	8	5.7	58	15.4
		③ 부부 공동	104	44.1	79	56.0	183	48.5
		④ 대체로 배우자	12	5.1	28	19.9	40	10.6
		⑤ 항상 배우자	6	2.5	7	5.0	13	3.4
		무응답	36	15.3	9	6.4	45	11.9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① 항상 본인	13,564	9.8	6,123	4.4	19,687	7.1
		② 대체로 본인	29,328	21.1	22,890	16.6	52,218	18.9
		③ 부부 공동	68,983	49.7	71,794	52.1	140,777	50.9
		④ 대체로 배우자	21,027	15.2	28,651	20.8	49,678	18.0
		⑤ 항상 배우자	4,630	3.3	7,176	5.2	11,806	4.3
		⑥ 가구원 중 다른사람	1,230	0.9	1,036	0.8	2,266	0.8
		합계	138,761	100.0	137,669	100.0	276,430	100.0
본인 부모님에 대한 지원	고양시	① 항상 본인	26	11.0	17	12.1	43	11.4
		② 대체로 본인	41	17.4	34	24.1	75	19.9
		③ 부부 공동	96	40.7	59	41.8	155	41.1
		④ 대체로 배우자	24	10.2	8	5.7	32	8.5
		⑤ 항상 배우자	16	6.8	7	5.0	23	6.1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생활용품 의 구매 (고가)		무응답	33	14.0	16	11.3	49	13.0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① 항상 본인	13,436	8.1	10,974	7.3	24,410	7.7
		② 대체로 본인	33,074	20.0	36,785	24.4	69,859	22.1
		③ 부부 공동	89,394	54.1	84,452	56.1	173,846	55.0
		④ 대체로 배우자	21,537	13.0	13,283	8.8	34,820	11.0
		⑤ 항상 배우자	6,374	3.9	3,978	2.6	10,352	3.3
		⑥ 가구원 중 다른사람	1,512	0.9	1,092	0.7	2,604	0.8
		합계	165,327	100.0	150,564	100.0	315,891	100.0
	고양시	① 항상 본인	29	12.3	14	9.9	43	11.4
		② 대체로 본인	46	19.5	18	12.8	64	17.0
		③ 부부 공동	112	47.5	75	53.2	187	49.6
		④ 대체로 배우자	19	8.1	24	17.0	43	11.4
		⑤ 항상 배우자	14	5.9	9	6.4	23	6.1
		무응답	16	6.8	1	0.7	17	4.5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① 항상 본인	11,573	5.6	12,697	6.2	24,270	5.9
		② 대체로 본인	18,112	8.8	33,642	16.3	51,754	12.6
		③ 부부 공동	128,391	62.4	131,772	64.0	260,163	63.2
		④ 대체로 배우자	33,380	16.2	18,989	9.2	52,369	12.7
		⑤ 항상 배우자	12,302	6.0	7,248	3.5	19,550	4.7
		⑥ 가구원 중 다른사람	2,129	1.0	1,538	0.7	3,667	0.9
		합계	205,887	100.0	205,887	100.0	411,774	100.0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116-121, pp.372-375.

- 가정 내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 수준을 비교하면, 고양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전국기준 보다 상대적으로 식사준비, 세탁 등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만,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 청소 부분에 있어서 전국기준 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부부 공동’이라는 응답이 나타났으나,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종합적으로 가사노동의 분담에 있어 부부 간의 인식 간극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5-67] 가사노동의 분담 정도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식사 준비	고양시	① 항상 본인	112	47.5	12	8.5	124	32.9
		② 대체로 본인	66	28.0	6	4.3	72	19.1
		③ 부부 공동	31	13.1	28	19.9	59	15.6
		④ 대체로 배우자	10	4.2	59	41.8	69	18.3
		⑤ 항상 배우자	6	2.5	35	24.8	41	10.9
		무응답	11	4.7	1	0.7	12	3.2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① 항상 본인	60,856	29.6	11,249	5.5	72,105	17.5
		② 대체로 본인	64,301	31.2	18,822	9.1	83,123	20.2
		③ 부부 공동	45,884	22.3	48,485	23.5	94,369	22.9
		④ 대체로 배우자	19,455	9.4	83,384	40.5	102,839	25.0
		⑤ 항상 배우자	6,653	3.2	36,180	17.6	42,833	10.4
		⑥ 가구원 중 다른사람	8,738	4.2	7,765	3.8	16,503	4.0
		합계	205,887	100.0	205,887	100.0	411,774	100.0
세탁	고양시	① 항상 본인	104	44.1	11	7.8	115	30.5
		② 대체로 본인	53	22.5	10	7.1	63	16.7
		③ 부부 공동	52	22.0	31	22.0	83	22.0
		④ 대체로 배우자	11	4.7	53	37.6	64	17.0
		⑤ 항상 배우자	5	2.1	35	24.8	40	10.6
		무응답	11	4.7	1	0.7	12	3.2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① 항상 본인	59,444	28.9	11,952	5.8	71,396	17.3
		② 대체로 본인	62,171	30.2	19,622	9.5	81,793	19.9
		③ 부부 공동	49,116	23.9	50,946	24.7	100,062	24.3
		④ 대체로 배우자	20,269	9.8	79,038	38.4	99,307	24.1
		⑤ 항상 배우자	7,765	3.8	37,640	18.3	45,405	11.0
		⑥ 가구원 중 다른사람	7,122	3.5	6,699	3.2	13,821	3.4
		합계	205,887	100.0	205,887	100.0	411,774	100.0
청소	고양시	① 항상 본인	88	37.3	11	7.8	99	26.3
		② 대체로 본인	65	27.5	11	7.8	76	20.2
		③ 부부 공동	56	23.7	48	34.0	104	27.6
		④ 대체로 배우자	12	5.1	45	31.9	57	15.1
		⑤ 항상 배우자	4	1.7	25	17.7	29	7.7
		무응답	11	4.7	1	0.7	12	3.2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국*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① 항상 본인	53,992	26.2	10,801	5.2	64,793	15.7
		② 대체로 본인	59,856	29.1	20,514	10.0	80,370	19.5
		③ 부부 공동	58,131	28.2	61,718	30.0	119,849	29.1
		④ 대체로 배우자	20,521	10.0	74,232	36.1	94,753	23.0
		⑤ 항상 배우자	6,583	3.2	32,103	15.6	38,686	9.4
		⑥ 가구원 중 다른사람	6,805	3.3	6,519	3.2	13,324	3.2
		합계	205,887	100.0	205,887	100.0	411,774	100.0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운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121-127, pp.375-379.

- 마지막으로 내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배우자가 원만한 한국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수준에 대한 응답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비교결과, 고양시의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모든 질문에서 전국기준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지원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인 배우자가 모국인 친구 또는 이주자 모임에 참여토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극도의 거부 의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표 5-68] 배우자(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한국생활에 대한 지원 수준

구분			빈도	백분율(%)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고양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9	6.4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	13.5
		③ 보통이다	57	40.4
		④ 대체로 그렇다	30	21.3
		⑤ 매우 그렇다	19	13.5
		무응답	7	5.0
		합계	141	100.0
	전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7,331	8.4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9,022	14.1
		③ 보통이다	47,901	23.3
		④ 대체로 그렇다	62,464	30.3
		⑤ 매우 그렇다	49,169	23.9
		합계	205,887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배우자가 동네 주민 등 한국인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양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5	3.5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	10.6
		③ 보통이다	62	44.0
		④ 대체로 그렇다	22	15.6
		⑤ 매우 그렇다	27	19.1
		무응답	10	7.1
		합계	141	100.0
	전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6,184	3.0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652	7.1
		③ 보통이다	46,236	22.5
		④ 대체로 그렇다	76,461	37.1
		⑤ 매우 그렇다	62,353	30.3
		무응답		
		합계	205,887	100.0
배우자가 자신의 모국인 친구나 이주자 모임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고양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0	14.2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40	28.4
		③ 보통이다	45	31.9
		④ 대체로 그렇다	14	9.9
		⑤ 매우 그렇다	15	10.6
		무응답	7	5.0
		합계	141	100.0
	전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7,627	3.7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479	8.5
		③ 보통이다	48,576	23.6
		④ 대체로 그렇다	72,423	35.2
		⑤ 매우 그렇다	59,782	29.0
		무응답		
		합계	205,887	100.0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 378-382.

### 3) 자녀양육

-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모든 질문에서 고양시보다 전국기준이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고양시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전국기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표 5-69]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수준

구분		집단	Mean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다룬다	고양시	결혼이민자	3.43
		배우자	3.37

구분		집단	Mean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전국	결혼이민자	3.89
		배우자	3.68
	고양시	결혼이민자	3.44
		배우자	3.33
	전국	결혼이민자	3.69
		배우자	3.51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고양시	결혼이민자	3.69
		배우자	3.41
	전국	결혼이민자	3.91
		배우자	3.60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130-137, pp.385-388.

- 다문화자녀 중 6세에서 만 24세의 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고양시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업,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전국기준에서는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다만, 전국기준에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에는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업,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음

[표 5-70]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중복응답)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양시	① 자녀에게 드는 비용	97	20.6	52	18.4	149	19.8
	② 자녀의 학업,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	100	21.2	53	18.8	153	20.3
	③ 자녀와의 대화 부족	36	7.6	22	7.8	58	7.7
	④ 학부모회 등 학부모활동 참여 어려움	21	4.4	21	7.4	42	5.6
	⑤ 게임, 스마트폰 등 자녀와의 갈등	57	12.1	32	11.3	89	11.8
	⑥ 자녀의 음주, 흡연, 가출 등의 문제	1	0.2	0	0.0	1	0.1
	⑦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	5	1.1	3	1.1	8	1.1
	⑧ 기타	6	1.3	5	1.8	11	1.5
	⑨ 어려움 없음	12	2.5	17	6.0	29	3.8
	무응답	137	29.0	77	27.3	214	28.4
	합계	472	100.0	282	100.0	754	100.0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국*	① 자녀에게 드는 비용	38,954	40.9	33,257	35.0	72,211	29.2
	② 자녀의 학업,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	44,863	47.1	21,223	22.3	66,086	26.8
	③ 자녀와의 대화 부족	15,574	16.3	9,125	9.6	24,699	10.0
	④ 학부모회 등 학부모활동 참여 어려움	14,174	14.9	4,978	5.2	19,152	7.8
	⑤ 게임, 스마트폰 등 자녀와의 갈등	23,884	25.1	10,839	11.4	34,723	14.1
	⑥ 자녀의 음주, 흡연, 가출 등의 문제	400	0.4	100	0.1	500	0.2
	⑦ 학교 선생님과과의 상담	-	-	-	-	-	-
	⑧ 기타	1,753	1.8	760	0.8	2,513	1.0
	⑨ 어려움 없음	12,222	12.8	14,794	100.0	27,016	10.9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문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142-147, pp.393-401.

#### 4) 사회생활

- 결혼민자 및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실력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국기준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고양시에서는 듣기를 제외하고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보통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표 5-기] 한국어 실력 수준(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구분			빈도	백분율(%)
말하기	고양시	① 전혀 못한다	3	1.3
		② 별로 못한다	34	14.4
		③ 보통이다	101	42.8
		④ 약간 잘한다	69	29.2
		⑤ 매우 잘한다	29	12.3
		무응답	0	0.0
		합계	236	100.0
	전국*	① 전혀 못한다	1,642	0.6
		② 별로 못한다	26,879	9.6
		③ 보통이다	69,411	24.8
		④ 약간 잘한다	67,820	24.2
		⑤ 매우 잘한다	114,269	40.8
		합계	280,020	100.0
듣기	고양시	① 전혀 못한다	1	0.4
		② 별로 못한다	29	12.3

구분			빈도	백분율(%)
읽기		③ 보통이다	102	43.2
		④ 약간 잘한다	73	30.9
		⑤ 매우 잘한다	30	12.7
		무응답	1	0.4
		합계	236	100.0
	전국*	① 전혀 못한다	1,475	0.5
		② 별로 못한다	20,070	7.2
		③ 보통이다	65,655	23.4
		④ 약간 잘한다	72,746	26.0
		⑤ 매우 잘한다	120,073	42.9
		합계	280,020	100.0
	고양시	① 전혀 못한다	1	0.4
		② 별로 못한다	25	10.6
		③ 보통이다	110	46.6
		④ 약간 잘한다	69	29.2
		⑤ 매우 잘한다	31	13.1
		무응답	0	0.0
		합계	236	100.0
	전국*	① 전혀 못한다	4,556	1.6
		② 별로 못한다	31,433	11.2
		③ 보통이다	68,686	24.5
		④ 약간 잘한다	65,978	23.6
		⑤ 매우 잘한다	109,367	39.1
		합계	280,020	100.0
쓰기	고양시	① 전혀 못한다	6	2.5
		② 별로 못한다	51	21.6
		③ 보통이다	110	46.6
		④ 약간 잘한다	49	20.8
		⑤ 매우 잘한다	20	8.5
		무응답	0	0.0
		합계	236	100.0
	전국*	① 전혀 못한다	6,579	2.3
		② 별로 못한다	47,004	16.8
		③ 보통이다	72,538	25.9
		④ 약간 잘한다	55,528	19.8
		⑤ 매우 잘한다	98,371	35.1
		합계	280,020	100.0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 172-174.

-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응시 경험 및 등급을 질문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응시 경험에 있어 전국기준보다 고양시가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등급에서는 4등급의 비중이 양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5-72] 한국어 능력시험 경험 유무 및 등급(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구분			빈도	백분율(%)
능력시험 응시 경험	고양시	① 있다	59	25.0
		② 없다	165	69.9
		무응답	12	5.1
		합계	236	100.0
	전국*	① 있다	57,045	20.4
		② 없다	222,975	79.6
		합계	280,020	100.0
능력시험 등급	고양시	① 1급	6	2.5
		② 2급	4	1.7
		③ 3급	9	3.8
		④ 4급	19	8.1
		⑤ 5급	12	5.1
		⑥ 6급	7	3.0
		⑦ 등급 없음	2	0.8
		무응답	177	75.0
		합계	236	100.0
	전국*	① 1급	5,449	9.6
		② 2급	8,293	14.5
		③ 3급	8,030	14.1
		④ 4급	8,631	15.1
		⑤ 5급	8,177	14.3
		⑥ 6급	6,706	11.8
		⑦ 등급 없음	11,759	20.6
		합계	57,045	100.0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운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 175-180.

-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고양시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및 교육’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기준으로는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음
- 다음 순으로 고양시는 ‘외로움’과 ‘언어 문제’ 등을 어려워하였으나, 전국기준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등으로 확인되었음



[표 5-73]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구분		빈도	백분율(%)	
한국생활 에서의 어려움	고양시	① 외로움	57	24.2
		② 가족 간의 갈등	16	6.8
		③ 자녀양육 및 교육	65	27.5
		④ 은행, 마트, 시청 등 기관 이용	6	2.5
		⑤ 경제적 어려움	21	8.9
		⑥ 언어 문제	49	20.8
		⑦ 음식, 관습 등 문화차이	5	2.1
		⑧ 편견과 차별	6	2.5
		⑨ 기타	0	0.0
		⑩ 없음	7	3.0
		무응답	4	1.7
		합계	236	100.0
	전국*	① 외로움	67,421	24.1
		② 가족 간의 갈등	22,530	8.0
		③ 자녀양육 및 교육	53,255	19.0
		④ 은행, 마트, 시청 등 기관 이용	17,436	6.2
		⑤ 경제적 어려움	73,341	26.2
		⑥ 언어 문제	62,317	22.3
		⑦ 음식, 관습 등 문화차이	52,666	18.8
		⑧ 편견과 차별	20,840	7.4
		⑨ 친구 사귀기	19,742	7.1
		⑩ 기타	3,066	1.1
		⑪ 없음	83,659	29.9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 180~183.

## 5) 경제활동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유무 및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전국기준의 경우에는 88.6%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양시의 경우에는 52.5%가 구직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취업활동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경우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전국기준으로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 이러한 결과, 고양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에는 여타 지역에 비해 취업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표 5-74] 취업활동 유무 및 어려운 점(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구분			빈도	백분율(%)
취업 활동 유무	고양시	① 있다	124	52.5
		② 없다	101	42.8
		무응답	11	4.7
		합계	236	100.0
	전국*	① 있다	10,704	11.4
		② 없다	83,266	88.6
		합계	93,970	100.0
취업 활동시  어려운 부분	고양시	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45	19.1
		② 가족을 돌보아야 해서	28	11.9
		③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22	9.3
		④ 집 근처에 일자리가 없어서	7	3.0
		⑤ 모국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4	1.7
		⑥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몰라서	2	0.8
		⑦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서	4	1.7
		⑧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1	0.4
		⑨ 기타	4	1.7
		⑩ 어려움 없음	7	3.0
		무응답	112	47.5
		합계	236	100.0
	전국* (중복)	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1,786	16.7
		② 가족을 돌보아야 해서	2,457	23.0
		③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4,608	43.0
		④ 집 근처에 일자리가 없어서	3,639	34.0
		⑤ 모국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663	6.2
		⑥ 한국에서의 경력이 부족해서	1,673	15.6
		⑦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몰라서	2,763	25.8
		⑧ 외국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873	8.2
		⑨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241	2.3
		⑩ 기타	668	6.2
		⑪ 어려움 없음	675	6.3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 242-246.

## 6) 기타사항

- 내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활용하는 언어에 대한 인식을 측정·비교하면, 전국기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배우자의 언어 활용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전국기준과 고양시 모두 배우자의 모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만한 부부생활 및 가정생활 등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됨

[표 5-75] 가족들과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배우자)

구분		N	Mean
나는 배우자가 자신의 나라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고양시	134	3.23
	전국*	188,233	3.08
나는 자녀가 배우자 나라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고양시	131	3.38
	전국*	145,170	3.16
나는 배우자 나라 말을 잘 한다	고양시	134	2.73
	전국*	180,515	2.05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 404-412.

-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의 현재 건강상태와 우울증세 경험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전국기준으로는 ‘건강하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고양시의 경우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
- 우울증세에 있어서도, 전국기준은 ‘전혀 없다’라는 응답이 72.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으나, 고양시의 경우에는 64.7%가 가끔 또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표 5-76] 현재 건강상태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현재 건강 상태	고양시	① 매우 나쁘다	0	0.0	2	1.4	2	0.5
		② 나쁜 편이다	13	5.5	8	5.7	21	5.6
		③ 보통이다	97	41.1	68	48.2	165	43.8
		④ 좋은 편이다	85	36.0	47	33.3	132	35.0
		⑤ 매우 좋다	32	13.6	14	9.9	46	12.2
		무응답	9	3.8	2	1.4	11	2.9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현재 우울 증세	전국*	① 매우 나쁘다	5,104	1.8	4,050	1.8	9,154	1.8
		② 나쁜 편이다	26,482	9.5	16,850	7.5	43,332	8.6
		③ 보통이다	58,527	20.9	50,416	22.5	108,943	21.6
		④ 좋은 편이다	119,370	42.6	104,755	46.9	224,125	44.5
		⑤ 매우 좋다	70,536	25.2	47,507	21.2	118,043	23.4
		합계	280,020	100.0	223,578	100.0	503,598	100.0
	고양시	① 전혀 없다	60	25.4	63	44.7	123	32.6
		② 가끔 있다	153	64.8	68	48.2	221	58.6
		③ 자주 있다	14	5.9	6	4.3	20	5.3
		④ 항상 그렇다	1	0.4	2	1.4	3	0.8
		무응답	8	3.4	2	1.4	10	2.7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① 전혀 없다	192,754	68.8	173,458	77.6	366,212	72.7
		② 가끔 있다	68,357	24.4	41,467	18.5	109,824	21.8
		③ 자주 있다	14,006	5.0	6,352	2.8	20,358	4.0
		④ 항상 그렇다	4,903	1.8	2,302	1.0	7,205	1.4
		합계	280,020	100.0	223,578	100.0	503,598	100.0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문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276-278, pp.454-457.

- 한편,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대상으로 병환이 발생되었으나,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및 원인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고양시의 경우, 전국기준 보다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주된 원인으로는 ‘일, 육아 등에 너무 바빠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음

[표 5-77] 병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유무(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구분			빈도	백분율(%)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고양시	① 있다	48	20.3
		② 없다	177	75.0
		무응답	11	4.7
		합계	236	100.0
	전국*	① 있다	32,311	11.5
		② 없다	247,709	88.5
		합계	280,020	100.0
병원에 가지 못한 사유	고양시	① 한국어를 못해서	13	5.5
		② 병원 접수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3	1.3
		③ 가까운 병원이 없어서	1	0.4

구분			빈도	백분율(%)
전국*		④ 일, 육아 등에 너무 바빠서	19	8.1
		⑤ 무슨 병원을 가야할지 몰라서	5	2.1
		⑥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7	3.0
		⑦ 기타	1	0.4
		무응답	187	79.2
		합계	236	100.0
	전국*	① 한국어를 못해서	3,877	12.0
		② 병원 접수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1,323	4.1
		③ 가까운 병원이 없어서	1,838	5.7
		④ 일, 육아 등에 너무 바빠서	13,557	42.0
		⑤ 무슨 병원을 가야할지 몰라서	1,419	4.4
		⑥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9,767	30.2
		⑦ 기타	530	1.6
		합계	32,311	100.0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 278-283.

- 마지막으로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을 비교한 결과, 고양시와 전국기준 모두 ‘만족한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불만족 한다’라는 응답이 고양시는 6.1%, 전국기준 10.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양시 다문화가족의 만족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5-78] 생활만족 수준

구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생활 만족 수준	고양시	① 매우 불만족	2	0.8	5	3.5	7	1.9
		② 약간 불만족	5	2.1	11	7.8	16	4.2
		③ 보통	71	30.1	43	30.5	114	30.2
		④ 대체로 만족	104	44.1	63	44.7	167	44.3
		⑤ 매우 만족	52	22.0	17	12.1	69	18.3
		무응답	2	0.8	2	1.4	4	1.1
		합계	236	100.0	141	100.0	377	100.0
	전국*	① 매우 불만족	4,402	1.6	3,369	1.5	7,771	1.5
		② 약간 불만족	25,427	9.1	18,847	8.4	44,274	8.8
		③ 보통	92,285	33.0	73,209	32.7	165,494	32.9
		④ 대체로 만족	91,627	32.7	73,593	32.9	165,220	32.8
		⑤ 매우 만족	66,279	23.7	54,560	24.4	120,839	24.0
		합계	280,020	100.0	223,578	100.0	503,598	100.0

\*전국 분석결과 출처 :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pp.283-286, pp.457-460.

## 제5절 심층면접(FGI) 분석결과

### 1. 심층면접(FGI) 응답자 특성

#### 1) 응답자 특성

- 고양시 다문화가족정책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정량분석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및 정책 욕구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심층면접(FGI)대상에 따라 분류한 각 집단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 모두 여성으로, 25세에서 45세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등 다양한 출신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 배우자의 경우 모두 남성으로, 38세에서 57세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 자녀의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한 아동 총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표 5-79] 심층면접(FGI) 응답자 특성

대상	사례	출신 국가	성별	연령
I 그룹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사례1	중국	여	37
	사례2	중국	여	45
	사례3	중국	여	41
	사례4	캄보디아	여	28
	사례5	중국	여	34
	사례6	베트남	여	35
	사례7	베트남	여	31
	사례8	일본	여	37
	사례9	캄보디아	여	31
	사례10	베트남	여	25
	사례11	중국	여	33
	사례12	중국	여	35

대상	사례	출신 국가	성별	연령
Ⅱ그룹 (배우자)	사례13	대한민국	남	43
	사례14	대한민국	남	45
	사례15	대한민국	남	48
	사례16	대한민국	남	48
	사례17	대한민국	남	54
	사례18	대한민국	남	38
	사례19	대한민국	남	47
	사례20	대한민국	남	55
	사례21	대한민국	남	48
	사례22	대한민국	남	44
	사례23	대한민국	남	52
	사례24	대한민국	남	45
	사례25	대한민국	남	48
	사례26	대한민국	남	41
Ⅲ그룹 (자녀)	사례27	중국+대한민국	남	6
	사례28	중국+대한민국	여	8

## 2. 심층면접(FGI) 분석 결과

### 1)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어려운 점

#### (1) 문화적 차이 및 초기적응 어려움

##### ○ 생활방식 및 문화양식 등에서 차이를 인식하고 있음

“한국 사람이랑 결혼생활을 한 적이 없으니까,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편견이 있었어요. 의견충돌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는 11년차니까 결국 사람별로 다르구나 하는걸 느껴요. 근데 살면서 문화차이를 많이 느끼긴 하죠. 와이프는 좀 있더라고요 문화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사례26, 배우자]

“아내가 15년 한국에서 생활한 상태에서 만나서 처음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언어도 완벽하게 구사하고 외국인인지 모를 정도로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살다보니 음식문

화나 생활문화에서 차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남녀가 다른 데서 오는 차이도 있고 그렇지.”[사례17, 배우자]

○ 한국어 구사 부족 및 한국생활 초기적응의 어려움

“한국어 잘 못해서 어려워요. 처음에 병원 갈 때도 어렵고 남편 같이 가야 해요.”

[사례9, 결혼이민자]

“처음에 힘들었어요. 말 잘 모르니까 힘들어요. 한국말 잘하면 어려움 없어요.”

[사례11, 결혼이민자]

(2) 사회적 고립감 및 공동체 주류문화 적응 어려움

○ 본국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회활동 및 커뮤니티 참여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낌

“한국사회에서 와이프가 생활하는 게 힘들구나 하는걸 느껴요. 와이프가 엄마들 커뮤니티에 들어가긴 해요. 거기서 상징적으로 운영회장 이런걸 시켜. 껌데기처럼. 그래놓고 실제로 역할은 없지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리고. 엄마들 사이에서 애들을 기반으로 생기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애들이 학교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커뮤니티에 끼기가 어렵죠. [사례26, 배우자]

“아내가 (공동체에 섞이려고) 초반엔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 한국 적응하고 하는 방향기였는데 그 어려운 와중에 그런 노력까지 같이 했죠.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더 이상 노력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적응하려는 노력을 아예 안하는 거지.”[사례14, 배우자]

“처음에 와서 너무 외로웠어요. 가족을 오래 못 봤어요. 한국말 잘 못하고 무서웠어요.” [사례2, 결혼이민자]”



### (3) 취업 및 구직활동에서의 어려움

#### ○ 고용환경 불안정 및 결혼이민자로서 구직활동 어려움

“(취업에서) 가장 취약한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결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외국인을 원하지 않죠. 한국어자격 있어도 면접 보고도 안 뽑아요.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취업정보를 봐도 대부분 공장이예요.”[사례15, 배우자]

“아내가 지금 세탁공장을 다녀요. 작년 11월부터 다녀서 곧 1년인데 고용계약서를 올해 봄에 써줬어요. 그마저도 1월 1일자로 써주고, 그리고 4대 보험 명목으로 월급을 뺐는데, 알아보니 신고를 안한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이민자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못했을텐데.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요.”  
[사례26, 배우자]

“필리핀에서 아내랑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아내가 한국 와서 국적취득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10년 가까이 준비했는데 고정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사례19, 배우자]

“중국에서 대학 나오고 의사로 일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인정 안해줘요. 이거 포기한만큼 다른 일을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하던 일이란 너무 달라요. 일자리 지원 필요해요.”[사례3, 결혼이민자]

### (4)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국적에 따라 사회적 편견이 있으며 일상에서 차별을 느끼기도 함

“(아내가) 국적취득을 했어요. 근데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100만원 정도예요. 말 어눌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차별이 심하고 인식이 그래요”[사례18, 배우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이 너무 좁아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시에서 부지를 알아봤다고 했어요. 근데 교육시설이나 학교, 운동시설과 달리 다문화가 들어가면 땅값이 떨어

진다고 근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사례13, 배우자]

“살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문화’하면 돈 주고 사오는 여자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옛날얘기죠. 연애하고 아내를 데려왔는데 한국 와서 그런 대접 받으면 진짜 화나요.”[사례 22, 배우자]

“다문화라는 얘길 하게 되면 선입견이 생겨요. 애들 데리고 어딜 가서 다문화다 이런 얘길 하거나 우리엄마 중국인이야 하면 재 중국인이야? 하는 눈들이 있죠”  
[사례24, 배우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문화가족 중에 결혼이민자가 유럽이나 미국같이 선진국 국가 사람 이면 대단하게 봐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더 낮은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무시하고 편견을 가져요. 만약에 애엄마가 영어 유창하게 하고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엄마들 커뮤니티에 당장 넣어줬겠지.”[사례15, 배우자]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지금은 살면서 크게 못 느껴요. 근데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 가면 다문화가정 애들에 대한 차별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례16, 배우자]

#### (5) 자녀양육 및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 부족

-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정보에 한정적으로 노출 되는 경우가 많음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연락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연락을 받게 돼요. 그렇다보니까 그냥 전화 와서 이거 있는데 할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선택적 폭도 좁고 생각할 시간도 적어요. 고민 좀 해볼게요 하면 선택순이라 지금 대답 안하면 못할 수도 있다고 하고.”[사례26, 배우자]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로 애들 키우는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자조)모임에서 여러 정보 나누고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이 모임 자체를 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알았어요.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사례16, 배우자]

“프로그램이 꽤 있어요. 근데 보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건지 뭔지 홍보가 제대로 안돼요. 그래서 했던 사람이 빨리 접수해서 또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례22, 배우자]

####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 협소

##### ○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대표적 공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소하다고 느낌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일산동구에 5층짜리 건물 중에 4층 한 층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프로그램하거나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에 너무 좁아요.”[사례13, 배우자]

“아내가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데 센터 위치가 너무 안좋아요. 그리고 혼자서 찾아가기도 어렵고.”[사례17, 배우자]

“센터 건물.. 지금 너무 좁아서 프로그램 할 수 없고 나빠요. 주차장도 없고. 불편해요”[사례9, 결혼이민자]

#### (7)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성·다양성 부족

##### ○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이 분절적이고 연속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녀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별로 더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느낌

“지금 애들에 대한 지원을 센터에서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랄수록 지원이 적어져요.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도움을 받는데 고학년 되면서 그 때가 오히려 사춘기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적은 현실이에요.”[사례22, 배우자]

“아이가 여섯 살인데 이중국적이다 보니 발음이 어눌해요. 한국어 교육을 받다가 기간이 지나서 다음 팀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말고 한 아이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사례17, 배우자]

“아이가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한국역사 프로그램 신청했어요. 그런데 기간 너무 짧고 한 번 하면 또 못 들어요. 애기가 더 하고 싶어했는데 한 번 끝나서 못한다고 했어요.”[사례5, 결혼이민자]

“초등학생 학습 지원이 있어서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방문학습이요. 근데 한 번으로는 효과 없어요. 더 길게 받고 싶어요.”[사례7, 결혼이민자]

“집에 오는 방문교육이 10개월밖에 없어서 더 길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짧아요.”  
[사례8, 결혼이민자]

## 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욕구

### (1)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성·다양성 확보

-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단발성인 경우가 많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이 제한적이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수집됨
-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대상 및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아이가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한국역사 프로그램 신청했어요. 그런데 기간 너무 짧고 한 번 하면 (다음 차수에) 또 못 들어요. 애기가 더 하고 싶어 했는데 한 번 끝나서 못한다고 했어요.”[사례5, 결혼이민자]

“초등학생 학습 지원이 있어서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방문학습이요. 근데 한 번으로는 효과 없어요. 더 길게 받고 싶어요.”[사례7, 결혼이민자]

“지금 애들에 대한 지원을 센터에서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랄수록 지원이 적어져요.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도움을 받는데 고학년 되면서 그 때가 오히려 사춘기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적은 현실이에요.”[사례22, 배우자]

“레고프로그램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뛰면서 하는 운동도, 여러 가지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도 있으면 좋겠고.”[사례27, 자녀]

## (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방법의 다변화

-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숙고할 기회가 부족하여 급하게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포함한 오프라인 소식지 제공 혹은 SNS 등 온라인 홍보채널 확보와 같이 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방법의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이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소식지를 보내준다든지 우편으로 전달해주면 미리 사전에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알아보고 해당되는 내용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음 분기 계획을 짜면 그거를 미리 안내해줘서 알아보고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적극적이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사례 26, 배우자]

“(아내가) 받고 싶어했던 서비스가 있긴 한데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산때 문인지 모르겠는데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남편한테 문자로 통보해주든가 아니면 SNS가입시켜서 정보 찾아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13, 배우자]

## (3)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 및 구직활동 지원서비스 강화

-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취업에서) 가장 취약한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결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외국인을 원하지 않죠. 한국어자격 있어도 면접 보고도 안 뽑아요.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취업정

보를 봐도 대부분 공장이에요.”[사례15, 배우자]

“외국사람이 원하는 직업 가지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돈 벌고 싶은데 일 안시켜줘요. 한국 사람한테만 일 줄 것 같아요.”[사례8, 결혼이민자]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젠데 축제하고 뭘 모임하고 이런 걸로 결혼이민자의 자존감을 높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자립이에요. 한국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거지.”[사례14, 배우자]

#### (4)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안 마련

- 결혼이민자의 일방적 동화를 통한 사회통합이 아닌 내국인과 이주민의 상호작용을 통한 융화적 접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적응뿐 아니라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꾀할 수 있음

“각 국가별로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그 중에 하나로 한국이 있는 거죠. 각 나라별 소모임에서 준비를 해서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면 좋죠. 각 국가별 전통의상, 음식, 전통놀이, 전통춤 이런 걸 각 부스별로 준비하고, 돌아다니면서 각 국가관에서 전통의상 입고 기념사진 찍어주고, 그 중 하나로 한국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각 국가별로 하고, 이거랑 별도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도 있는 거예요. 그림그리기, 캐리커처, 만들기 같은 것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내국인,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한마당인거죠. 국가별로 올림픽처럼 국기 들고 선수들이 입장해서 팀을 섞어서 짜서 체육활동도 하고.”[사례14, 배우자]

“내국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좋죠. 재밌잖아요. 다른 여러 나라 전통 의상도 입어보고 문화체험도 하고.”[사례19, 배우자]

## (5) 자국 고유의 문화 향유를 위한 기회 마련

- 고국을 떠난 결혼이민자가 자국 고유의 문화를 잊지 않고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내국인의 경우 다문화체험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아내가) 중국인이잖아요. 근데 거주지가 한국이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고 그러다보니 중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애들이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삶으로 와 닿지가 않는데, 중국의 명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센터에서 상징적인 행사나 아니면 그냥 기념품을 준다거나 뭐 예를 들면 월병같은 것. 그러면 그 나라의 명절을 기릴 수 있고 문화를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사례26, 배우자]

“국가별로 각 나라의 명절을 행사화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죠. 저희는 추석에 캠핑을 갔어요. 아마 가족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행사를 하면 참여하고 같이 기릴 수 있을 것 같아요.”[사례20, 배우자]

## (6) 한국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사회 초기정착에서의 어려움, 정착 후 사회적 고립감, 부족한 사회적지지, 문화차이 등에 의한 가족갈등 등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큰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정신보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여기서 생활하는 거 어렵고..그래서 상담같은거 받고 싶었어요. 여기 살면서 어려운 점 심리상담 해주는 선생님 있으면 좋겠어요.”[사례11, 결혼이민자]

“처음에 와서 너무 외로웠어요. 가족을 오래 못 봤어요. 한국말 잘 못하고 무서웠어요.”  
[사례2, 결혼이민자]

## (7)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전문성 강화

- 결혼이민자의 원활한 한국 초기 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와서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한국어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 자질이나 교육내용이나 전문성이 떨어져요.[사례26, 배우자]”

“한국어 배울 때 잘 모르겠는 거 물어보면 (선생님이) 대충 대답해요. 대답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사례12, 결혼이민자]”

## (8)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관련 프로그램 제공

- 다문화가족의 경우 자녀가 혼혈, 혹은 자국에서 이주해온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한 자녀양육 관련 지원이 필요함

“사실 어릴 때는 다문화가 뭐라는 걸 잘 모르다가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우리엄마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집에서 부모가 애길 해주긴 하지만 컸을 때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나 여건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사례13, 배우자]



## 제 6 장

#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 제절 연구 결과의 요약

- 앞서 제5장에서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심층면접(FGI)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더불어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와 고양시의 설문결과를 비교·분석한 바,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요약

- 고양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원서비스’ 요인에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수혜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서비스별 수혜 빈도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정보의 수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되고, 취업교육 및 알선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특히, 고양시 관내 공공기관 및 시설의 이용 경험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수혜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정보의 빈약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며, 개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높다고 인식하나, 만족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내용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요인에서 다문화가족 부부는 서로 문화적 차이점을 느끼지는

않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편이며, 성격차이 등을 주된 이유로 다툼은 편임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기타 동거 중인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 결정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나,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내국인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생활을 원만히 영위 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양육’ 요인에서 부부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자녀와의 관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자녀 돌봄에 있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대응하나, 5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체력적·경제적 어려움이 많고, 6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는 학업, 진로 등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됨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사회생활’요인에서는 한국어 실력이 그리 높지 않아 한국생활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과 언어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나, 한국어 능력 시험을 응시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와 모임 등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지 않아 거주지 중심의 지역공동체에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동화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경제활동’요인에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취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너무 긴 노동시간, 낮은 보수수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리고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 인접한 일자리를 필요로 하나, 구직활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일반사항’ 요인에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들은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하는데 일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소 우울증세로 인한 고통이 있으나, 현재 고양시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아 지속적인 거주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부 관대한 모습을 보이나, 본인들은 관심이 없으며, 현재 고양시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수준은 높은 편이나, 소수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2. 심층면접(FGI) 결과 요약

- 첫째,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와 내국인 배우자 간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어 구사의 부족으로 상호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그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초기적응에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 둘째, 이민국의 주류문화에 순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본국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회활동 및 커뮤니티 참여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음
  - － 특히,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국적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셋째, 만족스러운 한국생활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고용환경의 불안정성과 내국인과의 차별, 본국에서의 경력 및 지식수준 등을 고려치 않는 노동환경 등의 문제들로 인해 단순 노무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
- 넷째, 자녀양육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다문화 자녀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데 한계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함
-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잊지 않고 향유하면서 이민국인 한국의 주류문화에 통합되기 위한 다양한 통로와 기회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함

### 3. 전국기준과 고양시의 비교분석 요약

- 고양시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 결과를 2018년에 진행된 전국기준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고양시의 다문화가족은 전국기준과 비교하여 지원서비스 수혜비율이 높은 편이며, 개별 서비스에서는 ‘임산·출산 지원’과 ‘각종 상담’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의 수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출산 및 가족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의 질적·양적 수혜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 다음으로 고양시 다문화가족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 이루어진 사례가 가장 많으며, 전국기준에서도 친구 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다문화가족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의 수정이 요구됨
- 한편, 다문화 부부간의 관계에서 고양시 및 전국기준 모두 성격차이 등을 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를 하고 있으며, 이후 자녀양육은 대부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전담하고 있으나,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개선이 필요함
  - 특히, 부부관계에서 고양시의 경우에는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전국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잠재적 가정불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지원이 요구됨
  - 더불어 가정 내에서의 결정권부분에 있어 전국기준과 유사하게 부부공동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정작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전국기준에 비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전담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원만한 한국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기준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가정생활에 대한 배우자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고양시 내에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여타 다른 지역의 거주자 보다 상대적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한 수

요 인식이 긍정적이고, 특히 지역사회에 온전히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한국어 역량 및 양질의 일자리, 다양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한 곤란함을 겪고 있음

## 제2절 정책 제언

-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분석과 설문조사, 심층면접(FGI), 전국기준과 고양시 간의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욕구수준 비교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첫째,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부처 간 명확한 기능 조정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참여 중앙행정기관이 중복되어 있어 양자 간의 명확한 역할정리가 요구됨
  - 첨언하면, 기능정리의 기본 방향은 정책수혜자 대상별 및 적응수준별, 동화수준별로 체계화하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임
- 둘째,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분야의 정부 간 관계 재정립이 필요함
  - 중앙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그에 따른 중·장기적 국가경쟁력 저하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의 접근 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욕구수준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시행이 요구됨
  -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의 우수 인재 유치, 다양한 가족공동체 회복 및 내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전국의 지원 서비스 질적 형평성 제고 등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지방단위에서는 수준별 언어 및 문화체험 교육, 지역공동체への 참여 경로 다양화, 지역단위의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지역경제 참여 주체로의 유도,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 기회 제공 등 지역단위에서의 실질적이고 욕구



수준별 맞춤형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이 필요함

- 셋째, 고양시 수준에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의 균형이 주요함
  - 현행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외국인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지정·운영되고 있어 다문화가족 외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미한 상황임
  - 더불어, 두 센터 모두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 법인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소규모임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효과적이고 폭넓은 대응이 쉽지 않음
  - 따라서 지원 정책의 응집성, 두 센터 간의 시너지 효과 확보 등을 위해서는 외국인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설 및 공간이 물리적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지원 정책의 지속성 및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규모 이상의 독립적 공간 확보가 요구됨
  - 또한, 고양시의 지역적 공간의 규모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족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접근성 확보, 그리고 지역공동체로의 점진적 통합을 위해 39개 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을 위한 공간을 공유토록 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개별적 특성과 거주 기간, 적응수준, 동화수준 등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 정책이 요구되며, 정보의 사각지대 해소와 가족공동체 회복, 다양한 취업교육 및 알선, 심리상담, 그리고 중도입국자녀를 비롯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함
- 넷째, 고양시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개 일반구청, 39개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역할의 연계화가 요구됨
  - 고양시청은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정보 사각지대 개선 등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의 정책을 수행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실질

적인 욕구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공급하며, 3개 일반구청과 39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혼인신고, 개명신고,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일반 행정업무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음

- 더불어 39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사회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지역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고,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공유와 전문성을 토대로 직·간접적인 서비스 생산 또는 공급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정치적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이 주요함

-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기적 실태 및 욕구조사와 더불어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 수용성 조사가 반드시 요구되며, 성과평가체계를 통해 매년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연도별 계획과 평가결과가 연동될 수 있도록 피드백(feed back)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이와 함께 정책수혜자들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현실적인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고문헌

- 강기정·변미희(2010).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 비교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3) : 37-51.
- 권정미(2017). 『사회통합을 위한 수원시 다문화가족 정책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김근홍 외(2014). 『경기도 다문화 가족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과 지원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경기도청·강남대학교.
- 김상민 외(2017).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이혼을 저감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영란 외(2012). 『지역특성별(도농, 도농복합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모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유경 외(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선 외(2018).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심층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외(2018).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인(2018).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의 이주사회 적응전략: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4) : 67-292.
- 김준식·안광현(201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연구』, 12(4) : 127-150.
- 김태원·김유리(2011).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Castles and Miller의 모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62 : 323-362.
- 김형렬(2013). “한국의 다문화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68 : 115-136.
- 김형렬(1993). 『정책학』, 서울: 법문사.
- 김혜순 외(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대통령자문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보고서.
- 김혜영(2014).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정책 이념과 정책의 탈구”, 『여성연구』, 87(2) : 7-43.
- 문성은·방은령(2012). “충청남도의 결혼이민자 현황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한국지리행정정보』, 26(3) : 359-384.
- 박대식 외(2018).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진경(20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9(3) : 259-289.
- 박진경·원숙연(2010).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회보』, 44(3) : 191-217.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제74회 국정과제회의.
- 송지현·이태영(201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분석”, 『사회복지정책』, 39(3) : 151-179.
- 여성가족부(2010).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2).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2).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2013).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2014).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2015).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2016).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2017).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2019).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 여성가족위원회(2007). 『혼혈인·이주민·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국회.
- 외국인정책위원회(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년 ~ 2012년)』.
- 오경석(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제1장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울아카데미.
- 외국인정책위원회(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년 ~ 2017년)』.
- 외국인정책위원회(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 ~ 2022년)』.
- 이광석 외(2014). 『다문화행정론』, 서울: 조명문화사.
- 이로마·장서영(2010). “다문화 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 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1) : 179-208.
- 전성훈·구찬동(2013). “지방공무원의 승진만족도가 조직 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4) : 113-144.
- 정장영·정순관(2014).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지방정부연구』, 17(4) : 121-142.
- 조석주·박지영(2012).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영민 외(2009).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 최윤정 외(2017).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 최윤정 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 195-243.

- 한건수(2012). “통합과 분열의 기로에 선 한국의 다문화 정책”, 『지식의 지평』, 13 : 64-88.
- 한승준(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 : 463-486.
- 황정미(2011). “다문화사회와 ‘이주어머니’”, 『아시아여성연구』, 51(2) : 103-142.
- 홍기원(2009).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23(3) : 169-189.
- Adler, Paul S. & Seok-Woo Kwon. *Social Capital: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rick L. Lesser(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 and Application*, (Butterworth-Heinemann), 2000.
- Berry, J.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1997, 46(1) : 5-34.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 in the Modern World*, 3rd, (New York: Guilford Press), 2003.
- Coleman, Jame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88, 94 : 94-121.
- Jary, D. & J. Jary. *The HarperCollins Dictionary of Sociology*, 1991.
- Kymlicka, W. *Multicultural Citizenship*, 1995.
- Lin, Na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Taylor, C.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 an essa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Troper, H. *Multiculturalism in Paul Robet Magocsci(ed)*.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9.
- Tylor, E. B.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1974.
- Vertovec, S. “Multiculturalism, Culturalism and Public Incorpo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1996, 19(1) : 49-69.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 처우법)
-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여성가족부(2018).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혼인·이혼통계』(통계청).

여성가족부(2018).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외국인주민현황조사』(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2018).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교육통계』(교육부).

여성가족부(2018).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통계청).

여성가족부(2018).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법무부).

통계청(2016).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시/군/구)”, 『인구총조사』.

통계청(2017).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시/군/구)”, 『인구총조사』.

통계청(2017). “연령 및 성별 다문화가구원”, 『인구총조사』.

통계청(2017). “성 및 현재 국적별 외국인”, 『인구총조사』.

행정안전부(2016). “부모의 국적별 외국인주민”,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2017). “부모의 국적별 외국인주민”,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2017). “부모의 국적별 외국인주민 자녀(시/도)”,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2016).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2017).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2016).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2017).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2007-2017).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검색일 : 2019.08.30.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검색일 : 2019.09.11.





부록

설문지



## [부록 1] 설문지(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 고양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2019년 8월

연구기관 : 고 양 시 정 연 구 원

조사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사대상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고양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자원을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9 고양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08년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오니**, 조사기간 중에 **조사원**이 귀택을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9조(벌칙)**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됩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II.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 II-1.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응답	세부 질문
① 배우자 있음 (사실혼 포함)	①-1.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 ① 예(II-2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주말부부 등)(①-2번 문항으로) ①-2.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    ) ① 있다(III-1번 문항으로)      ② 없다(IV-1번 문항으로)
② 배우자 사망	②-1. 배우자는 언제 사망하셨습니다? (    ) ① 1년 전    ② 3년 전    ③ 5년 전    ④ 10년 전    ⑤ 10년 이상 ②-2.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    ) ① 있다(III-1번 문항으로)      ② 없다(IV-1번 문항으로)
③ 이혼 또 는 별거	③-1. 이혼 또는 별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외도 등의 애정문제      ② 성격차이 ③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④ 경제적 문제 ⑤ 자녀문제      ⑥ 배우자의 학대·폭력 ⑦ 배우자의 음주·도박      ⑧ 배우자의 가출 ⑨ 기타(    ) ③-2. 이혼 또는 별거 후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    ) ① 본인(③-3번 문항으로)    ② 배우자(③-4번 문항으로)    ③ 자녀 없음(IV-1번 문항으로) ③-3. 귀하는 이혼 또는 별거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까? (    ) ① 받고 있음(III-1번 문항으로)    ② 받고 있지 않음(III-1번 문항으로) ③-4. 귀하는 이혼 또는 별거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까? (    ) ① 주고 있음      ② 주고 있지 않음 ③-5. 귀하는 자녀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락하고 있습니까? (    ) 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②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③ 만나지는 않고, 전화 또는 편지 등으로만 하고 있다. ④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고 있다. ⑤ 만나지도 않고, 소식도 모른다. (IV-1번 문항으로)

II-2. 귀하는 하루에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

- ① 전혀 없다.                      ② 30분 미만                      ③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II-3. 귀하는 다음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은 어떻습니까?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① 배우자					
② 배우자의 부모					
③ 배우자의 친척					
④ 본인의 부모					
⑤ 자녀					
⑥ 기타 동거 중인 가족					

II-4. 귀 가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누가 결정합니까?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항상 본인	대체로 본인	부부 공동	대체로 배우자	항상 배우자
① 자녀에 대한 훈육					
② 자녀에 대한 교육					
③ 배우자 부모님에 대한 지원(경제적 등)					
④ 본인 부모님에 대한 지원(경제적 등)					
⑤ 생활용품의 구매					
⑥ 기타 가정일					

II-5. 귀 가정에서는 다음의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합니까?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항상 본인	대체로 본인	부부 함께	대체로 배우자	항상 배우자
① 식사준비					
② 식사 후 뒤처리					
③ 세탁					
④ 세탁 후 옷 정리					
⑤ 집안 청소					

II-6. 배우자와 함께 생활한 기간(동거 포함)은 어느 정도 입니까? ( )

- ① 3년 미만      ② 3년 ~ 5년 미만      ③ 5년 ~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II-7. 귀하는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 )

- ①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      ② 친구 또는 지인의 소개로  
 ③ 종교 기관을 통해서      ④ 결혼중개업체(중개업자)를 통해서  
 ⑤ 자유로운 연애      ⑥ 기타( )

II-8. 귀하는 배우자와 생활하면서 다음의 문화적 차이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전혀 없다	가끔 있다	보통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① 음식 등의 식습관					
② 의복 등 옷 입는 습관					
③ 자녀 양육 방식					
④ 가사분담 방식					
⑤ 부모 부양 방식					
⑥ 가족행사 등 가족 의례					
⑦ 종교생활					
⑧ 저축, 소비, 돈 관리 등 경제생활					
⑨ 대화 등 의사소통방식					

II-9. 귀하는 배우자와 최근 다툼 경험이 있습니까? ( )

- ① 있다(II-10번 문항으로)      ② 없다(II-12번 문항으로)

II-10. 귀하는 배우자와 얼마나 자주 다투십니까? ( )

- ① 월 1회 이내      ② 월 2회 이내      ③ 월 3회 이내      ④ 월 4회 이상



II-11. 귀하는 최근 배우자와 다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성격차이                 | ② 배우자 가족(친척 포함)과의 갈등 |
| ③ 본인 가족(친척 포함)과의 갈등    | ④ 문화, 종교, 가치관 차이     |
| ⑤ 언어 소통의 어려움           | ⑥ 외도 문제              |
| ⑦ 자녀의 교육 및 훈육          | ⑧ 폭언 또는 폭행 등 학대      |
| ⑨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 ⑩ 음주 문제              |
| ⑪ 나에 대한 심한 의심(외출 제한 등) | ⑫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       |
| ⑬ 기타( )                |                      |

II-12. 귀하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 , )

(주로 하는 행동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그냥 참고 이해한다        | ②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 |
| ③ 쇼핑을 한다            | ④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한다 |
| ⑤ 술을 마신다            | ⑥ 자녀에게 화풀이를 한다  |
| ⑦ 친구 또는 지인에게 이야기 한다 | ⑧ 전문가와 상담한다     |
| ⑨ 종교활동을 한다          | ⑩ 집을 나간다(가출)    |
| ⑪ 기타( )             |                 |





#### IV. 사회생활

IV-1.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전혀 못한다	조금 못한다	보통	약간 잘한다	매우 잘한다
① 한국어 말하기					
② 한국어 듣기					
③ 한국어 읽기					
④ 한국어 쓰기					

IV-2. 한국어 능력시험(TOPIK)에 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세부 질문
① 한국어 능력시험 경험 유무	①-1. 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1번 문항으로 ) ② 없다( ②-3번 문항으로 )
②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생각	②-1. 시험 결과, 귀하의 등급은 무엇입니까? (     )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등급 없음( ②-2번 문항으로 ) ( ① ~ ⑥ 선택 → IV-3번 문항으로 ) ②-2. 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을 계속 볼 생각하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3. 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을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IV-3.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
|-----------------|--------------------------|
| ① 외로움           | ② 가족 간의 갈등               |
| ③ 자녀양육 및 교육     | ④ 은행, 마트, 시청, 구청 등 기관 이용 |
| ⑤ 경제적 어려움       | ⑥ 언어 문제                  |
| ⑦ 음식, 관습 등 문화차이 | ⑧ 편견과 차별                 |
| ⑨ 기타 (     )    | ⑩ 없음                     |

IV-4.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 다
① 나는 대한민국을 신뢰한다.					
② 나는 고양시를 신뢰한다.					
③ 나는 다문화가족센터, 이민자통합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고양시 내 지원기관을 신뢰한다.					
④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서로 신뢰한다고 생각한다.					
⑤ 나는 밤늦게 외출해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⑥ 나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					
⑦ 나는 내가 거주하는 동네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⑧ 나는 동네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⑨ 나는 동네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한다.					
⑩ 나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준다.					
⑪ 나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때 보답을 생각하지 않는다.					
⑫ 나는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보답을 한다.					
⑬ 나는 이웃들과 자주 만난다.					
⑭ 나는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⑮ 나는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과 협력한다.					
⑯ 나는 우리 동네 모임(부녀회, 반상회, 학부모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⑰ 나는 우리 동네 모임(부녀회, 반상회, 학부모 모임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믿는다.					
⑱ 나는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 V. 경제활동

V-1. 귀하는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    )

- ① 그렇다( V-2번 문항으로 )                      ② 그렇지 않다( V-7번 문항으로 )

V-2. 귀하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일터)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① 가족이 운영하는 직장                      ②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직장  
③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직장                      ④ 기타(                      )

( ① 선택 → V-3번 문항으로, ② ~ ④ 선택 → V-4번 문항으로 )

V-3. 귀하는 가족이 운영하는 직장(일터)에서 보수(월급 등)를 받고 있습니까? (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V-4. 귀하는 현재의 직장(일터)을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    )

- ①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                      ② 모국인 친구의 소개  
③ 한국인 친구의 소개                      ④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의 소개  
⑤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⑥ 신문, 전단지 등을 통해서  
⑦ 본인이 직접 창업                      ⑧ 기타(                      )

V-5. 귀하가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렵다                      ② 일이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  
③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④ 돈을 너무 조금 받는다  
⑤ 상사나 동료의 무섭다                      ⑥ 외국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⑦ 기타(                      )                      ⑧ 어려움이 없다

V-6. 귀하가 직장(일터)에서 받는 월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 ① 50만원 미만         | ② 50만 ~ 100만원 미만  |
| ③ 100만 ~ 150만원 미만 | ④ 150만 ~ 200만원 미만 |
| ⑤ 200만 ~ 250만원 미만 | ⑥ 250만 ~ 300만원 미만 |
| ⑦ 300만원 이상        | ⑧ 월급이 없었음         |

V-7. 귀하(직장(일터))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

- |                   |                    |
|-------------------|--------------------|
| ① 있다( V-8번 문항으로 ) | ② 없다( VI-1번 문항으로 ) |
|-------------------|--------------------|

V-8. 귀하가 직장(일터)을 찾을 때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순서대로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
|--------------------|-----------------------|
| 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 ② 가족(자녀, 부모)을 돌보아야 해서 |
| ③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 ④ 집 근처에 일자리가 없어서      |
| ⑤ 모국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 ⑥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몰라서     |
| ⑦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서  | ⑧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
| ⑨ 기타( )            | ⑩ 어려움 없음              |





VI-6. 귀하는 아팠을 때 병원을 가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 )

- ① 있다( VI-7문항으로 )                      ② 없다( VI-8번 문항으로 )

VI-7. 귀하가 병원에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한국어를 못해서                      ② 병원 접수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③ 가까운 병원이 없어서              ④ 일, 육아 등에 너무 바빠서  
 ⑤ 무슨 병원을 가야할지 몰라서      ⑥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⑦ 기타( )

VI-8. 귀하의 현재 고양시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 )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약간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VI-9. 귀하가 현재 고양시에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직장(일터)이 있어서              ② 자녀의 교육 때문에  
 ③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④ 교통이 편리해서  
 ⑤ 문화자원이 많아서              ⑥ 다문화관련 지원서비스가 좋아서  
 ⑦ 자연환경이 좋아서              ⑧ 가족(배우자 등)의 뜻에 따라서  
 ⑨ 이웃들이 좋아서              ⑩ 기타( )

VI-10. 귀하는 앞으로도 고양시에서 계속 생활할 생각이십니까? (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 ② 선택 → VI-11번 문항으로, ①, ③ 선택 → VI-12번 문항으로 )



## [부록 2] 설문지(배우자)

### 【 고양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2019년 8월

연구기관 : 고 양 시 정 연 구 원

조사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사대상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고양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9 고양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08년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오니**, 조사기간 중에 **조사원**이 귀택을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9조(벌칙)**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됩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II.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 II-1.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응답	세부 질문
① 배우자 있음 (사실혼 포함)	①-1.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 ① 예(II-2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주말부부 등)(①-2번 문항으로) ①-2.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    ) ① 있다(III-1번 문항으로)      ② 없다(IV-1번 문항으로)
② 배우자 사망	②-1. 배우자는 언제 사망하셨습니다? (    ) ① 1년 전    ② 3년 전    ③ 5년 전    ④ 10년 전    ⑤ 10년 이상 ②-2.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    ) ① 있다(III-1번 문항으로)      ② 없다(IV-1번 문항으로)
③ 이혼 또는 별거	③-1. 이혼 또는 별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외도 등의 애정문제      ② 성격차이 ③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④ 경제적 문제 ⑤ 자녀문제      ⑥ 배우자의 학대·폭력 ⑦ 배우자의 음주·도박      ⑧ 배우자의 가출 ⑨ 기타(    ) ③-2. 이혼 또는 별거 후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    ) ① 본인(③-3번 문항으로)    ② 배우자(③-4번 문항으로)    ③ 자녀 없음(IV-1번 문항으로) ③-3. 귀하는 이혼 또는 별거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까? (    ) ① 받고 있음(III-1번 문항으로)    ② 받고 있지 않음(III-1번 문항으로) ③-4. 귀하는 이혼 또는 별거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까? (    ) ① 주고 있음      ② 주고 있지 않음 ③-5. 귀하는 자녀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락하고 있습니까? (    ) 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②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③ 만나지는 않고, 전화 또는 편지 등으로만 하고 있다. ④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고 있다. ⑤ 만나지도 않고, 소식도 모른다. (IV-1번 문항으로)

II-2. 귀하는 하루에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

- ① 전혀 없다.                      ② 30분 미만                      ③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II-3. 귀하는 다음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은 어떻습니까?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① 배우자					
② 배우자의 부모					
③ 배우자의 친척					
④ 본인의 부모					
⑤ 자녀					
⑥ 기타 동거 중인 가족					

II-4. 귀하는 배우자의 한국생활과 관련해 다음의 사항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② 배우자가 동네 주민 등 한국인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③ 배우자가 자신의 모국인 친구나 이주자 모임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④ 배우자가 한국에서 직장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II-9. 귀하는 배우자와 생활하면서 다음의 문화적 차이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전혀 없다	가끔 있다	보통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① 음식 등의 식습관					
② 의복 등 옷 입는 습관					
③ 자녀 양육 방식					
④ 가사분담 방식					
⑤ 부모 부양 방식					
⑥ 가족행사 등 가족 의례					
⑦ 종교생활					
⑧ 저축, 소비, 돈 관리 등 경제생활					
⑨ 대화 등 의사소통방식					

II-10. 귀하는 배우자와 최근 다툼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II-11번 문항으로)

② 없다(II-13으로 이동)

II-11. 귀하는 배우자와 얼마나 자주 다투십니까? ( )

① 월 1회 이내      ② 월 2회 이내      ③ 월 3회 이내      ④ 월 4회 이상

II-12. 귀하는 최근 배우자와 다툼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성격차이              | ② 배우자 가족(친척 포함)과의 갈등 |
| ③ 본인 가족(친척 포함)과의 갈등 | ④ 문화, 종교, 가치관 차이     |
| ⑤ 언어 소통의 어려움        | ⑥ 외도 문제              |
| ⑦ 자녀의 교육 및 훈육       | ⑧ 폭언 또는 폭행 등 학대      |
| ⑨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 ⑩ 음주 문제              |

- ⑪ 나에 대한 심한 의심(외출 제한 등)    ⑫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  
⑬ 기타( )

II-13. 귀하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 , )

(주로 하는 행동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그냥 참고 이해한다       | ②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 |
| ③ 쇼핑을 한다           | ④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한다 |
| ⑤ 술을 마신다           | ⑥ 자녀에게 화풀이를 한다  |
| ⑦ 친구 또는 지인에게 이야기한다 | ⑧ 전문가와 상담한다     |
| ⑨ 종교활동을 한다         | ⑩ 집을 나간다(가출)    |
| ⑪ 기타( )            |                 |





## VI. 기타 일반사항

IV-1. 평소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배우자가 자신의 나라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② 자녀가 배우자 나라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③ 배우자 나라 말을 잘 한다					
④ 배우자 나라 말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IV-2.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IV-3. 귀하는 생활이 힘들 정도로 우울하거나 슬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

- ① 전혀 없다            ② 가끔 있다            ③ 자주 있다            ④ 항상 그렇다

IV-4. 귀하의 현재 고양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약간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 Abstract

###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and needs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in Goyang City

Sunghun Jeon\*, Eunji O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re data to establish a mid to long term master plan through the needs survey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Goyang 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First, clear functio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systems among government ministries should be established. A virtuous cycle system that is formed by a triad of ministries—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GE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HW)—is a system categorized by subject, adaptation level and assimilation level;

Second,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f support policies for foreigners, including multicultural families. The government should attract human resources, restore diverse family communities, enhance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nd the equity of support services. Local governments should implement language and cultural experience education in different levels, diversifying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local communities, spreading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inducing them into local economic player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ocial integration between locals and foreigners;

Third, the balance of hardware and software support policies is important. The

---

\*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physical integration of facilities at the Multicultural Family and Foreign Residents Support Center is necessary. Software support policies should provide recovery of the family community, clearing blind-spots of information, job training and recruitment, customized service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Fourth, it is necessary to link roles and establish a cooperative network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Goyang City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MFSC). Goyang City should carry out comprehensive and macro policies such as enhance the multiculturalism acceptance, clearing blind spots of information, in the local community. MFSC should provide customized support services based on the actual of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District Office and the Community Center should establish data on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course of administrative work, such as marriage registration, transfer of resident registration, change of name, birth registration;

Finall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mid to long term master pla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gularly review the actual conditions and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addi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urveys are required for Goyang citizens.